建築士

KOREAN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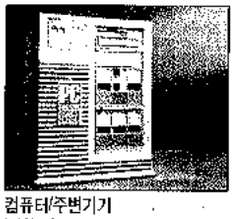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 4월호 통권 324호

월간 건축사 1996년 4월호 통권 324호(매월 5일 발행)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29일 등록번호 · (사)라 - 26 1983년 12월31일 제2종우편물인가

현재의 건축을 생각합니다!

미래의 건축CAD를 생각합니다.

■ 하드웨어판매



컴퓨터/주변기기
NETWORK

■ 소프트웨어판매

2D/3D/모델링
ANIMATION S/W

■ A/S 및 유지보수

신뢰.성실 A/S
최신정보/기술지원

■ 건설컴퓨터학원

건축실무위주의
CAD교육 / 실무자양성

■ 건축CAD기술연구소

건축/건설/토목관련
S/W개발, 용역

■ 건축CG연구소

건축 Presentation 전문
건축 CAD/CG 전문용역

고객감동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건축CAD전문회사로 성장해온 건케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개척자 정신으로 다가오는 21세기의 건축 CAD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국제화 · 개방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그동안 700여 건축설계사무소 전산화를 경험으로 젊은 패기와 땀과 노력으로 국내 최초 건축 CAD전문회사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외길만을 고집합니다.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4-2 풍원빌딩 4층
대표전화: (02)584-6480 FAX. 587-1803

■ 건축CAD기술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7-5 청산빌딩 6층
대표전화: (02)598-1486 FAX. 598-1487

■ 건축CG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
대표전화: (02) 597-6933 FAX. 521-3002

■ 건설컴퓨터학원 (CAD CLUB)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7-5 청산빌딩 5층
대표전화: (02) 598-2226 FAX. 597-1487

건축과 컴퓨터와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주) 건 케 드

코로바서비스 080-900-6480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반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깹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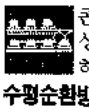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 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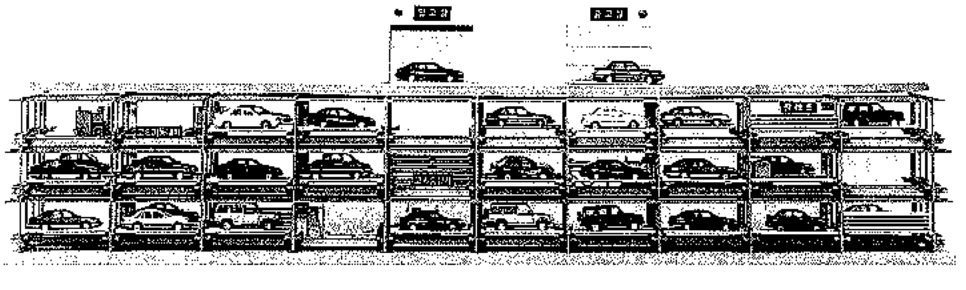
다층순환방식



콘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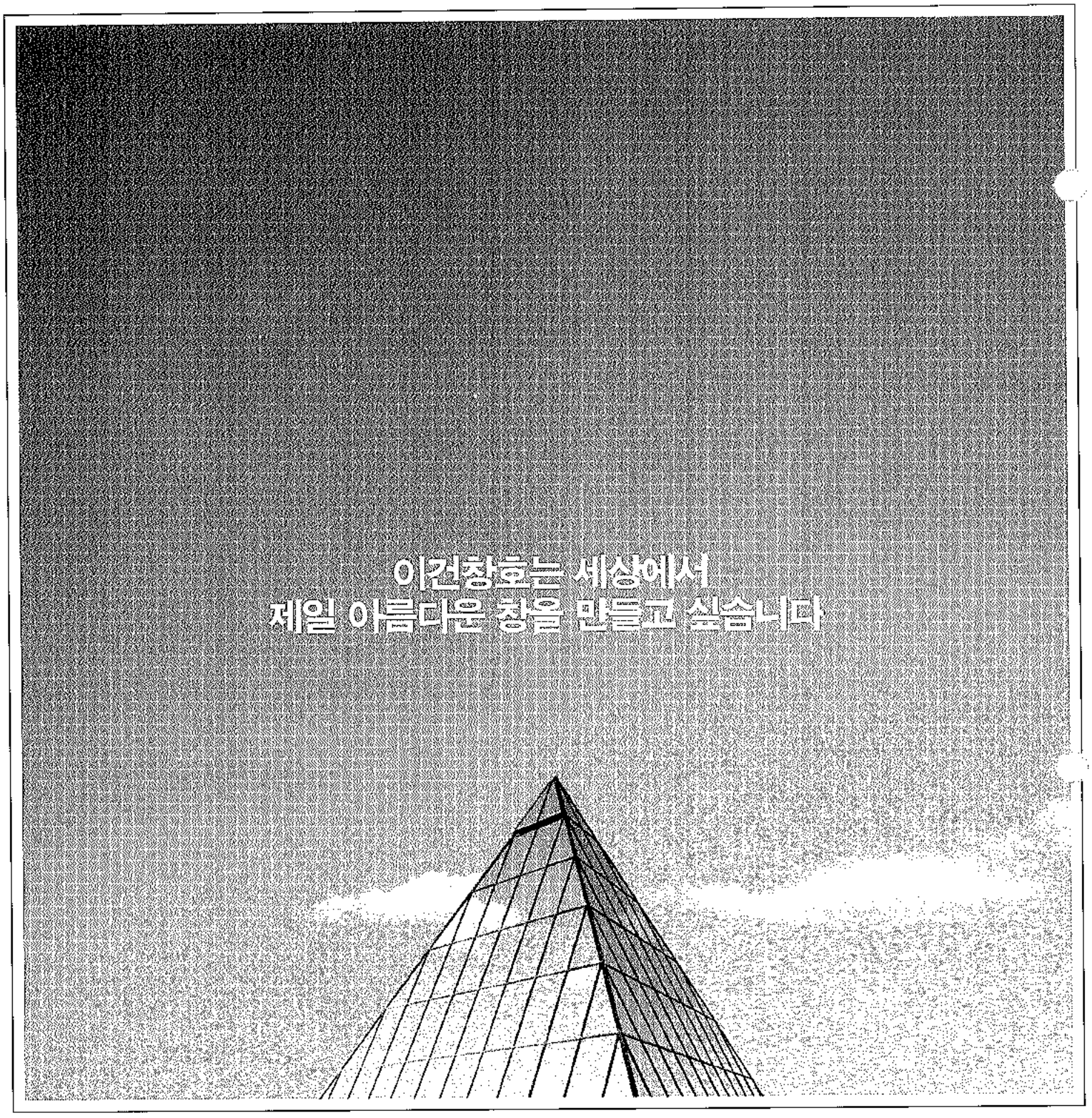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SAMSUNG

삼성중공업

■ 영업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4 동성빌딩 5층 (02)561-9414~6, FAX.(02)561-8918 ●창원공장 : (0551)60-6755~6, FAX.(0551)60-6620 ●부산지점 : (051)811-1266~73, FAX.(051)811-1274
●대구지점 : (053)742-8870~2, FAX.(053)742-8873 ●광주지점 : (062)366-2177~9, FAX.(062)366-3990 ●대전지점 : (042)625-8815~8, FAX.(042)625-8067
●전주영업소 : (0652)241-4743~4, FAX.(0652)241-4745 ●제주영업소 : (064)42-0222, FAX.(064)42-7073



이건 FACADE SK60으로 시공된
독일의 스카이라이트 컨스트럭션
(SKYLIGHT CONSTRUCTION)
최고급 커튼월(CURTAIN WALL)로서,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형물입니다.

창은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삭막함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창이 없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캄캄한 무덤과도 같을 것입니다.
도시의 창은 하늘의 푸른 빛을
반사시키고, 구름의 느린 움직임, 찬란한 햇볕을
우리의 가슴속에 남기웁니다.
도시에서 희망을 느끼는 것은 아름다운
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창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창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건창호는 아름다운 '창'을 만듭니다.
기능적으로 완벽한 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는 창.
이건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건이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이건창호는 고객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시장에 오시면 창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상담과 시스템 선정,
설계서비스, 그리고 견적서비스를 자세히 제공해드립니다.

독일 창호전문업체 - 슈코(SCHÜCO)사와 기술제휴

이건창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 전화 563-2071 · 팩스 563-5528
이건산업(주) · 이건산림제품(주) · 이건자원개발(주)
FORESTAL LAUTARO S.A.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5-18호

방화제품안전 FILK 품질시험연구소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에스코트 AF

에스코트 AF는
환경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획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또는 마감후의 분진문제해결은 물론
환경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 내화구조 지정내용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치올두께 (mm)		지정
		건축물용	플랜트용	
보 기둥	1시간	20	15	제 1995-18 호
	2시간	30		
	3시간	40		

에스코트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화사 (주)삼손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흡음단열, 내화피복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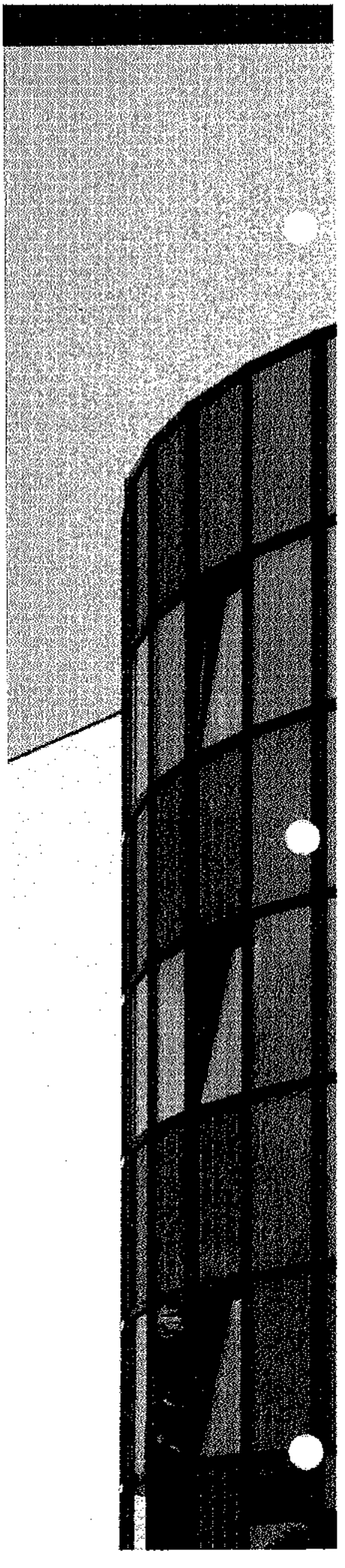
■ 분사식 흡음단열 마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업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손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TEL(02)563-8181 FAX(02)538-2589
영 업 부 : TEL(02)552-8181 FAX(02)552-6224
부산지점 : TEL(051)512-8181 FAX(051)516-9343
광주지점 : TEL(062)268-8181 FAX(062)268-8186

(주)중앙창호

본 사 · 공 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목 재 사 업 부 (032)571-7771 Fax 575-6655
건 가 구 사 업 부 (032)582-7771 Fax 571-7744
시스템창호사업부 (032)583-7771 Fax 571-7744
서 울 전 시 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린 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독일HARTMANN社의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SYSTER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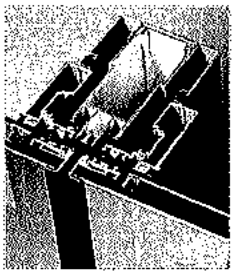
신감각

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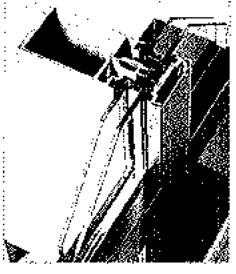
신미학

기술이 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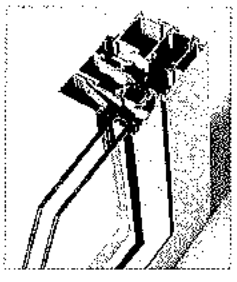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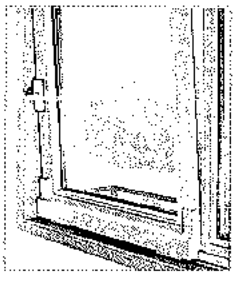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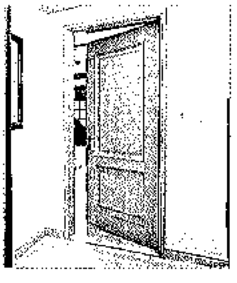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가구, 시스템키친도
생산합니다.

CINCAD V.6

건축설계 자동화프로그램

CINCAD V.6

주요 기능

- **도면 초기화**
  DCL을 보면서 Center, 열, Number, Column을 편집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Boubble 및 치수를 필요한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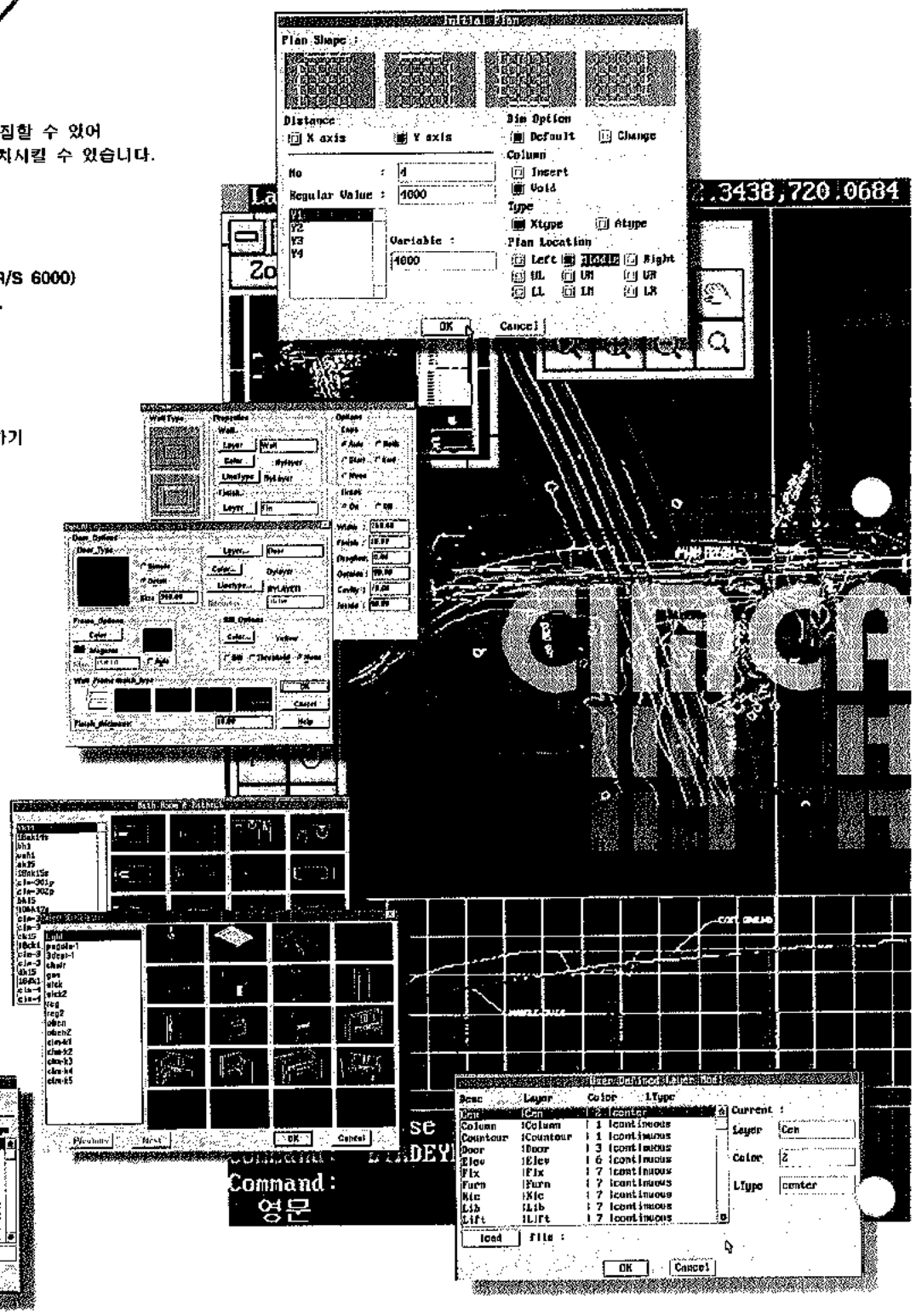
- **다양한 플랫폼 지원**
  AutoCAD R12, R13 DOS & Windows, AIX 4.1(R/S 6000)
  플랫폼을 함께 지원하므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Lisp에서 ADS로의 전환**
  기존의 Lisp에서 ADS로 전환하여
  속도의 최적화를 이루었으며 향후 버전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을 모듈화 하였습니다.

- **Wall, Door 기능의 향상**
  마감 동시 표현, 편집 기능이 보강되어
  Drawing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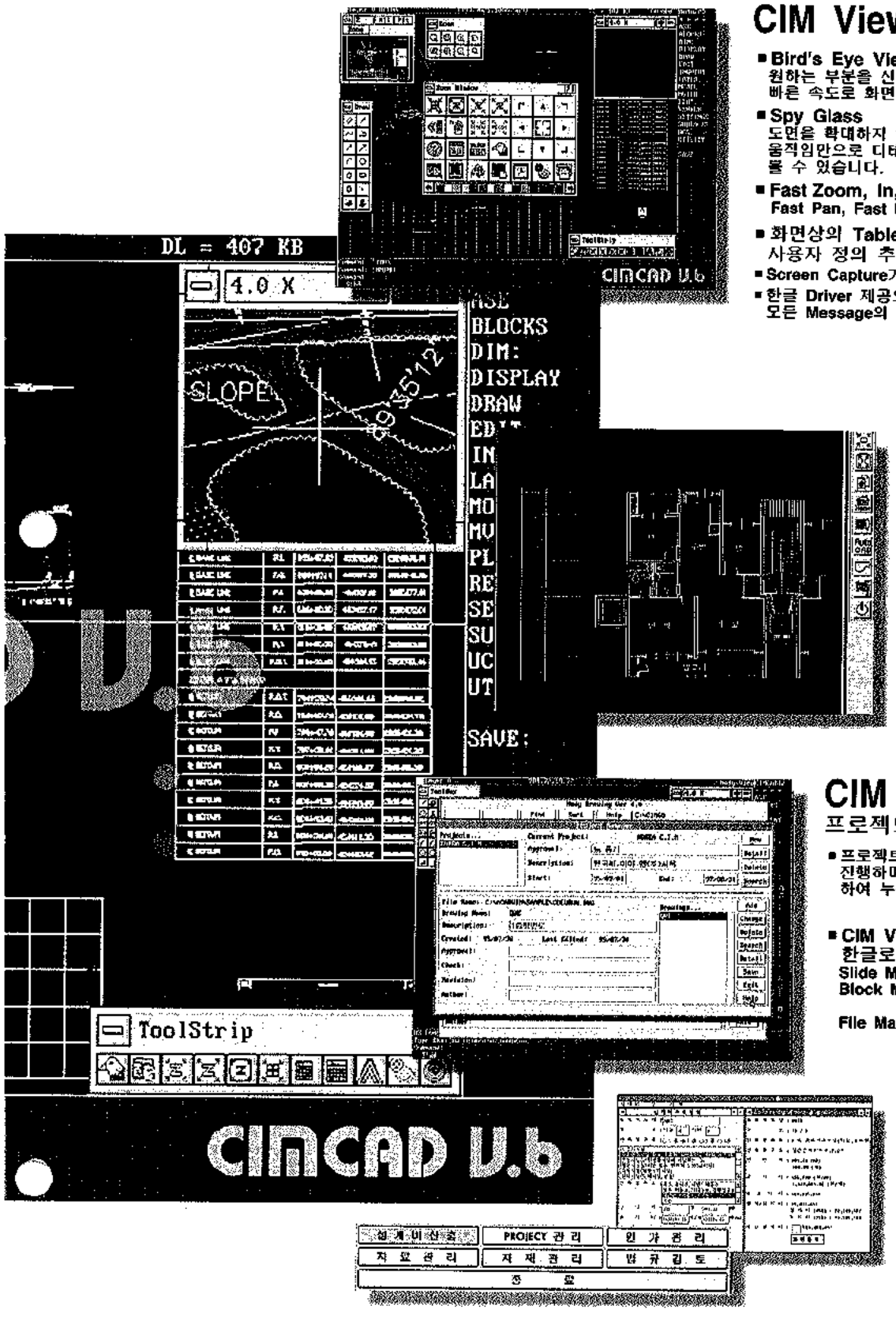
- **건축 Symbol 150여개 추가**
  건축 관련 Symbol을 정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ICON화 하였으며 600여개의
  Symbol 제공으로 건축 업무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자동 치수 기입**
  축선의 선택만으로 자동 치수 기입이
  완료됩니다.



함께 하는 기업 : 총판: (주)엔터 컴퓨터 시스템 (02)713-8885
서울 신경유통(주) 701-9581 / 부산 동성데이타 시스템(주) 051)462-0090 / 광주 대화시스템(주) 062)223-0006 / 대구 (주)나인시스템 053)555-7825 / 구미 태양컴퓨터시스템 054)463-0740

AutoCAD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설계자동화 프로그램 CIMCAD가 보다 나은 기능으로 Upgrade되어 여러분 앞에 선을 보입니다. 건축 실무진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수렴, 대폭 보강하였고 건축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 직관적인 작업의 흐름을 유도 하였으며 프로젝트 관리 및 도면 검색, 관리 기능과 실질적인 건축설계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보다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CIMCAD는 최적의 건축설계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CIM View AutoCAD Display Driver

- **Bird's Eye View**
  원하는 부분을 신속히 볼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화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 **Spy Glass**
  도면을 확대하지 않고 커서의 움직임만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 **Fast Zoom, In, Out, Fast Pan, Fast Redraw 기능**
- **화면상의 Tablet Menu를 제공하며 사용자 정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 **Screen Capture기능**
- **한글 Driver 제공으로 모든 Message의 한글 입출력 가능**

View Master

도면 검색 프로그램

- **DOS용과 ADS 버전을 함께 공급**
  - DOS 용 : AutoCAD 없이 도면 검색 가능
  - ADS 용 : 도면 검색 및 Insert, Xref 기능

CIM Drawing Manager

프로젝트 및 도면관리 프로그램

- 프로젝트 관리자 및 실무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들어지는 모든 도면을 Data Base화 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 **CIM View에서 한글 Driver를 설치했을 경우 한글로 Data Base 구축이 가능합니다.**
  Slide Manager - Library 구축에 필요한 Slide 관리
  Block Manager - 작업 중에 발생하는 Block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File Manager - 도면 File 및 모든 File을 복사, 삭제 등이 가능.

설계정보 프로그램

- **산출 내역**
  총 공사비 설계 감리비, 제안 용역비를 평과 ㎡로 자동 산출해 준다.
- **List의 Mouse만 클릭해 주면 건축물에 맞는 표준 평당 공사비가 입력, 계산**

CIM 한국사아아엘(주)
ARON (주) 아론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근동빌딩 3층
TEL : 515-3167(대), FAX : 515-3169

Autodesk Authorized Dealer · HEWLETT PACKARD · ORACLE · NOVELL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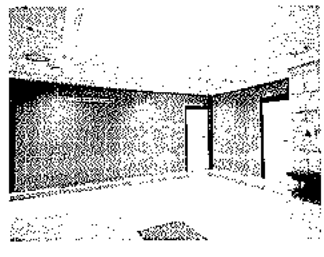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절대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시스템을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으로 통합했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등점
- 경방필 프라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얏트호텔
- 조선호텔
- 워커힐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外 100여 업체 시공

세계전시회 출품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4545(代)
FAX : 838-0474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사용환경
DOS 버전3.3 이상
AutoCAD R12이상
CD-ROM Drive
386급 이상의 IBM 호환기종
최소메모리 8MB이상
가격 : 70,000원, VAT별도
(CD-ROM 1장, A3 매뉴얼 1권)

아파트 평면도를 삼킨 CD

무려 120채의 아파트를 삼켜버렸습니다

AutoCAD Drawing Data File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모음집120선은 10평대에서 80평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120개를 선정하여 AutoCAD 도면화일로 CD에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아파트 설계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선정하여 치수표기, 실 면적표기, 건축요소에 따른 레이어설정, 색상등을 통일된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도면화일과 함께 Kfont한글유틸리티등을 제공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건설회사,컨설팅 회사,건축전공 학생등이 아파트,연립주택,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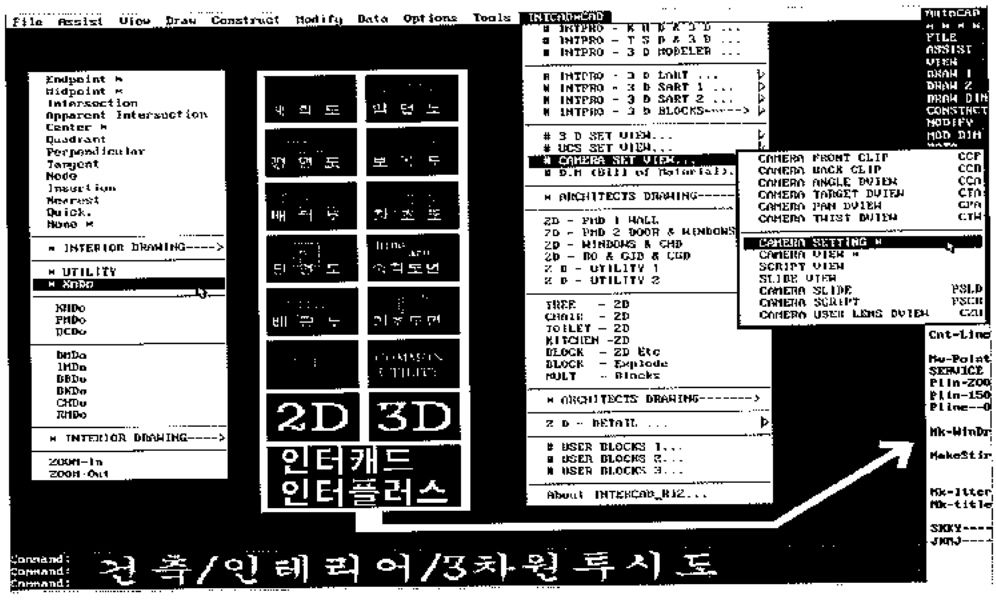
국내외 CAD/CAM/CG/GIS 솔루션을 한 곳에서 보실 수 있는 Autodesk Solution '96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시 : 1996년 4월9일(화)~10일(수)
•장소 : 호텔 롯데월드(잠실)3층 •주최 : (주)오토데스크 코리아

(주)청우시스템
02-587-5168/9

건축 법규가 내장된 국내 최초의 CAD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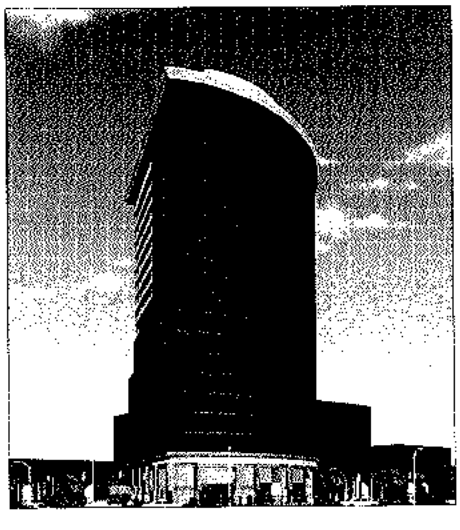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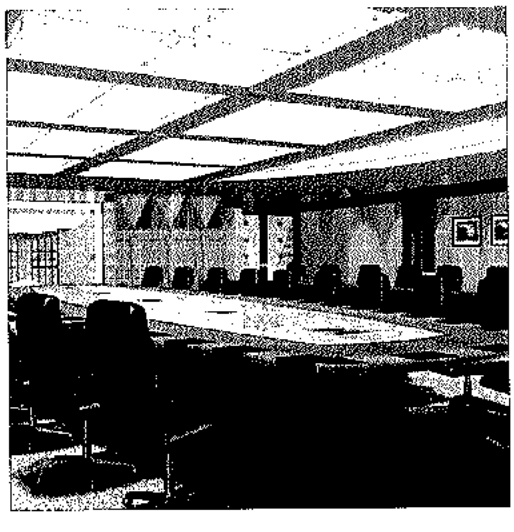


MEMO

잔소리가
필요한
회사는
전화주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 높이깊이 1. 빠르고 정확합니다.
- ◑ 높이깊이 2. 인공지능이 사용 되었습니다.
- ◑ 높이깊이 3. 설계사무소의 생산성 향상을 책임집니다.
- ◑ 높이깊이 4. 고정관념을 흔들어 줍니다.





인터캐드는 하루에...

지적도 계획도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창호도 구조도 보복도 배근도
3차원투시도 인테리어/익스테리어 투시도를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서 미팅을 하러 갑니다....

인터캐드 우)135-270
강남구 도곡동 552-3 한국빌딩 602호
TEL : 565-3270 · 교)3452-4734
FAX : 501-3054

능력있는 협력 업체를 모십니다.

◇ 인터캐드 영업품목

- 건축설계 프로그램(인터아키)
- 인테리어설계 프로그램(인터플러스)
- 인테리어견적 프로그램(인터큐)
- 블럭&메트리얼 3DS소스 라이브러리(건축 · 인테리어 샵)

한국통신 • 조달청 • 한일은행 • 대법원 • 도시개발공사 • 신한은행 • 한국마사회 • 제주시교육청 • 한국방송공사(KBS) • 인천지하철공사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 문화부 체육부 문화재관리국 • 엘지건설(주) • 임광토건(주) • 경향건설(주) • (주)금호엔지니어링 • (주)대우 • (주)미도파 건설 • 현대건설(주) • (주)삼성건설 • (주)인풍 • 삼환기업(주) • 대륙토건(주) • 동국산업(주) • 민안종합건설(주) • 남배종합건설(주) • 신태진 건설(주) • 명신건설(주) • 한광토건(주) • 한국이동통신 • 한국주택은행 • 중소기업은행 • 법무부 • 수[illegible]학교 • 중앙경리단 • 한국전력공사 • 동부교육청 • 체신청 • 청남대학교 • 한국교원대학 • (주)현대ENG • 삼성엔지니어링(주) • 신동아종합건설(주) • (주)삼익건설 • 현대산업개발(주) • LG화학연구소 • (주)삼환까뮤 • (주)프린스건설 • 쌍용건설(주) • 대국종합건설(주) • 두산건설(주) • 금호건설(주) • 삼풍건설(주) • 선경건설(주) • [illegible]본부 • 한국물가정보 • 공무원연[illegible]부 • 한국은행 • 농림수산부농업공[illegible]경관리공단 • 거양개발(주) • 삼한[illegible](주)대한생명 • 삼[illegible]합건설(주) • [illegible]토건(주) • ([illegible] • 조달청 • 한[illegible]철건설본부 • [illegible]사회 • 삼성건설[illegible]기산 • (주)명성기공 • 홍화공업([illegible] • (주)금호건설 • LG기공(주) [illegible]프종합건설(주) • 미주실업(주) [illegible] • 진로건설(주) • (주)건화엔지니어링 • 삼안종합기술공사 • (주)이공건축 • (주)청조건축 • 내외건축사사무소(주) • (주)서울건축 • 한국조형건축사사무소 • (주)건화엔지니어링 • (주)정일엔지니어링 • (주)[illegible]종합건축 • (주)덕산토건 • 동부건설(주) • (주)공간 • (주)대우 • (주)신우설계 • (주)자드환경건축 • 다솔건축사사무소(주) • (주)세[illegible]건축 • 이동호건축사사무소 • (주)POS-AC • 한국중공업(주) • 중앙[illegible](주) 내외종합건축사사) • (주)금성종합건축 • (주)동명기술공단 • (주)[illegible]합건축 • (주)[illegible]원종합건축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미래건축사사무소 • 서울환경건축사사무소 • (주)예종합건축사사무소 • 한보철강(주) • (주)애강 • 풍림토건(주)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 (주)건우종합[illegible] • (주)[illegible]기술단 • (주)범아종합건축 • (주)유양전기설계사무소 • (주)제일전기설계 • 거화종합건축사사무소 • 공간종합건축(주) • (주)임이건축 • 국양건축사사무소

정부시설공사 EMS-1,2,3,4 선정

지 속 적 인 UPGRADE

지속적인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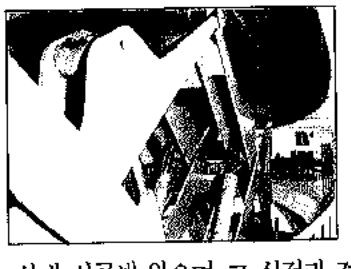
철저한 교육

● 내 역(도급,실행)
● 일 위 대 가
● 변 경 내 역
● 기 성 내 역
● 물가연동(품목,지수)
● 물량산출내역과연계

건설소프트웨어전문회사
KSB 고 려 전 산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9-5 한우빌딩 4층 TEL:529-6071~4,FAX:529-6075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쉐라톤워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과천시민회관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 · 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원주치악문화예술회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봉 센터 예술 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강원대학교
- 충북문화 예술회관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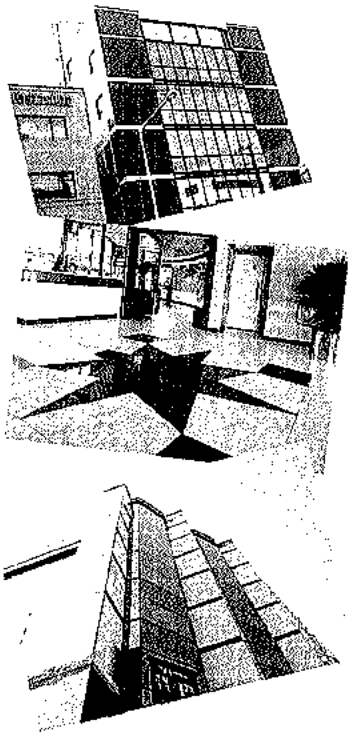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대림그룹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CCESS FLOOR 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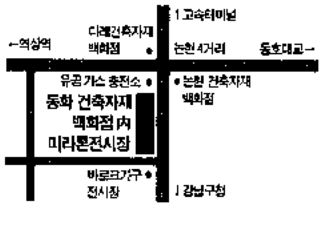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장점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두께 ; 12mm, 15mm, 20mm, 30mm
  크기 ;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씽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대림콩크리트공업주식회사
본사 : TEL (02)725-3501~9 공장 : TEL (0415)62-8101~4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콤퓨터식 보턴.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 **유 미 교 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옥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이제는 NEOLI사 제품입니다.

설계제도의 필수품 - 레터링 플로터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신제품

특별보급가 ₩1,540,000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한글 스크라이버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도면작업의 효율화를 이루고 설계도면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설계 · 제도용 OA기기 -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한글, 영문, 숫자, 기호 등의 레터링은 물론 각종 도형을 프로그램하여 저장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플로터가 복합된 첨단 레터링 플로터입니다. 또한 CAD와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NED-316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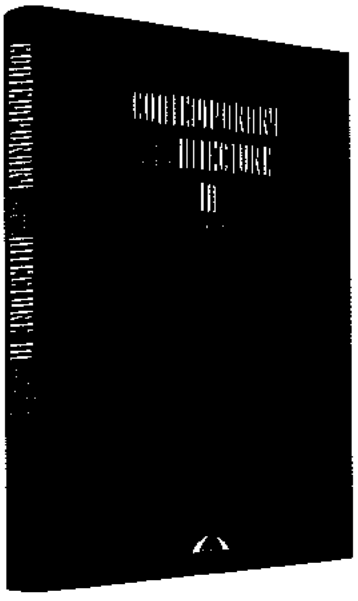
- 한글4가지, 영문 10가지 기본서체 내장
- 문자크기 최대40mm, 메모리 8000자로 확장
- 단축키 사용으로 간편한 조작

(주)삼아 테크시스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7 장흥빌딩

제품구입
A/S문의 (02) 515-3267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



발언에서 전세계 건축인들에게 아시아건축을 알린다.

- 영문본
- 대한건축사협회 지음
- Size : 235×310m/m 양장본
- 아시아 15개국의 83개 작품 수록
- 풍부한 화보, 도면, 해설(비평)
- 전세계 출판사 및 서점망을 통해 배포
- 가격 : 35,000원

아시아 15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빼어난 걸작 83개 작품에 대한 사진, 도면과 비평이 실려 있는 책이다.

이번 단행본에는 주로 아직 건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의 건축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그들 특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계획된 이색적인 것들이 눈에 띈다.

해설 또한 단순한 건물의 형상이나 디테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어쩌면 어렵기도 한 주제를 쉽게 서술한 점이 이책의 특징이다.

아시아 건축의 현재 모습을 파노라마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 건축의 질적 수준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필독서이다.

이책에는 한국건축으로 김종성, 김석철, 김원, 등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ARCASIA
가격: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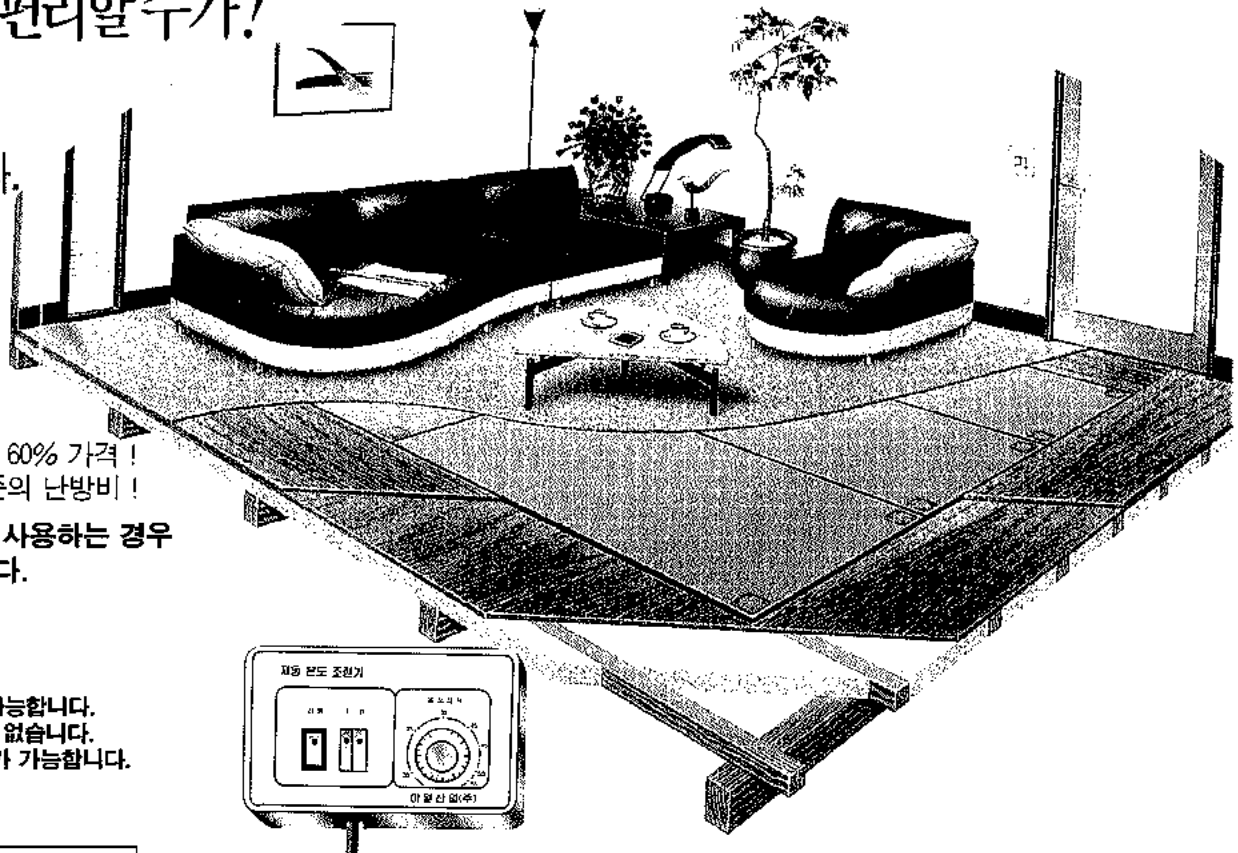
도서출판 발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3-4 아뜨레 B/D 3F TEL. 325-4472 FAX. 338-6662 회원을 모집합니다.

발언인 조형예술 전반에 관한 새 책을 만듭니다.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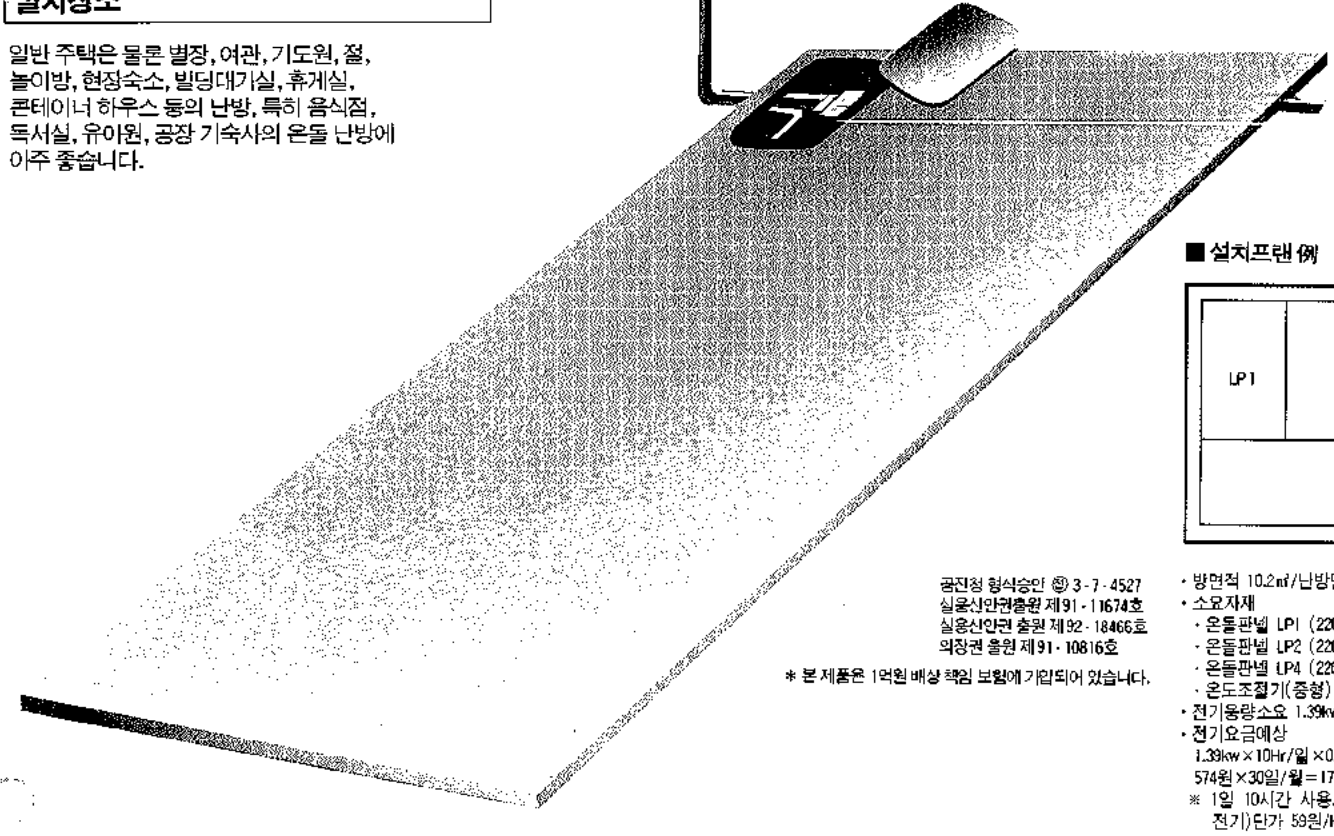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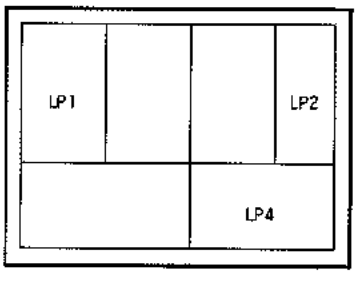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例



공진청 형식승인 ㉮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난방면적 7.5㎡/부설율 73.5%
- 소요자재
  - 온돌판넬 LP1 (220V/265W)×4장
  - 온돌판넬 LP2 (220V/135W)×1장
  - 온돌판넬 LP4 (220V/195W)×1장
  - 온도조절기(중형)×1대
- 전기용량소요 1.39kw
- 전기요금예상
  1.39kw×10Hr/일×0.7×59원/kwh=574원/일
  574원×30일/월=17,220원/월
  ※ 1일 10시간 사용, 통전율 70%, 전기요금(일반용 전기)단가 59원/kwh의 월간 전기요금임.

이일산업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트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 (042)253-57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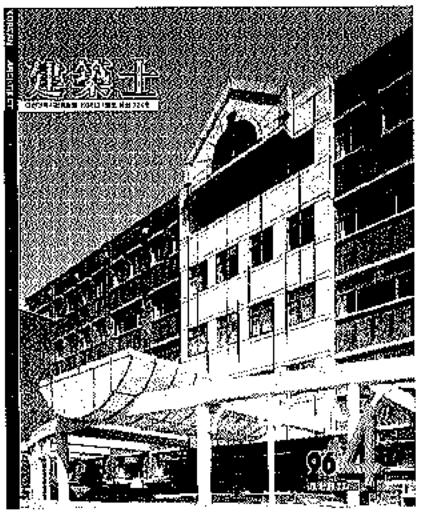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4월호 통권324호

발 행 인 : 김규태
편 집 기 획 : 편집위원회
위 원 장 : 조정상
위 원 : 방철린, 심영섭, 승효상, 원대연
편집 · 취재 : 사업부/양원석, 정호상, 조한국, 윤태일
발 행 처 :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 1965년10월23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 편 번 호 : 137-070
전 화 :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 (02)586-8823
등 록 번 호 : 서울 라-26(월간)
등 록 : 1967년 3월23일
U. D. C : 69/72(054-2) : 0612(519)
발 행 인 : 이봉수/정문사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Cho Jeong-Sang
Member : Bang Cheol-Rin, Shim Young-Seop, Seung Hchioh-Sang, Won Dai-Yun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23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사진 / 남춘천초등학교(설계 : 한광호+하금현+유기정+김삼수)

차례

1996년 4월호 통권 324호

칼럼
또다른 세기말에 서서 / 민현식 22
논단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5) / 최찬환 25
일하며 생각하며
이긴자는 가진자에 약하다 / 김자호 28
이달의 시
열린 손 / 유병우 30
회원작품
이퀴낙스 / 김인철 32
남춘천초등학교 / 한광호+하금현+유기정+김삼수 38
(주)미원 · 미원유화 연구소 / 황임규 44
한국공중전화(주) / 임장렬 50
일산영락교회 / 최동규 54
계획작품
한국도자기 사옥 / 김기웅 58
코아하우스 1 / 전병직 62
코아하우스 2 / 전병직 64
트윈빌라트-71 / 김대일+주영정 66
서초빌딩 / 문성운 68
회원갤러리
Human's Relation(45×65) 김호경 71
작품노트
김포센터 프라자 / 박찬정 72
건축기행
중국건축기행(완) / 박재환 76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정인국(5) / 박길룡 80
연구
노인주거의 설계기준(2) / 강병근 85
기고
어느 햇병아리의 항변 / 문성운 90
21C 자연보존과 주거환경개발 / 윤여욱 94
해외건축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1) – 스페인 / 박효순 98
현상설계경기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106
인천 송현지구 아파트 110
광명 철산지구 아파트 114
근로자 체육문화시설 116
근로자 영유아 보육시설 120
통계
96년도 2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22
협회 · 건축계 소식 124

CONTENTS VOL. 324 APRIL 1996

COLUMN
Facing Up to the Another Total Eclipse / Min Hyun-Sik 22
PLATFORM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5) / Choi Chan-Hwan 25
ESSAY
The Winner is Weak for Influences / Kim Ja-Ho 28
POEM
「Open Hand」 in Chandigarh / Yu Byung-Uh 30
WORKS
Equinox / Kim In-Cheurl
Namchuncheon Elementary School / Han Kwang-Ho, Ha Keum-Hyun, Yu Ki-Cheong & Kim Sam-Soo 38
Miwon Co., Ltd. & Miwon Petrochemical Co. R/D Center / Hwang Lim-Kyu 44
Korea Public Telephone Co., Ltd. / Lim Jang-Ryul 50
Ilsan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 Choi Dong-Kyu 54
PROCESS WORK
Hando Building / Kim Ki-Woong 58
Core House 1 / Jeon Byeong-Jig 62
Core House 2 / Jeon Byeong-Jig 64
Twin Villat-71 / Kim Dae-Il & Joo Young-Jung 66
Seocho Building / Moon Sung-Un 68
GALLARY
Human's Relation(45×65) / Kim Ho-Kyung 71
WORK NOTE
Kimpo Center Plaza / Park Chan-Jung 72
ARCHITECTURE TRAVEL
The Travel of Chinese Architecture(E) / Park Chae-Hwan 76
SERIAL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5) / Park Kil-Ryong 80
STUDY
Design Guidness for Elderly People(2) / Kang Byoung-Keun 85
FEATURE
Take Firm Measures / Moon Sung-Un 90
The Preservation of Nature & Housing Environment, for the 21st Century / Yoon Yeo-Wook 94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1) / Park Hyo-Soon 98
COMPETITION
Taeg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106
Apartment of Songhyeon-district, Incheon-shi 110
Apartment of Cheolsan-district, Kwangmyeong-shi 114
Sports & Culture Facilities for Laborer 116
Kindergartens & Nursery Facilities for Laborer 120
STATISTICS 122
NEWS 124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강북구건축사회/903-3425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강동구건축사회/484-8840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종로구건축사회/735-0905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서초구건축사회/552-8468 · 은평구건축사회/386-1466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양천구건축사회/653-2892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구로구건축사회/8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5-9350~4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0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3-6662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98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876-0458 · 송탄지역건축사회(0333)666-6153 ·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8902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이천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90 · 강릉지역건축사회(0391)41-7371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8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철원지역건축사회/52-3307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 · 53-7342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목천지역건축사회/(0475)33-36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4-9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33-2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4-4832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4-2541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점촌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32-5868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달성지역건축사회/(053)634-6336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5-6403 · 충무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9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4848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6090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또다른 세기말에 서서

Facing Up to the Another Total Eclipse

민현식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by Min Hyun-Sik

지금 또다른 세기말에 이 위대한 모더니즘정신은 또다시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의 조건은 그들보다 더욱 암울하다. 그 암울한 조건이 바로 우리는 "왜 건축을 하는가"라는 건축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을 한동안 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질문은 '건축이 무엇인가'라는 원색적인 질문으로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건축이 건축의 본원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자책과 함께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우리와 우리의 건축을 반성해 보고자 함이다.

아르뛰르 랭보(Arthur Rimbaud 1854-91), 뽈 베를렌느(Paul Verlaine 1844-96)등은 한동안 나에게 잊혀졌던 이름들이다. 그들에게 탐닉했었던 60년대말 그 암울하기만 했던 학창시절과 함께 지금 또다시 그들이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오게 된 것은 "토탈 이클립스"개기식으로 번역된다)라는 영화가 계기가 된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 또 다른 세기말인 이시대가 그들이 고뇌했던 19세기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토탈 이클립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난 서구 역사상 대표적인 '세기말'을 로마제국의 멸망전후와 19세기말을 꼽는다. 세기말이라는 어휘는 직설적으로 한세기의 말이라는 시간상의 공간을 뜻하지만, 그것보다는 한시대를 지탱해온 가치관이 이제 더이상 현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혼돈과 불안이 전 사회를 짓누르는 세기말적 풍조가 만연된 시대를 일컫는다.

19세기말 지식인, 예술가들은 기성의 가치, 윤리관에서 반하여 풍자와 조롱과 광기를 만연시키면서 퇴폐주의, 탐미주의에 깊숙히 빠져들었다.

그들은 연미복과 화려한 이브닝드레스를 차려입은 부르조와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수다를 즐기는 쌀롱, 오페라하우스에 몰려가 쏘세지를 질겅질겅 씹어대며 방뇨와 야유를 퍼붓기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체세포를 녹이는 초록색 독주 압쌍트를 마시며 동성애에 탐닉하면서 만들어 낸 시들은 독기와 광기에 가득차 있었다.

이 시대를 섬광같이 살다간 젊은 시인 랭보는 부르조와 문명을, 황제를 조롱하고 기독교 문명을 저주한다.

「나는 정의에 대항했다. 나는 도망쳤다.

오 마녀들이여, 오 비참이여, 오 증오여, 내 보물은 바로 너희들에게 맡겨졌다.

나는 마침내 나의 정신 속에서 인간적 희망을 온통 사라지게 만들었다. 인간적 희망의 목을 조르는 완전한 기쁨에 겨워, 나는 사나운 짐승처럼 음험하게 날뛰었다.

나는 사형집행인들을 불러들여, 죽어가면서, 그들의 총 개머리판을 물어뜯었다. 나는 재앙을 불러들였고, 그리하여 모래와 피로 숨이 막혔다. 불행은 나의 신이었다. 나는 진창 속에서 길게 쓰러졌다. 나는 범죄

의 공기에 몸을 말렸다. 그리고는 광적으로 못된 곡예를 했다.」

—랭보의 "지옥에서 보낸 한 철" 중에서—

이같은 랭보의 광기와 반란은 무엇을 위함인가. 그는 수수께끼와 같은 삶 속에서 기성의 문명과 그것을 지탱하는 부르조아에 대한 반기를 들면서 그들이 외면한 노동자들을 사랑했고, 전쟁에서 이름없이 죽어간 자들을 애도한다.

랭보는 이미 시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던 베를렌느에게 이렇게 부르짖는다.

"당신은 시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있지만, 나는 왜 시를 쓰는가를 알고 있다."

그는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사물에의 접근에서 벗어나 프랑스 시의 새로움과 놀라움과 시적 사상을 발견하려 광란한다. 그의 광기와 반란은 시대의 인식을 통하여 혼돈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려는 처절한 투쟁이며 따라서 세기말적 절망에서 또다른 희망을 찾으려는 필요악 같은 작태일 수도 있다. 이러한 투쟁은 로마제국이 붕괴하면서 기독교에서 구원을 찾았듯이 20세기 그 찬란한 모더니즘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세기의 세계는 마르크스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이 그 모순에 대해서 잉태되고" 또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버리는(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세상, 니체가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을 대신하는, 가장 가까운 것과 가장 아끼는 것을 대신하는, 거리를 대신하는, 자기 자신의 아이, 자기 자신의 가슴, 소원과 의지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가장 내면적이고 비밀스러운 휴식을 대신하는 위험, 윤리의 어머니인 위대한 위험"이 있는 세상인 것이다.

그리고 현대인은, 그 당시의 마르크스와 니체와 보들레르와 랭보, 도스토예프스키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서야 그들 자신 속에서 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계몽사상가들은 "객관적 과학, 보편적 도덕률, 자율적 예술들이 본연의 논리를 따라 발전되도록"하기 위해 구사한 독특한 지적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정신과 실천으로 하여 합리적 형태의 사회조직과 합리적 사회방식의 발전 덕분에 신화와 종교, 미신의 비합리성에서 해방되었으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권력의 자의적 전횡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예술과 과학이 자연의 힘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세계와 자아의 이해, 도덕적 진보, 제도의 정의, 심지어 인류의 행복까지도 드높이리라는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이들 위대한 지식인, 예술가들의 모더니즘정신을 19세기말의 세기말적 증후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고 이 정신은 지난세기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지금 또다른 세기말에 이 위대한 모더니즘정신은 또다시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의 조건은 그들보다 더욱 암울하다.

그 암울한 조건이 바로 우리는 "왜 건축을 하는가"라는 건축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을 한동안 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질문은 '건축이 무엇인가'라는 원색적인 질문으로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건축이 건축의 본원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자책과 함께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우리와 우리의 건축을 반성해 보고자 함이다.

개항이래 지난 한 세기, 짧게는 60년대 이후 30여년 우리의 지상목표는 「조국 근대화」였으며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서구 선진사회와 같이)잘살아 보세'라는 노래에 발 맞추어 새벽종이 울릴 때부터 밤이슬 내릴 때까지 오로지 개발에만 매달리면서 우리의 건축에 대한 질문은 오로지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왔다.

노래가사에 암시되어 있듯이 그 개발 또는 근대화의 모델은 바로 서구화였고, 우리 사회의 전분야가 그러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우리의 건축은 서구의 건축을 충실히 모방하는 것이었으며, 선진사회의 건축사조는 아무 꺼리낌없이 직역하여 우리의 건축사조로 삼았다. 따라서 외국건축가, 서구건축가 또는 그것을 또다른 양상으로 모방한 일본건축가에 의한 건축이 선진

의 이름아래 아무런 의심없이 지상의 건축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작의 이름으로 행해져온 많은 프로젝트에서의 한국건축가의 역할은 각각 건축가로서 대등한 입장으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소위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등에 업고 인허가 과정의 행정적 서비스에만 국한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 파트너는 조금 후한 설계비와 선진기술정보의 조금 앞선 취득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두운 풍토가 조성된 일차적 책임은 물론 국내 건축가들의 무능력과 작가로서의 무의식에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으나 한편 서구제일주의에 익숙한 대다수 건축주들의 국내 건축가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그것을 너무도 익히 알고있는 외국건축가들의 상혼과 거기에 덧붙혀진 한 수 가르친다는 오만함에도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80년대 들어서면서 대한교육보험사옥(C. 펠리), 국제빌딩(C.R.S), 럭키투윈타워(S.O.M), 잠실롯데(구로가와 겨쇼)등을 시작으로 지난 30여년 이래 헤아리기도 어려운 많은 외국건축가의 손에 의한 건축물들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돌연변이처럼 뿌리를 내려 우리의 도시 풍경과 도시생활을 주도하고 있다.

일견 그것들은 그럴싸하다. 우리 눈에 참신하게 보이는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엔지니어링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건축들이 지금 우리의 생활과 의식구조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쳐 왔으며 또한 그 영향들이 진정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왜 건축을 하는가"를 진지하게 다시 물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건축이 인간생활과 의식구조에 의식적으로, 또한 거의 무의식적으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장 근원적인 건축의 본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시대 우리의 건축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이끌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30여년의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우리가 지상의 가치로 맹신해온 근대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면을 이제 충분히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풍토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반하는 허구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근대주의가 낳은 합리적 건축의 공과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축적이 있으며 지역성을 강조해온 근대주의 2세대 건축들의 파상적이며 애매모호함에 대하여도 무조건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박래품에 대하여 이제 사춘기적 거부감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또한 흔히 외국건축가가 집착하게되는 표피적인 지역성의 이해나 전통성의 차용에 대하여 더이상 신기해 하거나 찬탄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한국건축의 유산을 존중하는 것이며, 이것은 이러한 유산의 에센스를 바탕으로 현대건축을 시작한다." 또는 "전통적 한국의 조영정신 및 기법과 최첨단 미래지향적 이상이 조화된 오늘 및 미래의 한국성을 창출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 등등의 상투적인 연설을 전제로 한국의 옛것에서 이미지를 차용하여 현대적으로 변용하였다는 강변에 이제 이미 식상하고 있을 뿐아니라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건축본질에서 벗어나 퇴행적 허구인가를 잘 알고 있다.

물론 계몽주의적 진보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이 끝나지 않았으나 우리는 건축이 "새롭고, 젊고 진보적이어야 한다"라는데 동의할 수 있다면 새로움을 향한 진보를 예술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봄직 하다.

랭보가 베를렌느에게 던진 질문처럼 또다른 세기말에 우리의 새로운 세기를 위하여 지금 우리는 "어떻게 건축을 할 것인가"보다 우리는 "왜 건축을 하는가"를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한다.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5)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

지적(地籍)에서 필지(筆地)와 건축물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1. 머리말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에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용어정의하고 있다. 토지로서 대지는 건축물을 담는 그릇이며 대지의 크기, 형상 등은 건축계획적 그리고 법적으로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지번의 부여, 지적의 분합(分合)과 지목(地目)의 설정,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적법은 행정적으로는 토지의 관리와 세무를 위해서 그리고 사법부에서는 소유권보호를 목적으로 등기를 하는 등 같은 토지에서 그 의도하는 내용이 다르고 관할부서가 다원화되어 있다. 건축법에서 대지는 건축물을 담는 그릇으로 건축물의 용도, 밀도, 형태 등에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행정과 건축행정이 상호 유기적 그리고 합리적인 조정기능이 부여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이와같은 점이 법제운영에서 크게 부족하고 미흡하여 건축물에 여러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용어의 개념

토지에 사용되는 여러종류의 용어를 그 개념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필지'는 지적법에 사용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지번이 부여되는 수적(數的)요소로 표시되고 구조물의 유무와는 무관하며 1개단위로 등기되고 있다. '대(垈)'는 지적법상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지목(指目)을 표시한 것이다. '대지(垈地)'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들어설 예정인 일단의 토지로서 소유자, 등기, 등록단위 등은 한개 또는 여러개의 필지로 구성된다. '부지(敷地)'는 건축법, 도로법, 하천법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며 구조물의 지반이되는 토지로서 나지(裸地)와 구별해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비건축부지는 법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획지(劃地)'는 동질적인것과 이질적인 것을 구획하는 기준으로 토지구획정리상의 용어로 사용되며 구조물의 유무와는 무관하여 1개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며 주로 학문적 그리고 계획개념으로 쓰인다.

3. 토지와 건축물

필지가 도시의 최소단위공간조직을 함에 있어서 기반요소(基盤要素)이고 건축물은 충진요소(充土眞 要素)이다. 따라서 이 두 요소간에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건축물은 물론 좋은 환경과 품위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필지는 분할(分割)과 합병(合併)을 법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하며 민법에서는 분할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時效取得)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표(地表)에 선을 그어 경계를 삼고 구획하여 구별성(區別性)과 개수를 정하도록하고 있는 지적법상에서 등록필지의 독립성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할수 있다.

건축물은 토지와는 다르게 물리적으로 구분성을 가지고 있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연속되어 구분성이 없는 토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임의로 그리고 공권력(公權的)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축물은 그 구분의 기준이 구조와 기능 등 건축물의 계획적요소와 공간영역설정에 따른 하나의 단위로서 독립성을 가질 때 구획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자연적이고 영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지적법과 등기법에 따라 관리, 등록, 보호되고 있는 토지와 그 토지를 모태로하여 용도, 밀도, 형태 등을 규정받게되는 인공구조물인 건축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호유기적으로 조화롭게 해나갈수 있느냐는 것은 건축가의 중요한 업무일뿐 아니라 관여된 정책결정참여자 모두

가 책임을 느끼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규제내용

4-1. 건축물의 용도규제

용도지역지구제는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시설물의 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고유한 용도가 있기보다는 건축물용도에 따라 토지의 용도가 결정되므로 토지용도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게 된다.

도시라는 광역적 공간을 대상으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거시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환경과 토지가 지닌 개별성이 있으므로 건축물의 대지로서 미시적 접근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와같은 점에서 용도지역의 세분화필요성, 지구계획제도, 도시설계 등의 도시와 필지의 중간적 또는 가교적(架橋的)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밀도, 형태, 위치 등에 대한 계획내지는 규제를 하게 된다. 용도지역제와 지구계획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건축하더라도 어느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까지를 정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 이는 도시의 골격을 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체계화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60㎡이상으로 하고 보전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이상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으며 여러 용도지역별로 다양한 면적을 규정할 뿐 아니라 이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로서 기준미달대지와 자투리토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기존 건축물 대지가 불가피한 외부요인의 변경에 따라 기득권(旣得權)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예외적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기득권보호와 불소급원칙에 대한 규정으로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변화, 건축선후퇴 등은 피동적, 불가역적(不可逆的)인 것이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최소대지면적 미달요건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시행된 타법에 의한 불가피한 특례로 볼 수 있으나 토지와 건축물이 지니는 영속성과 내구성 등을 감안하고 그것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대지면적을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무한적인 특례보다는 제한적 특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종전의 기준시 10년간의 특례조항이 건축법개정으로 없어지고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조례가 이와같은 개념을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적업무의 주무부처인 내무부와 토지분할 허가부처인 건설교통부, 그리고 법령의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 등 행정부내에서 상반된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19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이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은 도시계획법령상의 분할 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분할가능의 단서규정이 삭제되어 법원의 확정판결(確定判決)을 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분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은 행정부의 허가여부조건에 관계없이 일관된 판례로서 분할할 수 있도록(分割可) 결정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행정부의 경우는 분할불가(分割不可), 사법부에서는 분할가(分割可)의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행사의 혼란과 함께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은 토지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행정부에서는 토지의 이용규제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필지분할에 있어서 소유와 이용이라는 서로 다른 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큰 과제로 남아 있다.

4-3. 필지형태와 건축윤곽선

필지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법적 규제를 하게되므로 이것이 건축물 규모와 형태에 불가분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여 필지형태가 결정되어야 된다. 그런데도 필지는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분합이 건축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 음식의 특성이나 그 내용을 무시한 채 멋대로 만들어서는 안되듯이 건축물의 그릇에 해당되는 필지의 규모와 형태를 건축물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해서는 안된다. 이와같은 필지형태의 정리와 가구의 정비 등을 위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공공용지의 확보, 필지의 정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서 대다수의 기존시가지에는 지적정리를 하지 못하고 건축을 하게되고 필지의 윤곽선(輪廓線)이 법규적용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형태가 건축물의 용도기능이나 의장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지적선이 입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형태 및 공간계획을 다루는 건축가들에게 설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비정형화된 필지의 윤곽선으로부터 건축물의 형태를 독립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 토지이용과 공지의 활용,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가질 수 있는지는 해결되어야 할 난제(難題)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가가 비싼 도심지에서는 건축물을 법적 허용한도까지 건축하려하고 따라서

최강섭. 필지분할과 건축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대부분 필지의 형상에 따라 건축물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가 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垈'로 지목변경하여야 하며 형질변경(形質變更)이 따른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形質變更)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시가화된 지역에 단순지목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지만 田, 畓, 林野 등의 지목을 대로 지목변경하면서 토공사를 수반하는 형질변경(形質變更)을 한다. 이는 대지로서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토해야 하며 접도, 급배수, 전기 통신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요한다. 그러나 지적형상에 대한 적합성여부는 거의 검토하지 않는다. 지목변경과 토지형질 변경은 소규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경우 가구 분할 통제수법(sub-division control)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건축물 대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대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적 정리,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선행한 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규모 형질변경의 경우 종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하듯이 일정한 공공용지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사유재산권 보호와 행정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월권적 남용에 해당된다는 논란이 있어 이를 금지하였다. 개발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의 취지를 살리고 공익우선의 기본적 사고를 가진다면 형질변경시 공공용지 부담과 함께 지적정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공공용지 부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비환지의 개념과 같이 분산된 공지의 집합과 통합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청산금의 개념을 준용하여 특별회계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지의 구획정리는 재산권 및 소유권의 변동,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경 등 여러 어려운 점이 뒤따른다. 그러나 건축물대지의 정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야 한다.

5. 외국의 지적규제

5-1. 독 일

독일에서는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논리로 토지의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어서 지적제도는 측량 및 토지대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적 지적제도로서 자료의 이용관리가 조직적이고 현대화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별로 소유토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지번, 토지경계선, 굴곡점과 건축물번호와 층별 구분이 표시되어 있다. 이는 토지를 중심으로하는 물적편성주의(物的編成主義)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편성주의(人的編成主義)가 가미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지구상세계획(B-plan)에서 구획정리와 경계정리를 한 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와 마찬가지로 권리의 강제적 교환 분합(分合)방법을 쓰고 있다. 토지의 강제적 교환 분합(分合)이 안될 경우 대지안에 건축가능지와 건축불가능지를 다시 구획하여 무질서한 필지의 외곽선(형상)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되고 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적용해 볼 만하다. 독일에서도 건축적 이용규제는 용적율, 건폐율, 건축체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의 4종으로 규제한다.

5-2 미 국

미국의 경우 표준지역지구제에서 최소대지면적, 최대건폐율, 최소건축면적, 최고고도, 최소대지의 폭(間口)과 깊이(奧行), 부속건물의 최고고도와 주건물과의 거리와 폭, 최소노외주차면적, 최소조업주차면적, 사인 및 광고물규제 등을 하며 특수여건에 맞도록 계획단위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특별용도지역지구제를 지정할수 있고, 이와함께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와 유사한 가구 및 대지분합규제를 하고 있다. 토지를 가구와 획지로 분할한 후 토지이용과 교통체제, 보존가치와 이용목적간의 마찰은 극소화, 일조, 공기, 사생활보호의 제공과 재난위험방지 도시의 공(公), 사적(私的)의 정책 및 행위의 유도, 공공시설 장기종합계획에 의한 성장과 개발의 유도, 공공시설의 수용력 보장 등을 목적으로 소규모 대지의 분합, 설계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6. 맺음말

건축물은 토지에 종속된 구조물로서 토지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地積)행정이 건축물의 대지로서의 토지보다는 지적(地籍)관리와 소유권 보존을 위한 등기등에 치중하였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필지의 용도,규모,형상 등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지적에서의 지닌 오류와 문제점이 건축물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양질의 도시환경조성과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목표달성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필지의 비정확성, 무계획성, 비합리성, 형태의 비정형성으로 인한 무질서한 건축물을 양산하고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새로이 도시설계, 지구계획제 등 집단적 규제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구 및 필지의 계획과 통제, 분합(分合)을 위한 구획정리와 경계정리 등은 아직도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다.

건축물의 그릇인 대지가 반듯해야 이에 따라서 건축된 건축물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상식이지만 오늘도 수많은 우리나라의 건축가는 잘못된 필지에 얽매어 고민스럽게 건축업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라는 생활의 장은 그 모습이 일그러지고 있다. 올바른 지적정리는 건축계가 당면한 절박하고도 어려운 과제이자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이긴자는 가진자에 약하다

The Winner is Weak for Influences

김자호 /(주)건·삼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Ja-Ho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전문성을 살려서 서로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사회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내기문화에 젖어 실력보다는 요행, 요행보다는 부당함에 젖어서 서로가 도와주기 보다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

요즈음 건축계에서 유행병처럼 번져있는 현상설계공모에 수없이 참가하다보니 이것이야말로 가진자에게 농락당하는 이긴자들의 박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수단과 방법을 '내기'라는 행위를 통하여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그러한 내기에 관한 습관이 어렸을때부터 자라오면서 부모나 형제 또는 사회로부터 배워와 익숙해져 있다.

요즈음은 세월이 달라져서 컴퓨터시대이므로 어린이의 놀이문화도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세대의 어린시절이란 동네에 앞뒷집 등이 모여 살았으므로 1가구당 4~5인 정도 형제가 있어 동네꼬마들이 모이면 꽤 인원이 많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내기에도 여러가지가 많았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술래잡기, 깡통 차기 등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 내기는 거의 내기라기보다는 놀이로서 재미와 명예, 함자랑 등으로 그쳤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기의 종류와 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놀이보다는 내기로 변하여지고 또 내기에는 항상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며, 결과에는 반드시 상벌 이외에 금전이 따르게 된다.

생활의 오락에서도 당구라든가, 화투, 바둑, 포커, 마작, 보울링, 경마, 빠찡고 등 시대가 흐름에 따라 오락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요즈음에는 오락실까지도 생겨났다. 이 모든 오락이 정도를 지나치면 도박이 되고, 도박이 심해지면 부정을 낳게 되고, 부정이 심해지면 뇌물성 부정이 생기게 된다.

운동경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아마추어 정신에 의한 운동경기에서도 이긴자는 진자보다 기분도 좋을뿐 아니라 여러가지면으로 득을 보게 된다. 엄격한 시합규칙에는 반드시 반칙이라는 것이 있다. 규칙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부모, 형제, 선.후배, 인척, 지인 등)은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기를 바란다. 이것은 일종의 내기정신이다. 프로경기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이것은 운동이 곧 직업이며 생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이러한 내기에서도 그냥 내기를 하면 재미없다하여, 스폰서(후견인, 물주)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내기를 더욱 더 흥미있게 하고있다. 예를들면 프로권투에서도 헤비급 타이틀전 챔피언인 타이슨의 뒤에는 돈 킹이라는 후견인이 있어 내기시합을 더욱더 재미나게 하고 장소도 무슨 호텔, 특별링에서 경기를 하여 내기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프로야구, 농구 등 각종 경기에서 흥미와 승부를 기대하는 경기는 모두 마찬가지이다. 또한 선수뒤에는 이긴자를 운영하는 가진자가 있는 것이 요즈음 사회인 것 같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마찬가지이며 정도의 차이가 좋은쪽으로 가느냐, 부정적인 쪽이 많으냐의 차이인 것 같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그 시대의 내기 방법이 심했느냐, 적정하였느냐 차이인 것 같다. 예를 들면 과거 20년을 통치했던 공화국에서 그 공화국이 운영하는 정치시합에 기업의 후견인과 시합을 판정하는 공무원, 이 3박자가 국민이라는 관중앞에서 얼마나 옳은 정당한 내기시합을 하였느냐에 대한 판정이 요즈음 전직대통령까지 참석한 심판대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어느 지면에서 읽은 이야기이다. 유럽에서 내기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한 가진자가 관중을 모아놓고 내기를 걸었다.

내기의 내용인즉은 한우리안에 밀림의 맹수들인 사자, 호랑이, 표범,

곰, 늑대 그리고 성격이 온순한 말을 같이 들여보내 놓고 싸우게 하여 이 한판 승부에서 누가 잘 싸워서 살아남는가에 내기를 거는 것이었다.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가능성과 확률이 높은 쪽을 걸기 마련인 것이다. 밀림에서야 당연히 백수의 왕자인 호랑이 쪽이 우세한 것이므로 모두가 호랑이쪽에 상당량의 돈을 걸었다. 싸움이 시작되어 판세를 보니 자기보다 힘이 약한 쪽은 나중에라도 처치할 수 있으니 강한쪽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 늑대, 사자, 곰, 표범, 호랑이는 말은 상대도 안하고 자기네끼리 맹렬히 죽기 살기로 싸웠다. 결과는 호랑이가 최후 승리자가 되었는데, 승리하는 순간에는 이미 기운을 다써버려 기진맥진한 상태라서 더이상 싸울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보니 아직 말이 남아있 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말쪽으로 다가가니 이제까지 겁에질려 한쪽구석에 쭈구리고 있던 말이 놀라 뒷발질을 해대 이 뒷발질에 기운빠진 호랑이는 턱을 채여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다. 마지막 최후의 이긴자는 말이 되고 내기에서의 결과는 기대하였던 반대가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다.

내기를 주선하였던 물주인 가진자가 좋은지 힘이 세어 모두를 죽였던 호랑이의 강자가 좋은지, 힘이 모자랐던 약자이지만 최후의 이긴자가 되어버린 말이 좋은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것이지만 이 이야기는 자기를 어느쪽에 놓고 해석하느냐의 차이에서 모두 다를 것이다. 물론 세상사는 모두 자기가 불리한쪽 보다는 유리한쪽으로 생각과 행동하게 마련인 것이다.

기업의 수명은 대체적으로 어느정도 생각하는가. 보통 30년을 본다.

성장하는데 10년, 유지발전하는데 10년, 연구하고 대체해 나가지 않으면 남은 10년은 그냥 유지하다 수명을 다하는 것이다.

필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건축활동을 한지 개략 15년이 되었으니 지금이 한창 왕성하게 일하고 연구 발전할 연령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요즈음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회사운영에 있어서 투자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앞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이야기속의 '말'이 되는 수도 있고 때로는 '호랑이'가 됐다가 죽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상대방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전문성을 살려서 서로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사회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내기문화에 젖어 실력보다는 요행, 요행보다는 부당함에 젖어서 서로가 도와주기 보다는 상대방을 쓰러뜨려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

요즈음 건축계에서 유행병처럼 번져있는 현상설계공모에 수없이 참가하다보니 이것이야말로 가진자에게 농락당하는 이긴자들의 박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오해받기 싫고, 결정하기 곤란하고, 확실한 사업지침도 없고 모든것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똥개들 훈련시키기에 안성맞춤인 내기가 바로 현상설계공모인 것 같다. 물론 현상설계의 장점도 많다. 그리고 이 제도가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서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야 우리 같은 기술집단에서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막상 그러한 것 같지 않다. 현상내기에서 '호랑이'가 되었든 '말'이 되었든 이긴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긴자의 비애는 당선되고 나면서부터 다시 약자로 돌아간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니면 서비스업이라서 그러한지 가진자의 갖가지 횡포에 도마위에 올라가서 좋은 횟감이 되기가 일쑤이다.

말도 안되는 가진자의 무리한 요구에 큰소리 몇번하고 작가의지가 어떻고 대들다가는 결국은 자기와의 타협에서 절충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진다. 어떤 가진자는 싫으면 참가도 안하고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빈정거리지만 이러한 내기에 참가하여 무엇인가 올바른 정의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는 건축가의 대우가 형편없다느니,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니 하며 불평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대우를 받도록 하였으니, 우리 스스로가 다시 분투하여 「약자는 강자에게 강하다」하고 할 수 있는 위치를 찾지 않으면 영원히 언제나 이긴자는 가진자에게 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진자에 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몇가지 있을법도 하다. 우선 우리가 하고있는 업무의 형태가 과거와는 다른 것이 아니지만 보다 더 능률은 올릴 수 있는 첫째 조건으로 조직적인 시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우리들이 갖고있는 지식관리이며, 세번째는 각종 정보관리일 것이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능률을 올리면 바로 생산원가의 절감요인이 될 것이며 생산원가가 절감되므로 경쟁력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국제경쟁력도 자연히 생길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면 또한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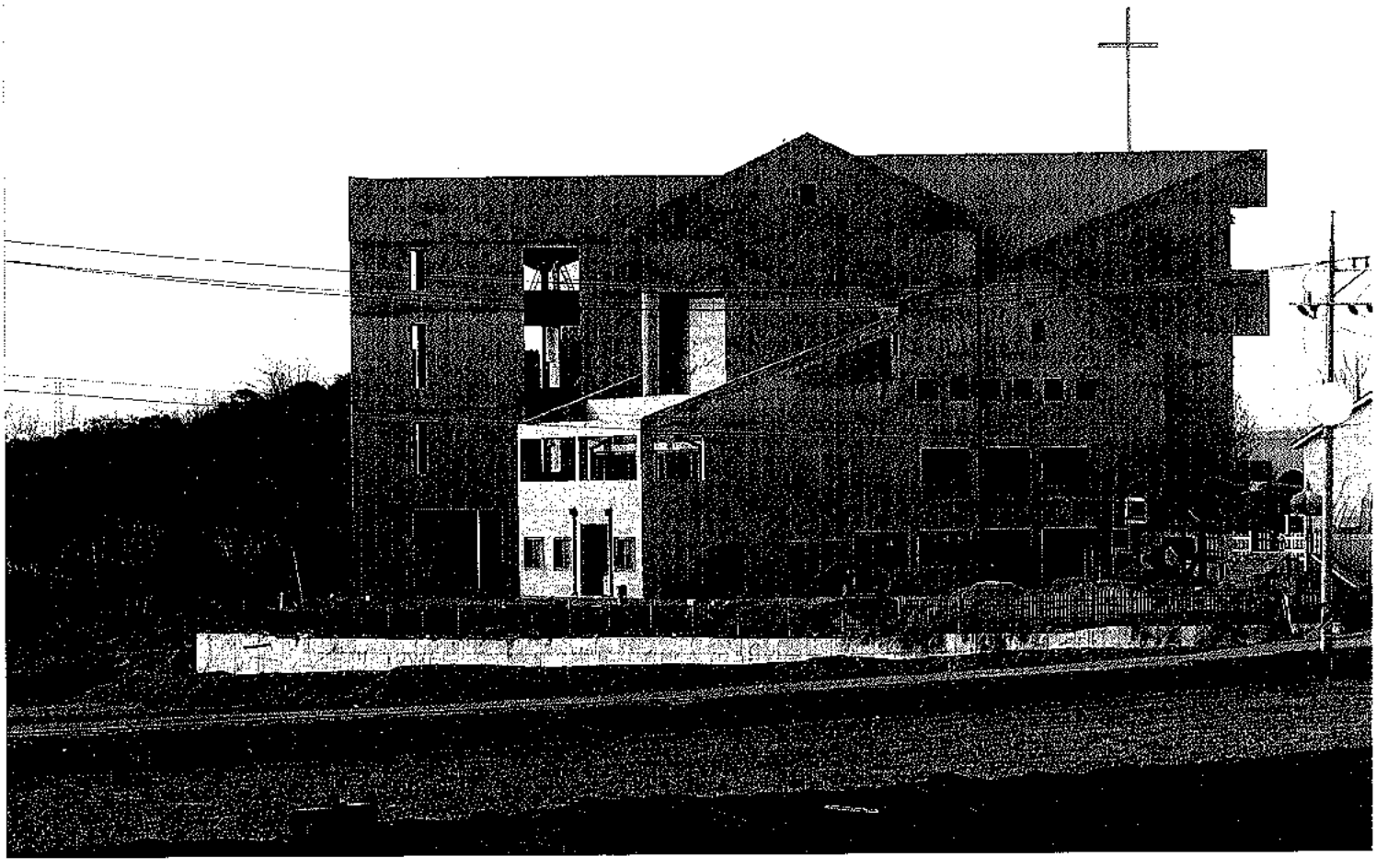
또한 같은 선의의 경쟁자 이긴자끼리 협력하여 사이좋게 한우리안에 살며 있어야지만 각자의 특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절대로 같은 경쟁자를 없애 버리면 버릴수록 뜻하지 않은 '말'들만 많이 생겨 항상 약자로만 남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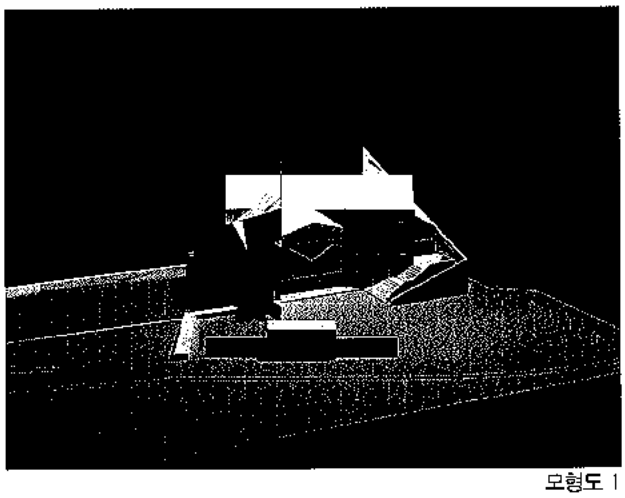
우리는 같은 이긴자끼리 Net Work를 결성하여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여 경쟁력있는 이긴자로 약자가 강자에게 강할 수 있는 이긴자가 가진자에 강하여질 수 있는 내기를 해야 할 것이다.

이퀴낙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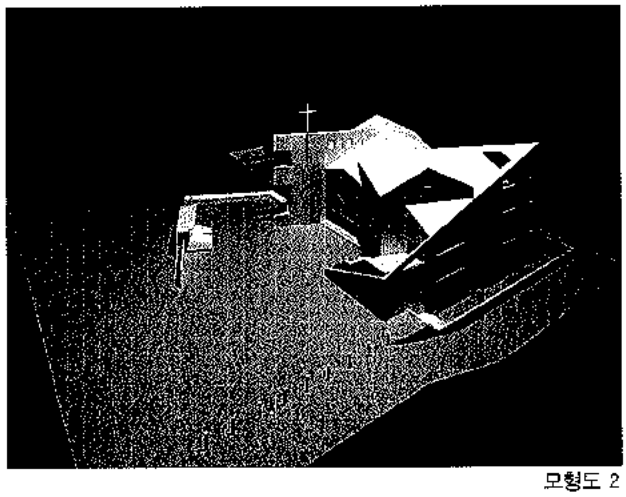
Equinox

김인철 /(주)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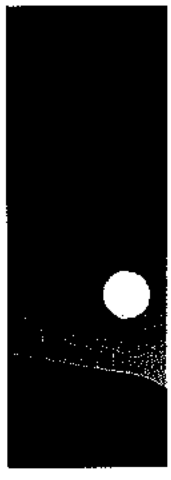




모형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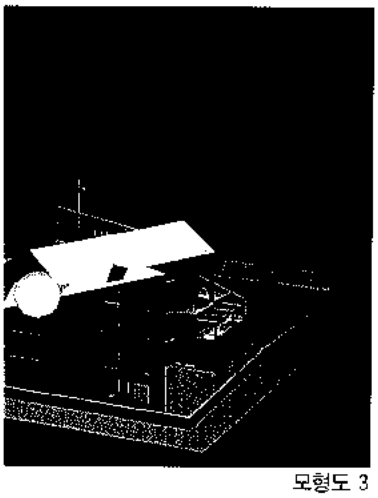
모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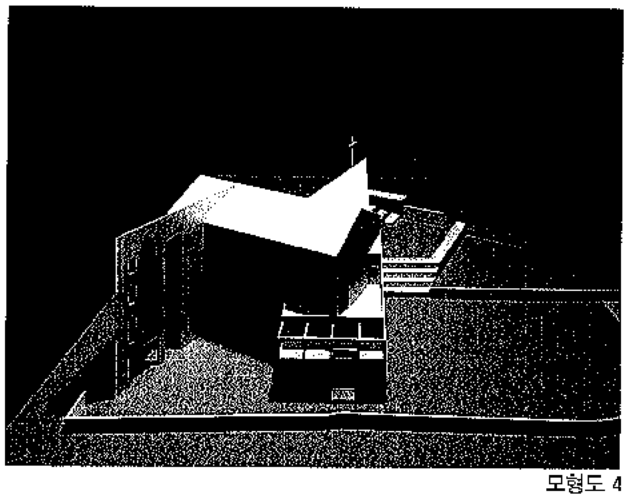


위치 /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하저리 893-4
지역지구 / 도시계획외 지역
대지면적 / 3,151㎡(953.17평)
건축면적 / 890.6㎡(269.4평)
연면적 / 1,574.98㎡(476.42평)
건폐율 / 28.26%
용적률 / 49.98%
규모 /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 18.6m
주요용도 / 종교시설
외부마감 / 벽 - 노출콘크리트
지붕 -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 바닥 - 하드너
벽 - 드라이비트
천장 - 드라이비트
주차대수 / 13대
건축주 /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유지재단
설계기간 / 1993. 5~1994. 4
공사기간 / 1994. 6. 1~1996. 1. 10
설계담당 / 연경흠
사진 /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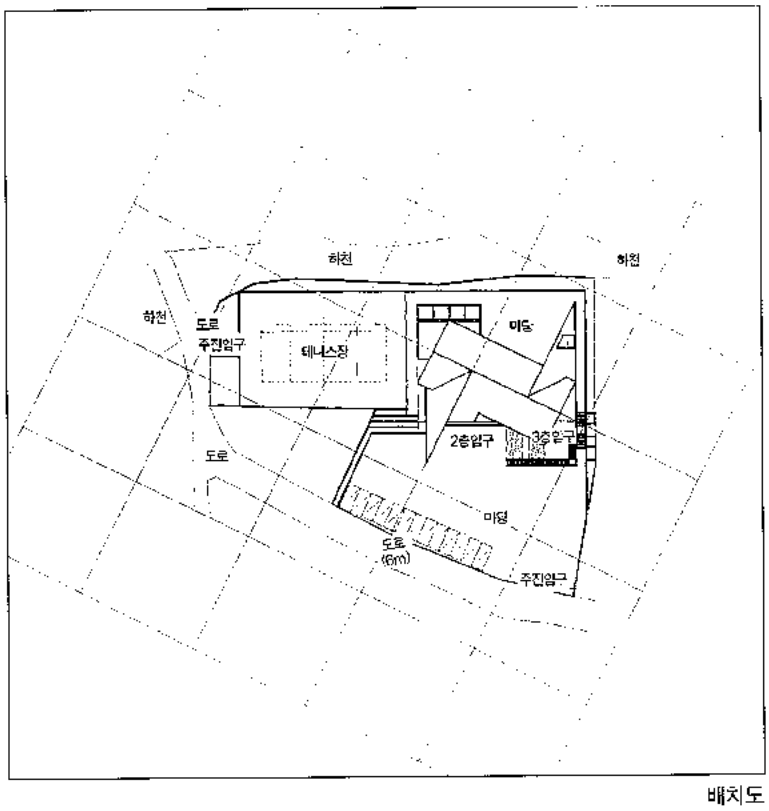
Location / 893-4, Hazeo-ri, Paltan-myeon, Hwaseong-gun, Kyeonggi-do
District / City Planning etc.
Site Area / 3,151㎡
Bldg. Area / 890.6㎡
Gross Floor Area / 1,574.98㎡
Bldg. Coverage Ratio / 28.26%
Gross Floor Ratio / 49.98%
Bldg. Scale / 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Use / Religious
Exterior Finish / Wall - Fair-faced Concrete
Roof - Fair-faced Concrete
Interior Finish / Floor - Hardner
Ceiling - Dryvit
Wall - Dryvit
Design Term / 1993. 5~1994. 4
Construction Term / 1994. 6~1996. 1
Designer / Yeon Kyeong-Heum
Photographer / Park Young-Chae

마을에서 본 새벽의 북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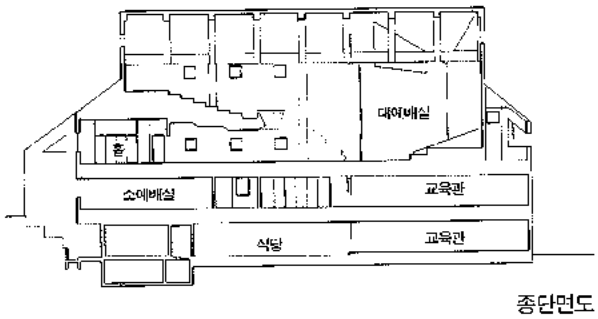

모형도 3


모형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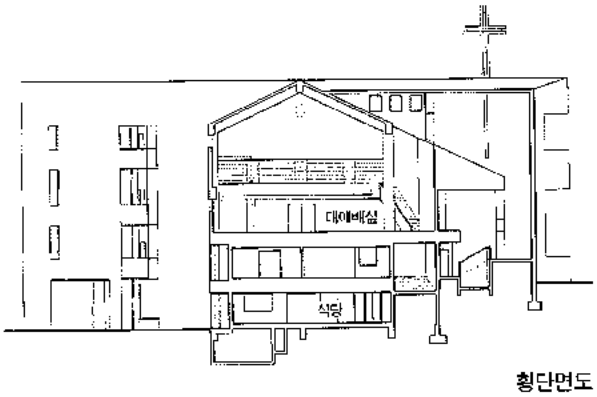
대 예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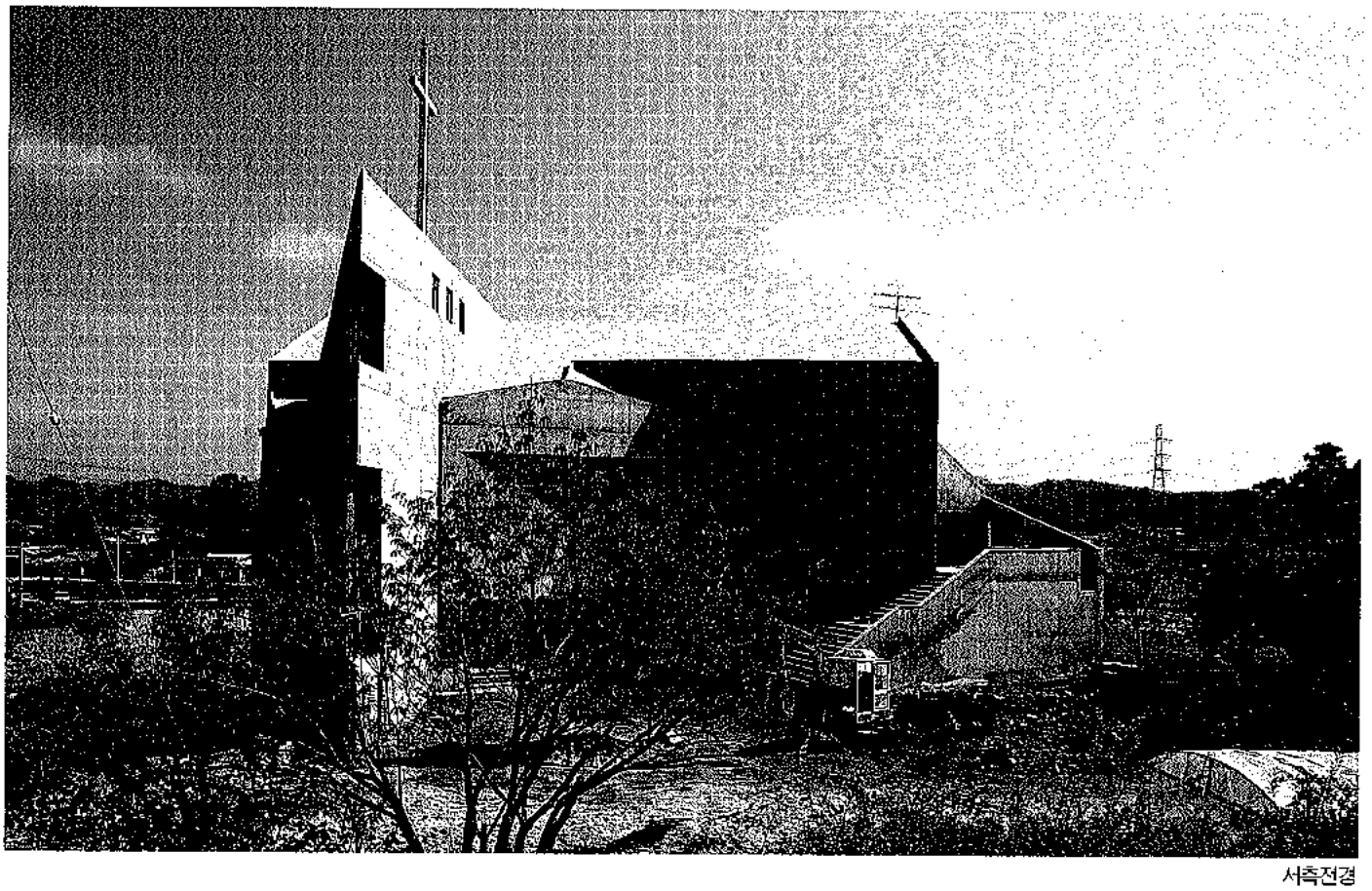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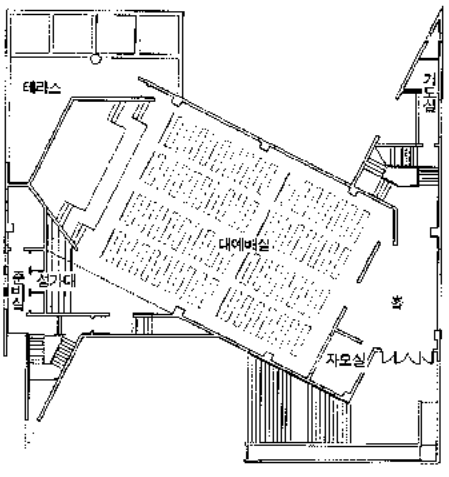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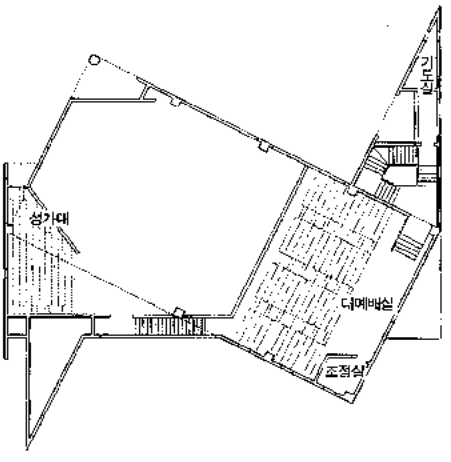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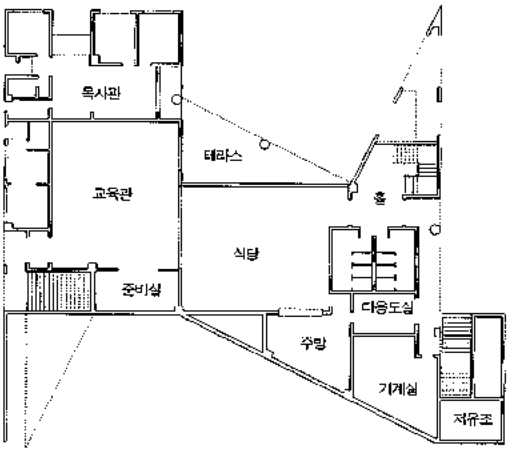
서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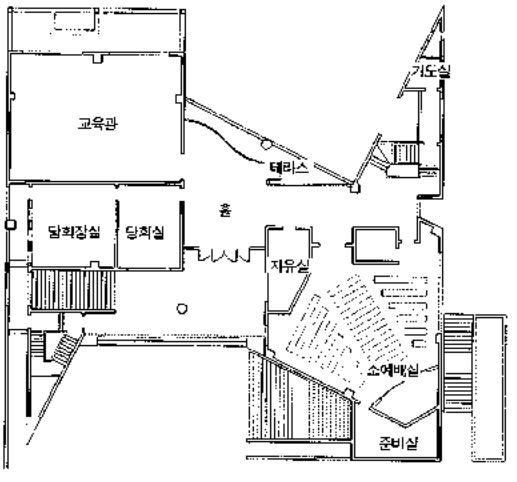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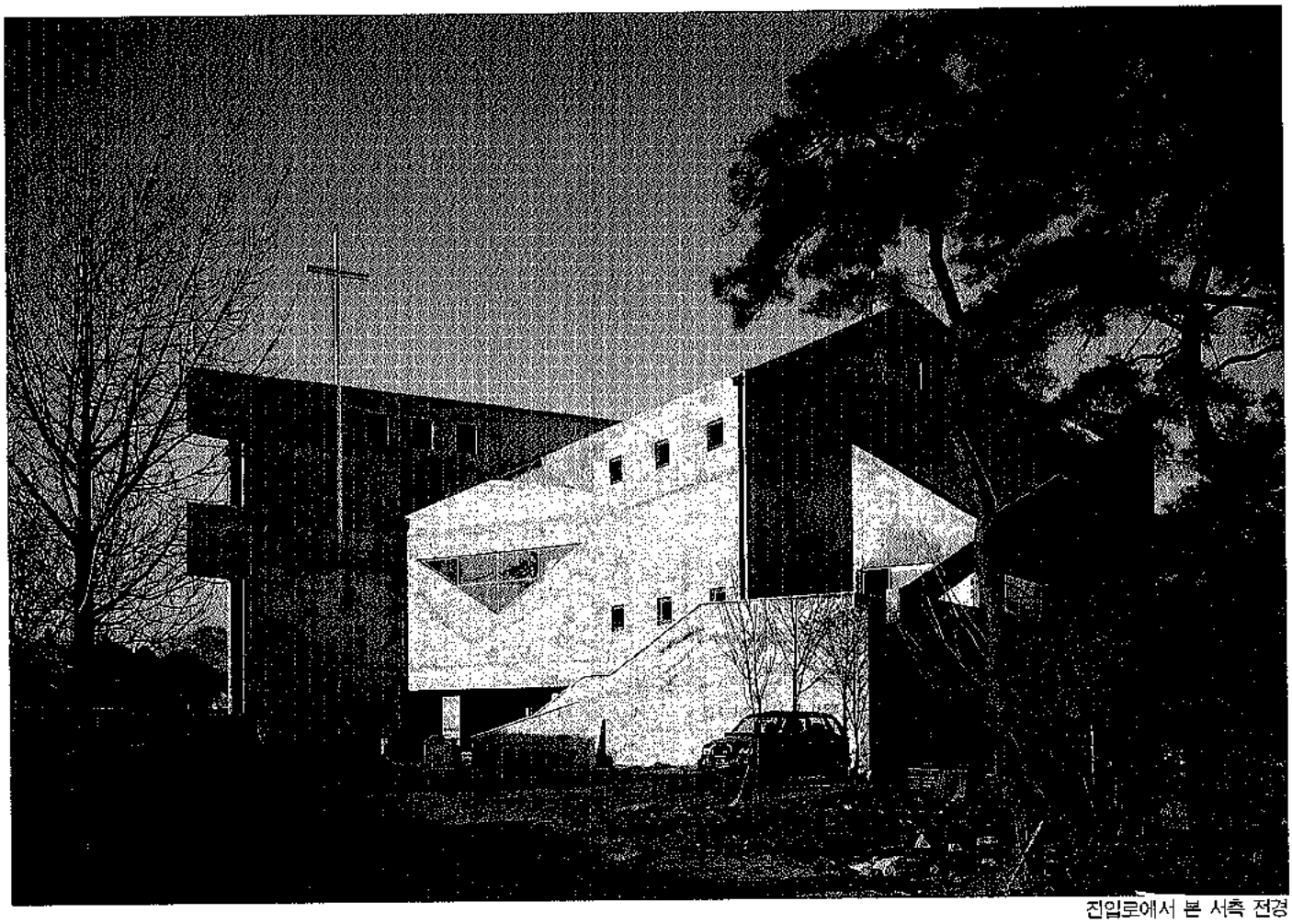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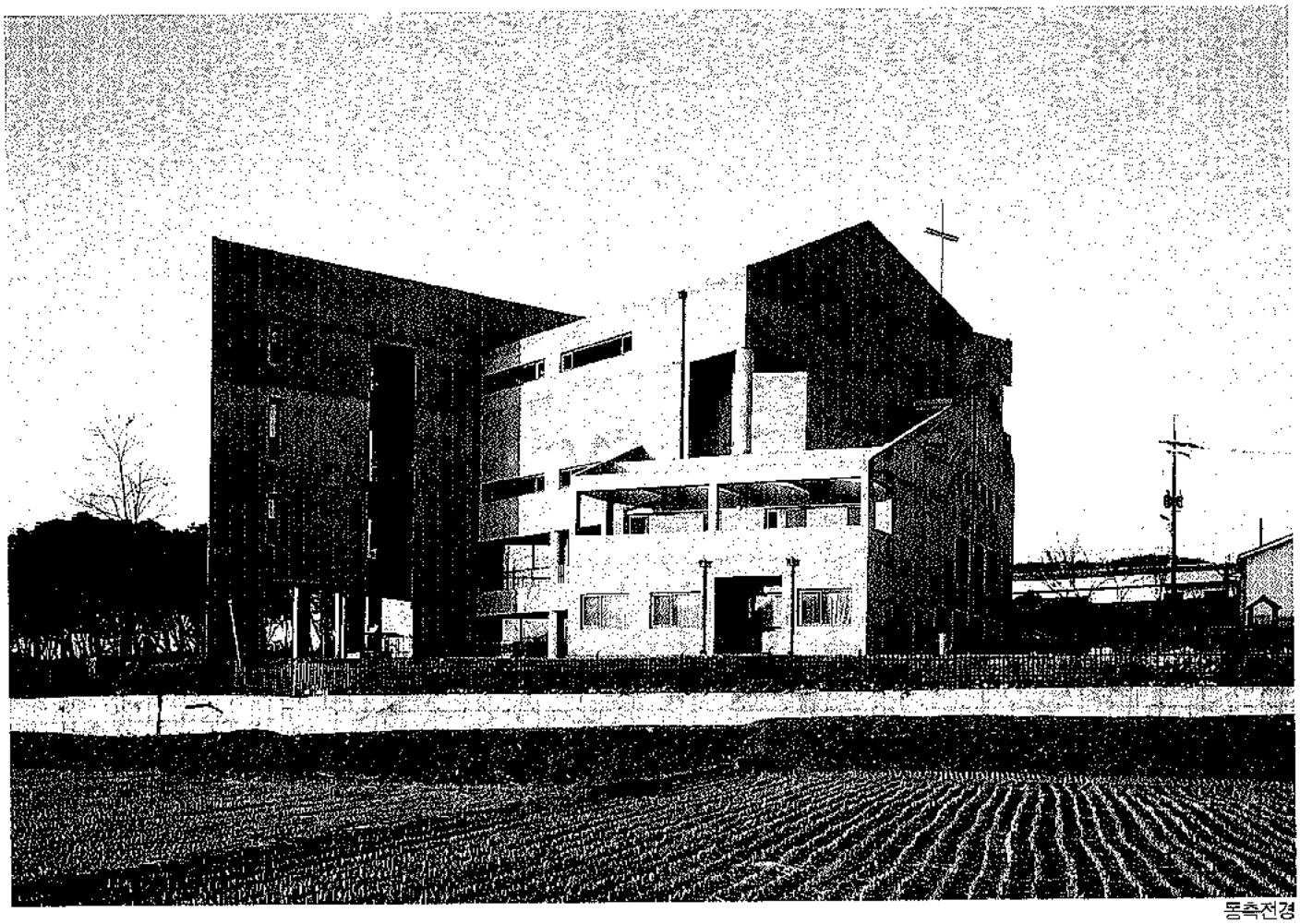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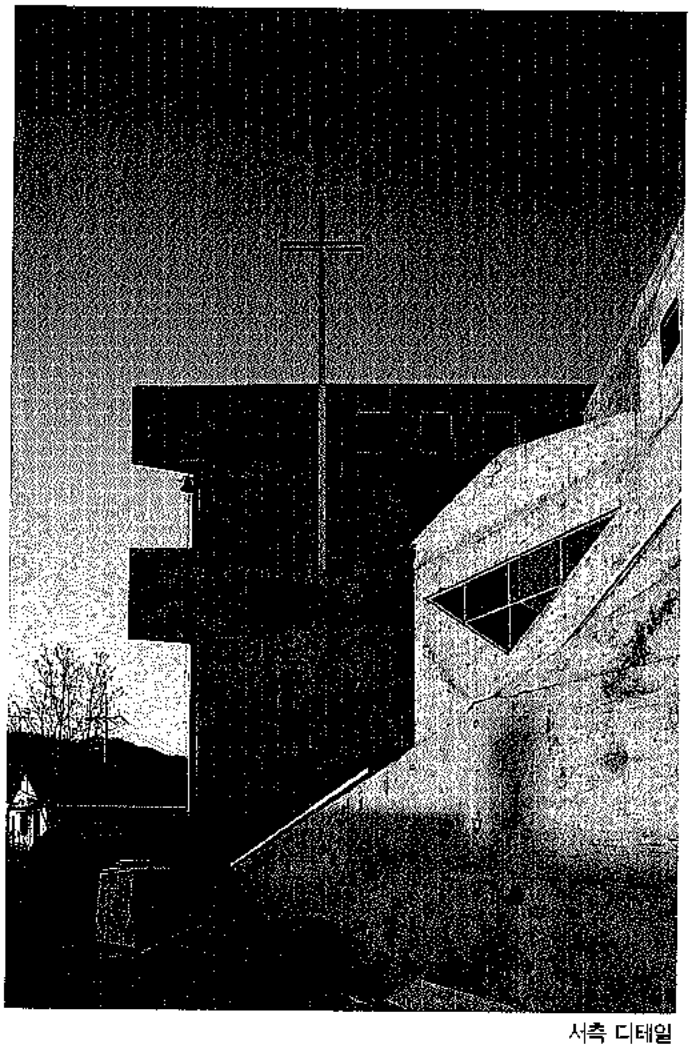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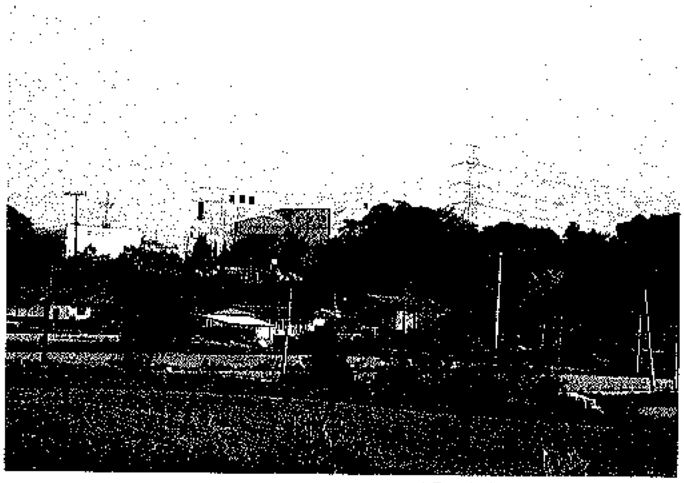
진입로에서 본 서측 전경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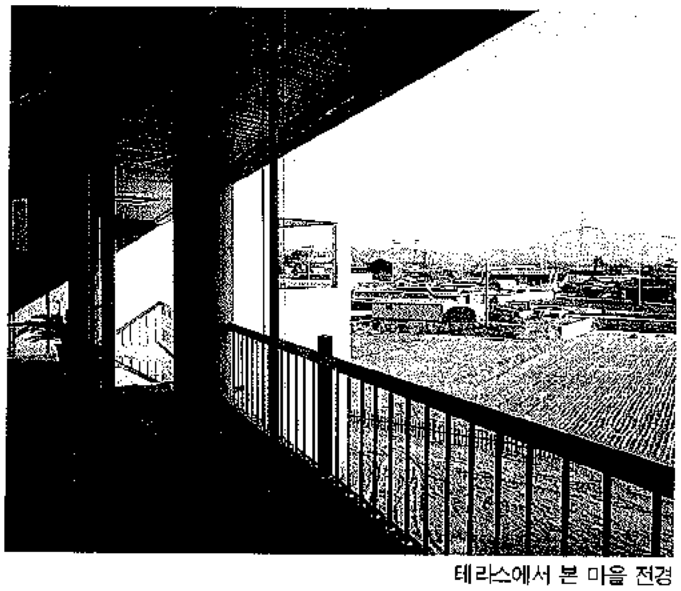


서측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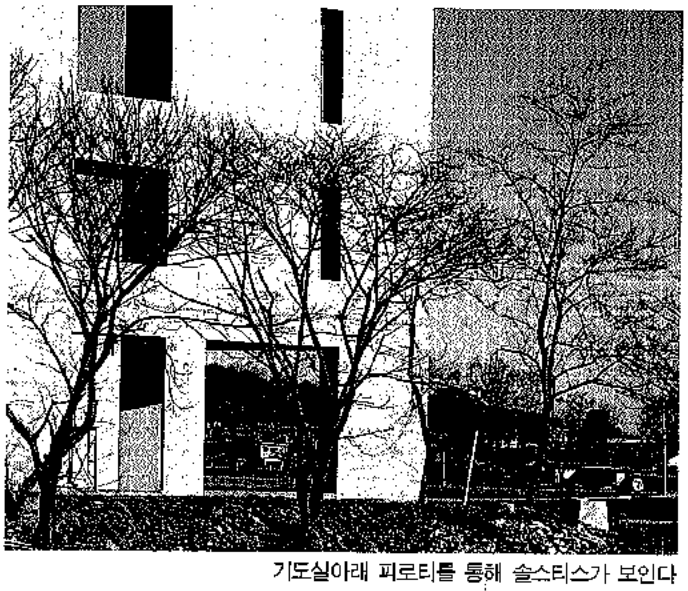


마을 진입로에서 본 서측 원경

남측전경



테라스에서 본 마을 전경



기도실아래 피로티를 통해 솔스티스가 보인다

89년의 솔스티스가 하저교회를 만들었다. 서쪽 바다로 내려가는 발안평야의 한 곳에 무리진 소나무 숲이 있고, 그 끝자락에 교회가 있다.

논과 밭, 소나무 숲, 새마을 공장과 마을, 그리고 솔스티스가 묘한 조화를 이룬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전원의 풍경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평야를 가로지르고 저수지는 유료 낚시터가 되며, 논은 양식장으로 바뀐다. 산을 파헤치는 레미콘 공장과 산허리에 들어서는 공장들, 경운기가 고작이었던 시골길은 이제 중장비 차량들로 분주하다.

전원의 여유를 누리기에는 이미 번잡해진 지금의 풍경 속에 콘크리트를 세운다. 숲에 의지하며 상승하는 콘크리트의 벽은 제 높이를 다한 곳에서 지붕으로 마무리 된다. 정점을 갖지 않는 수평의 용마루와 흘러내린 경사면이 벽과 만나며 이루어낸 공간 속에 사람이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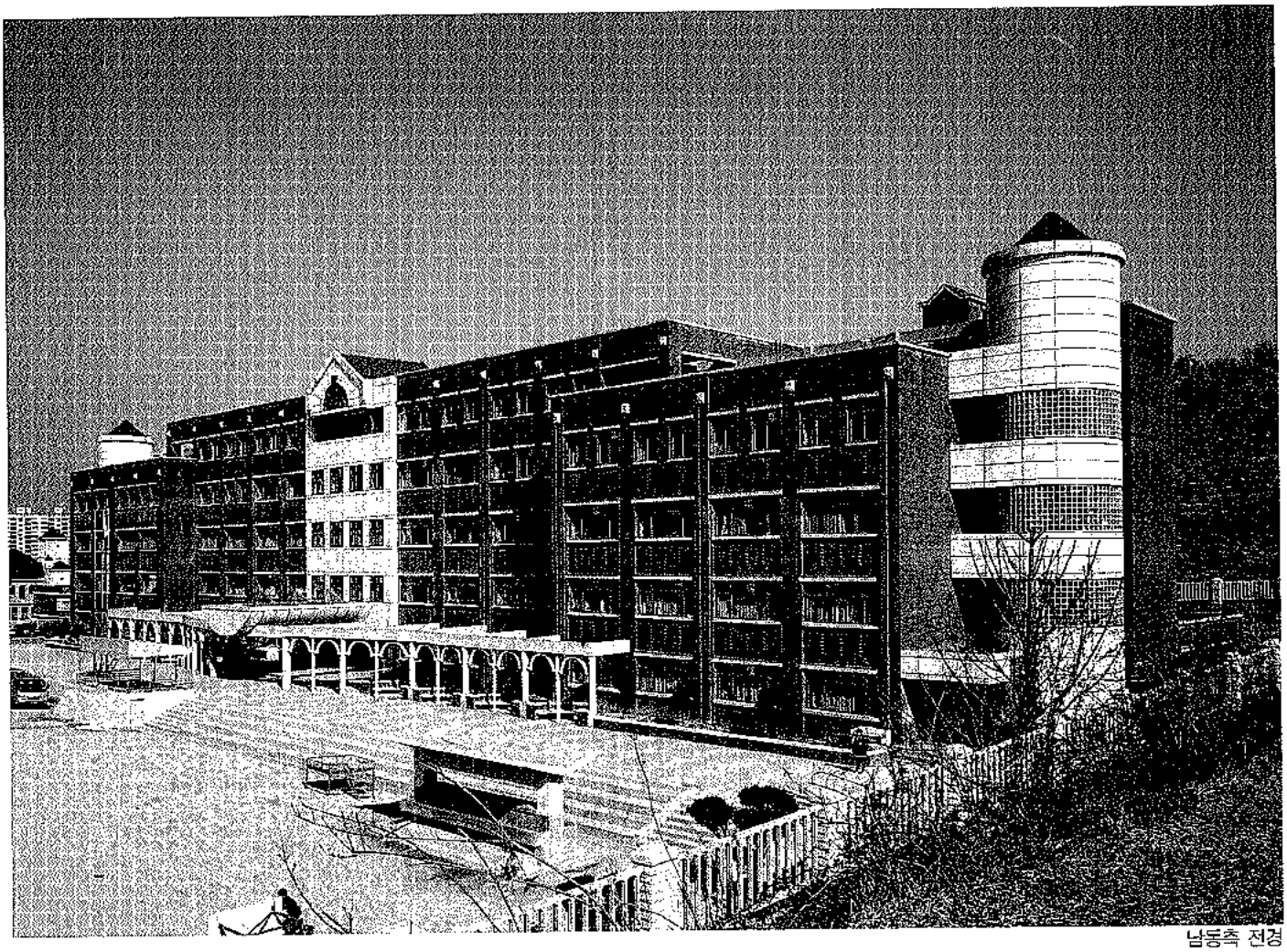
벽과 벽의 사이, 공간과 공간이 겹쳐지는 곳에 서로를 연결하는 장치를 둔다. 틈은 트임을 만든다. 트임의 반복으로 주변과의 자리 매김에 의미를 주고 싶다.

마무리짓지 못한 미완성의 형상이 오히려 편하다. 이름이 없는 무성(無性)의 공간을 상상이 아닌 실체로 구현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남춘천초등학교

Namchuncheon Elementary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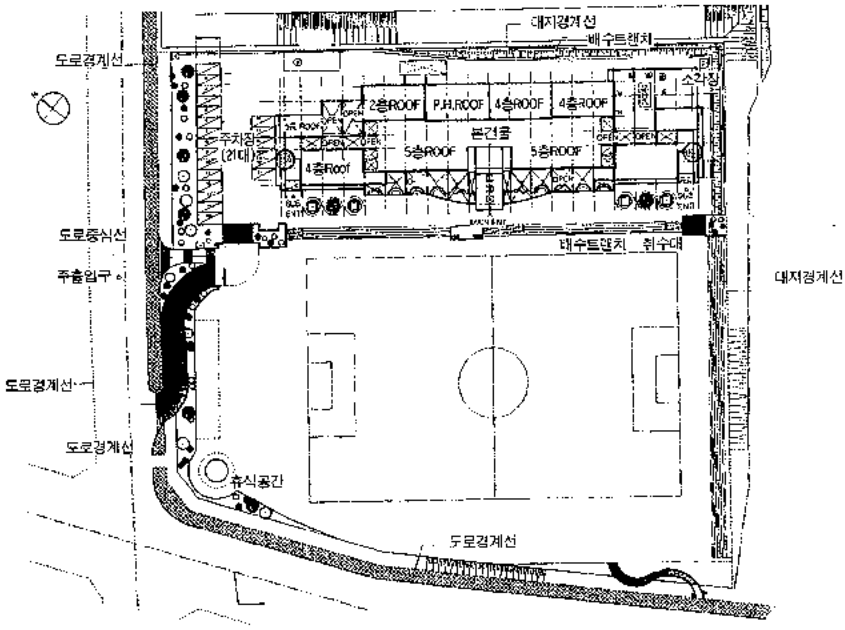
한광호+하금현+유기정+김삼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
Designed by Han Kwang-Ho, Ha Keum-Hyun,
Yu Ki-Cheong & Kim Sam-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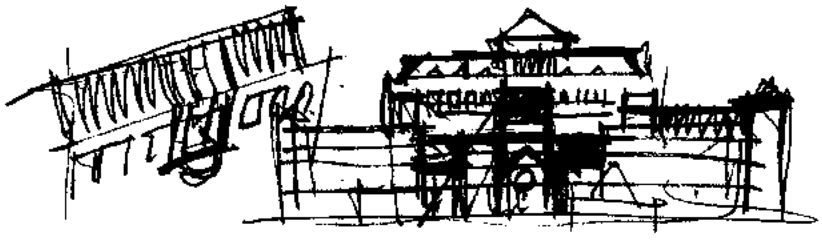
남동측 전경

대지위치 / 강원도 춘천시 퇴계지구 46블럭
대지면적 / 13,637.9㎡
건축면적 / 1,651.14㎡
연면적 / 6,271.67㎡
건폐율 / 12.11%
용적률 / 44.23%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조경면적 / 2,100㎡

Location / 46/BL, Toegye Zone, Chuncheon-shi, Kangwon-do
Site Area / 13,637.9㎡
Bldg. Area / 1,651.14㎡
Gross Floor Area / 6,271.67㎡
Bldg. Coverage Ratio / 12.11%
Gross Floor Ratio / 44.23%
Structure / R.C Slab
Landscaping Area / 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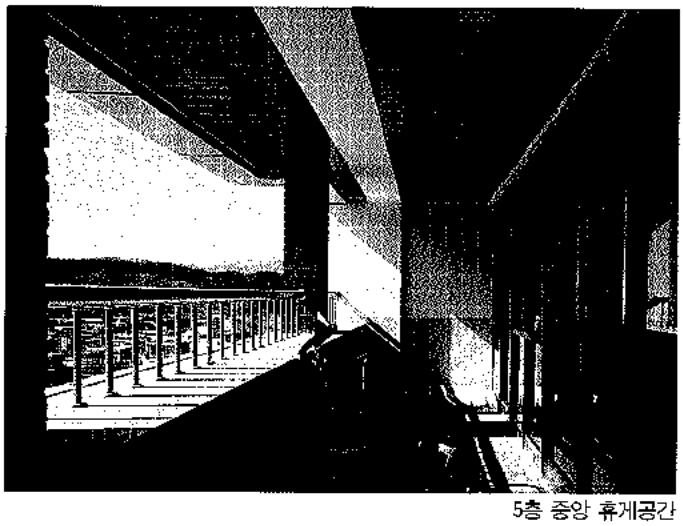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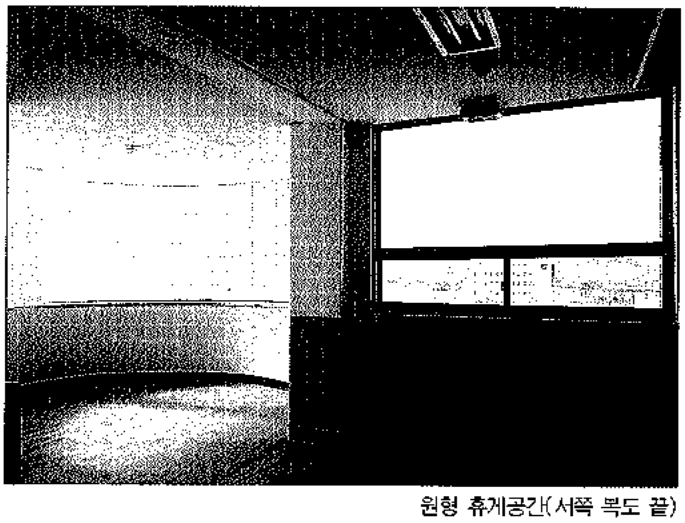


입면 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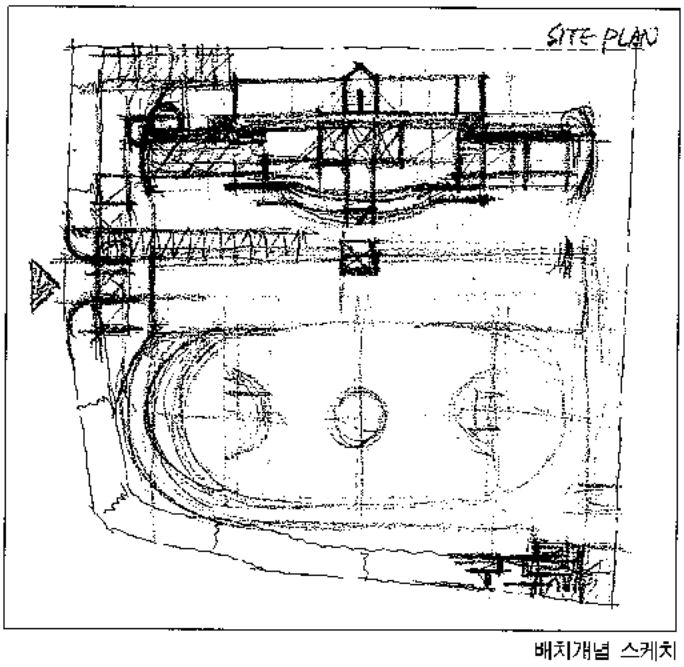
입면 및 파고라 상세



5층 중앙 휴게공간



원형 휴게공간(서쪽 복도 끝)



배치개념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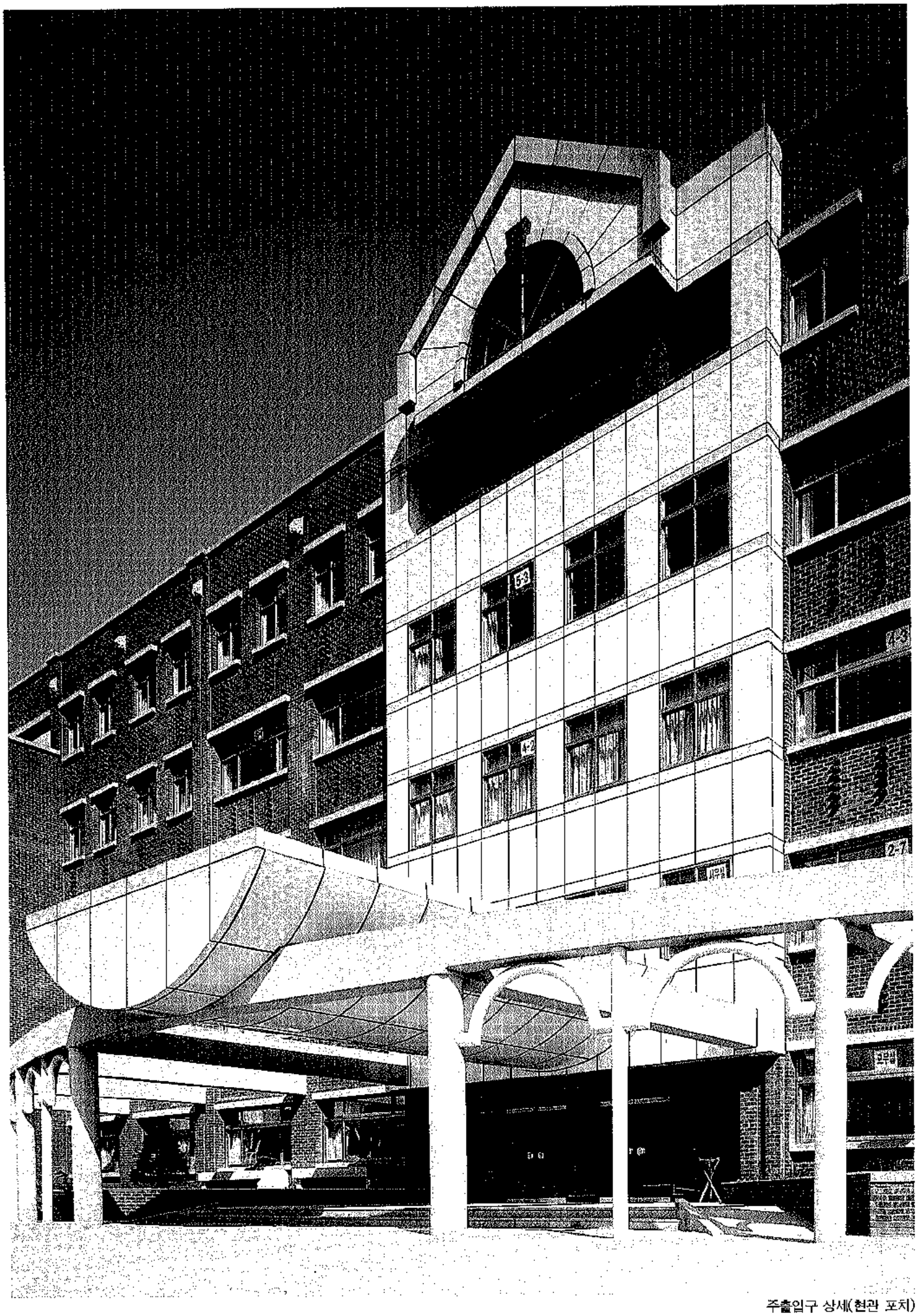
초등학교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위해 외장요소를 통일, 단순화시켜 미래지향적인 조형을 창조하였다.

주변 환경과의 연계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교육공간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보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대지축과 도로축을 고려해 남향 건물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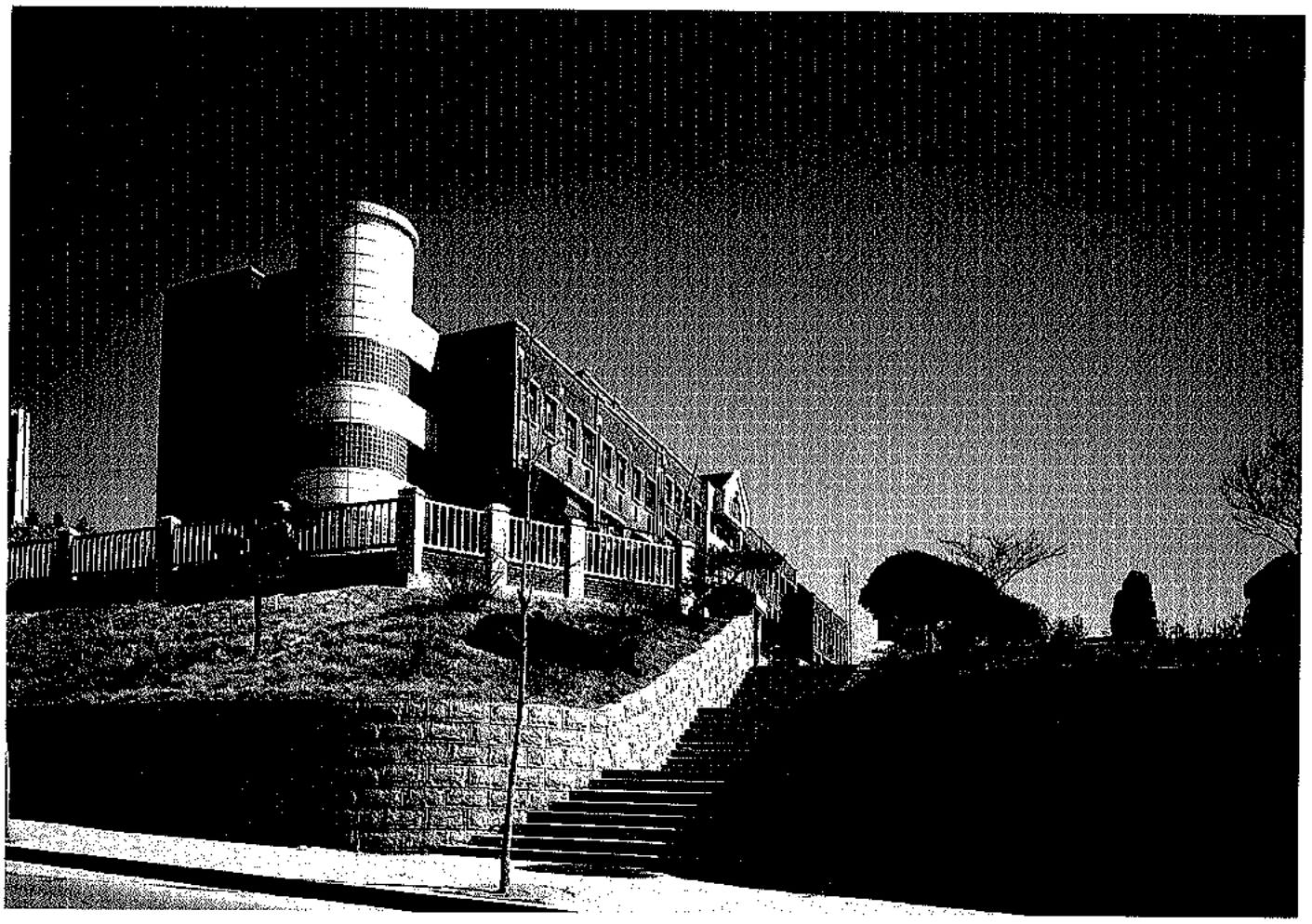
또한 증축을 고려해서 여유공간을 확보하였다. 학교 운동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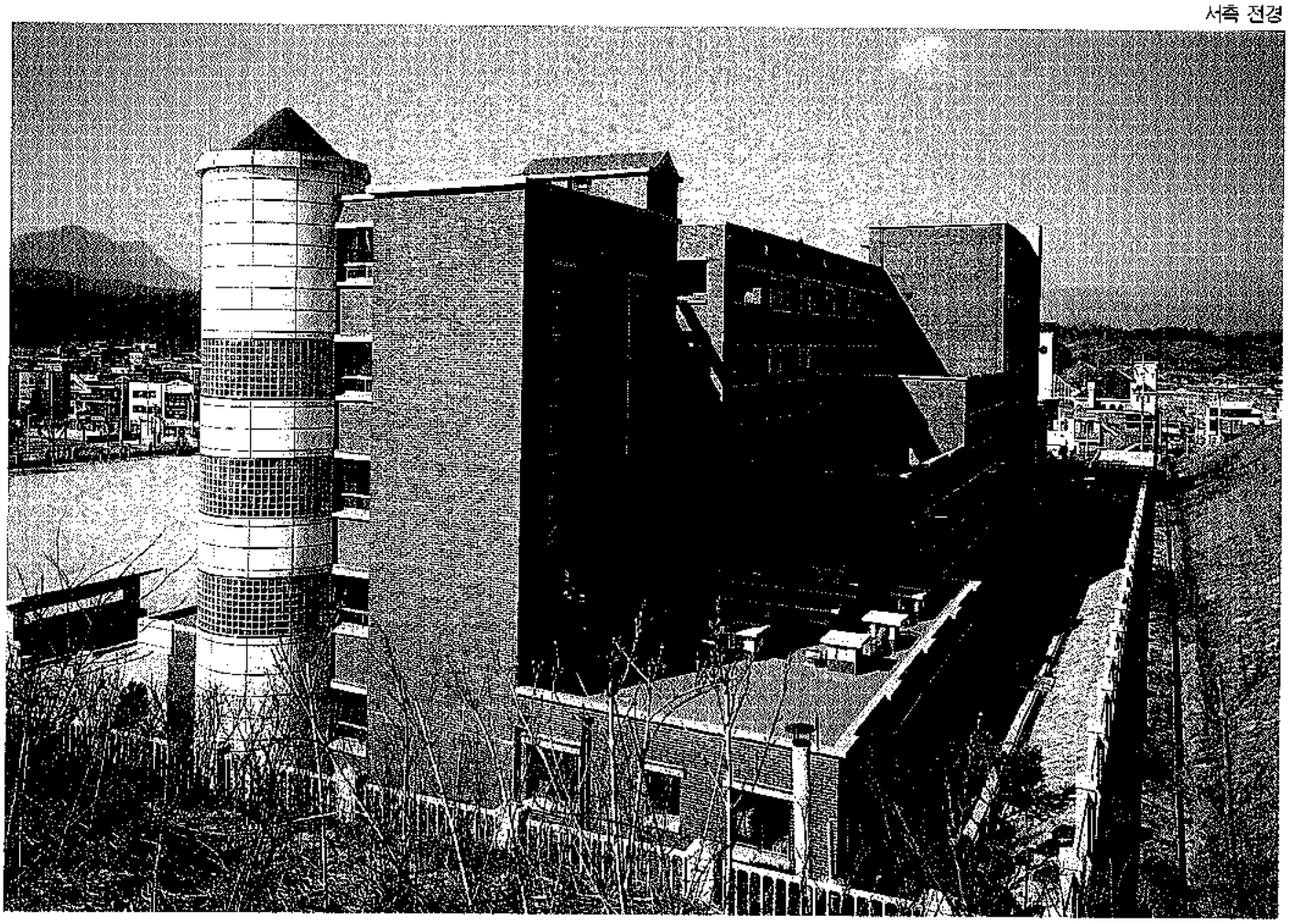
보행동선은 최소화하여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레크레이션 시설과 연계, 체력단련시설 휴게공간으로의 유도로 보행로의 역할을 적극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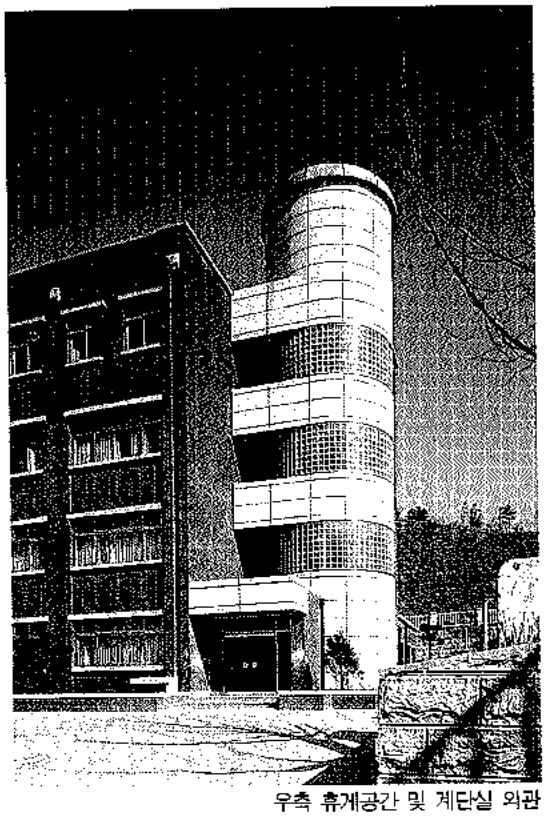
주출입구 상세(현관 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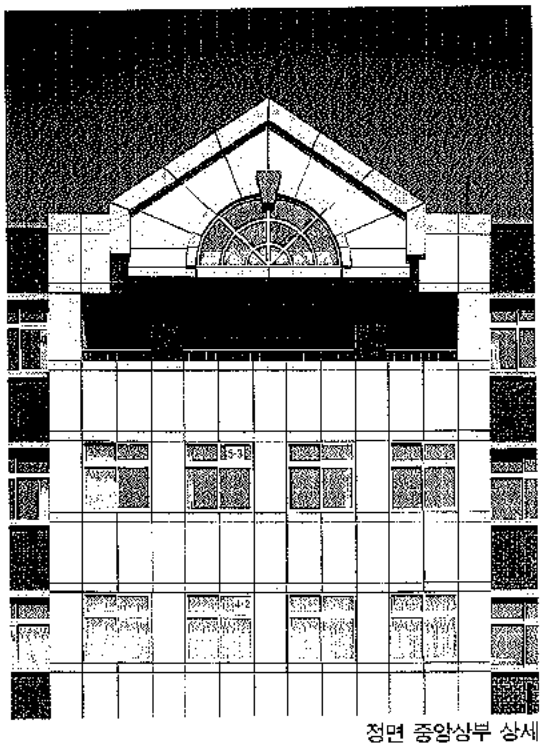
서측 전경



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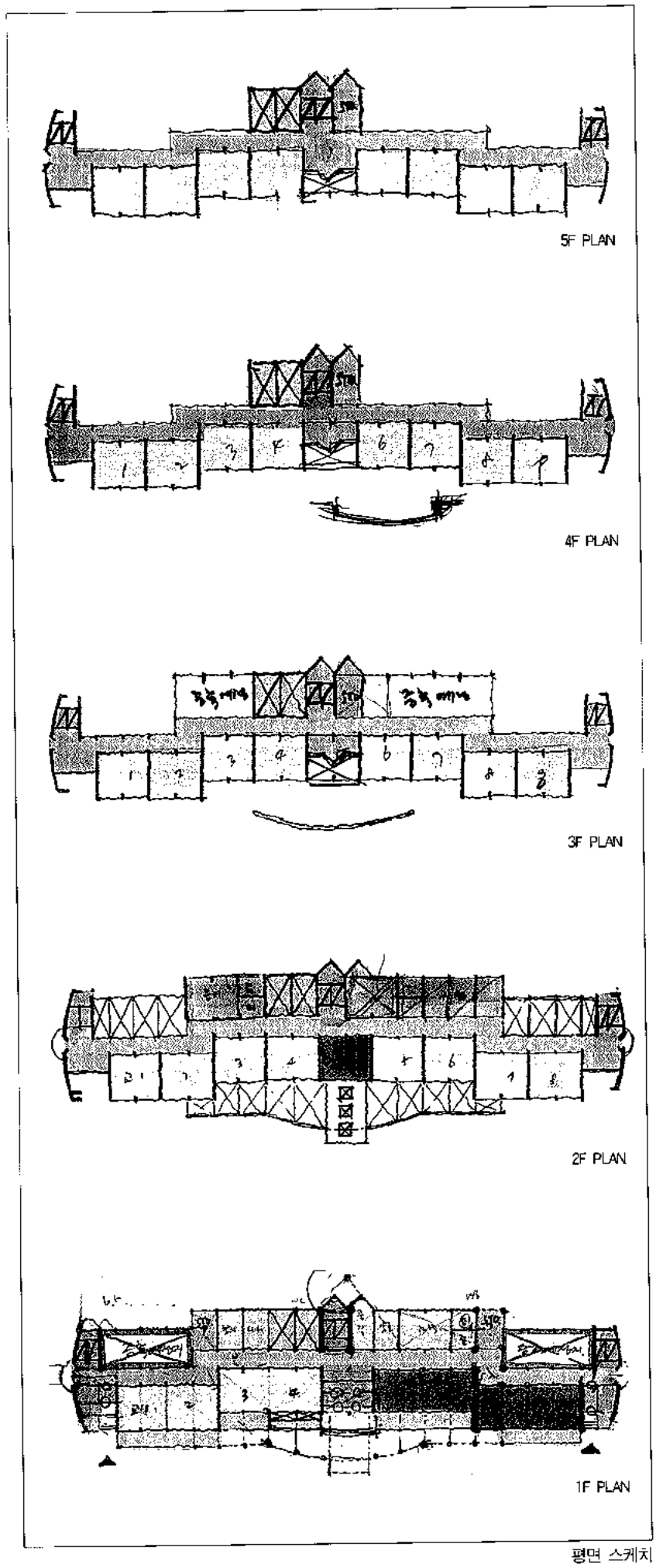


우측 휴게공간 및 계단실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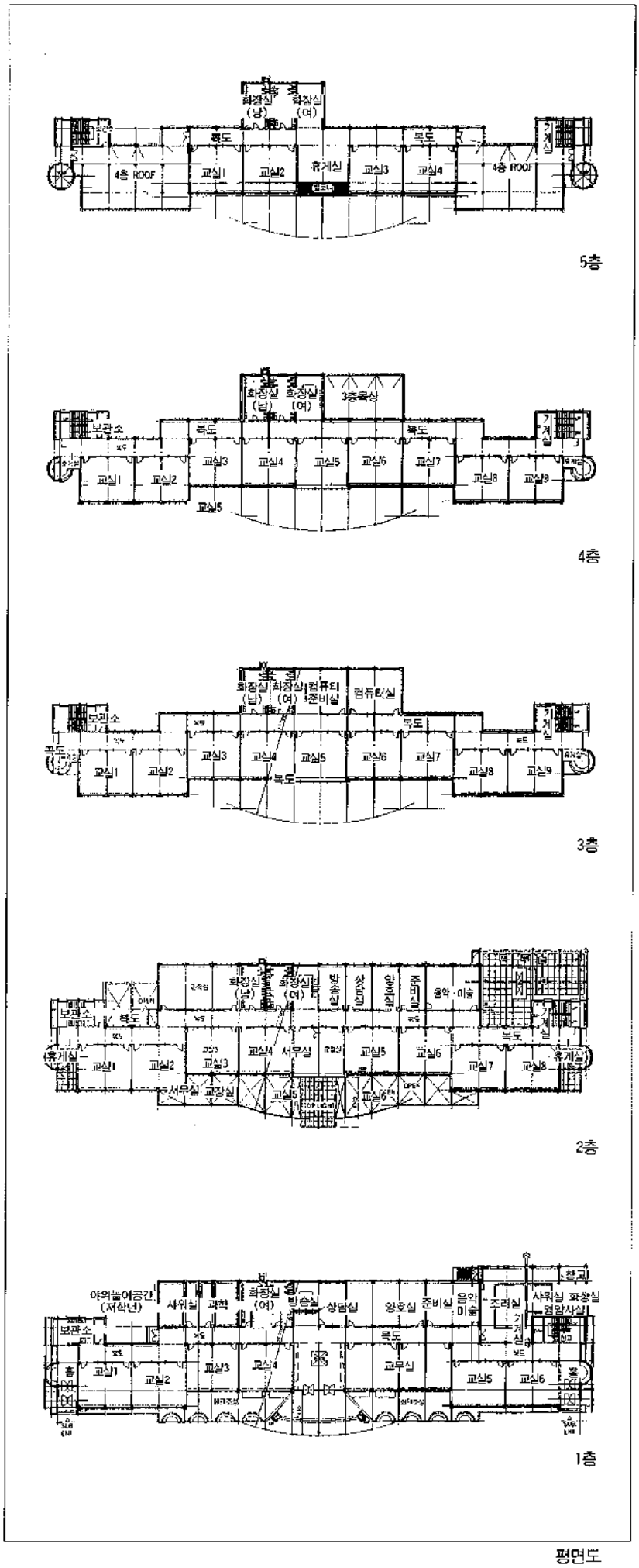


정면 중앙상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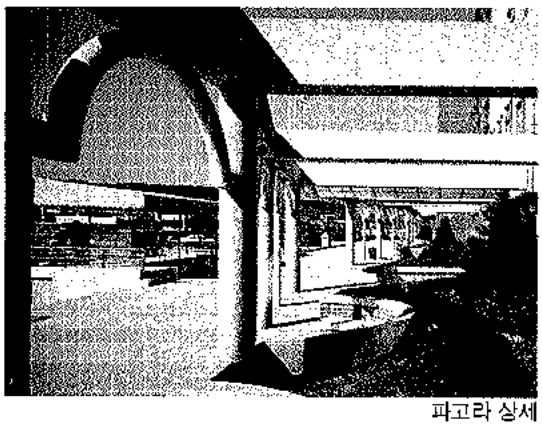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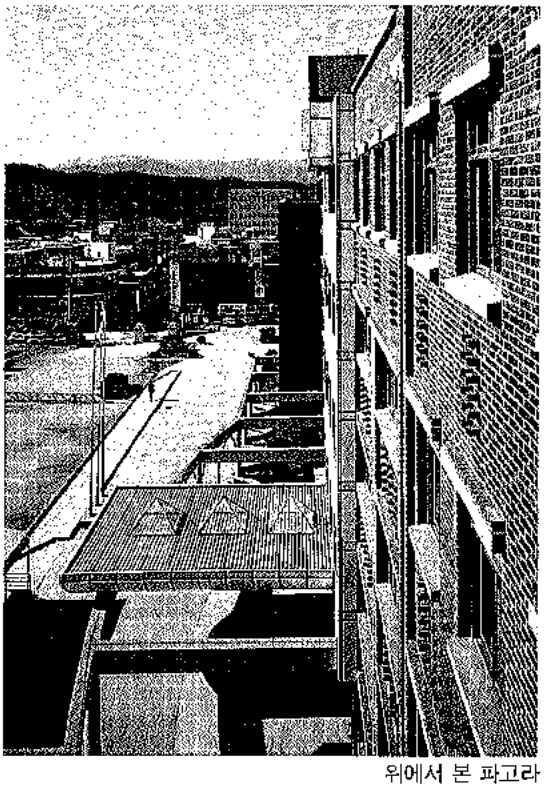
평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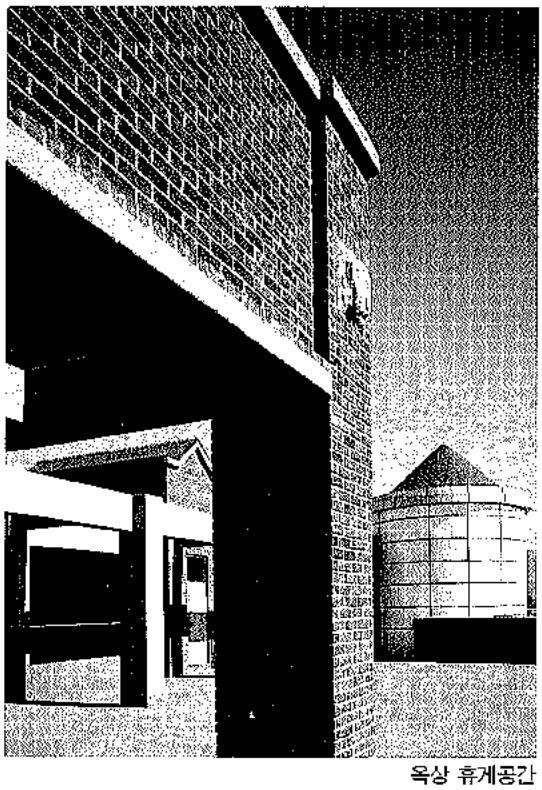
평면도



파고라 상세



위에서 본 파고라



옥상 휴게공간

(주)미원 · 미원유화 연구소

Miwon Co., Ltd & Miwon Petrochemical Co. R/D Center

황임규 / (주)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wang Lim-Kyu

경비동 앞에서 본 남측 전경

기업의 핵심인 연구소는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의 얼굴이자 발전과 성장의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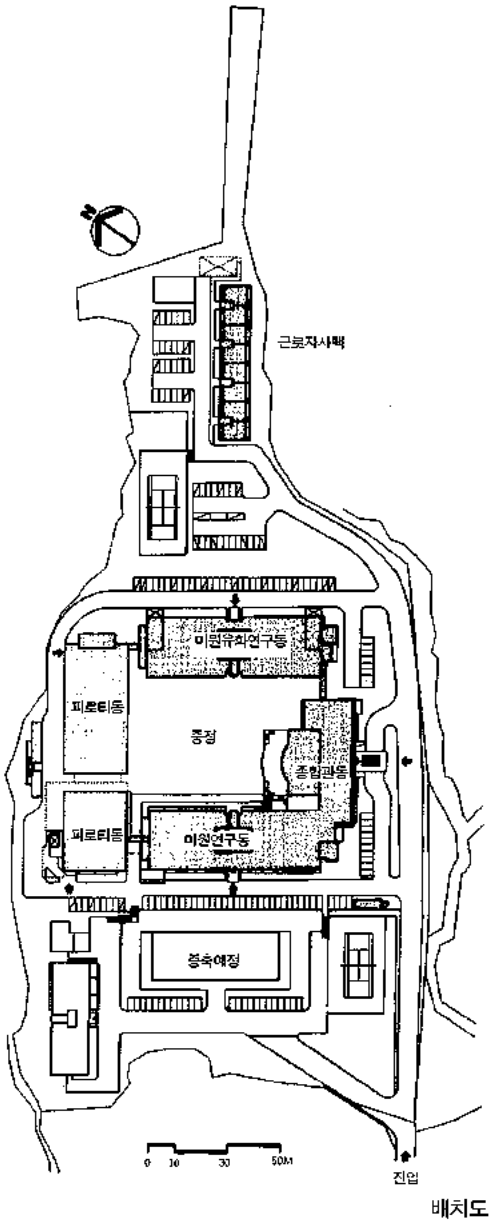
그룹차원의 연구소를 건립하여 새로운 세계에 새롭게 도전하고 선진 미원을 구축하고자 이천군 마장면 표교리 산에 자리를 잡고 무궁무진한 기술의 샘터로 태어났다.

이천 용인 간의 국도에서 진입되는 이 연구소는 (주)미원과 미원유화(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종합관(행정, 관리)과 좌우로 크게 식품과 화학연구 기능을 갖는 복합적이고 기능적인 동선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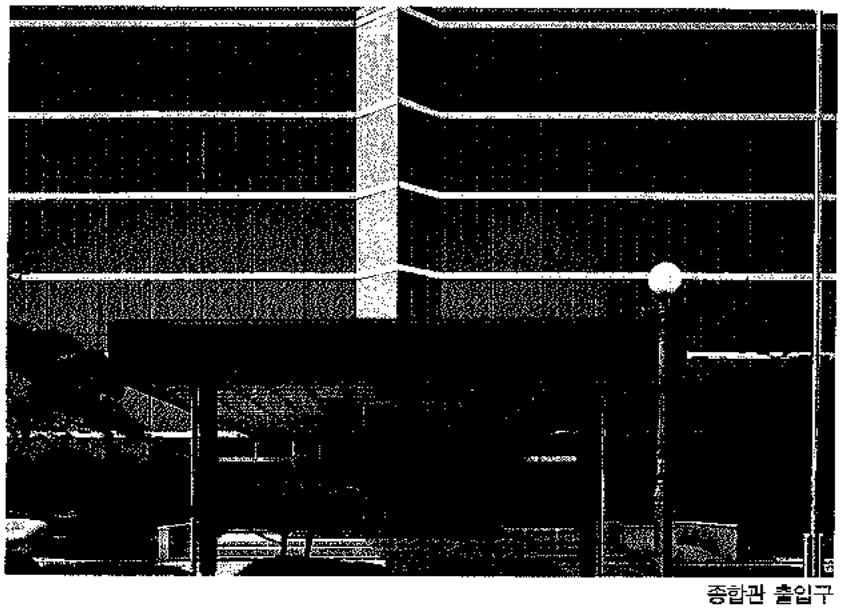
특히 종합관은 2개의 연구소가 공동관리함으로 생기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지형적인 것을 고려하여 중정에 채택된 Sunken Garden은 지하에 위치한 식당 등 휴식공간에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많은 연구에 고민하는 연구원들을 더욱 쾌적하고 상쾌한 연구공간으로서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중정 등의 지하배수는 자연배수 처리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

외부동선은 연구원, 관리원, 방문자로 크게 나누어 기능적인 분리를 하여 독립성과 연계성을 갖도록하여 각각의 공간이 특성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질서가 내재되도록 처리하였다.

종합관에는 3층에 국제적인 세미나실과 2층의 공동자료실, 1층의 넓고 쾌적한 로비 및 크



배치도



종합관 출입구

미원유화 연구동 전경

고작은 미팅룸, 지하층은 식당과 연구원의 휴식과 운동 및 사우나시설의 회복공간을 배치하여 연구환경을 최대한 고려한 기능과 공간을 구성하였다.

연구동은 중복도 형태로 가변성과 설비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설비 샤프트를 도입하였으며 중앙에는 중정을 향해 개방되어 있는 계단실을 두어 내외부 공간을 서로 관입시켜 자연환경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조경은 종합관과 연구동, Pilot 동을 배치하여 연구, 정보, 실험 공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기능적으로 처리하였다.

조경은 종합관과 연구동, Pilot 동 등이 둘러싸인 시선이 집중되는 중정과 방문자들이 많은 종합관 전면에 치중되어 계획되었으며 국제적인 연구소의 Image를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소나무를 소재로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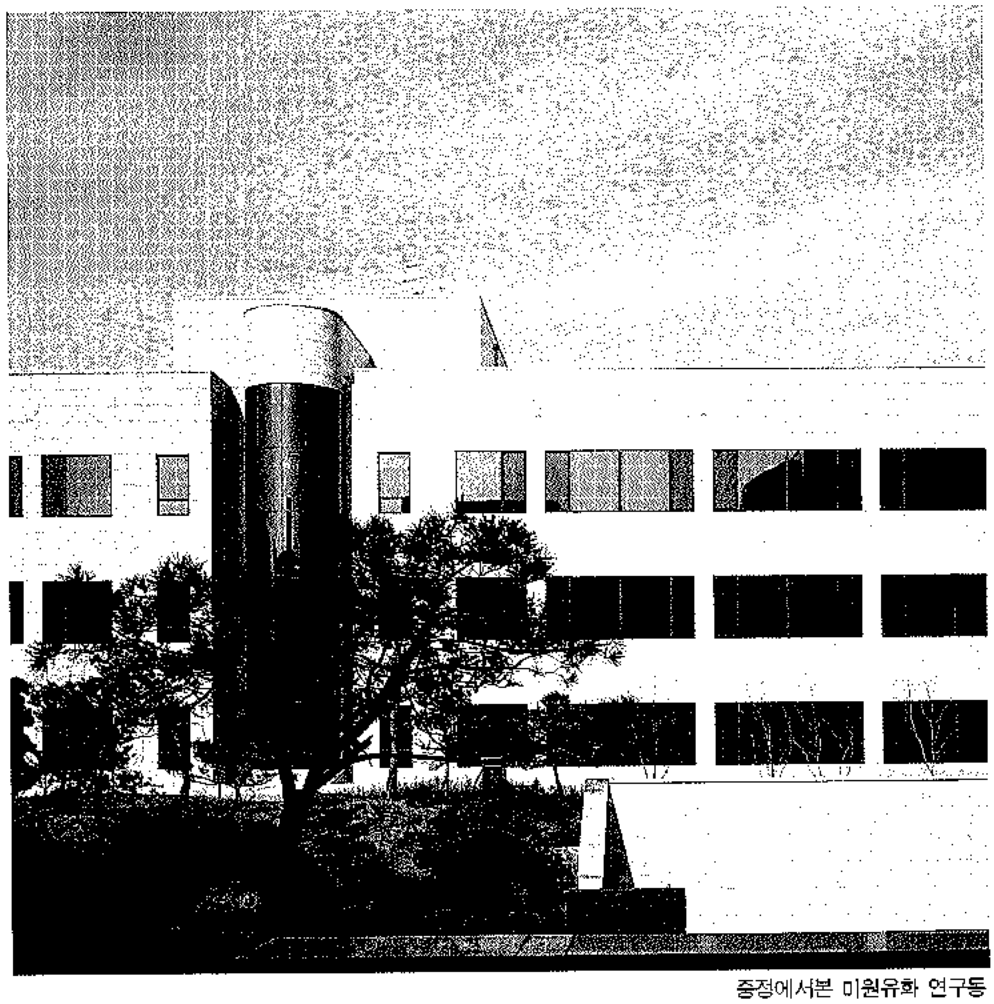
외장 Design은 자연과 잘 순화될 수 있는 반사유리와 자연소재인 화강석을 채택하여 계절과 날씨와 시각에 따라 변화되는 자연의 동반자로 사용자나 방문자에게 언제나 새롭게 대화하는 건축물로써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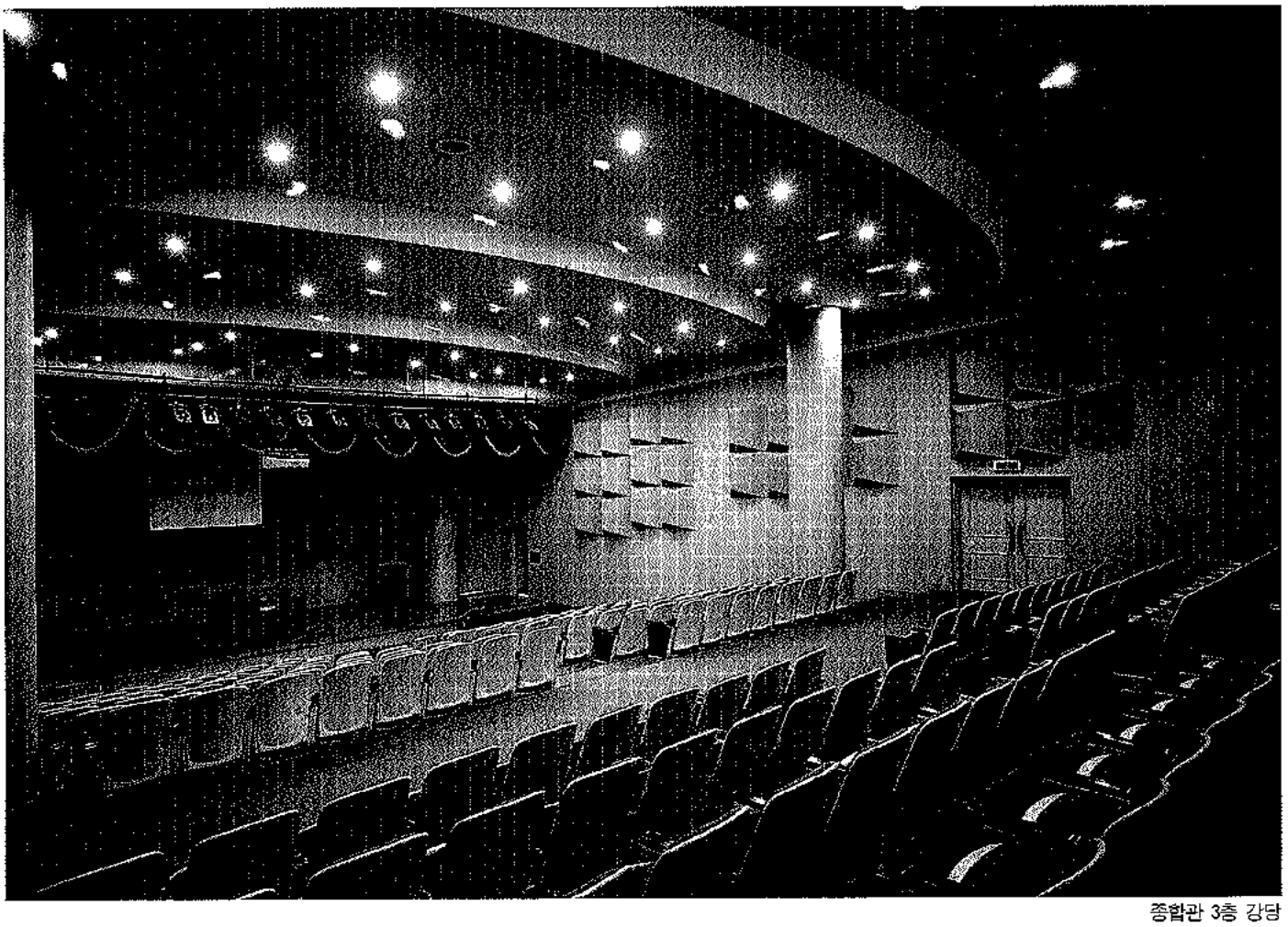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그룹의 원천기술 개발과 새로운 가치창출의 산실로써 거듭태어나 기술의 보고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대지위치 /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표교리 산40-1번지외 3필지
대지면적 / 36,189.0㎡
건축면적 / 8,460.47㎡
연면적 / 21,662.3㎡
건폐율 / 23.4%
용적률 / 55.9%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시설별면적
- 종합관 / 3,723.14㎡
- 연구동(1) / 6,503.52㎡
- 연구동(2) / 5,230.02㎡
- 실험동(1) / 1,517.0㎡
- 실험동(2) / 2,774.52㎡
- 근로자사택 / 1,645.2㎡
- 기 타 / 268.9㎡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및 물갈기, 컬러복층유리
주차대수 / 144대
조경면적 / 8,537.6㎡
토목설계 / 서일토목
구조설계 / 센구조
전기설비 / 대경전기
기계설비 / 일조설비
조경 / 녹지원
시공 / 미원건설(주)
사진 / 박영채

Location / 40-1, Pyogyo-ri, Majang-myeon, Icheon-gun, Kyeonggi-do
Site Area / 36,189.0㎡
Bldg. Area / 8,460.47㎡
Gross Floor Area / 21,662.3㎡
Bldg. Coverage Ratio / 23.4%
Gross Floor Ratio / 55.9%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eel
Facilities Part Area
- Synthesis Hall / 3,723.14㎡
- Laboratory(1) / 6,503.52㎡
- Laboratory(2) / 5,230.02㎡
- Test Room(1) / 1,517.0㎡
- Test Room(2) / 2,774.52㎡
- Company House / 1,645.2㎡
- Others / 268.9㎡
Exterior Finish / Granite
Parking / 144 Cars
Landscaping Area / 8,537.6㎡
Civil Design / Seoil
Structural Design / Sen
Electric Installation / Taegyeong
Mechanical Services / Ilcho
Landscaping / Nokchiwon
Construction / Miwon Cons. Co.
Photographer / Park Young-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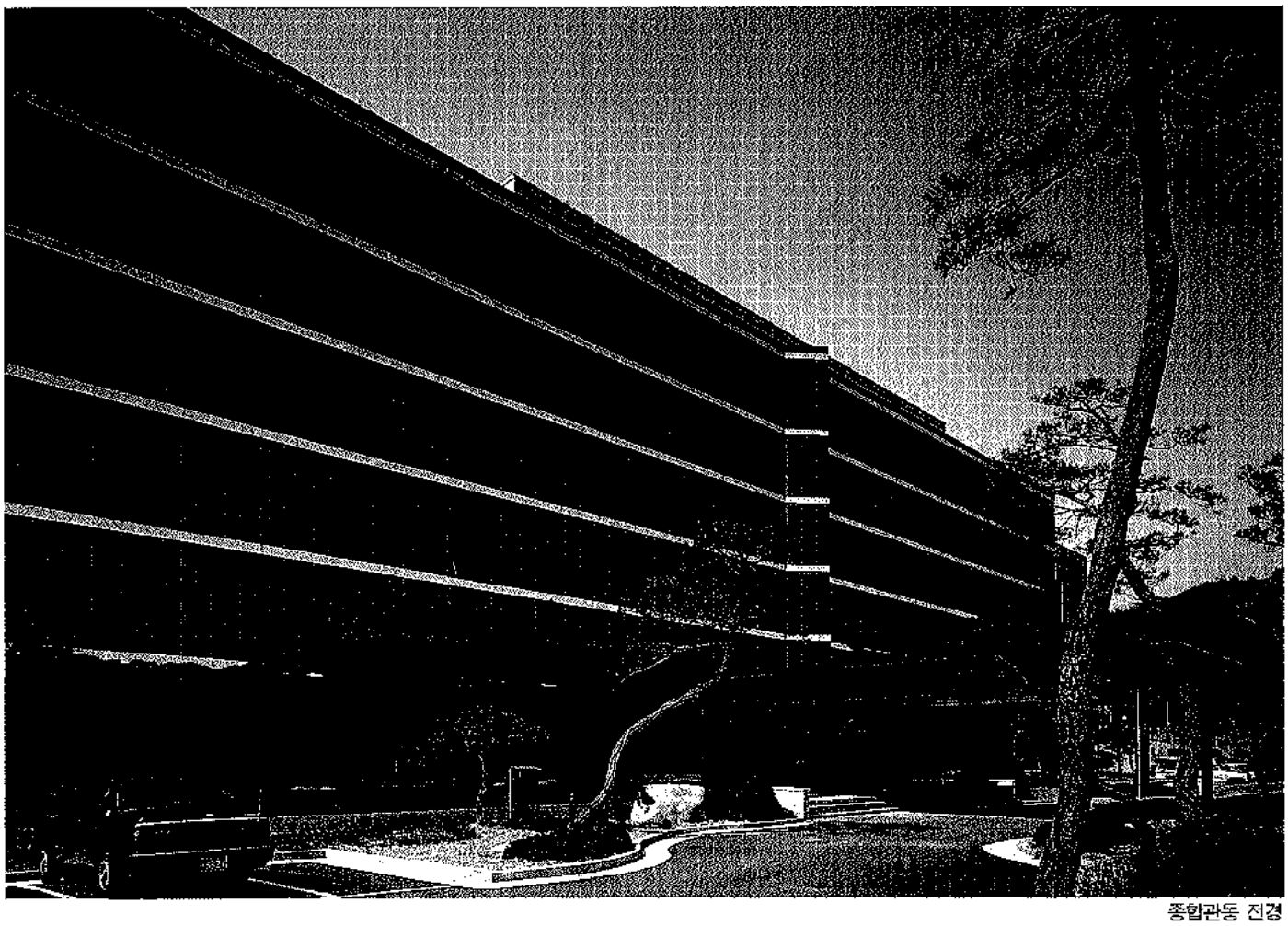
전시실


중정에서본 미원유화 연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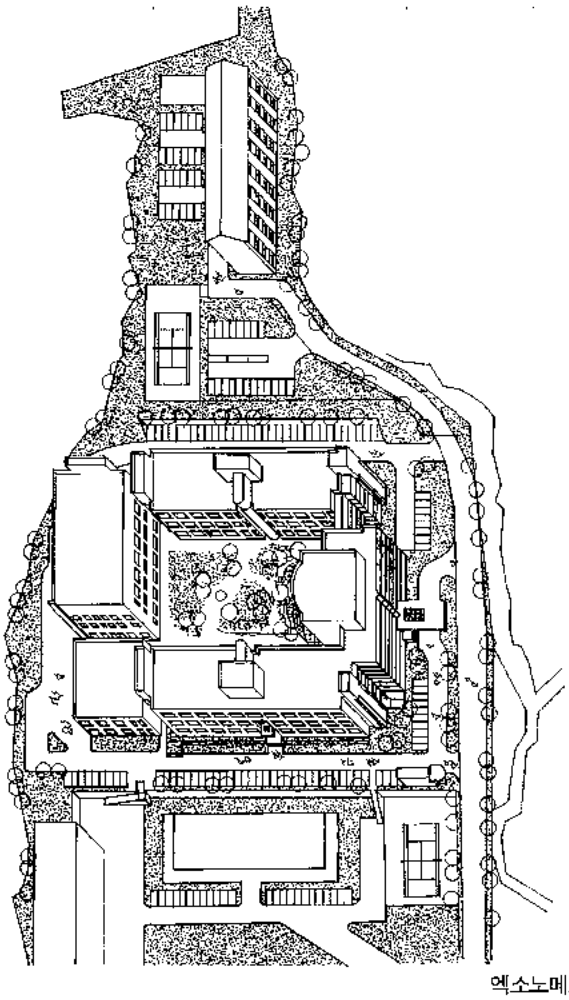


종합관 3층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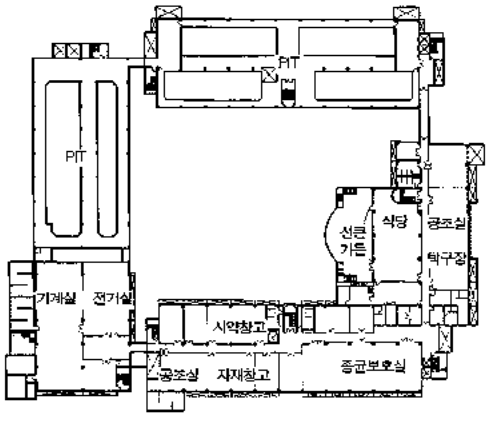
로비에서 본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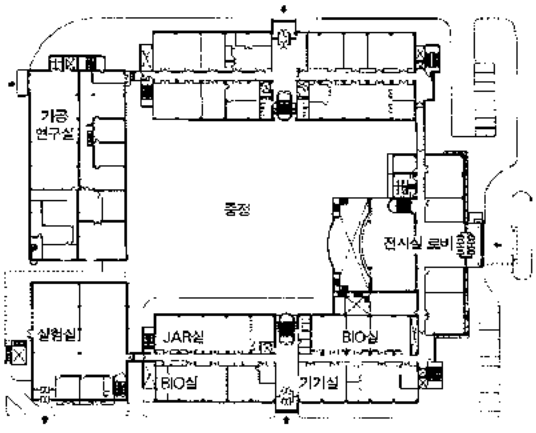
종합관동 전경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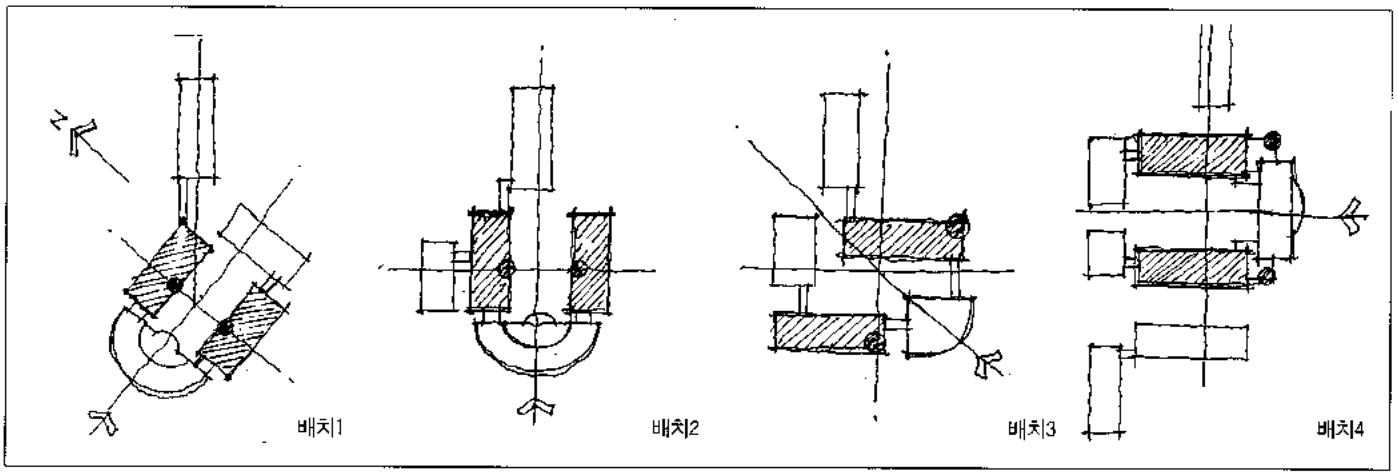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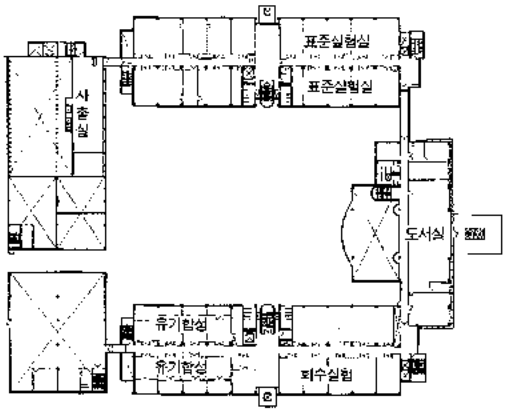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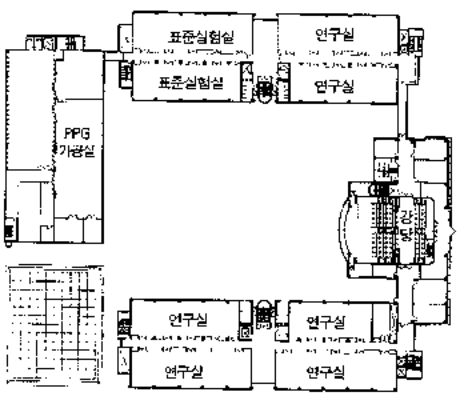
중정에서 본 종합관동과 미원유화 연구소동



배치개념 변천 과정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한국공중전화(주)

Korea Public Telephone Co., Ltd.

임장렬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im Jang-Ryul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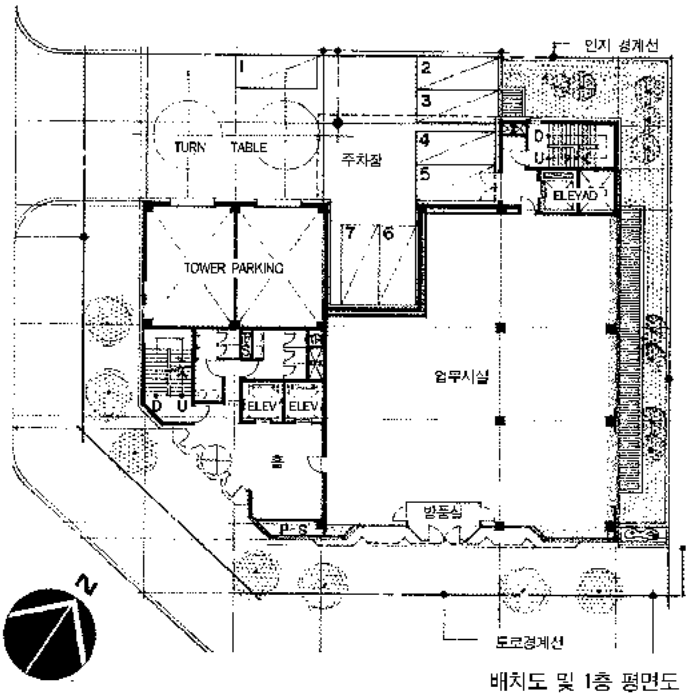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6-6
지역 / 일반상업
용도 / 업무, 근린생활
대지면적 / 1,129.2㎡
건축면적 / 628.85㎡
건폐율 / 55.7%
용적률 / 757.0%
규모 / 지하3층, 지상15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조경면적 / 205.79㎡
외부마감 / 알미늄 복합패널, 18㎜ 파스텔 컬러복층유리
건축주 / 한국 공중전화 관리 주식회사
시공자 / (주)부성건설
사진 /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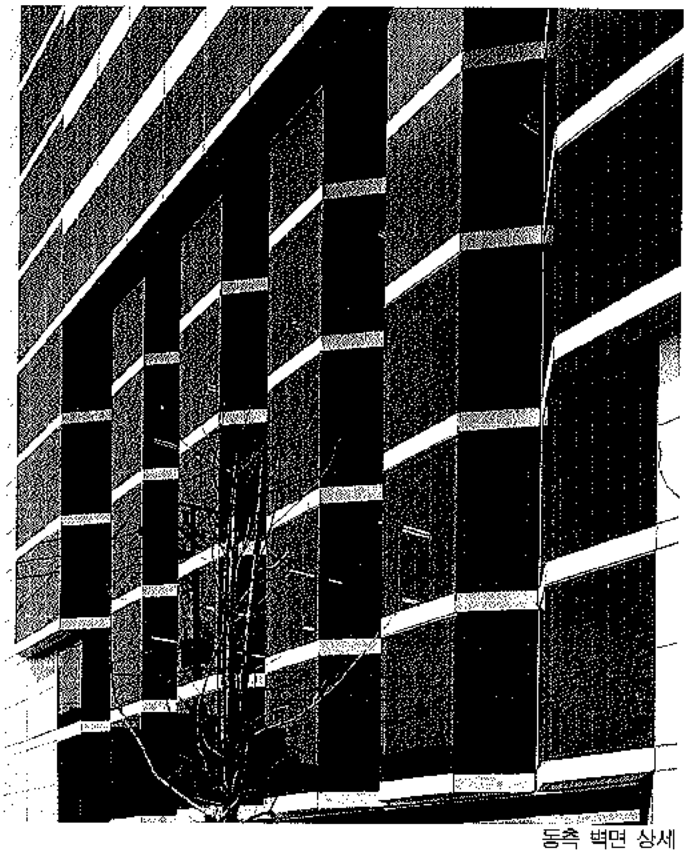
Location / 106-6, Kuro-gu, Kuro-dong, Seoul
District / Commercial
Use / Business, Neighborhood
Site Area / 1,129.2㎡
Bldg. Area / 628.85㎡
Gross Floor Area / 11,324.6㎡
Bldg. Coverage Ratio / 55.7%
Gross Floor Ratio / 7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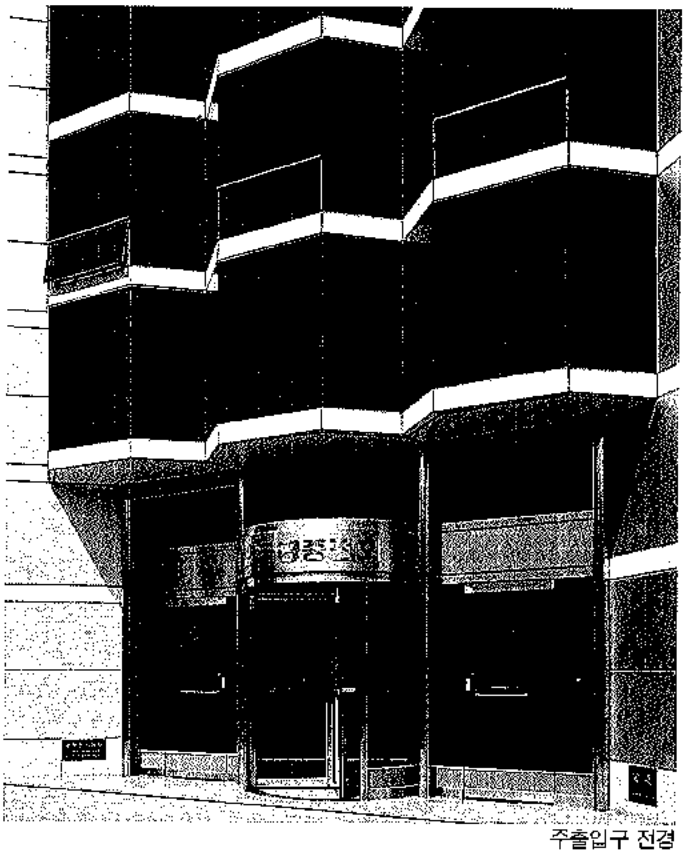
Bldg. Scale / 3 Stories Below Ground, 15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Landscaping Area / 205.79㎡
Exterior Finish / Aluminum Composite Panel, 8㎜ Pastel Color Double Grazing
Client / Korea Public Telephone Co.
Constructor / Pusung Cons.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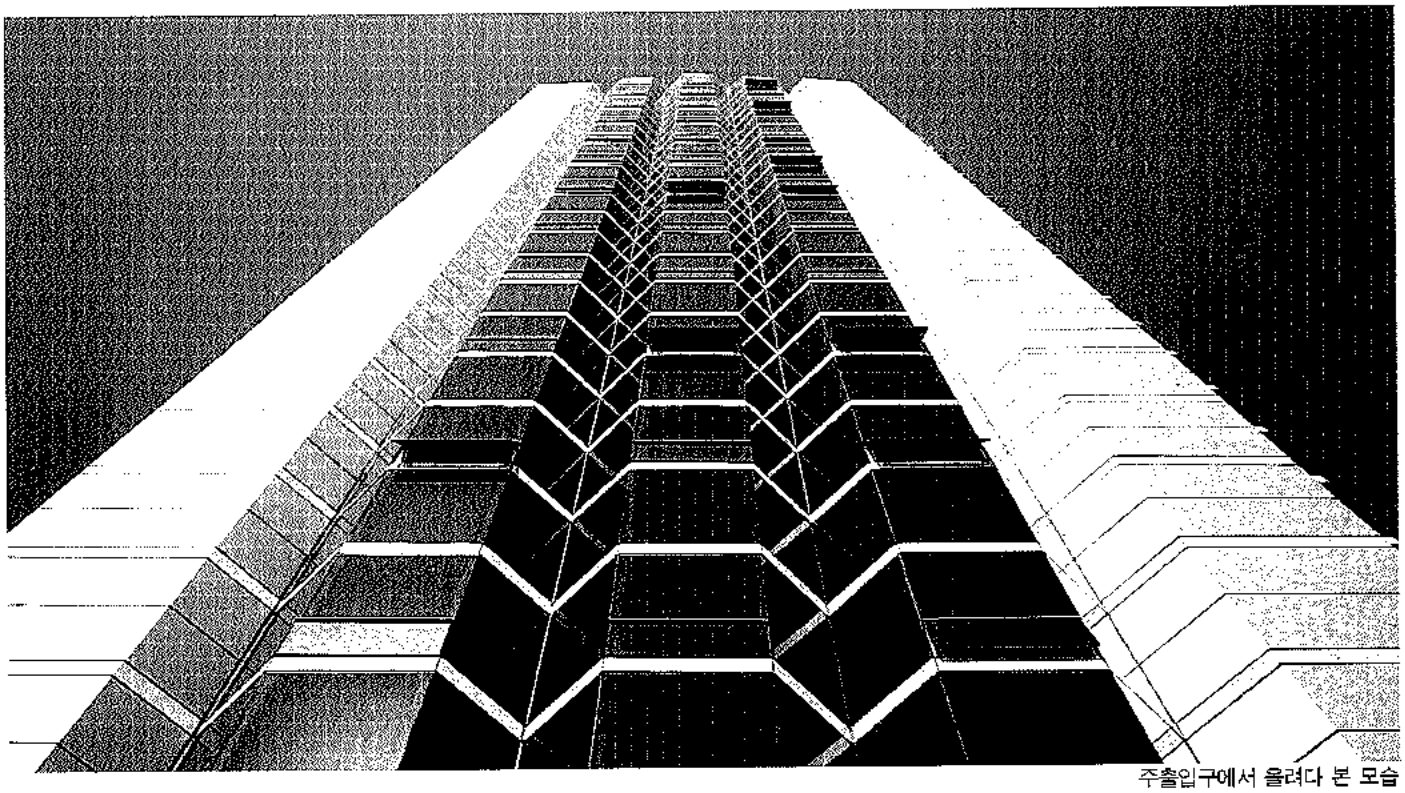
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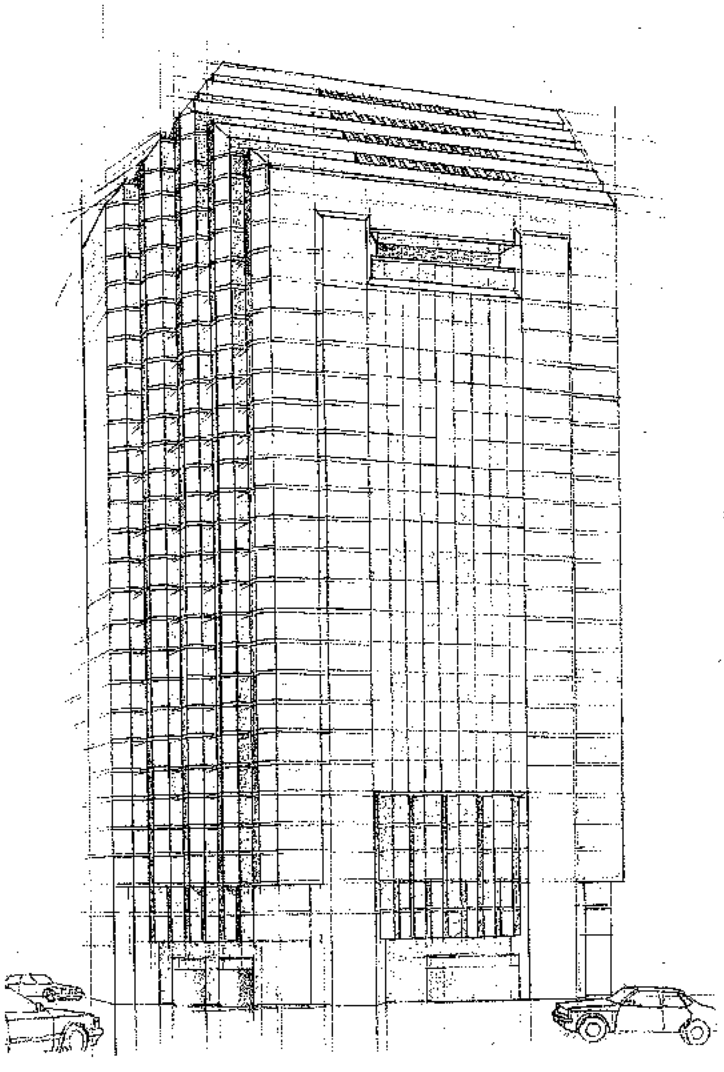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동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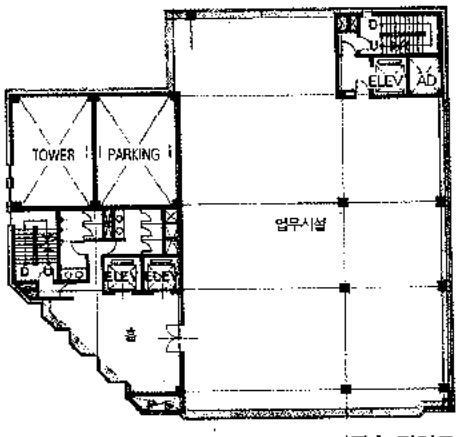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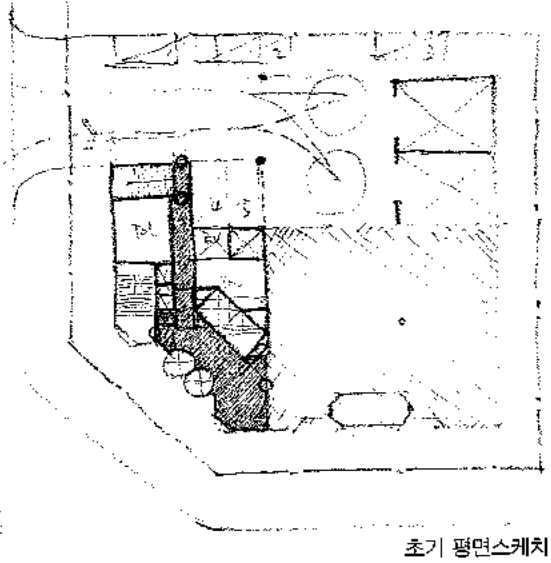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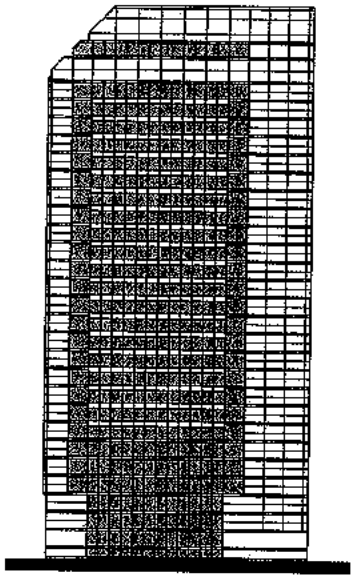
입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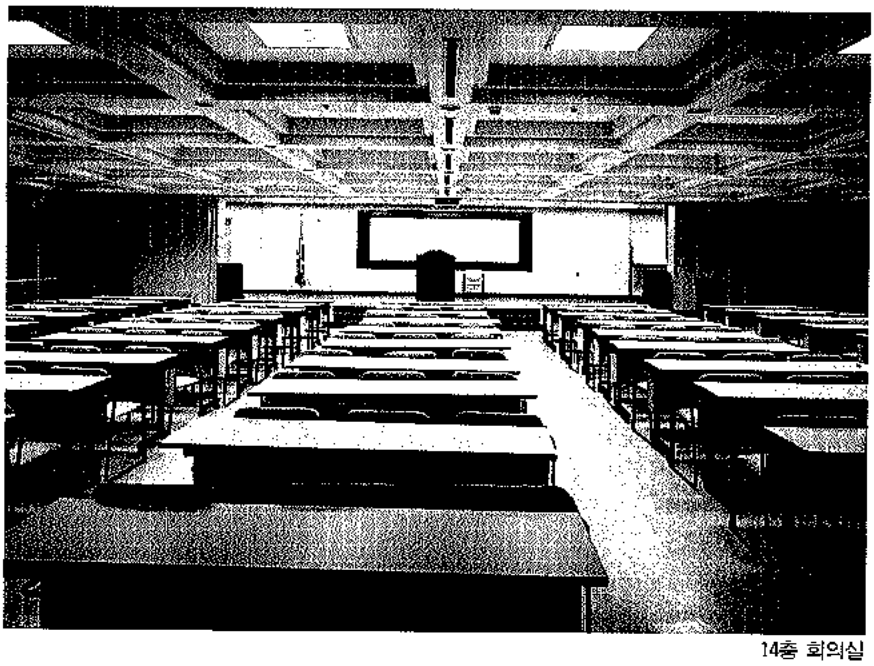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초기 평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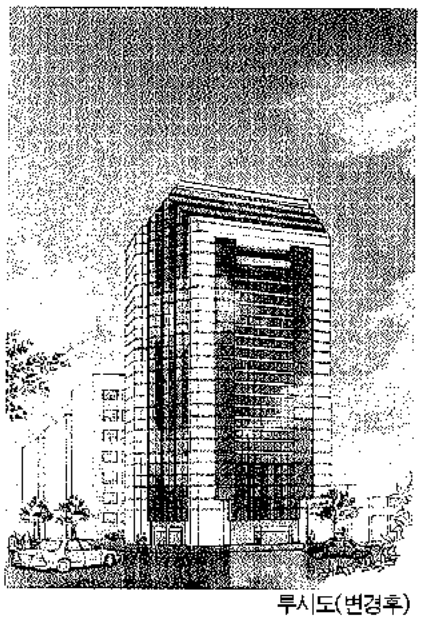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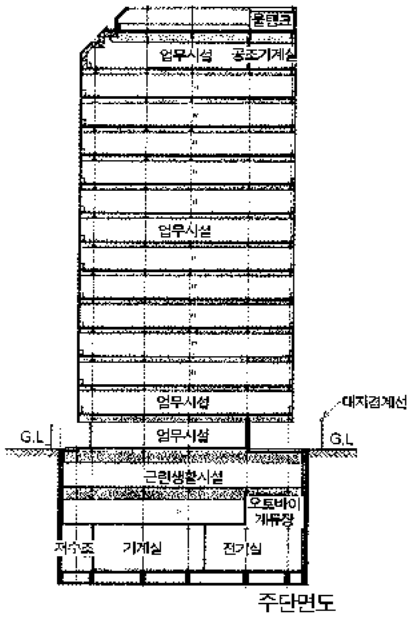


14층 회의실

투시도(변경전)



투시도(변경후)



주단면도

이 대지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과 인접해 있고 구로 구청과는 100여미터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며 부도심의 중심지로서 주위의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연계되어 업무지역으로는 최적지에 위치한다.

전체 16층 규모의 사옥으로 Office Automation, Telecommunication, Building Automation 등의 고도정보화 시스템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첨단 Intelligat Building으로 설계하여 공중전화(주) 사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였다.

건물배치 계획시 대지면적의 협소함으로 인해 주차장 해결에 난점이 있었으나 Tower Parking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하였고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전용면적을 확보해 달라는 건축주의 요구에도 부응하였다.

특히 평면계획시 화장실, 홀 등의 최소단위면적 계획으로 공용부를 최소화 하고 전용면적을 최대로 계획하였다.

주요 실로는 구조상 무리가 없는 최상층에 대회의실을 배치하였고 중간층에 전산실을 두어 이용상 상층부와 하층부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공중전화사옥의 특성상 지하에 오토바이 계류장을 계획하였다.

외관은 평면계약의 계약상 Mass의 분절이나 중첩은 피하고 오피스의 기능에 맞는 단순한 형태미를 의도하였고 커튼월과 알루미늄 패널의 Match와 Glass의 둔각처리, 수평띠의 일정한 반복 등의 부분적인 Detail처리로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깨끗한 사옥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프로젝트 수행후의 설계자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용부분과 주차동선의 혼잡이 예상되는 바 공용부분 동선이나 주차동선을 실 사용자 거주환경 측면보다는 준 전용사무소로서 부분 임대 등의 수익성을 고려한 건축주의 이해타산 요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게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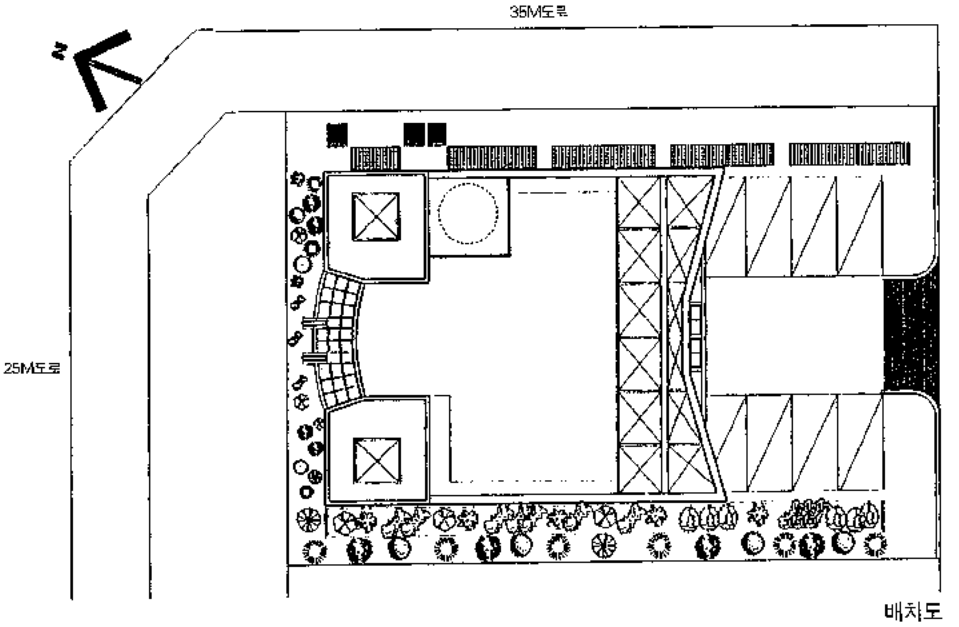
일산영락교회

Ilsan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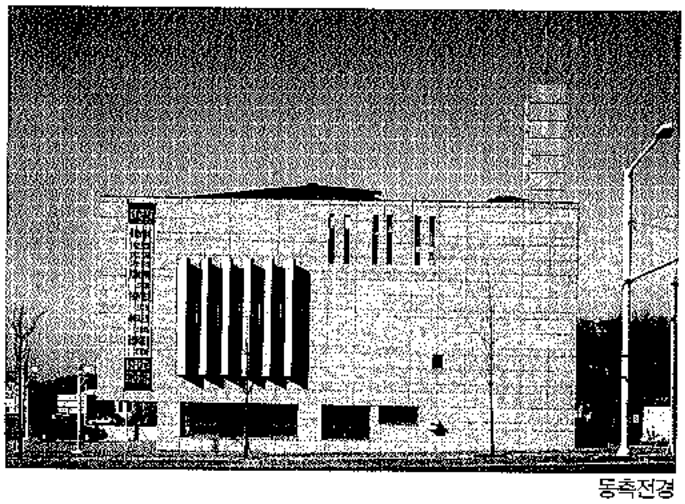
최동규 /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Dong-Kyu

남동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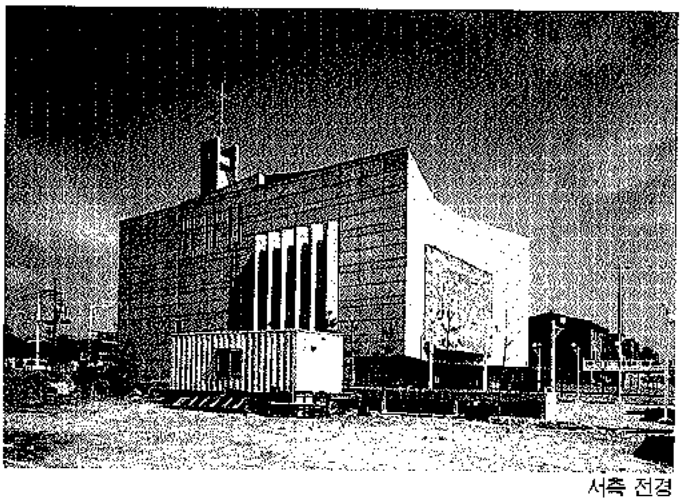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22-21-8
지역 / 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 759.0㎡
건축면적 / 314.95㎡
연면적 / 1,414.89㎡
건폐율 / 41.5%
용적률 / 75.86%
규모 / 지하2층, 지상2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버너구이
설계담당 / 남상철, 손윤호
구조설계 / 영구조
전기설비 / 삼신설비
기계설비 / 기한엔지니어링
건축주 /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 영락교회
시공자 / 준종합건설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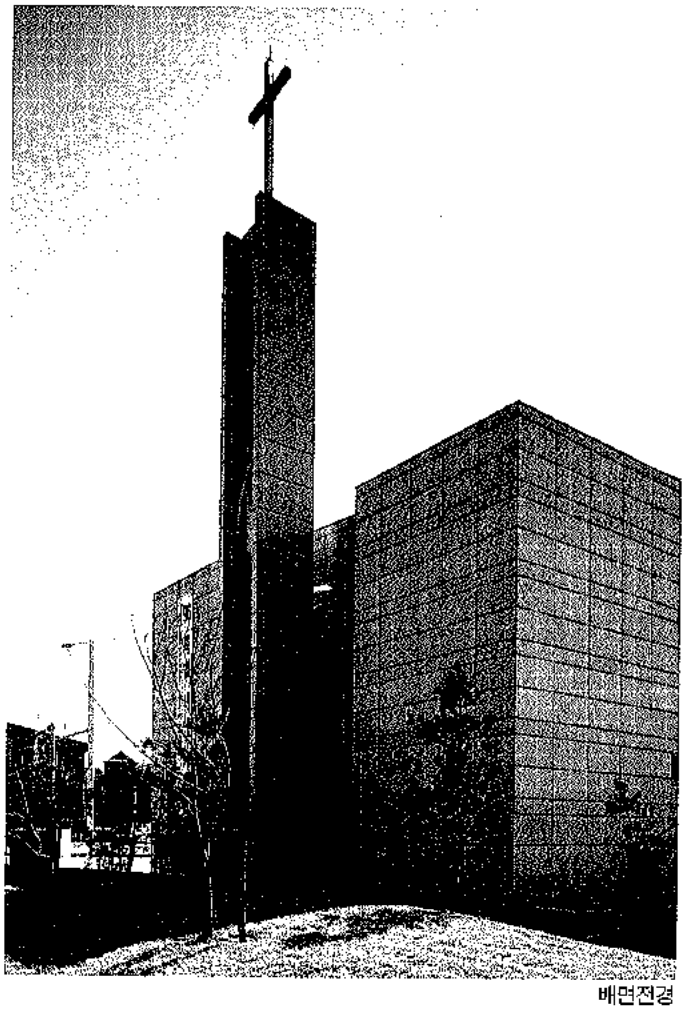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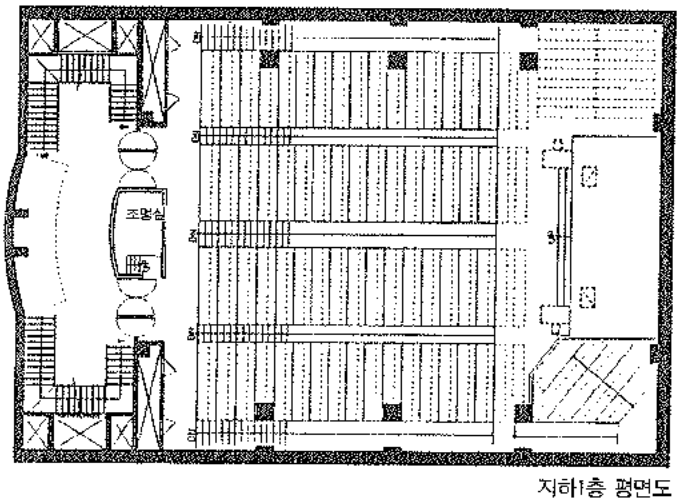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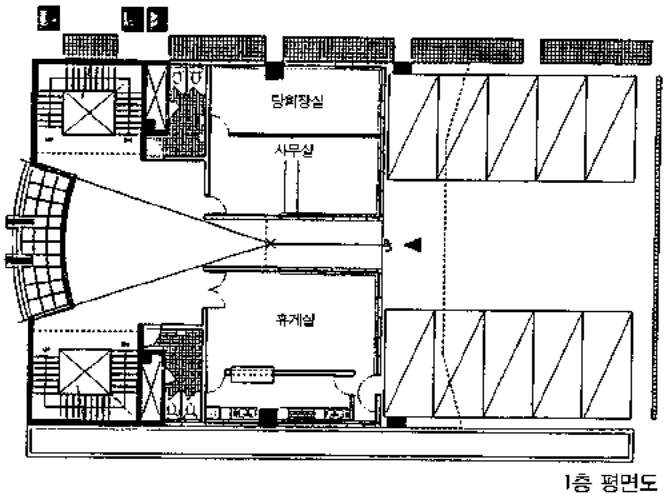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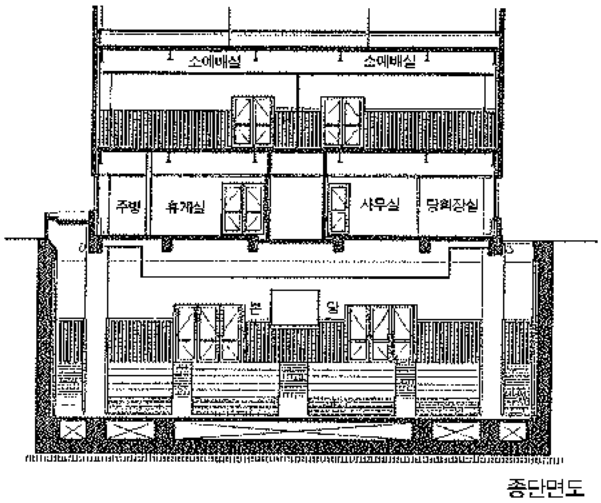
배면전경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Location / 22-21-8, Ilsan-dong, Koyang-shi, Kyeonggi-do
District / Houses
Site Area / 759.0㎡
Bldg. Area / 314.95㎡
Gross Floor Ratio / 1,414.89㎡
Bldg. Coverage Ratio / 41.5%
Gross Floor Ratio / 75.86%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Project Team / Nam Sang-Cheol, Son Yun-Ho
Structural Design / Myeong
Client / Ilsan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Constructor / Jun Cons. Co.

일산영락교회의 전체공간 구성은 크게 옥외, 지상, 지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옥외공간을 보면 공공 공지와 차폐를 위한 공공 조경이 북쪽과 서쪽에 확보되고 부지 남쪽의 8m도로에 접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8m도로에서 주차진입을 하게 되어있는 도시설계의 요건을 충족시켰다.

또 하나의 옥외공간은 지붕층에 형성된 옥외집회장으로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지역조건으로 부족된 집회공간을 조금이라도 보충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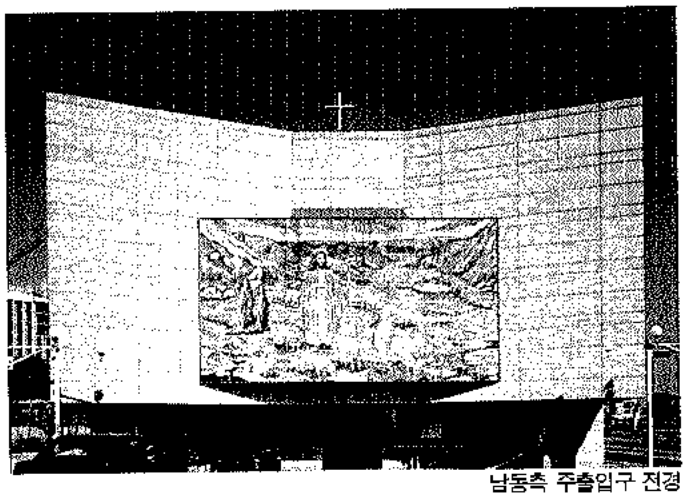
지상에는 건축 가능한 바닥면적이 600㎡정도여서 최소한의 사무실, 휴게실, 소예배실을 배치하였고, 이 건물에서 가장 큰 공간인 대예배실은 이 부지의 지반여건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배치하는 이외의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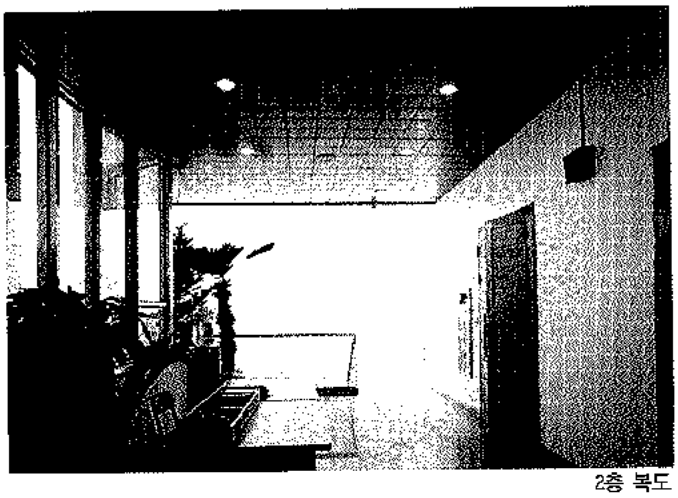
그러나 최소 1천명을 동시 수용하기 위해서는 2개층 이상의 예배실이 필요하여 당초 지하4층으로 설계하였는데, 견적을 받은 결과 예상공사비에 2배 가까울 정도로 공사비가 증가되어 설계변경을 초래하는 요건이 되었다. 결국 당초의 지하4층, 지상2층의 규모에서 지상층 변경없이 지하의 4개층에서 대예배실 1개층과 기계실 1개의 지하2층, 지상2층의 규모로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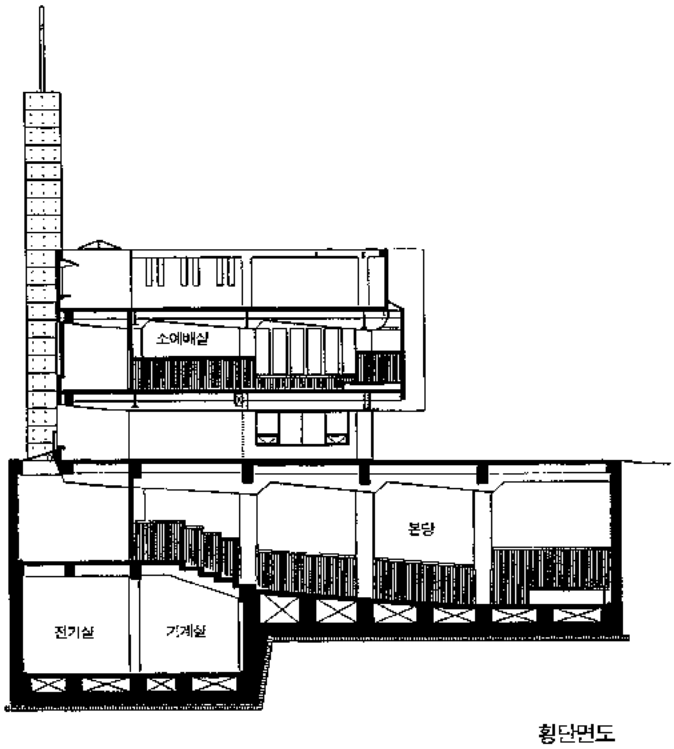
입면은 단정함과 소박함을 표현하고자 직선의 매스와 '노출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선택하였으나, 공사의 어려움 등을 들어 채택되지 못하고 화강석으로 대체 시공되었지만, 다행히도 처음의 이미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다.

입면에서 처음의 설계 의도와 상이해진 부분이 한곳 있는데 이는 남쪽주차장에 면해있는 벽면의 벽화로, 당초 벽화는 채색이 아닌 벽과 같은 색, 같은 질감의 부조였으나 교회 구성원들의 기호에 따라 모자이크화로 시공이 되어 못내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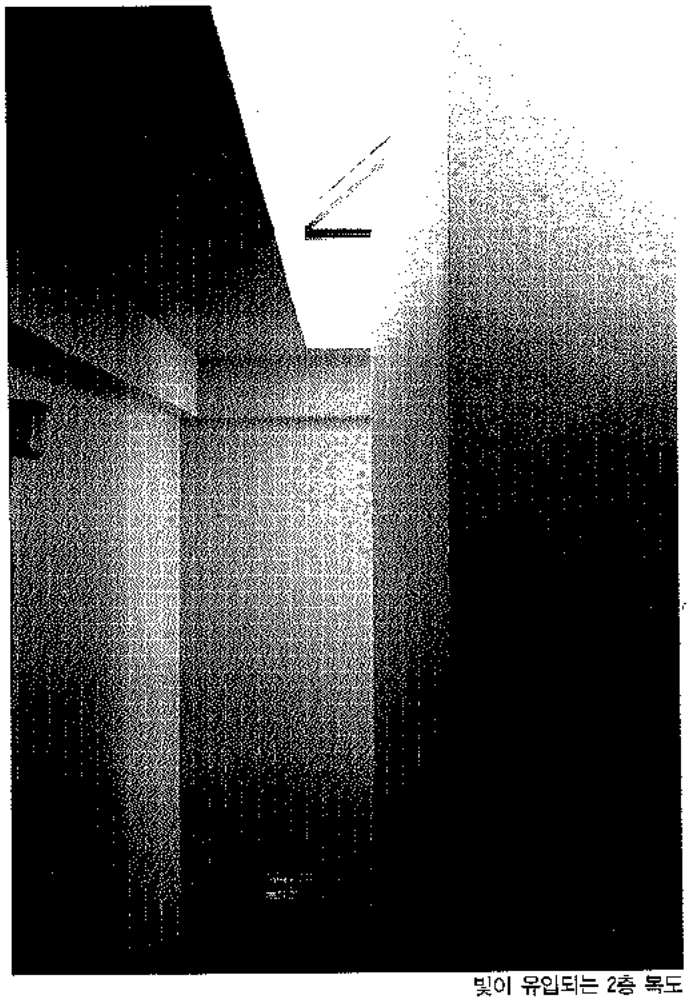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설계지역의 여러가지 규제들이 계획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주변과 괴리되지 않고 주변과 친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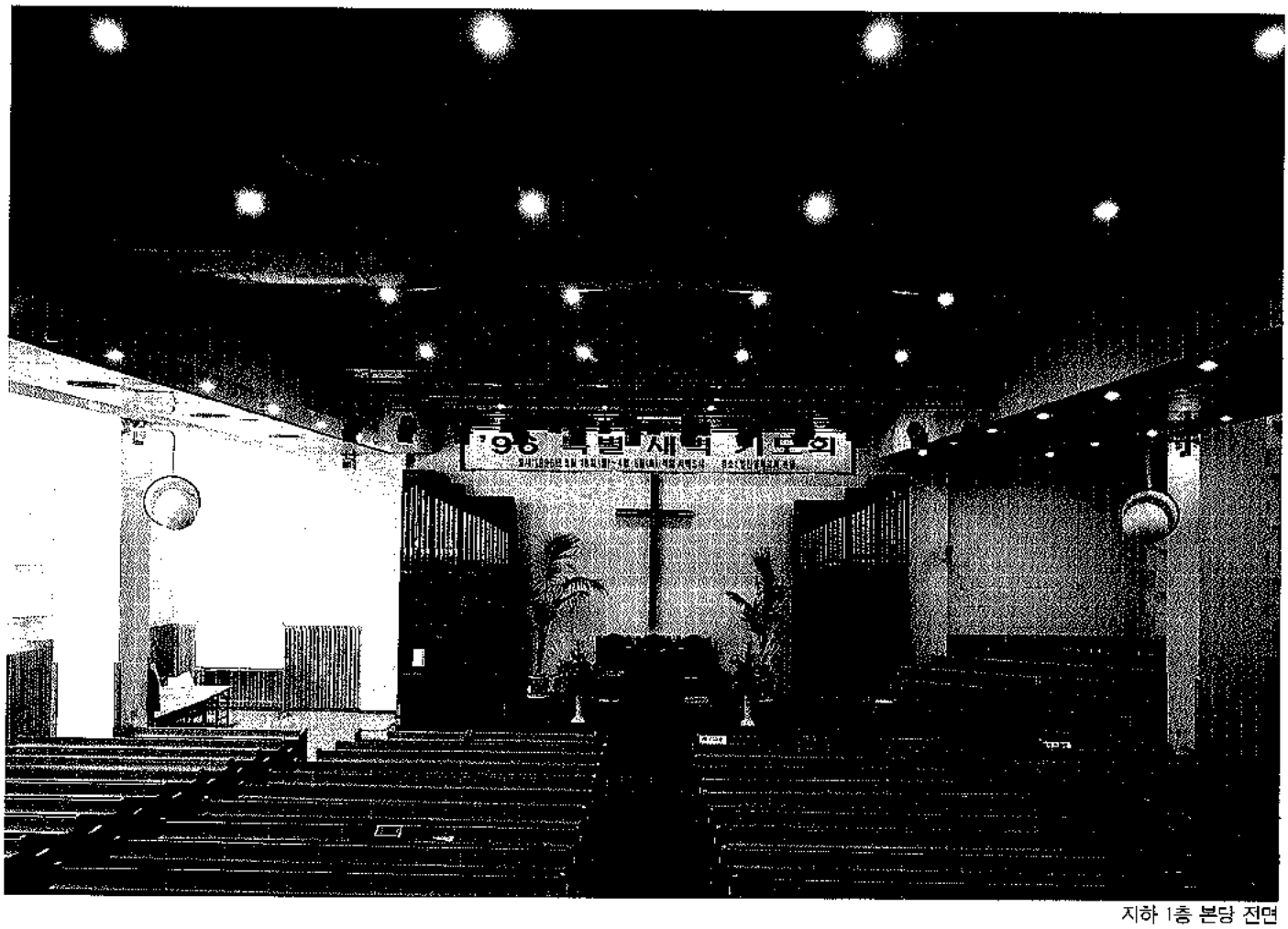

남동측 주출입구 전경


2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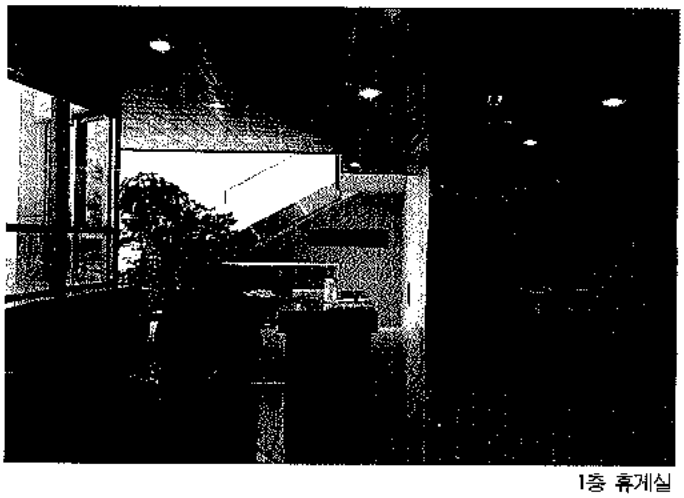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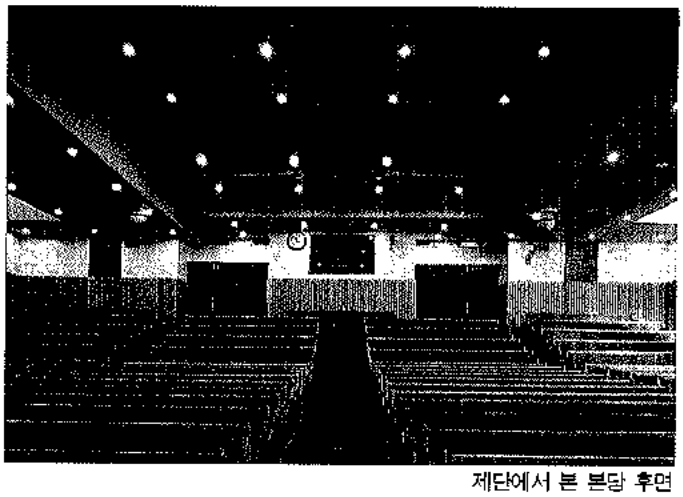

빛이 유입되는 2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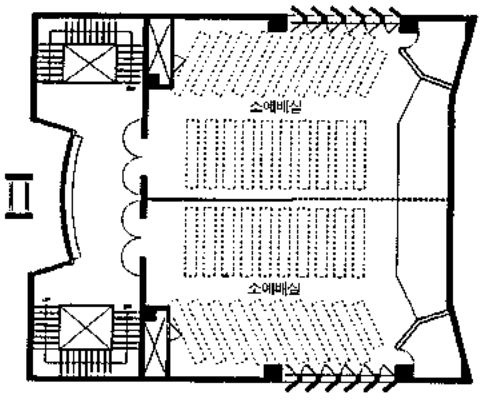
지하 1층 본당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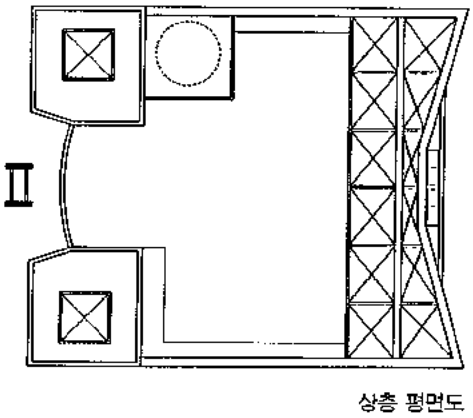
1층 휴게실



제단에서 본 본당 후면



2층 평면도



상층 평면도

PROCESS WORK 계획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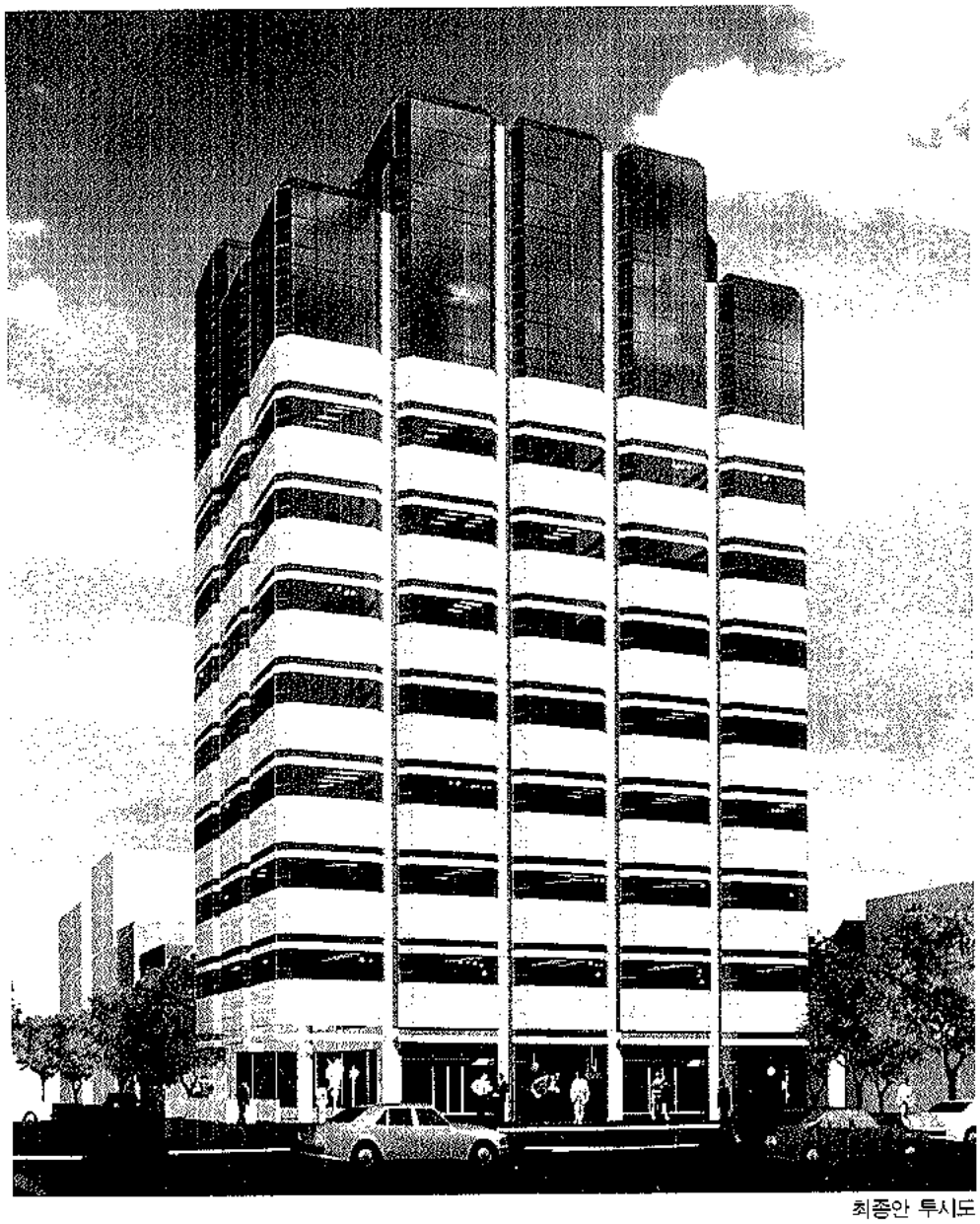
한국도자기 사옥

Hando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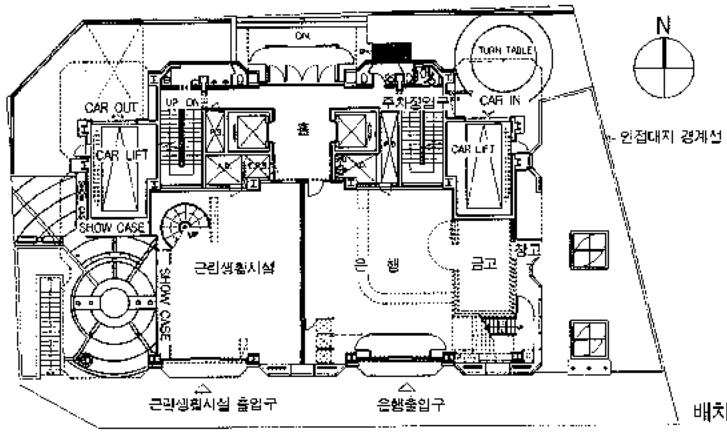
김기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디앤드지
Designed by Kim Ki-Woong

대지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100-29, 92, 68
대지면적 / 922.20㎡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종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용도 / 업무시설
규모 / 지하4층, 지상10층
건축면적 / 552.91㎡
건폐율 / 59.96%
연면적 / 7,368.67㎡
용적률 / 549.79%
조경면적 / 142.56㎡(법정 : 46.11㎡)
외부마감 / T-30 화강석 버너구이, T-24 컬러 복층유리, T-3.0 AL 복합패널
설계담당 / 이종길, 윤용권, 권소라, 박형진, 김윤상, 손두호, 유미숙
건축주 / 한국도자기 주식회사
구조설계 / 선구조
기계설비 / 신영설비
토목 / 세방 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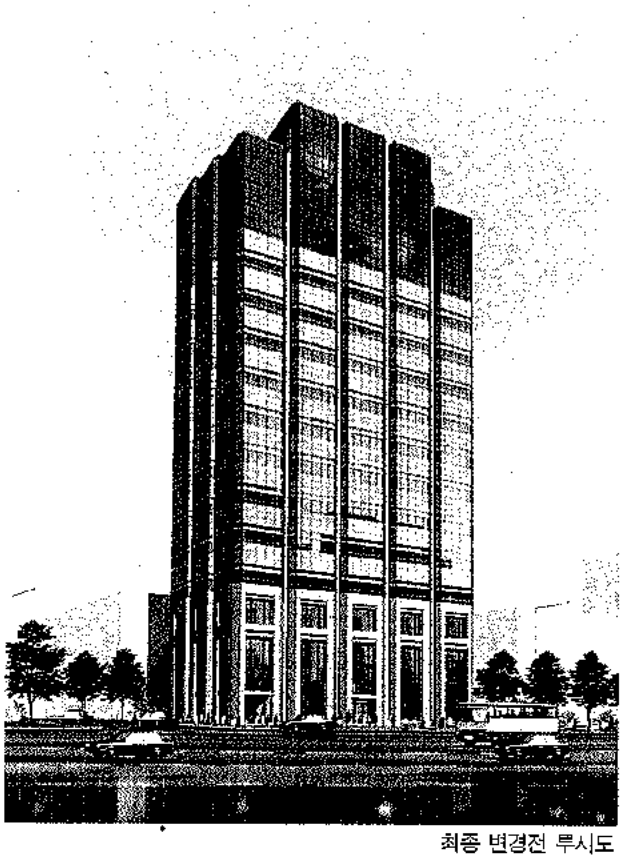
Location / 100-29, 92, 68, Shinseol-dong, Tongdaemun-gu, Seoul
Site Area / 922.20㎡
District / Houses etc.
Structure / Steel + R·C
Use / Business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10 Stories Above Ground
Bldg. Area / 552.91㎡
Bldg. Coverage Ratio / 59.96%
Gross Floor Area / 7,368.67㎡
Gross Floor Ratio / 549.79%
Landscaping Area / 142.56㎡
Exterior Finish / T-30 Granite
Project Team / Lee Chong-kil, Yun Yong-Kwon, Kwon So-Ra, Park Hyung-Chin, Kim Yun-Sang, Son Du-Ho & Yu Mi-Suk
Client / Korean Pottery Co. Ltd
Structural Design / Sen Structure
Mechanical Services / Shinyoung
Civil / Sebang E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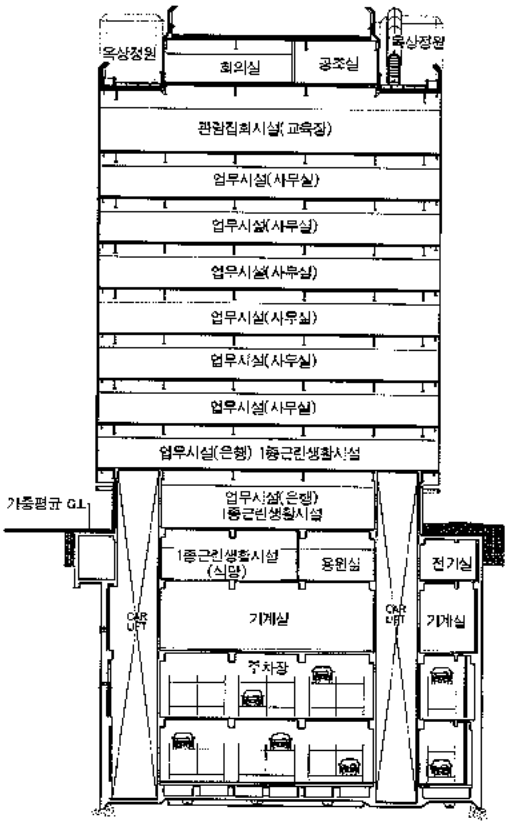
최종안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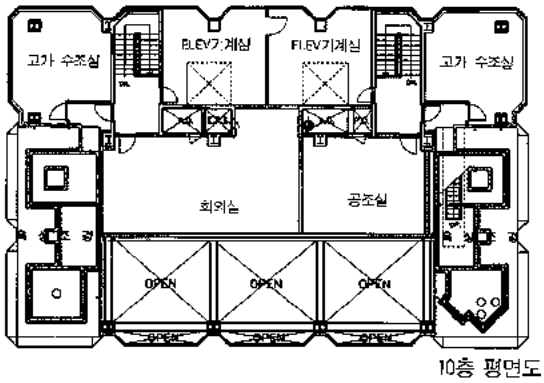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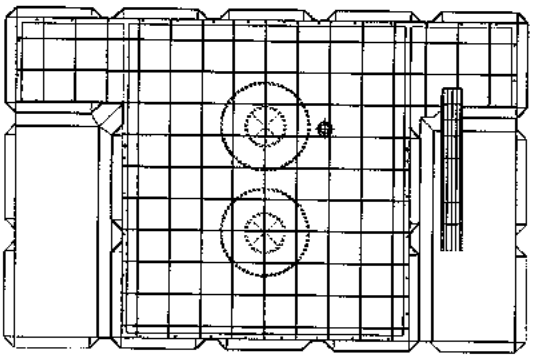
최종 변경전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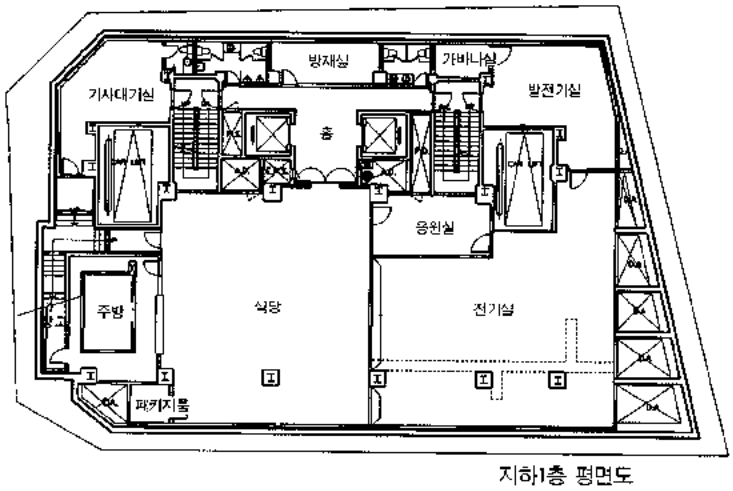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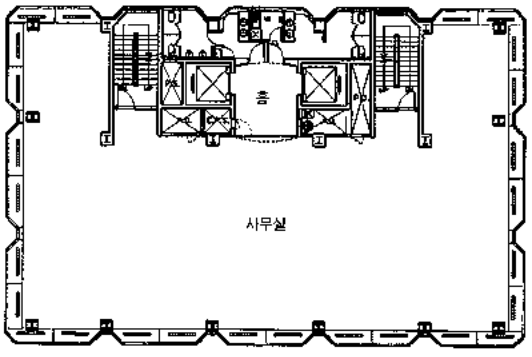
10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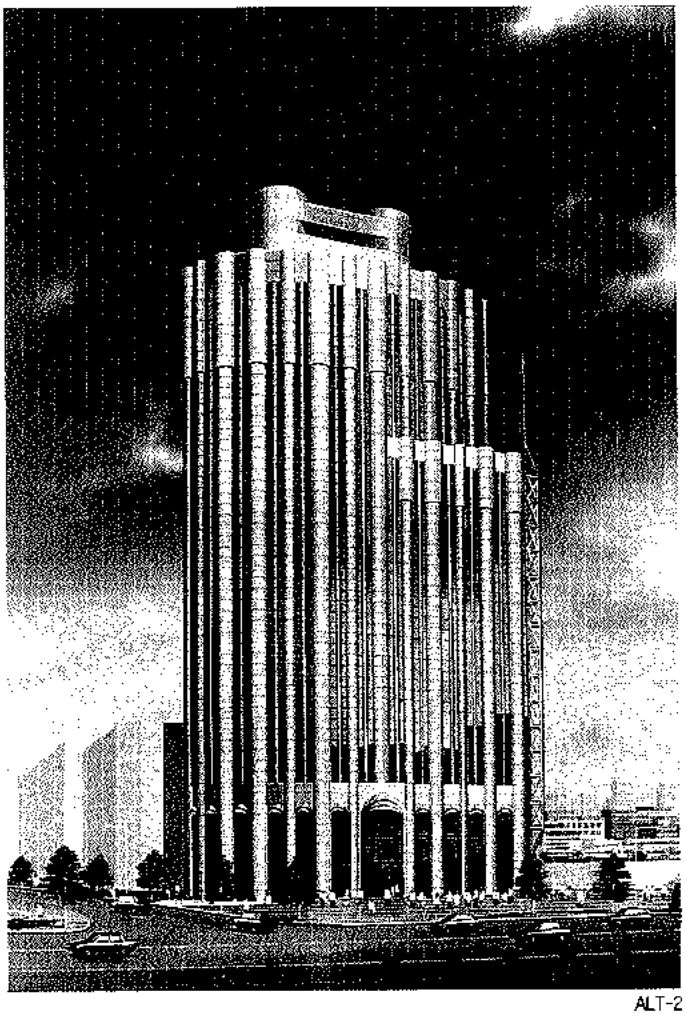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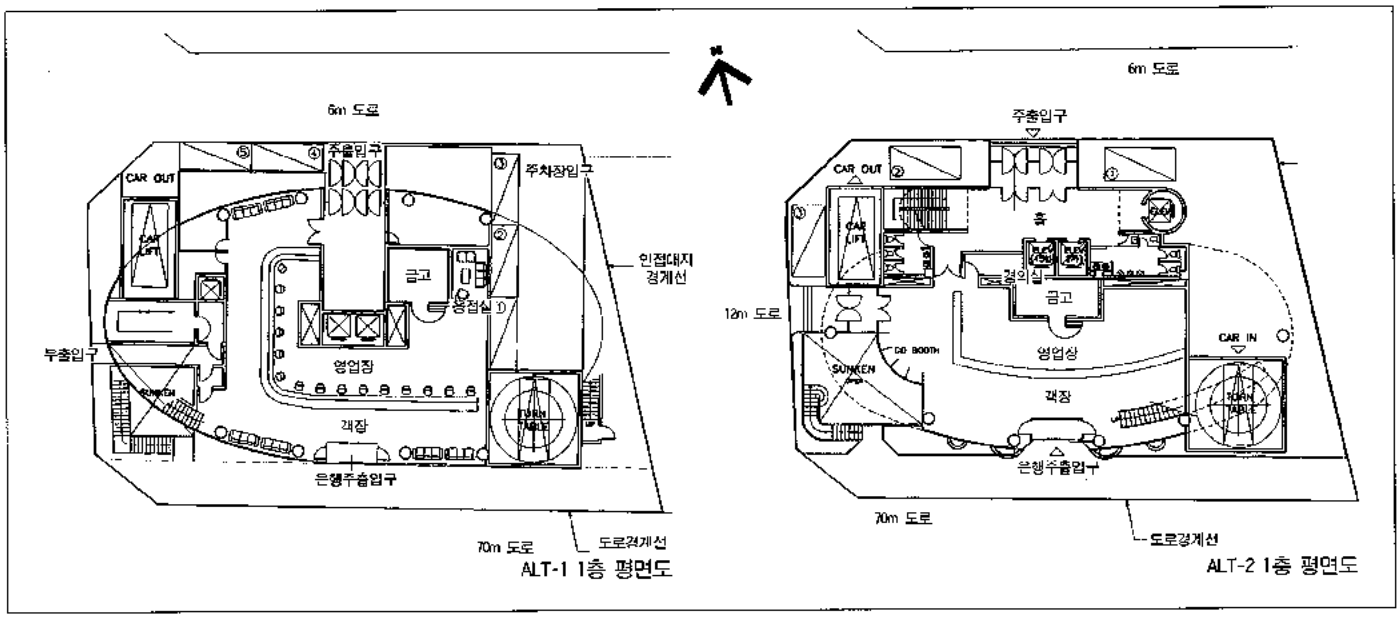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3~8층)

ALT-1



ALT-2



ALT-1 1층 평면도

ALT-2 1층 평면도

한국도자기 사옥의 계획목표는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고 비교적 낙후된 지역 환경속에서 Land Mark 기능과 원인제공을 할 수 있는 조형의 창출과 기능상 요구되는 유효실면적의 확보 및 이에 수반되는 설비 및 법적 제한을 해결하는데 있었다.

전체 진행은

—초기 배치 및 평면 Type과 조형상의 방향설정(ALT-1, 2, 3)

—결정된 방향의 구체화(지하5층, 지상15층)

—규모축소에 의한 설계변경(지하4층, 지상10층)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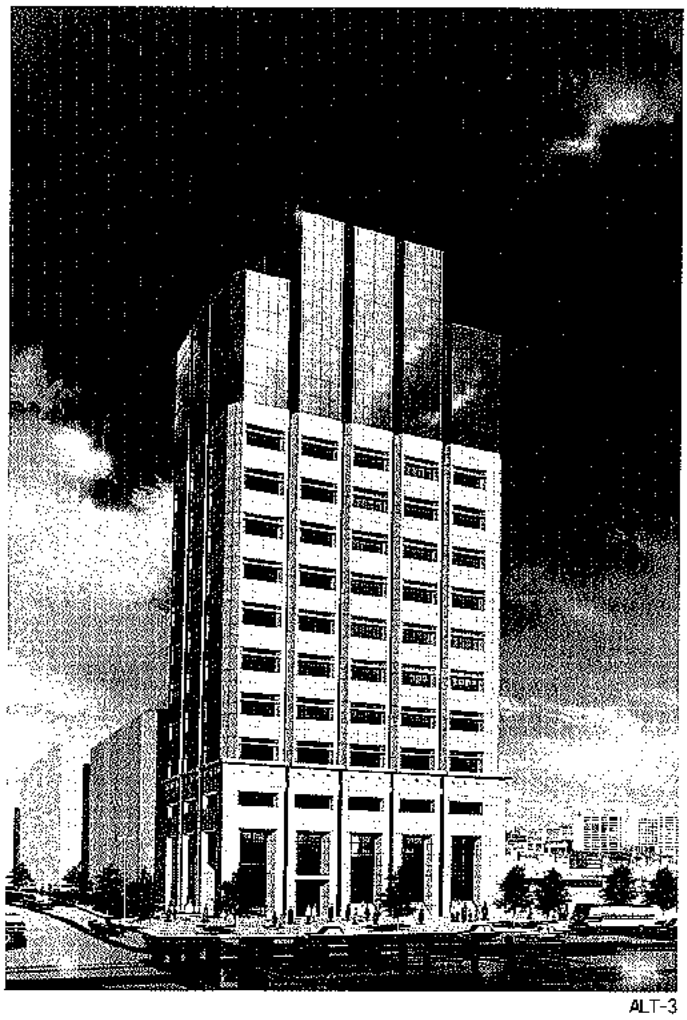
이 계획에 있어서 제한요소로 작용했던 사항은

—지하주차장 확보로 인한 좁고, 물이 많은 대지의 깊은 굴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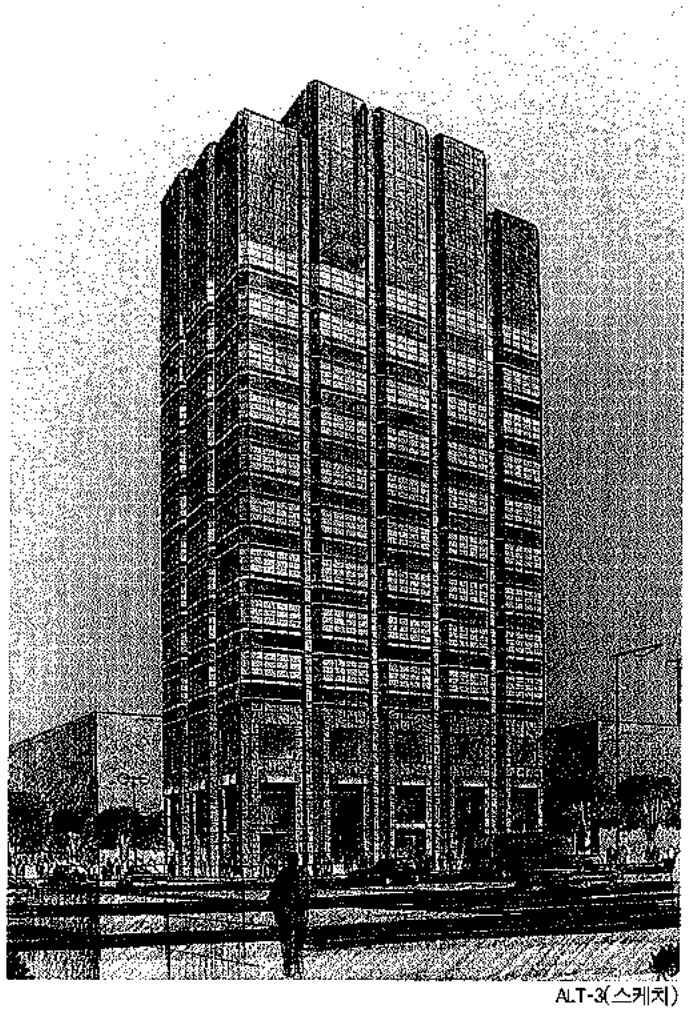
—주차기 모듈에 의한 평면 모듈의 제한

—법적제한(지상1층—미관지구 건축선후퇴, Carlift, 주차로확보, 대기주차,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 등)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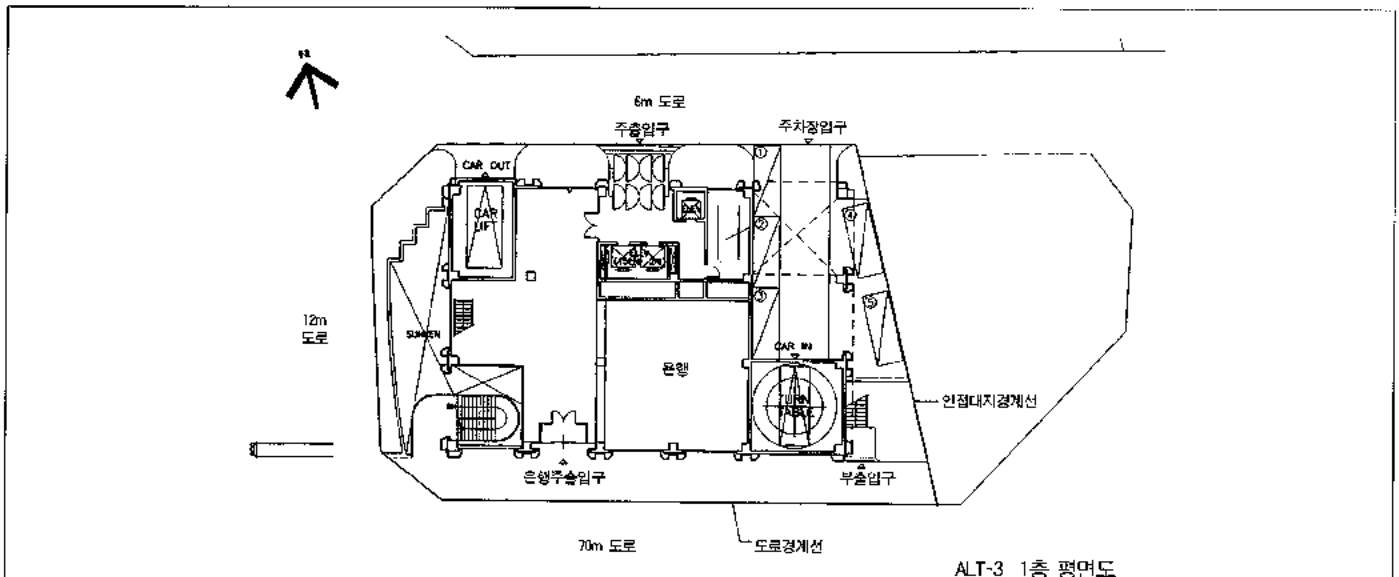
배치에서는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계획 모듈을 설정한후 Core 및 주차 입·출구의 위치를 결정하고 기타 외부공간을 대기주차 및 조경면적으로 구획했고, Piloti를 도입하여 부족한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ALT-3



ALT-3(스케치)



ALT-3 1층 평면도

건물은 용도상 지하3 · 4층—기계식주차장, 지하2층—기계실, 지하1층—식당 및 전기실, 지상1 · 2층—은행 및 전시장, 기준층—사무실, 9층—교육장, 10층—공조실 및 회의실, 옥상정원으로 구성되었고, 기준층은 편심형 Core를 재구성하여 유효실면적을 확보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용기구 및 예상 Partition 구획에 의한 전등 및 공조설비의 모듈을 설정한 Open Plan으로 구성했다. 9층 교육장은 회사 특성상 요구되는 실로서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조형상의 개념은 도자기 및 화장품회사(계열사 : 로제화장품)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청계천고가를 기준으로 입면을 기단 및 몸체로 구분하여 보행자 및 차량 흐름에 의한 시각적 흐름이 고려되어 설계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기단부가 약화되고 현재상태로 최종안이 결정되었다.

진행 과정 상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현재의 안이 결정되었기에 남다른 애착이 가는 작업이었다. 착공이후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지만 관계자 모두가 협력해서 좋은 건물로 탄생되기를 기원한다.

코아하우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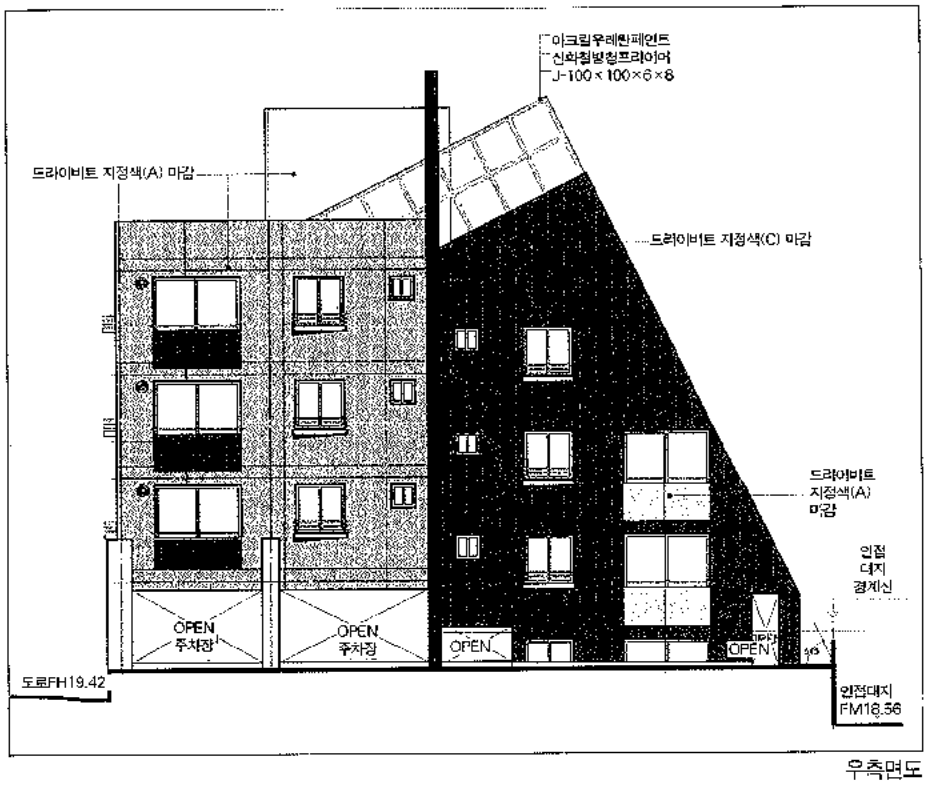
Core House 1

전병직 / (주)코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eon Byeong-Jig

크고 중요한 건축만 설계하다보면 우리 실생활은 건축인의 손길이 닿지않는 건물로 채워져 무미건조하고 삭막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

5, 6년전부터 시작한 다가구 주택과 원룸의 유행이 주거 환경을 예워싸는데 방관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 문제에 관련한 작은 시도로 다가구를 CORE HOUSE 1, 2호의 연작으로 만들어 보았다. 특히, 좁은공간이라는 원룸주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능의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세련된 건축주의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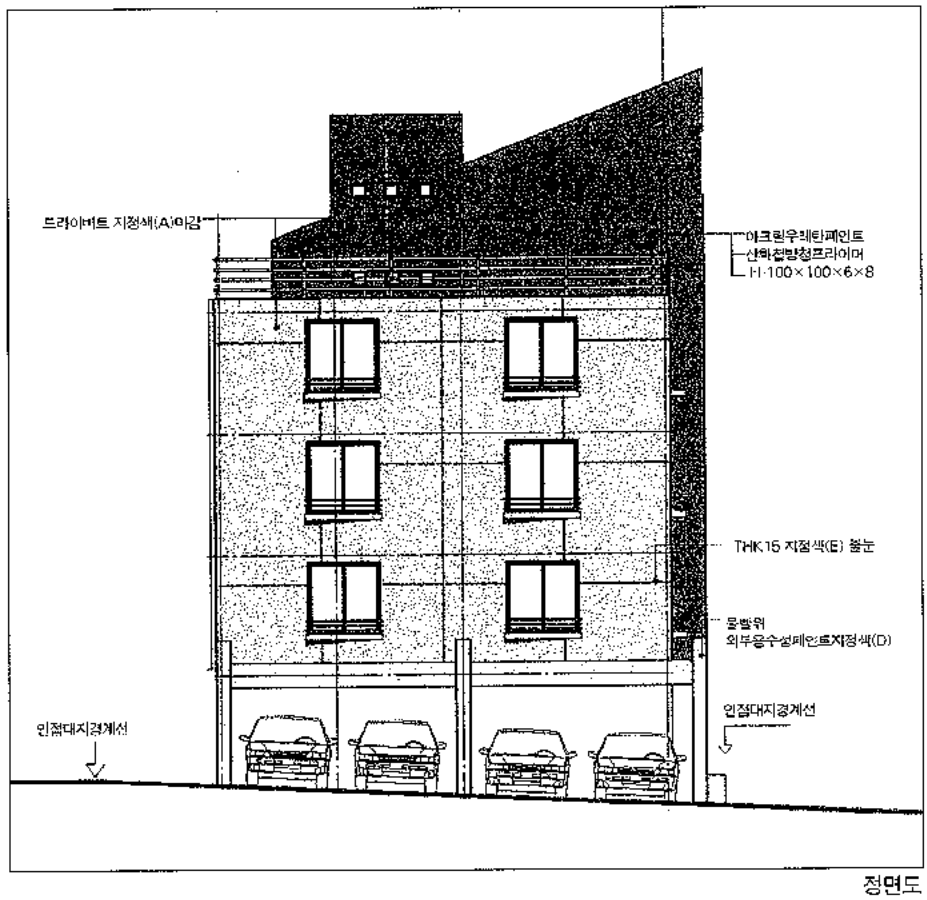
깨끗하면서도 실용적인 형태 그것만으로도 그저그러한 배경건물들중에서도 이 건물이 부각되기만을 바랄뿐인 것이다.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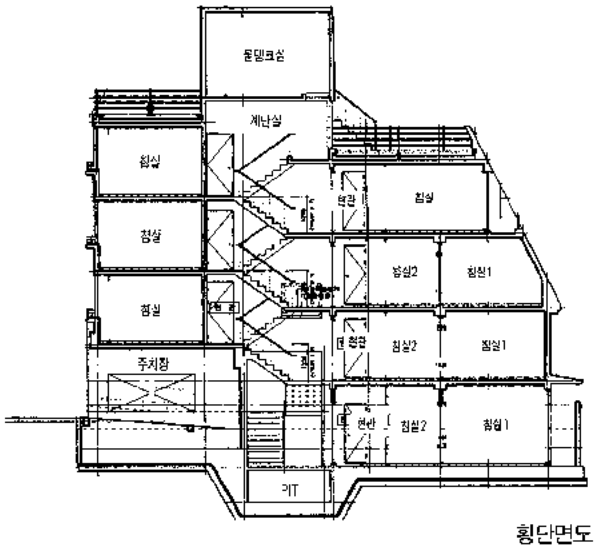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3-7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232.2㎡
건축면적 / 138.92㎡
연면적 / 465.74㎡
건폐율 / 59.62%
용적률 / 134.02%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조경면적 / 13.92㎡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외부마감 / 드라이비트, 컬라아스팔트 싱글

Location / 13-7, Wumyeon-dong, Seocho-gu, Seoul
District / House
Site Area / 232.2㎡
Bldg. Area / 138.92㎡
Gross Floor Area / 465.74㎡
Bldg. Coverage Ratio / 59.62%
Gross Floor Ratio / 134.02%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Landscaping Area / 13.92㎡
Use / Dwelling House
Exterior Finish / Drywit, Color Asphalt sin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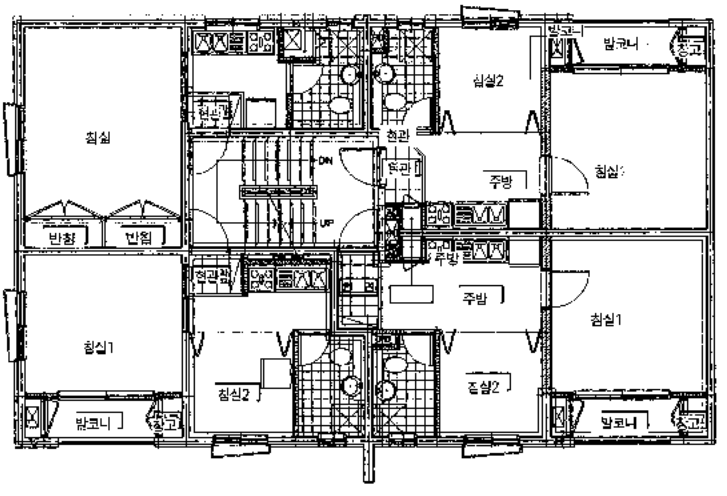


정면도

투시도



횡단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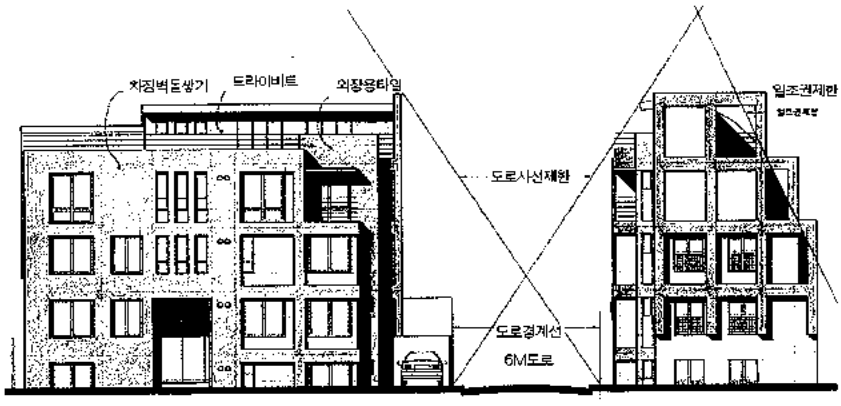
코아하우스 2

Core Hou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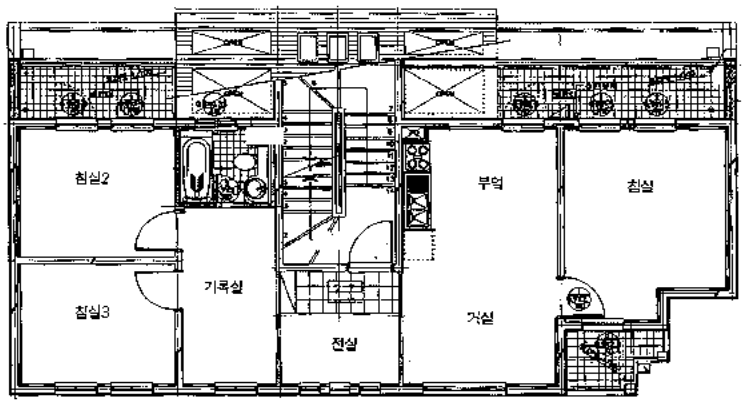
전병직 / (주)코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eon Byeong-Jig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8-10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196.70㎡
건축면적 / 117.75㎡
연면적 / 404.90㎡
건폐율 / 59.86%
용적률 / 151.80%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 THK 30 조리퍼트, 컬러아스팔트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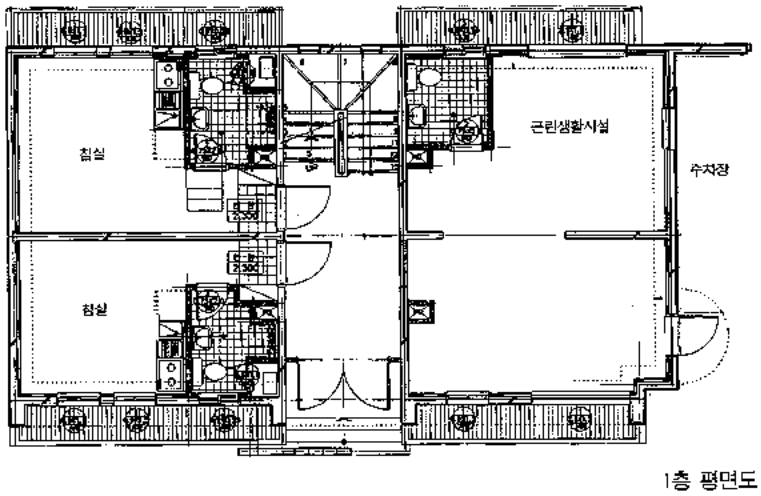
Location / 108-10, Nonhyeon-dong, Kangnam-gy, Seoul
District / House
Site Area / 196.70㎡
Bldg. Area / 117.75㎡
Gross Floor Area / 404.90㎡
Bldg. Coverage Ratio / 59.86%
Gross Floor Ratio / 151.80%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ys Above Ground
Use / Dwelling House, Neighborhood
Exterior Finish / THK30, Color Asphalt Single



초기 입면스케치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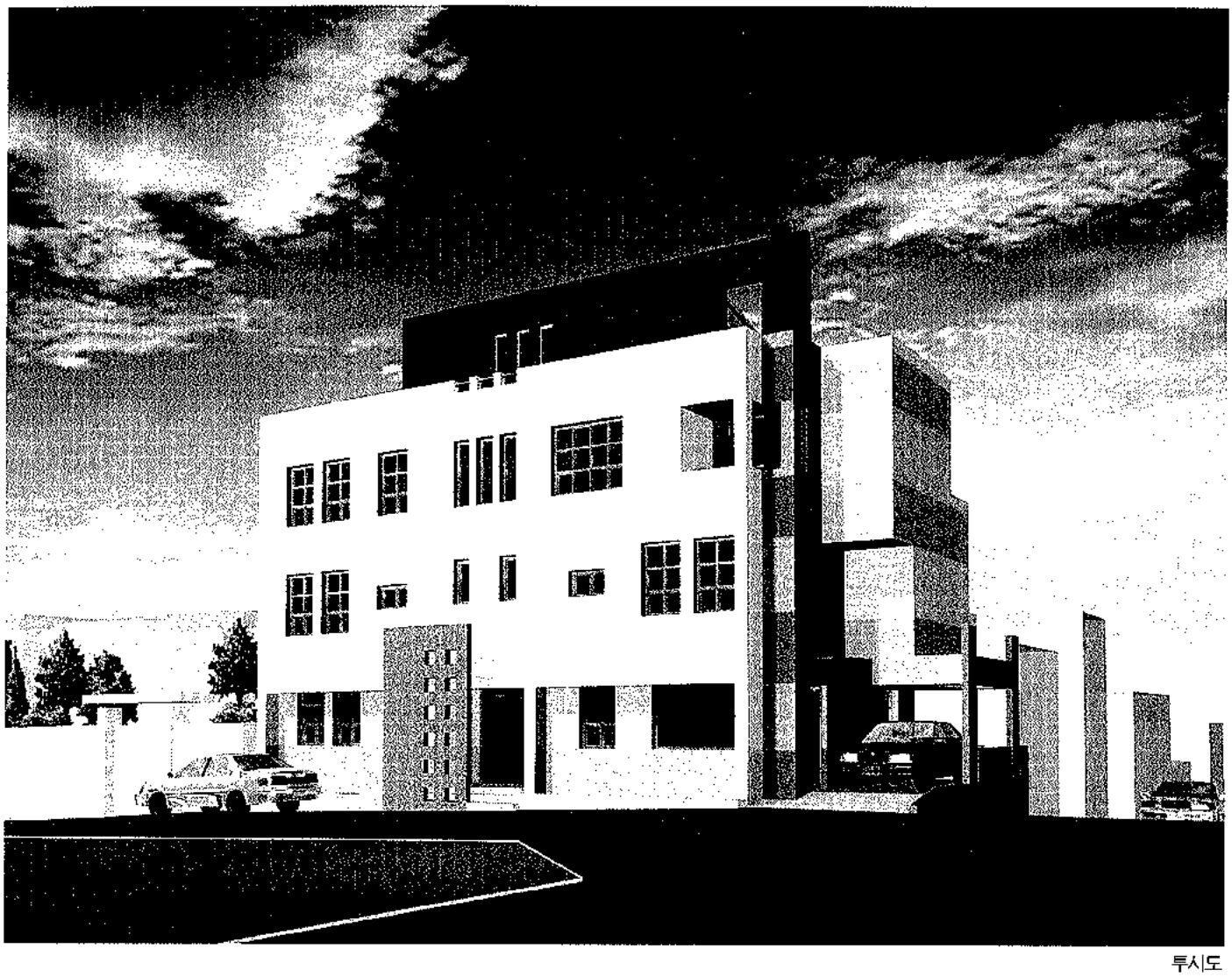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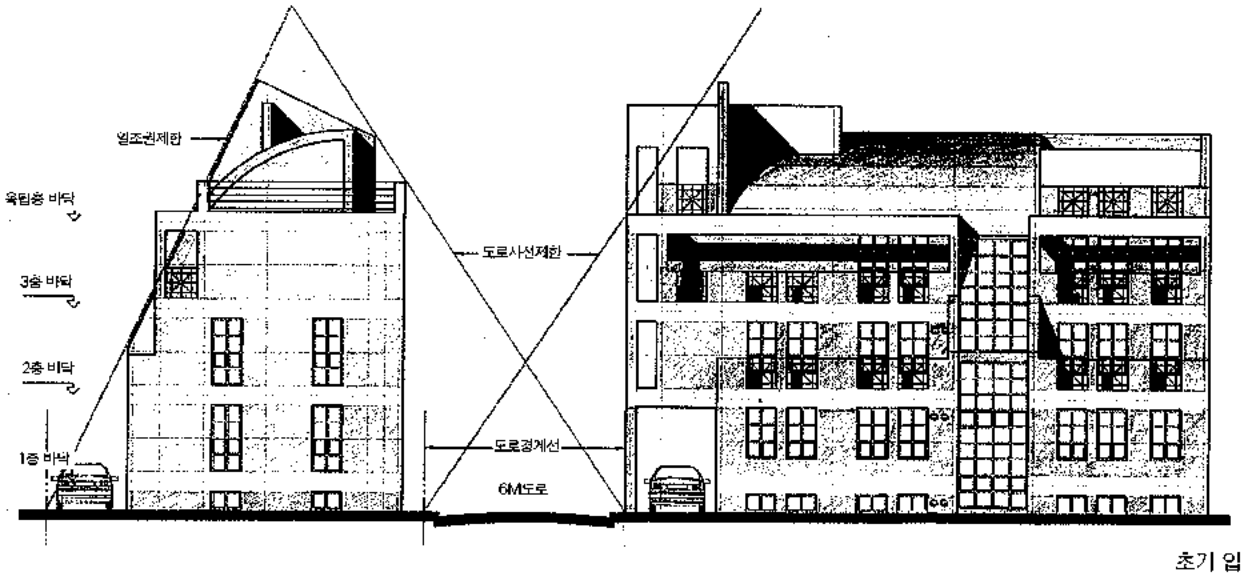
강남구 논현동은 원룸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직주근접의 요건을 갖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짜투리땅 이용에 효과적인 곳으로, 이 계획안은 60여평의 소규모 대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역, 지리적 특성과 건축주의 투자계획에 적절히 부흥하는 원룸형 다가구 주택이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연결을 위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간의 유기적 결합과 또한 골목길을 성격부여적 특성있는 입면구성을 통한 주변과의 차별화를 통해 임대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건축주의 거주(3층)에 의해 임대형 원룸이 갖는 관리상의 문제를 일부 완화시켜주며, 일조권 제한에 의한 공간을 세대별 발코니로 활용토록하여 비교적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투시도



초기 입면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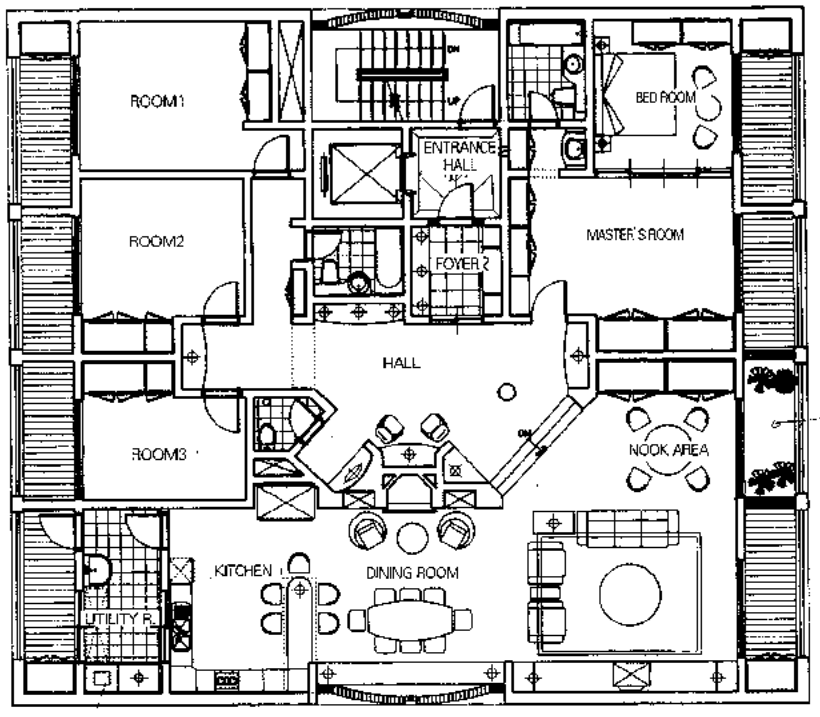
트윈빌라트-71

Twin Villat-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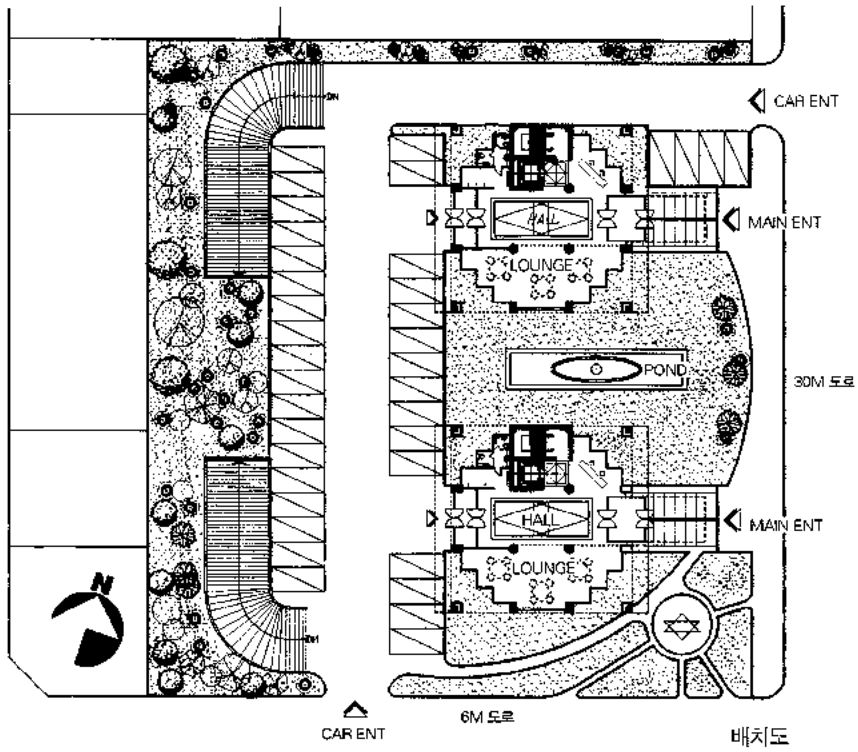
김대일 + 주영정 / 예조 종합건축사무소
Designed by Kim Dae-Il & Joo Young-Jung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1-1, 2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 아파트지구
대지면적 / 3,427.10㎡
건축면적 / 645.12㎡
연면적 / 11,334.08㎡
건폐율 / 18.82%
용적률 / 286.39%
규모 / 지하1층, 지상18층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외벽단열시스템, THK30 화강석버너구이+물갈기
THK24 컬러복층유리
용도 / 공동 주택(A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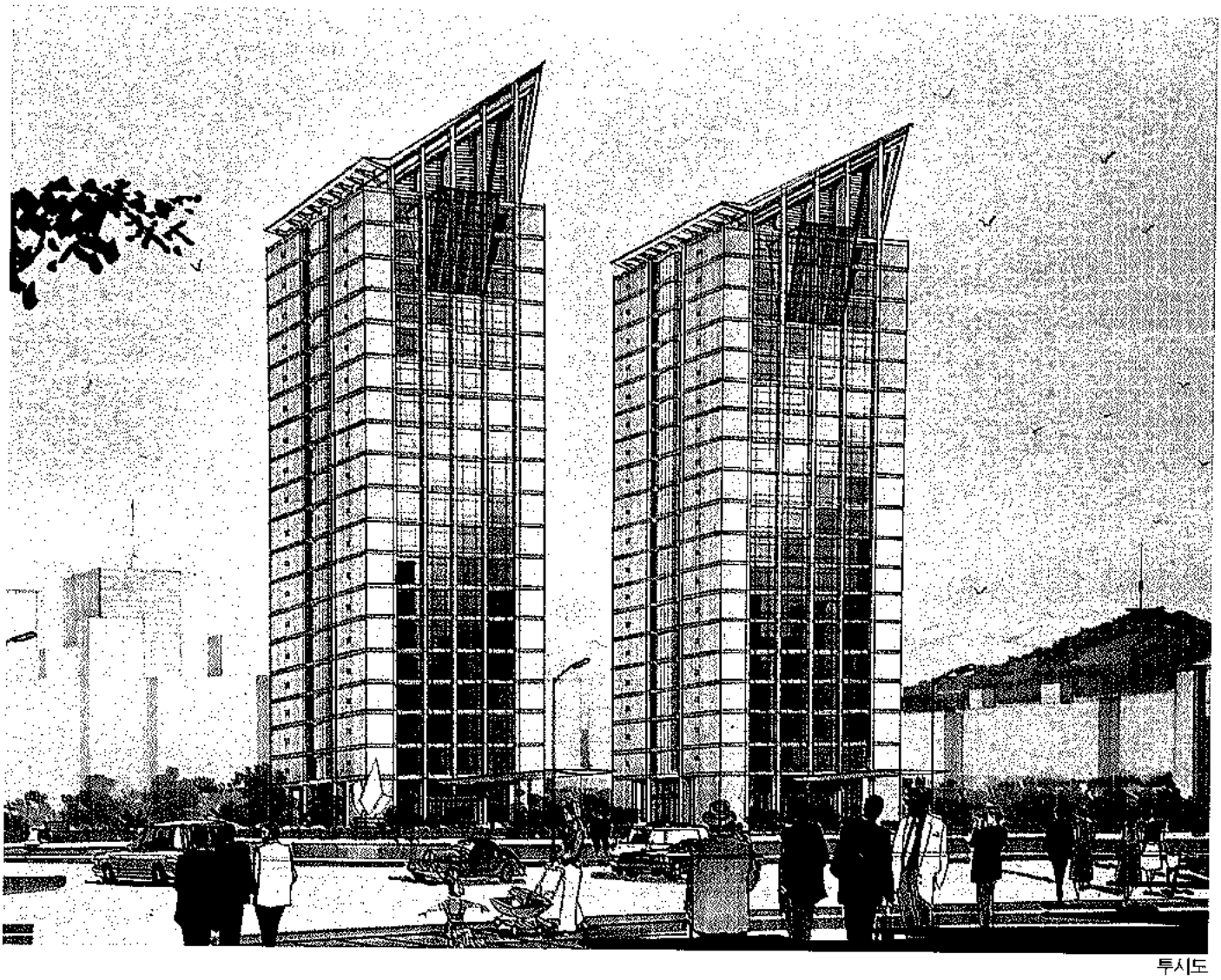
Location / 71-1, 2, Chamwon-dong, Seocho-gu, Seoul
District / House etc.
Site Area / 3,427.10㎡
Bldg. Area / 645.12㎡
Gross Floor Area / 11,334.08㎡
Bldg. Coverage Ratio / 18.82%
Gross Floor Ratio / 286.39%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18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THK30 Granite etc.
Use / Apartment



기준층 평면도



배치도



투시도

우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너무 오랜동안 지속된 탓으로 익숙해져 버린 획일화된 주거환경에 진정한 삶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정체되고 획일화된 아파트로 둘러싸인 주거군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 판에 박힌 듯한 공동주거 환경의 극복이라는 계획의 전제아래 단위주택의 효율적인 평면계획과 옥외 Open Space의 활용계획의 다양화로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삶의 정체성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두개의 수직Mass로 구성된 주거동은 지상1층에 공동주거단지로서의 공동체 문화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Community공간으로서 다양한 접촉과 만남을 유도할 수 있는 Hall과 Lounge를 계획하였으며 획일적인 평면계획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생활형태를 전개할 수 있도록 북쪽의 Core부를 제외한 모든 생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주거동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공간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주거공간과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것은 물론 자연을 관상할 수 있는, 흙과 수목, 물을 느끼고 접할 수 있는 조경과 수경공간을 배치하였다.

30m도로에 접한 대지의 특성상 계획된 옥외공간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길 가는 행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서의 공적인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대지주변의 획일화된 아파트군은 다양한 색채사용의 표피적 포장으로 단순한 Mass의 집합으로만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차별화된 Identity를 부여하기 위하여 벽체를 수직으로 분절하는 글라스블럭, 분절된 벽체를 다시 조합하는 커튼월을 사용하였다.

사선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는 Metal Roofing은 주거동옥상의 여러 시설물을 감추는 역할뿐만 아니라 건축물 자체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주변의 획일화된 아파트군들과 차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삭막한 콘크리트도시의 가로에 인간과 자연, 건축이 함께 호흡하는 신선한 자극과 활기를 불어 넣어주리라 생각한다.

서초 빌딩

Seocho Building

문성운 / 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Designed by Moon Sung-Un

테헤란로에 위치한 부지는 도시 설계 지구로써 인접 대지와의 사이에 폭 6m의 주차 통로를 설치하게 되어있어 주차 진입로를 먼저 설정한 후 작업을 진행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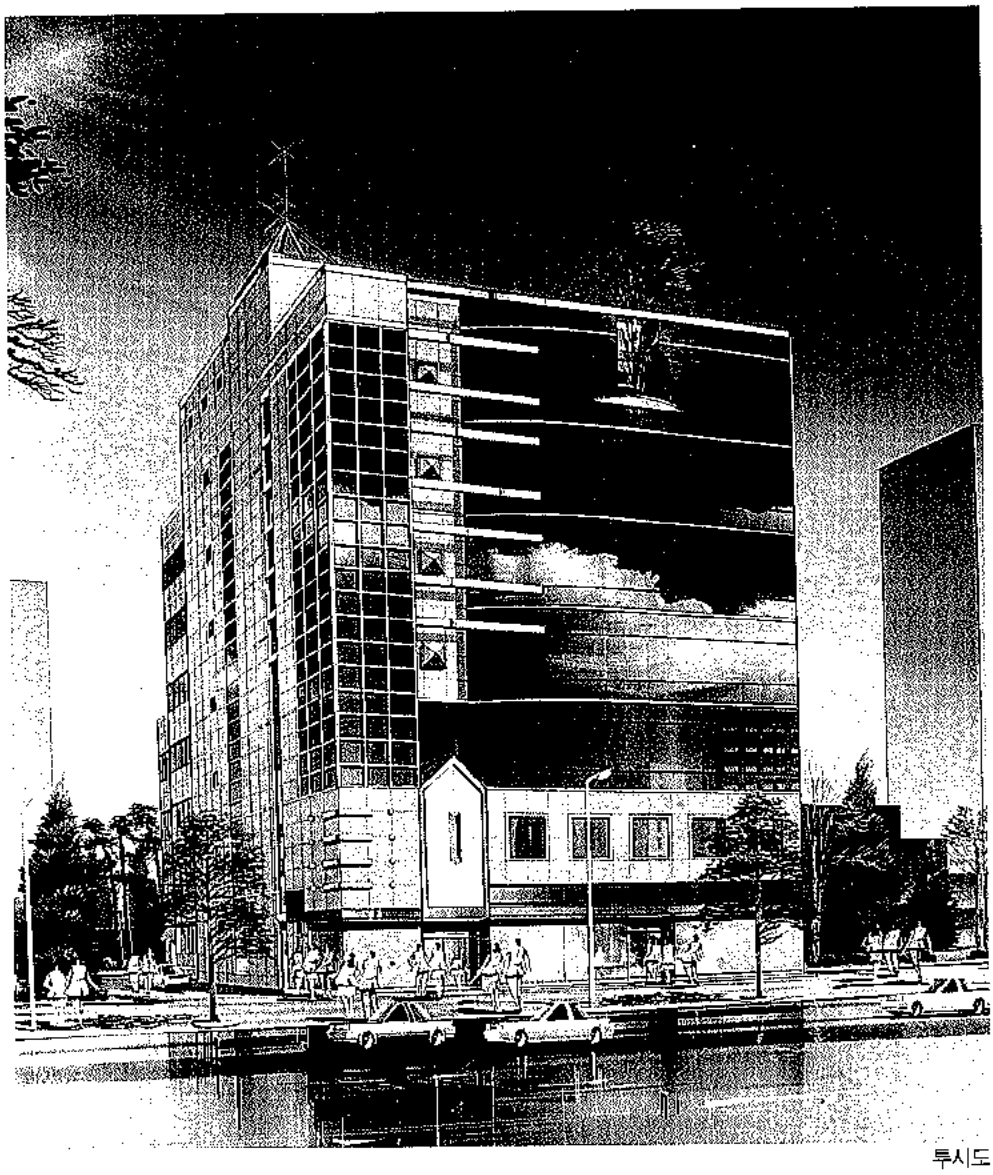
인접 건물들은 6층과 9층으로써 화강석을 주로 사용한 건물들이다. 따라서 본 작품도 주변 경관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어야 겠다는 맥락에서 화강석과 파스텔 복층 유리를 사용하였으며 건물 모서리의 창호 계획을 달리하여 시각적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전층을 사무실로 임대할 목적이라 내부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내에 기둥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용적률 관계로 상층부에는 일부 테라스가 형성되도록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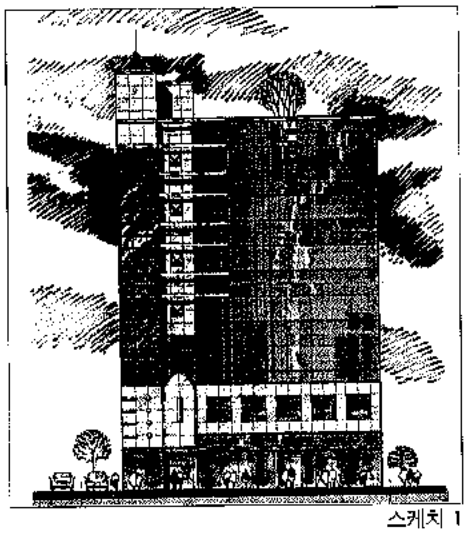
입면 계획에서는 2층 부분에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사각창 벽면이 있는데 이는 상층부의 분절된 매스 형태를 시각적으로 잡아주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좌 · 우측 매스의 결속을 위한 수평 빔을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주 출입구 외에 주차 진입로로 통하는 부출입구를 별도로 두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였으며 그사이에 건물 관리실을 설치하여 출입자 파악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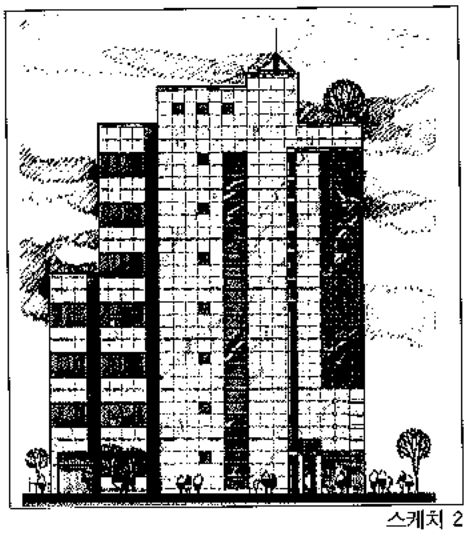
삭막한 가로변에 생기있는 활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전면 최상층 분분에는 정원을 조성하여 상록수 한 그루를 식재, 자연의 일부를 돌려주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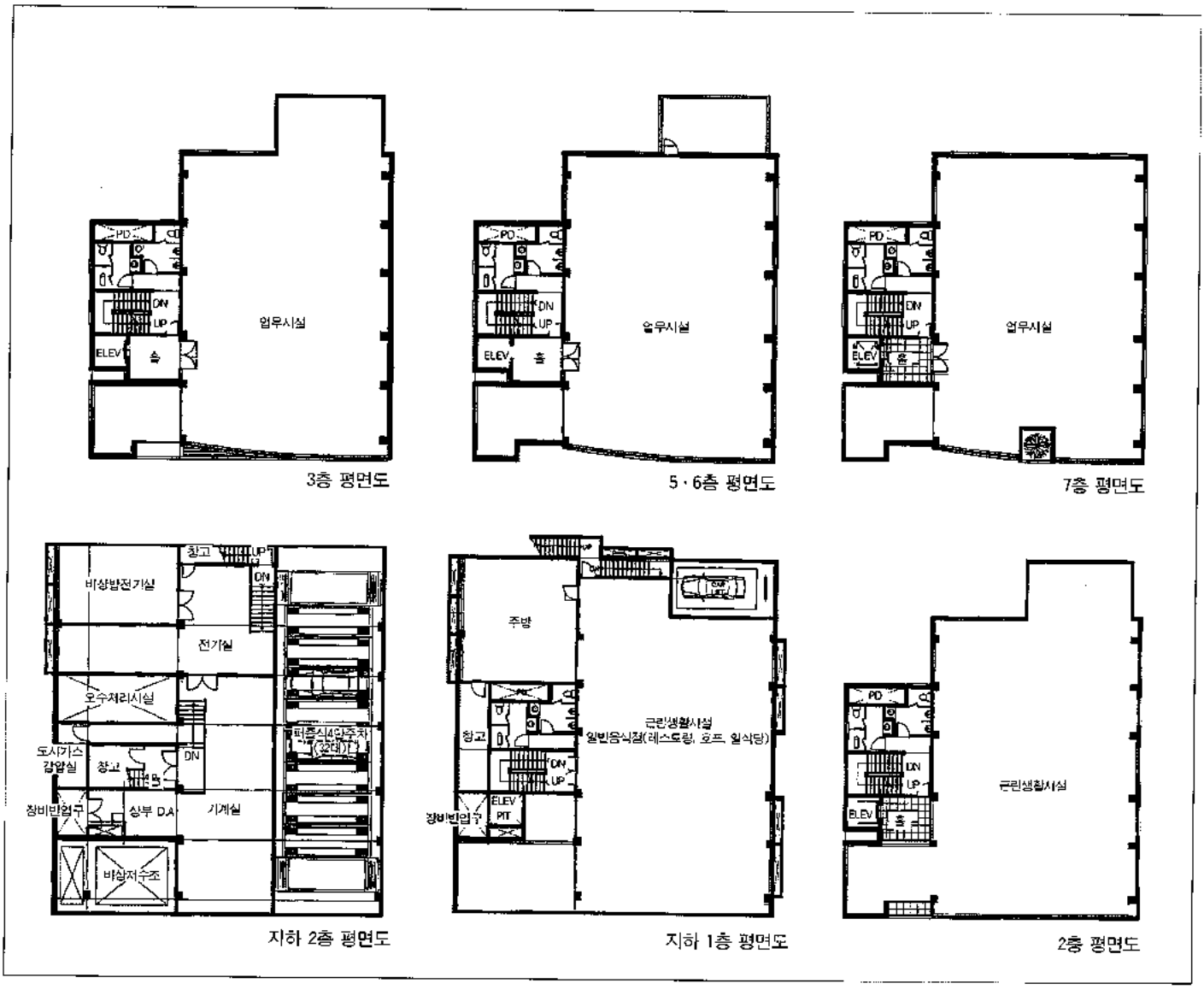
투시도



스케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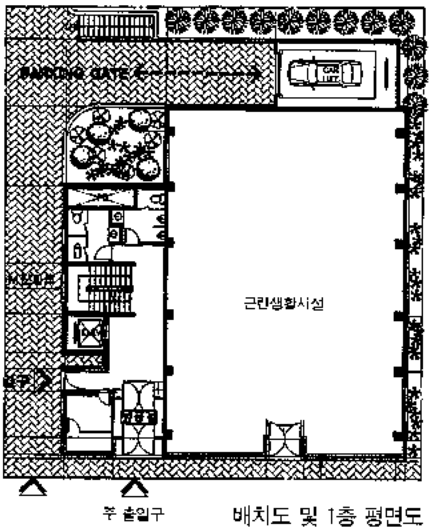


스케치 2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5-12호
대지면적 / 564.00㎡
건축면적 / 338.00㎡
연면적 / 3,104.00㎡
건폐율 / 59.97%
용적률 / 399.7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 화강석 버너마감, 피스텔 복층 유리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설계 / 조재우, 이종훈, 김영호, 배성호, 이은경, 이종찬, 김남일

Location / 1675-12, Seocho-gu, Seocho-dong, Seoul
Site Area / 564.00㎡
Bldg. Area / 338.25㎡
Gross Floor Area / 3,104.08㎡
Bldg. Coverage Ratio / 59.97%
Gross Floor Ratio / 399.76%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Project Team / Cho Chae-Woo, Lee Chong-Hun, Kim Young-Ho, Pae Sung-Ho, Lee Eun-Kyeong, Lee Jong-Chan & Kim Nam-Il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김포센터프라자

Kimpo Center Plaza

박찬정 /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 · 원
by Park Chan-Jung

김포센타 프라자는 95년 초 처음 계획대지를 접해 계획안을 1차 확정한 후, 건축주가 바뀌고, 인접대지를 더 확보하여 재설계를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프로젝트이다. 대지는 전형적인 구도심에 위치하고, 노후된 작은 건물들이 경제적으로, 양적으로 급팽창한 도시의 수요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여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상당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아직 지적도상 농로 등이 남아있고, 새로이 작성된 도로망에 의해 일부 신축된 건물이 생겨나고 이 대지도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필지가 2개로 분할되어 2개의 건물로 설계되어졌다.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라고는 하나 주거, 상업, 근린생활, 숙박, 교육시설 등이 혼재되어 지역적 성격이 뚜렷하지 못하고 작은 필지들로 건축되어져 지역적인 구심점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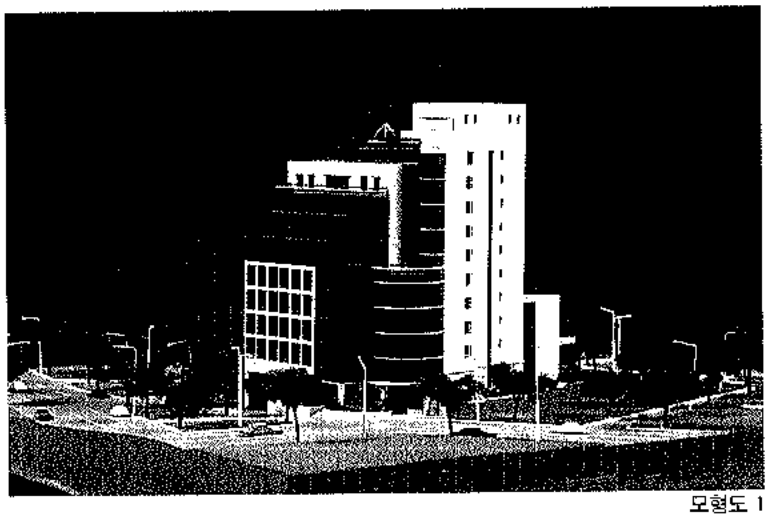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급성장으로 토지가가 상승하고, 우리가 현재 앓고있는 공공의식의 부족으로 도시계획의 실현 또한 늦고, 아직까지 좁은 구도로망으로 인해 도시 교통체계가 원활치 못한 실정이었다.

계획의 기본 방향

상용 건축물계획에서 늘상 나타나는 기본전제—최대의 용적률과 사업성—는 계획자로서는 건축주(사업주체)와는 서로 다른 기준과 해석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정형의 못생긴(?) 대지를, 여러가지의 제도적 규제와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질서를 잡아 건축적으로 정리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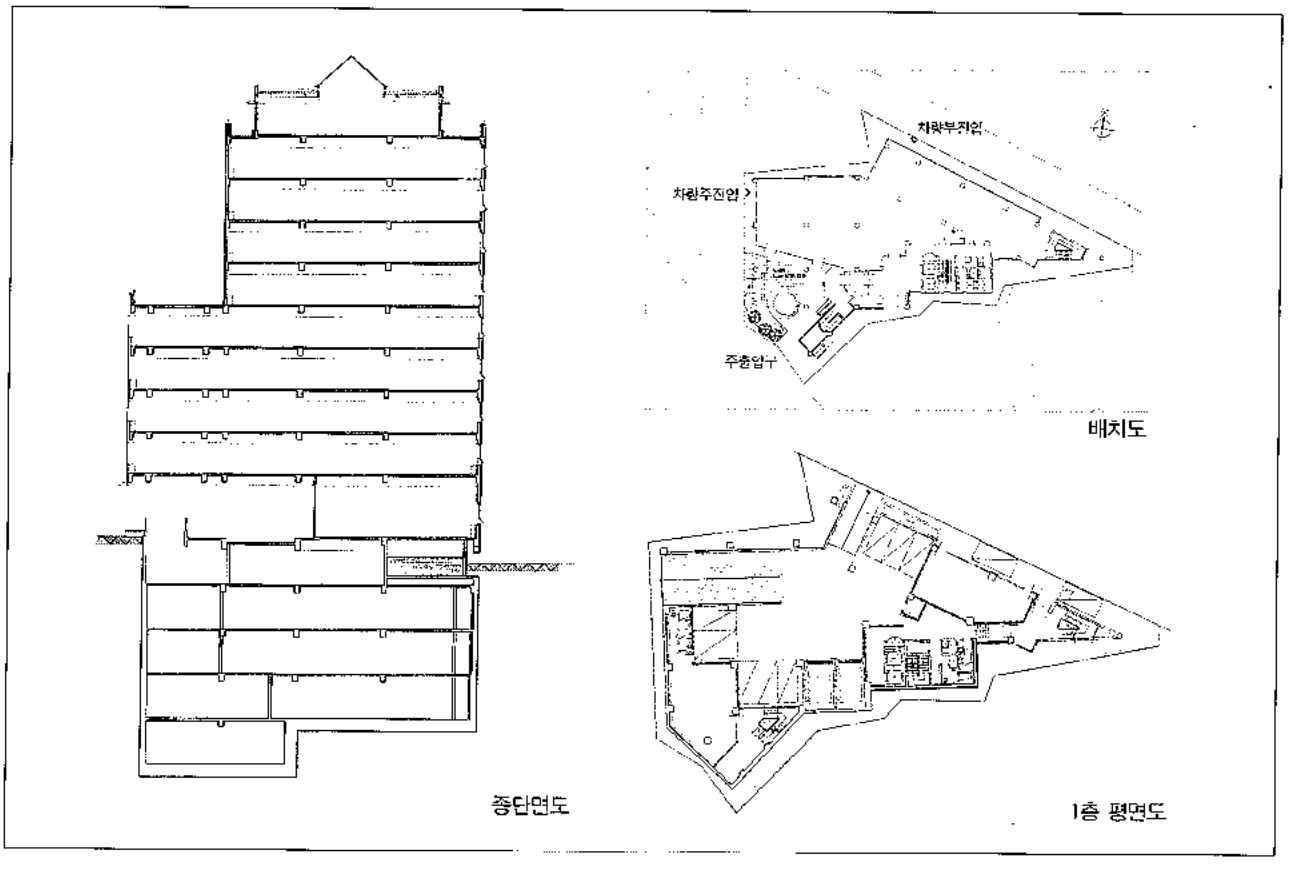
이 지역은 영종도와 서울을 잇는 교통축상의 주요 거점에 해당되고, 개발의 잠재력이 많은 지리적 성격을 가지며, 인근 신개발 지역에 대응하여 구도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서울주변의 베드타운적 개발에 부응하는 부대편의 및 보조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지역적 개발촉진의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구도심의 노후되고 열악한 물리적 환경을 감안하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각구조물화를 추구하고 가능한 문화기능 및 스포츠시설과 함께 복합용도에 따른 융통성 있는 계획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모형도 1

대지 주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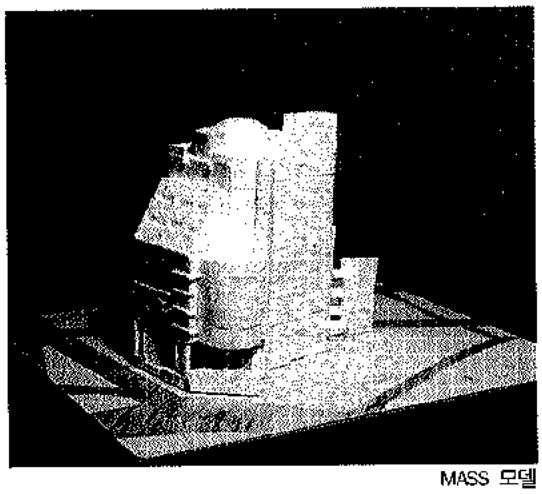
계획사안별 주안점과 전개

어떤 지방의 구도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도로변의 공공공지나 여유공간이 없고, 이 대지에 접한 간선도로측의 폭과 도로접면이 충분치 못함으로, 보행자의 주출입구쪽에 소광장을 구성하여 조금이라도 시각적 여유를 도모하고, 수공간을 도입하여 공간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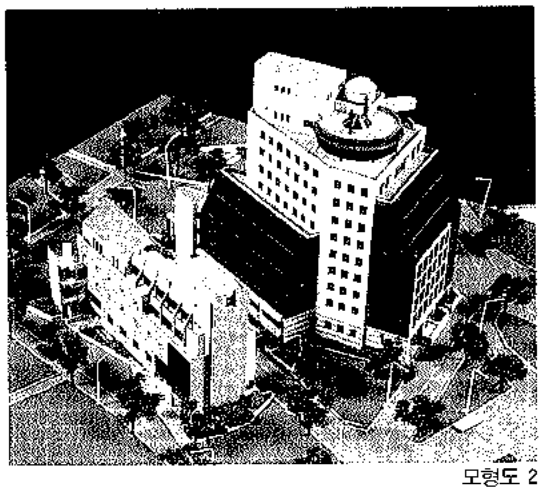
또한 불규칙한 대지형태를 감안하고, 경제성있는 개발을 위해 Dead Space를 최소화하고, 레벨차가 있는 전후도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로변측 유효공간의 확장방안을 모색하였다. 즉, 전면 주진입부에는 직접 3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계획(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더 좋겠다)과 지하층을 연결하는 선큰공간을 두고, 장차 후면 계획도로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측 건물동과의 연계성과 저층부 용도의 변화 융통성에 대응토록 하였다.

현재 북측후면 6m 계획도로는 실제 차량통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도시정비 미완료)이어서 차량의 One-way 동선을 전제로 한 12m 도로측에 진 · 출입구를 설치하여 자연스런 보 · 차분리를 이루게 하였다.

형태구성은 구조적으로 변화가 없는 부분과 변화있는 부분의 2개의 매스로 대비시켜 재료나 질감 등을 적용시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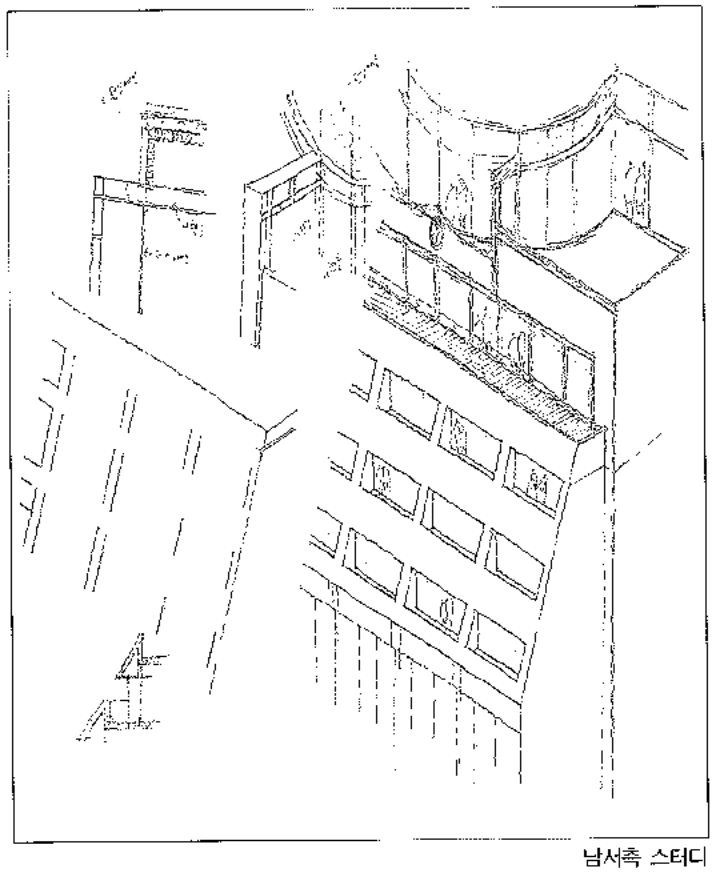


MASS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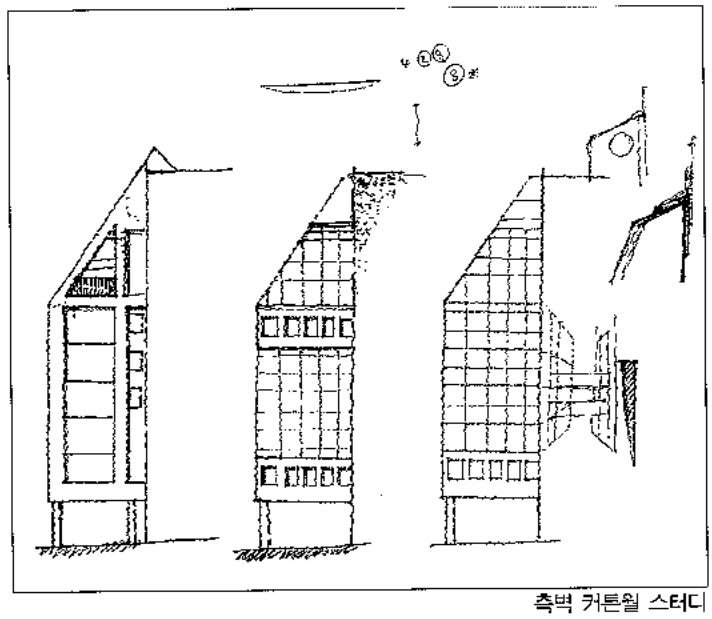


모형도 2

모형도 3



남서측 스터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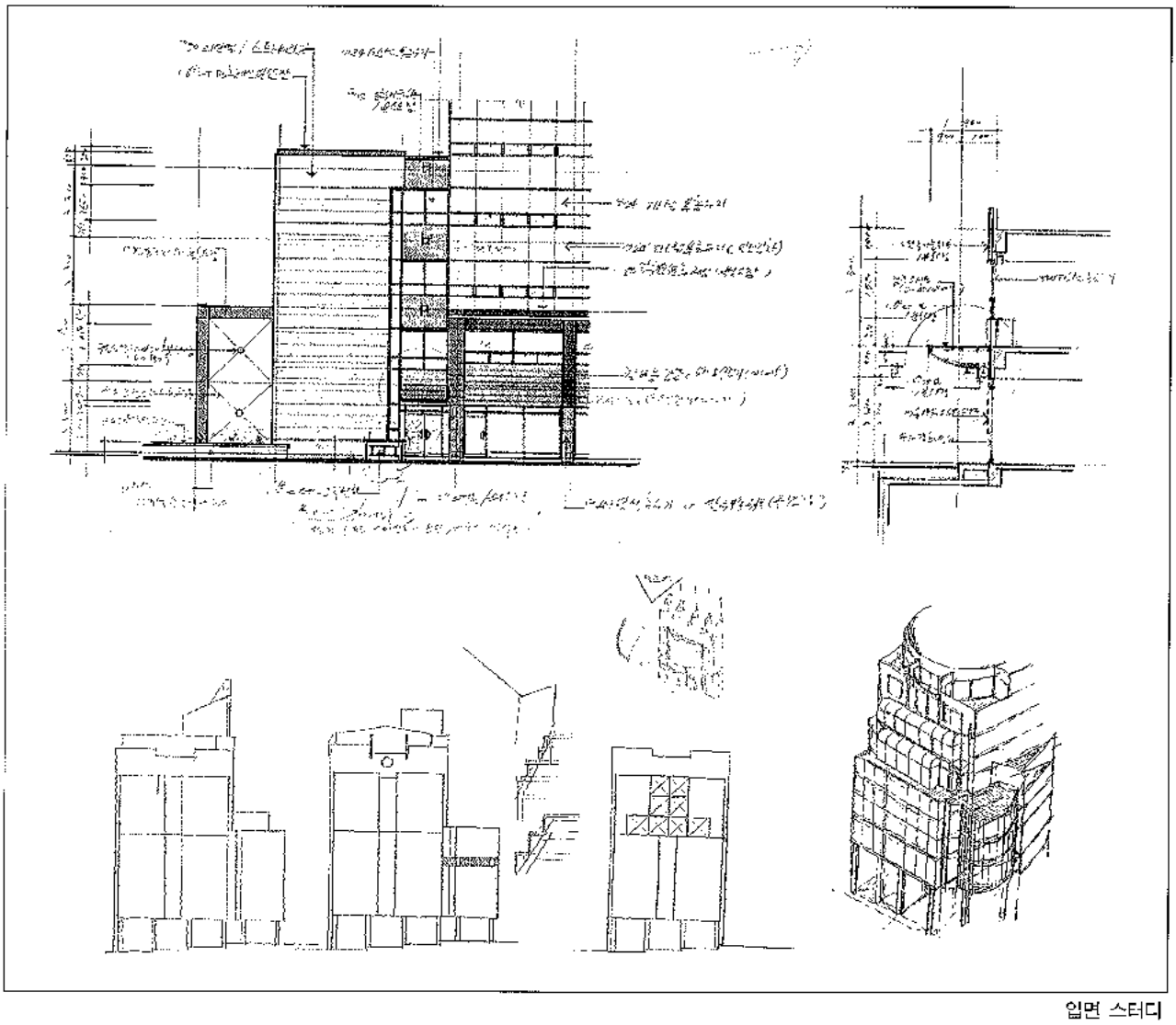
측벽 커튼월 스터디

건물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상용공간임을 고려하여 작은 패턴의 형태, 자연소재(화강석)와 질감을 구사하여 친근감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중층부는 업무 및 근린생활용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패턴을 주며, 고층부는 미래지향적 구성과 구조로 랜드마크화—유리와 철골로 구성하여 High-Tech한 분위기와 서울방향의 진입도로측에서 주·야간의 시각구조화—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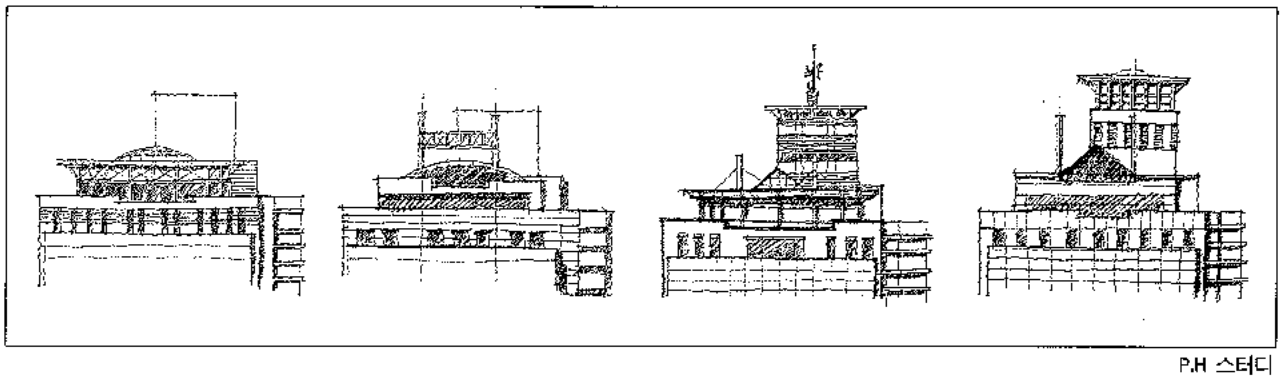
주변 여건상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던 북측의 저층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측에서의 급격한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후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어느정도 자연스런 시선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계획상의 어려움과 남는 문제

도심내의 공사, 특히 노후한 건물이 고밀도로 밀집된 지역에서의 공사의 어려움, 지하 굴토 깊이를 가능한 줄이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충분히(?) 하면서 계획 요구조건을 맞추는 일, 도심 건축물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기계식 주차계획에 대해 각 지역마다의 형편에 따라 적용기준과 인정여부를 조금씩 달리하는 일이 계획상의 어려움으로 남는 첫번째 문제이다.



입면 스터디



P.H 스터디

두번째로는 항상 생각보다 모자라고 아쉬운 사무실에서의 도면작업, 아직 구조적으로 미숙한 건설체계내에서 설계자, 감리자로서의 애매한 역할 분담, 각종 Sing물 등을 포함한 건축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통합적 디자인 문제를 들 수 있다.

또한 풀어야 할 난제로는 무엇보다 처음 계획적 기본방향으로 전개하였던 도심의 활성화나 지역적 성격설정에 부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과연 기존 환경보다도 최소한 조금이라도 개선된 지역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인가?

이 건물이 완공되고, 최소한 5년, 아니 10년 정도 후의 추이나 변화를 보고 평가해 봐야겠다.

위치 /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291-1번지 외 7필지
지역지구 / 일반 상업 지역
대지면적 / 1,256㎡
건축면적 / 905.62㎡
연면적 / 9,948.75㎡
건폐율 / 72.1%
용적률 / 586.07%
규모 / 지하4층, 지상1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중국 건축기행(完)

The Travel of Chinese Architecture

고건축과 조경건축을 중심으로

박재환 / 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
by Park Chae-Hwan

1. 여행에 참여하면서
2. 청 황제의 휴양지 : 피서산장
3. 대동시와 주변의 문화재
: 운강석굴, 구룡벽, 응현목탑
4. 불교성지 오대산 : 남선사, 불광사, 현통사, 탑원사, 현공사
5. 조경건축과 정원 : 졸정원, 류원, 사자림
6. 여행후기

5. 조경건축과 정원

이번 건축기행을 통해 접해본 중국의 많은 조경물이나 정원들은 너무나도 다양하면서 풍부한 실체를 갖고 있고, 도면이나 사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경관들을 연출하고 있어 그 체험을 몇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외람된 일이라고도 하겠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황제의 苑有(대자연 정원)나 규모가 비교적 적은 관료나 지주, 호상들의 私邸정원에서 볼 수 있는 몇가지 특징적인 조성 원칙으로는

첫째, 자연을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자연경관을 재구성한 조경물들은 극히 자연스러우면서 때론 대담하기도 하지만 그 예술적 수준과 품격은 매우 높으며

둘째, 전체의 공간은 몇개의 경관지역으로 나누면서 각 구역마다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는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셋째, 대부분의 조경물들은 휴식이나 사색을 하면서 경관을 관상하는 정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지만 활용여부에 따라서 놀이나 접대, 연회, 회합, 독서 등 일상생활속에서의 다양한 기능적 요구도 만족시키는 실용성을 갖는 동적인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을 조성하는 구성요소는

첫째, 크고 작은 연못이나 커다란 호수에 이르기까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규모에 관계없이 이들은 계절이나 기후의 변화속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소주운하

둘째, 假山(돌이나 흙을 이용하여 꾸민 산)이 정원 풍경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자연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고

셋째, 용도별로 구분되는 다양한 건축물들(堂, 亭, 樓, 台, 房, 廳, 廊, 墻)도 공간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구성요소들로 조성된 경관들은 자연 그대로 또는 자연의 일부로서 조경건축을 만들고 있어 옛 중국인들이야말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공간, 공간과 시간속에 존재하는 예술품들을 이 한 곳에 몰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성 싶다.

졸정원(拙政園)

중국의 4대 名園으로는 북경의 頤和園, 승덕의 避暑山莊, 그리고 소주의 拙政園과 留園이 꼽히고 있는데 동양의 베니스라 불리우는 물의 도시 소주에는 위의 두곳 이외에도 滄浪亭, 獅子林, 網師園, 怡園 등 많은 名園들이 있어 이 도시가 정원의 도시임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강남지방정원의 대표적인 작품인 졸정원은 소주성내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明의 가정년간(1522~1566)때 관리였던 왕헌신이 중앙정계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 축조한 것으로 지금까지 400여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총 면적이 5ha인 졸정원은 크게 동부, 중앙부, 서부 3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입구가 있는 진입부인 동부는 넓고 평탄한 초지로 좁고 긴 연못이 연이어 서남측을 돌고 있고 정자와 누각이 동축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시야가 확트인 Open Space를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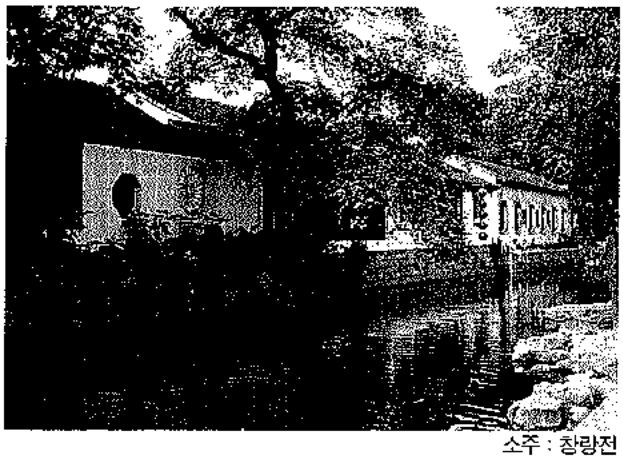
중앙부가 졸정원의 중심정원으로 북측으로 가산과 연못과 수목이 자리잡고 있고 남측으로 많은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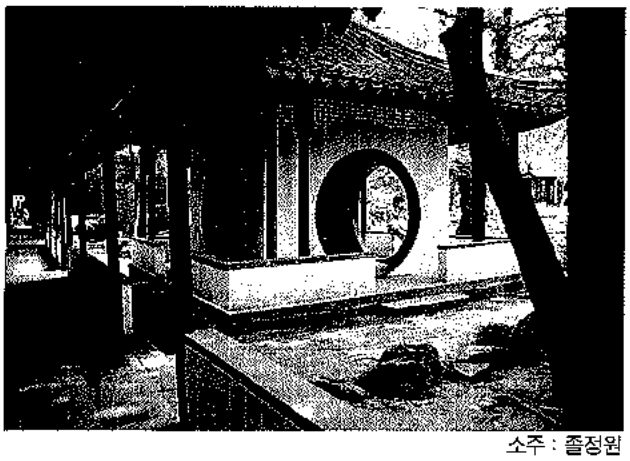
중앙부에서도 중심적인 건물인 遠香堂은 연못의 남측가에 넓은 테라스를 끼고 배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보는 사방으로의 전망은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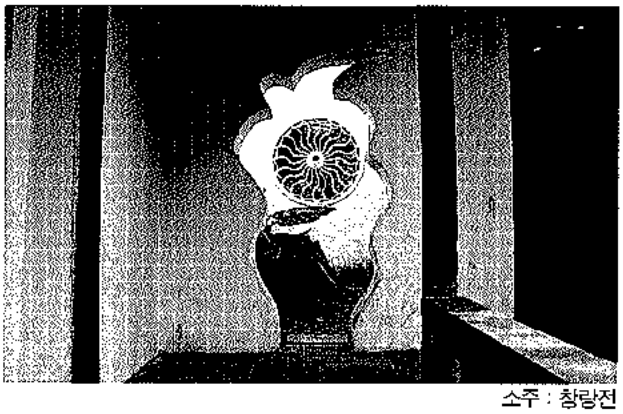
북쪽으로는 2개의 가산이 있는데 동산정상에 雪香雲尉亭과 육각형의 北山亭이 있고 북서쪽으로는 중앙부의 연못을 3개로 가르는 중심부에 荷風四面亭이라 불리우는 정자가 홀로 서있으며 서남쪽으로는 小滄浪을 비롯한 여러개의 건물들이 굽은 회랑사이로 연못과 함께 한 눈에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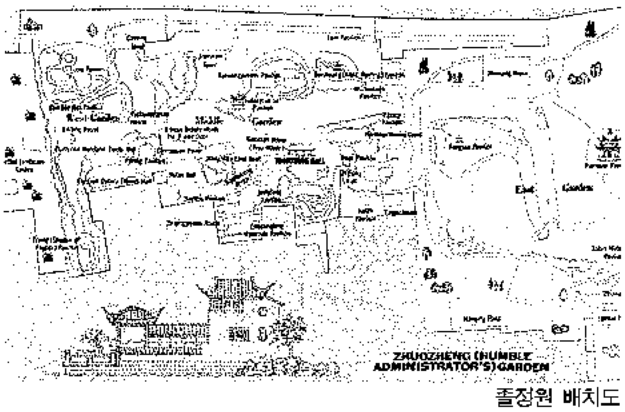
졸정원의 서부지역은 북측으로 얕은 동산이 있고 좁고긴 연못이 동북과 서남쪽으로 이어져 형성되어 있다. 36원앙관 18만다라회관 등이 연못의 남측에, 倒影樓, 浮翠閣 등이 북측 동산위에 자리잡고 있다.

졸정원은 유난히 넓은 연못이 경관의 큰 요소로서 수면을 가로질러 놓여진 작은 아치교나 징검돌, 몇번씩이나 꺽어진 회랑, 정원속의 건물들이 갖은 높은 담으로 구획된 작은 정원, 꾸부러지고 오르내리면서 수면위를 건너지르는 波形廊, 갖가지 형태의 투시창을 통하여 보게되는 경관 등은 무채색의 담백한 색조의 회랑과 함께 격조높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또한 극적인 연출들이 전체구성에서 세부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나타나며 크고 작은 공간들이 담과 나무와 건물들과 회랑으로 틔어지기도 막혀지기도 하여


소주 : 창랑전


소주 : 졸정원


소주 : 창랑전



졸정원 배치도

내 · 외부공간의 인식을 폭넓게 체험하게 한다.

유원(留園)

서주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4㎞ 거리에 위치한 유원은 약 3㏊의 면적을 갖고 있다. 이 정원 역시 명나라 가정년간(1522~1566)에 관리였던 徐泰時가 축조한 것으로 지금의 이름은 청나라 건륭황제 때부터라고 한다.

유원은 중앙부와 북, 동, 서부 등 4지역으로 나뉘는데 졸정원보다 규모가 적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배치가 짜임새가 있으며 회랑을 통한 긴 觀賞巡路가 특히 잘 되어 있다고 하겠다. 진입부는 복도와 같은 긴 통로를 몇번씩 직각으로 굴절하면서 정원의 중앙부로 들어서게 된다. 중앙부는 연못이 중심이 되는 서측과 오봉선관을 중심으로한 건물들이 배치된 동측정원으로 다시 구분될 수 있는데 연못을 사방으로 두르고 있는 회랑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연못과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특히 북쪽의 굴곡이 심한 곡랑은 觀賞통로로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서부지역이 자연적인 경관을 보여준다면 북부지역은 시골풍의 소박한 정원 모습을 하고 있다.

유원은 소주의 다른 정원들보다 건축물과 조형물들이 콤팩트하게 구성되어 있고 건물들도 규모가 큰 편이면서 화려하기도 하다. 특히 네 지역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체길이가 700m나 되는 좁고 긴 회랑들이 때로는 직선으로 때로는 휘어지거나 심한 굴절을 이루며 관상통로를 만들고 있는데 이곳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극적인 공간들과 전경들은 매우 의도적이고 인공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개방과 폐쇄, 이완과 긴장, 밝음과 어둠, 높고 낮음의 대비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공간과 다양한 전경들을 체험하게 된다.

사자림(獅子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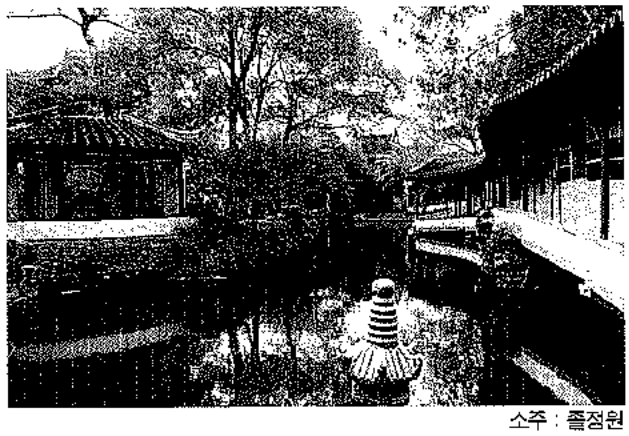
"假山의 王國"으로도 알려진 사자림은 소주성내의 동북쪽에 졸정원과 마주하여 위치하고 있다. 원나라 지정(至正)2년인 1342년에 승려 천여선사(天如禪師)가 그의 스승을 기리기 위해 佛寺를 지어 보제정종사(菩提正宗寺)로 불렀는데 그의 스승이 은거하던 산이 사자계곡으로 정원에 있는 많은 바위들의 형상이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 사자림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한다.

전체면적은 졸정원이나 유원보다 훨씬 적은 1ha의 규모지만 일반정원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기암괴석을 사용하여 假山과 石峰과 동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축조되었고 또한 사자의 여러 형상들, 앉아 있거나 자고있거나 포효하거나 싸우거나 또는 장난치고 이를 들어내 놓고 파안대소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바위들이 생생하게 사자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 환상적인 사자림을 구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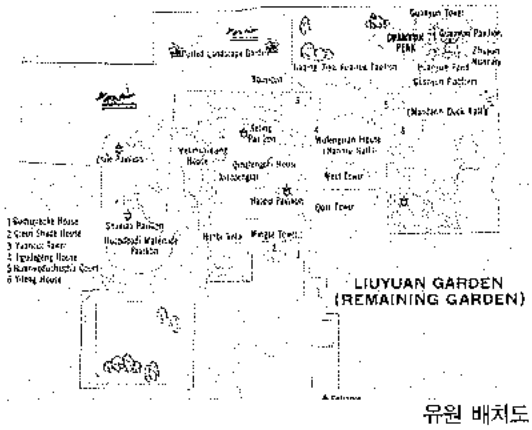
중앙의 연못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고 담장과 회랑이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사자림은 동서를 연결하는 2개의 다리로 연못을 3등분 하면서도 각기 다른 관상통로를 만들고 있다.

특히 북측의 연못 가운데 위치한 湖心亭을 중심으로 연못가의 기암괴산의 형상은 연꽃이 무리지어 떠있는 정적인 분위기를 느끼는 연못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소주 : 졸정원



소주 : 졸정원



유원 배치도

소주 : 유원

있다. 기암괴석으로 형성된 假山은 관망만하는 곳이 아니라 동굴이 있어 그 안으로 미로같은 통로를 따라 가기도 하고 가파르고 휘어진 계곡을 통하여 정상을 오를 수도 있다. 무심하게 통로를 가다보면 길을 잃고 여러번 같은 길을 맴돌게도 되고 함께 다니는 일행을 헤어지게도 하고 때로는 바로 언덕위에서 갑자기 나타나게 하는 등 인공적으로 의도된 구성은 다른 정원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또다른 정경을 만들고 있다.

6. 여행후기

여행은 누구에게나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게 한다. 최근 필자는 몇년동안 계속 건축기행에 참여하면서 폭 넓은 체험을 하고 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보통 삼주일에 걸친 여행 모두가 타이트하게 짜여진 일정이기에 때로는 피곤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많은 답사물들을 둘러보기에 머리속에서 조차 일일이 정리가 안될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체험에서 느끼는 점은 건축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축가들도 배워야 할 것들이 다방면으로 너무나 많다는 것과 보통 분발하지 않고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이번 중국 기행도 비록 짧은 일정으로 중국의 문화유산중 극히 일부분을 답사하는데 그쳤으나 이들 대부분이 적게는 몇 백년에서 부터 천사오백년전의 유물로서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현재도 후손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송과 평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건축가로서 부럽기도 하고 선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성과 지혜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기행에서의 좋은 체험은 두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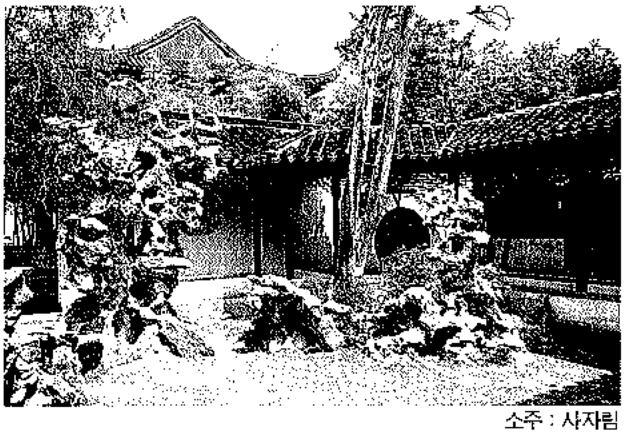
하나는 막연하게 단편적으로 배우고 느꼈던 중국의 고 건축과 정원들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실체들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국의 역사와 민족성에 대한 부족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선인들이 자연과 건축을 대한 마음과 자세를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연히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나 유물들은 어떤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었으며 5백년, 천년후 우리의 후손들에 남겨줄 오늘의 건축문화는 어떤 것들이며 문화유물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다. 파괴와 건설이 반복되는 날로 높아지는 아파트들인가,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들인가 아니면 날로 황폐해가는 금수강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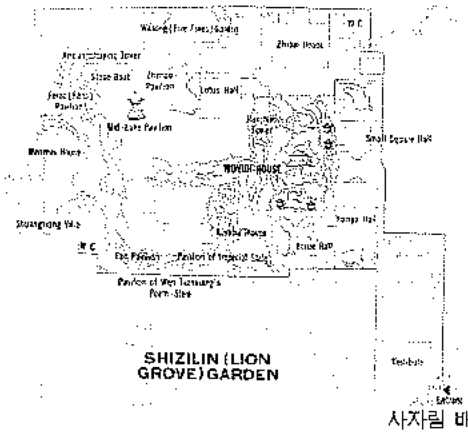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어떻게 개발발전시키고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에 더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해 본다.

소주 : 유원

소주 : 사자림



소주 : 사자림



사자림 배치도

한국의 건축가—정인국(4)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

한국성의 모색 시기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il-Ryong

1. 모더니즘의 시대인
정인국이 갖는 한국 건축에서의 가치, 이북에서의 소년기, 일본 유학기, 넓은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2. 학자 건축가 정인국
홍익대학교에서 건축 교육, 신건축문화연구소, 모더니즘의 시기, 강명구 · 엄덕문 · 김중업과의 조우, 건축가협회장

3. 정인국의 지적 중흥기
한국적 모더니즘의 변이, 제3세대, 제3세계 건축에 주목함, 강의실에서 만남, 서양건축사 · 근대건축론 · 현대건축론에서의 시대관

4. 한국성의 모색
민족박물관의 교훈, 문화재 위원, 한국건축 원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목조건축양식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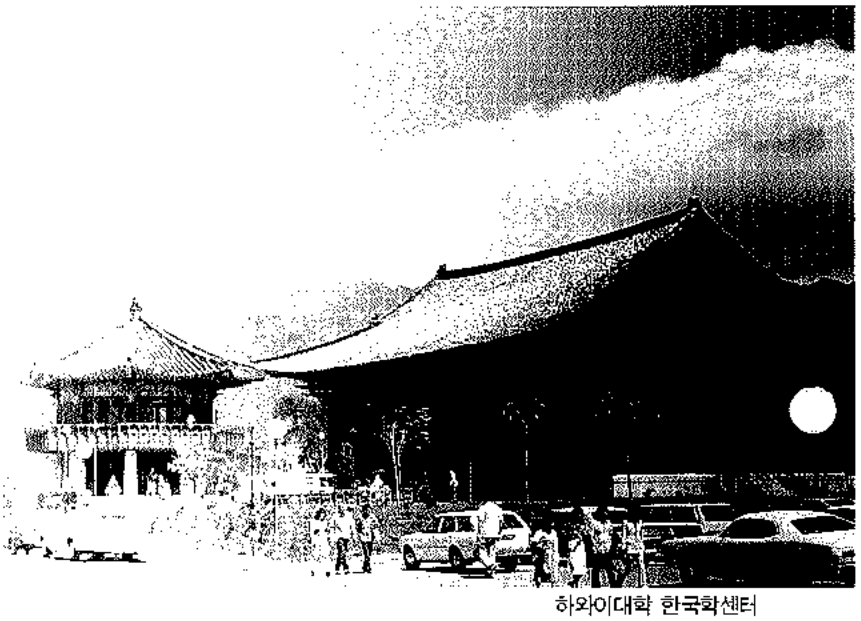
5.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UIA 총회,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 것, 병환

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시대, 경제진흥에 힘입어 어느정도 건설경기는 형성되지만 197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건축의 문화적 의지는 무위도식(無爲徒食)이었다. 일제와 전쟁 공간에서 건축문화가 피폐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20년간의 시간을 의식없는 생산으로 소모하였던 것이다. 물론 식민지시대의 이식(移植)문화나 60년대의 국제주의의 맹종도 자의적인 것은 아닌 것이었다. 한국의 모더니즘은 그 나름대로 한정된 재료, 시공 등의 기술적 부문의 한계 안에서나마 독특한 전개의 모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여전히 막연하고도 자폐적인 이해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즈음에 전통의 의미와 실천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건축계는 깊이 잠겨 있던 자의식에 눈뜨게되는 동기를 갖는다. 아마 이러한 문화 인식은 한국 근대건축이 생성된 이후 처음 갖는 문화적 자의식이라고 생각된다. 다시말해 한국성의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표현적 경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더니즘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체화하여 본 건축적 개념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이라는 문화적 자의식이 스미는 즈음에 두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는 김수근에 의해 1965년에 계획된 국립부여박물관에서의 왜색(倭色) 시비이며, 다른 하나는 1966년의 국립중앙박물관(서울, 경복궁) 현상설계에서 발발된 전통의 왜곡이다.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제와 시대정신에 관한 정인국 교수의 입장을 읽기 전에 이 두사건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종합박물관 현상설계

1965년, 정부는 부여에 국립박물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설계가 김수근에게 맡겨진다. 김수근은 뛰어난 콘크리트의 가소적 솜씨를 가지고 이 고도(古都)의 건축을 완성하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건축계는 이 디자인을 왜색의 은영(隱映)이라 하며 냉소적인 비평을 보인다. 그 물증으로 이 건축의 외관에 잠재되어 있는 일본의 전통 양식인 '치기千木'의 형태가 들이대어졌다. 특히 김수근의 수학과정이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완성되었다는 선입감도 작용하고 있었다. 어떤 변명에도 불구하고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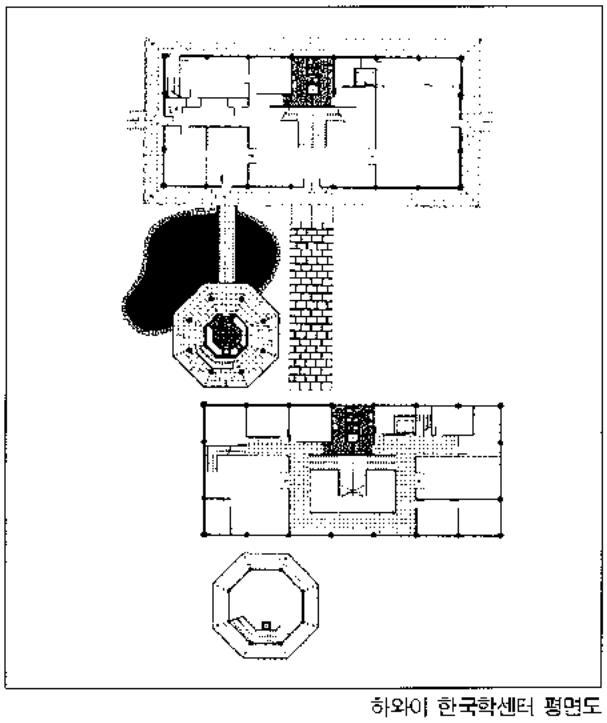
김수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개념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국립중앙박물관 현상설계는 문화재관리국 주관으로 1966년 1월 8일에 공모되어 강봉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는데, 문제는 주최측의 공모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역사건물을 모사하여 표현이 가능함을 유도하는데에서 비롯된다. 당연히 건축계는 이와 같은 조건이 작가의 창의성과 전통성에 배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축문화를 퇴행시킨다는 이해로 거세게 반발한다.

논란은 주최측 주변의 '경복궁이라는 장소성과 재구성도 창조의 일환'이라는 이해에 대해 '복제의 작업이 창조가 아닌 한 그 프로그램은 문화적 퇴행이며 전통의 몰이해'라는 건축계의 의견으로 대립되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 건축은 배치를 재조정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어 1966년 11월에 착공되어 1968년에 완공된다. 심사위원의 한사람이었던 정인국 교수은, "현재까지 한국의 실정으로는 현상설계에서 어떤 작품이 선정되느냐 하는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건축적 소신의 공약수가 규준이 되느니 보다 건축주의 의도가 더 강하게 반영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이번 경우 주무자의 현대건축가에 대한 철저한 불신과 고건축에 대한 무한한 동경은 작품선정에 지배적 영향을 주었다."[1]고 술회했다.

그러나 당시 자문위원이기도 하였던 정인국 교수는 이 현상설계에서 간접적이나마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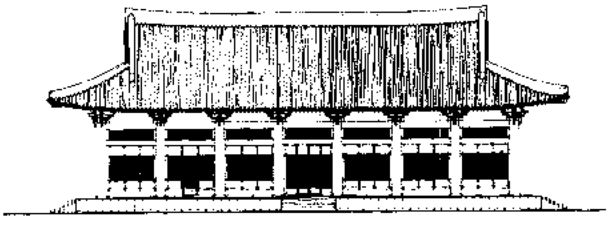
1975년 정인국 교수는 한국건축의 전통문제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다. 이미 1960년부터 현대건축에 있어 한국성과 전통의 문제를 위한 여러 실과는 그 적부성을 떠나, 구현시켜본 경험이 있으나, 이에 대한 논리와 의사교호의 기회가 드물었던 것은 당시의 빈약한 토론문화를 말하기도 한다. 정인국 교수는 건축학회 창립30주년기념 논문집[2]에서 그즈음 우리 시대의 전통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지진하여 왔는가부터 비판이 시작된다. "自主 獨立 直後의 政治的 混亂狀況에서 政治的 安定으로 향하는 道程에서는 별로 建築文化面에서 볼만한 理論活動이 없었던 이유이고, 둘째로 너무 갑작스럽게 이때 기세를 떨치고 있던 國際建築樣式이 우리나라를 휩쓸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돌이켜 볼 餘裕가 없었던 것, 셋째로 다른 藝術分野에서는 解放前 부터도 계속 民族運動의 一環으로 소위 抵抗文化運動의 성격을 띄인 藝術運動이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고 보여지는데 비해 建築文化活動에서는 官僚로써 혹은 隱遁으로서 처세한 몇몇 建築家가 있을 뿐 별로 이런 面에서 傳統意識의 氣脈을 이어 내려오지 못한 때문이다."

상당히 당시 건축계의 사회는의 부재를 시니컬하게 말하며, 전통론이 대두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外部的 要因으로서 現在 世界의 建築潮流가 그러한 狀況에 놓여 있는 점과 內部的 要因으로는 우리나라 政治經濟 社會條件이 必然的으로 民族的 自覺意識을 성숙케 하게끔 이끌어온 점이다.' 다시말해 우리의 건축환경은 비로서 국제적 동태와 내적의식을 동조시킬 시점에 있다고 함이다. 그러면서 그는 E.N.로저스의 말을 통해 현대건축 창조에서 역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불가분한 건축요소이며 역사성이란 현대까지 포함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韓國建築 發展에 致命的 影響을 준 것은 이러한 歷史的 連續性이 斷絶된 狀況에서 作業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아마 그는 다시 1965-66년의 傳統과 國粹의 혼돈으로 불편하였던 사회논쟁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지 모른다. 그는 왜 전통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가를 설득하기 위해 한국건축문화의 특질을 말하는데, '첫째 西歐建築文化는 우리의 歷史的 文化的 遺産의 累積된 過程과는 絶緣된 文化이며, …(중략)… 西歐建築文化와 韓國建築文化는 전혀 이질적인 문화이다 …, 〈새로운 것〉, 〈올바른 것〉이라는 相關關係를 打破하여 단지 過去와 訣別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항상 後進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여 世界建築과 調和시킬 수 있는 哲學 貧困이 특징이다…. 移植文化로서의 事大性이 농후하다…. 日帝統治下에서 우리 땅에 옮겨 놓은 建築은 두말할 것 없지만, 그 후에도 移植된 表現뿐이고 先進國의 건축을 散策式으로 模倣하는 傾向은 歷史가 얕은 近代建築의 導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겠지만, 더 큰 病弊는 事大性을 탈피못한 점이다.' 매우 자조적일만큼 당시의 건축가의 양태를 비판하며 그는 1965년도의 전통 논의마저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끌지 못한 건축계를 섭섭히 말한다. 그나마 그동안 전통의 구현을 위해 표시된 방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하와이 한국학센터 평면도

1) 정인국, 국립종합박물관 설계에 연관해서, 공간 1967년 2월호, p. 12.
2) 대한건축학회 / 1975년 9월호



하와이 한국학센터 입면도

① "所謂 韓國의 멋을 傳統表現이라고 보고 抽象的인 觀點으로 삼는 態度 흔히 哀傷의 情味, 環境과의 調和, 人間的 스케일 등 抽象的인 文句로 韓國文化의 特色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과 같이 無意味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韓國文化時期에도 哀傷과 靜寂이 깃들어 있었던 때와 歡樂과 躍動이 넘치던 時期도 있고 順天의 理로 環境의 調和를 꾀한 時期도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逆天의 理로 自己를 두드러지게 내세운 時期(古新羅時代의 一塔式 伽藍과 같이)도 있었고 또 人間的 스케일이 韓國建築文化의 專賣特許가 될 만큼 고유의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근본적으로 전통에 소극적인 모더니스트들 중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당시의 건축의 장르들, 예를 들면 미술, 역사계가 건축계에 던지는 고언이기도 하였다. 정인국 교수는 여기에서 역사양식의 역동성을 강변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기성으로 진도한다는 것이다.

② "韓國의 古典建築을 어떤 方法으로든지 디포메이션의 作業을 거쳐서 創作의 方法으로 삼으려는 態度, 이러한 態度는 傳統表現의 初段階에서 의례히 거치는 過程이다. 이런 過程을 거치는 동안 新舊의 갈등은 辨證法的 止揚으로 일단계 진보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창작이 생기게 된다." 정인국 교수는 이 방법을 타협적 유효성으로 본다.

③ "전통建築과 모더니즘과의 調和를 裝飾手法의 限界에서 意圖하고자 하는 消極的 態度, 이것이야말로 가장 可憎스러운 방법이다. 建築의 發展은 建築의 本質에 대한 變革없이 附加된 性質의 하나밖에 안되는 裝飾만을 취해서 시도한다는 것은 전연 무의미하다." 그는 건축의 修辭的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 강한 거부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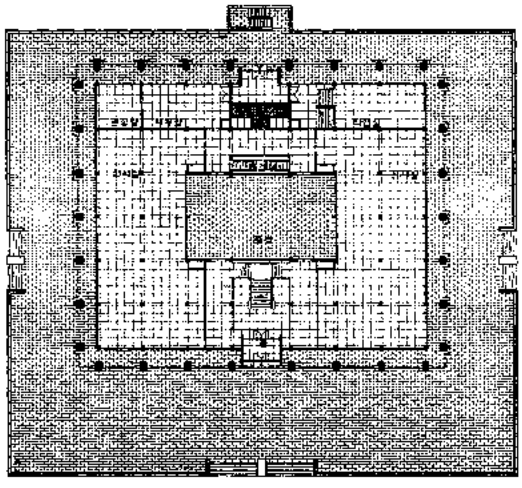
④ "形式上 또는 表現上의 傳統追求는 無意味하며 社會的 與件이 變化한 오늘에 있어서는 內面的인 精神上의 作業過程으로 보려는 態度, 여기에서 〈精神上〉이라고 하는 것은 漠然한 精神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人間의 精神을 指稱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 自體도 결국은 建築行爲에는 제일 먼저 人間生活이 깔려 있고, 行爲의 主體가 人間이기 때문에 그 人間이 韓國人이라는 것을 前提로 한다면 精神問題도 자연 어떤 種族的인 것 또는 人間性 또는 文化形成圈 속에서 얻어지는 韓國的 表現으로 歸着된다." 그는 전통의 표현 문제역시 건축적 리얼리즘으로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정인국 교수는 한국의 전통표현에 있어 그 원리적 방법론을 위해, "世界 建築潮流는 强한 個性的 表現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추구는 傳統을 繼承한 個性 表現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단은 世界建築樣式은 廢棄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價値있는 建築 즉 獨創的 建築을 社會의 集約的 욕망하는… 獨創性은 固有性과 自主性을 의미한다. 동시에 전통은 固有性과 自覺性을 그 要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우리는 1970年代에 서서 작업하고 있다 즉 現在性을 떠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建築表現에서 高麗나 朝鮮朝로 돌아갈 수는 없다." "위의 입장에서 敢行한 摸索과 試驗은 바로 그대로가 완전하기는 힘들다. 거듭 試圖하고 다시 社會에 赤裸裸하게 投影하여 批判의 洗禮를 받고 나서야 所期의 目的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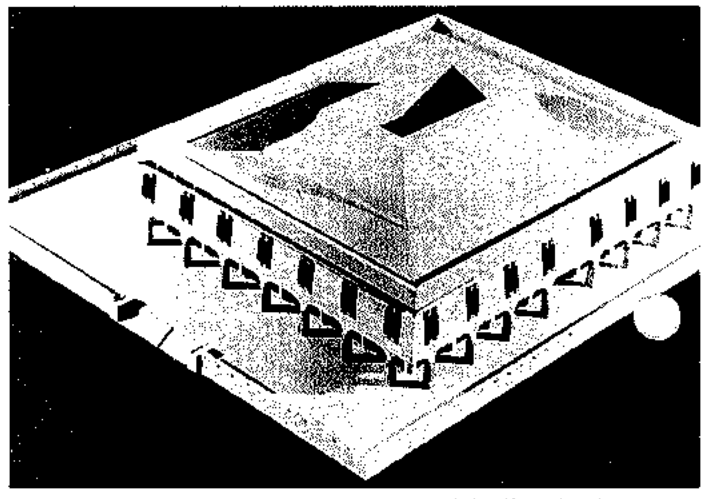
한국건축가협회는 1975년 1월 여의도에 건설계획이 세워진 「민족박물관건립에 즈음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예중흥과 건축에 관한 세미나를 주최한다. 여기에서 네 사람의 의사가 발표되었다.

① 문예중흥과 건축 /김희춘
②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이해성
③ 민족박물관 건립 의의와 운영방향 /김철준
④ 민족박물관과 표현상 전통문제 /정인국

정인국은 '민족박물관과 표현상 전통문제' 에서 "… 지금 韓國建築은 傳統的인 建築과 世界的 建築 사이에서 後者를 성급하게 좇고 있다. 同一化의 條件 즉 同水準의 所得, 工業化 組織 등이 아직 미흡한 狀況에서 이 길을 擇하는 경우 생기는 여러 矛盾에 注意를 돌릴 必要가 있다. 人類가 普遍的 建築에 到達한다는 뜻은 우리가 終局的으로 바라는 에큐메닉한 建築으로 目標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이르기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소요되는 법이며, 그런 關係로 韓國은 심한 過渡期에 처하여 있다. 이러한 過渡期에 각자의 成功은 그 地方에서 어떤 時點에 經驗하고 있는 進化의 段階를 포착하는 建築家의 能力 즉 이 둘 사이에 均衡을 發見하는 能力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는 價値있는 建築 즉 獨創的인 建築을 社會의 集約的인 慾望으로 願하고 있다. 獨創性은 固有性과 自主



영남대학교 박물관 1층 평면도



영남대학교 박물관

性을 의미한다. 創作面에서 固有性과 自主性이란 그 民族, 그 社會, 그 國家의 傳統을 基盤으로 할 때 비로서 얻어지는 것이다."[3]

이 프로젝트는 정변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앞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같은 고뇌를 반복하지 않기위한 중론을 모색하는 가치로 보여진다.

정인국 교수의 후기작품 중에는 몇 개의 원형에 충실한 설계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70년대초인 이즈음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 목조 건축양식론」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연구를 위해 많은 사례들의 답사와 실측을 통해 그의 지적 관심은 이 원형들이 갖는 묘미에 빠진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은 그 해에 일지사에서 「한국건축양식론」으로 출판되고, 계속하여 역사건축에 대한 논술만도 「한국의 상류주택」, 「한국의 전통문제」, 「한국의 건축(세종기념사업회)」 등을 발표하게 된다. 건축 작업으로는 해인사 經板庫(경북 합천 /1972), 하와이 대학 한국학 센터(호놀룰루 /1972), 龍譚亭(천도교 성지 복원 /1975) 등의 설계를 통해 그 자신의 연구결과인 한국적 원형들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서 그는 문제의 이해를 원형과 구체적으로 접촉하므로서 다시 되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대학 한국학센터(호놀룰루 /1972)

이 건축은 홍익대학의 나상기 교수와 합작인 작품으로서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하와이대학으로부터 가장 한국적 원형에 충실한 건축으로 주문된 과제이었다. 정인국 교수로서는 우리나라 역사건축에 대한 연구가 결실을 맺어 「한국건축양식론」이 편찬되는 즈음의 일이기도 하다. 대학 구내에 자리잡게 되는 이 연구센터는 그것이 세워지면서 캠퍼스 내에 가장 유니크한 장소성을 만들고 있다. 설계초기에는 장소와 성격을 두고 여러가지 대안이 있었으나, 결국 한국의 역사문화를 실체로 전한다는 뜻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에 가장 원형(原型)에 충실한 각부의 비례, 요소의 구성, 장식성, 재료 등이 구사된다. 이 대학 안에는 한국학센터보다 조금앞서 일본학센터가 철골조로서 일본의 역사양식을 상당히 높은 질량으로 건설하였다.

한국학센터는 콘크리트 구조로서 팔작지붕의 연구소 본관과 다실(茶室) 기능인 팔각정이 배치되었다. 본관의 디테일은 주심포집의 원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엔타시스의 구성, 이에 따른 각부의 비례, 포작의 상세가 다듬어졌다. 연못에 걸치는 2층의 팔각정도 정자건축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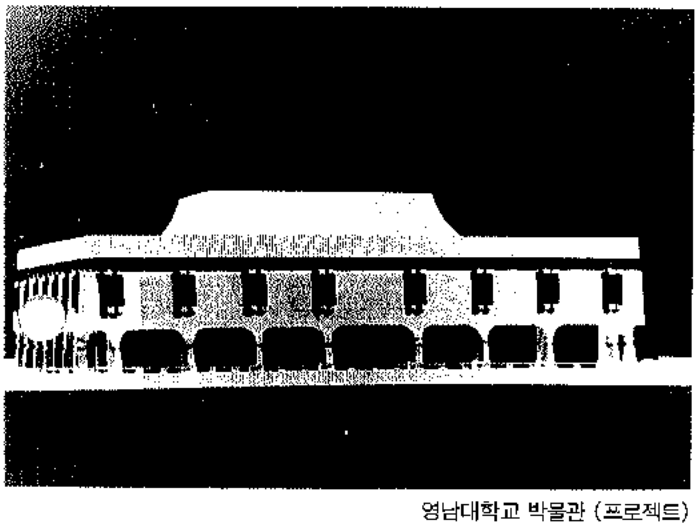
그의 한국적 조형의 의사를 가장 잘 밝히는 영남대학교 박물관 계획은 다시 역사원형에서 벗어나, 그 원용의 수단을 얻는다. 이 작품은 구현되지 못하였지만, 정인국 교수 자신이 가장 힘주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던 작품이기도 하다.

영남대학교 박물관(프로젝트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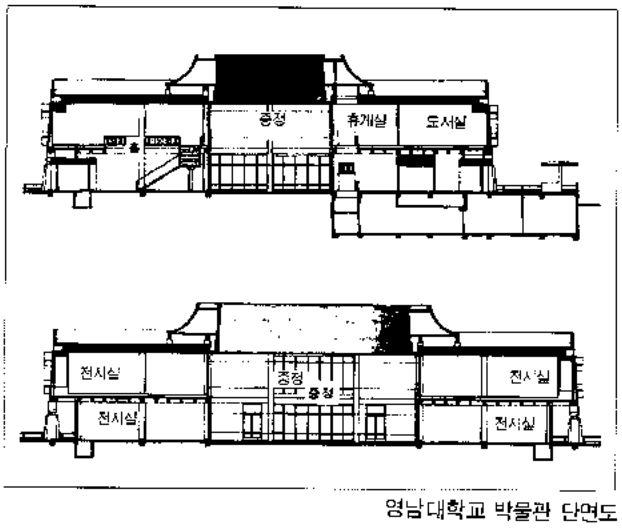
이 건축의 형태는 수평적인 비례 속에서 상하로는 크게 3분된 형식을 취한다. 제1분은 평면주변에 형성한 열주 회랑이고, 제2분은 열주에 떠올려진 2층의 몸체부분이다. 제3분은 분명한 엑센트를 갖는 지붕의 형식이다.

이 건축의 조형은 당시 전통계승의 방법이라는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 건축계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던 경과에서 내놓은 확실한 하나의 대답이라고 하여도 좋다. 기단, 기둥, 지붕의 삼부 구체(三部 構體)의 형식을 뚜렷히 표출시키면서 전체성 속에 각 요소 디테일의 특질이 한국적 이미지로 수사를 맡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적인 품격과 시각적 인상 사이에는 유연한 합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엄정한 질서와 원칙들이 유지되고 있어 디자인의 단아함과 역동성을 같이 갖게한다. 이러한 전체의 3부 구성은 한국의 전통건축이 갖는 원형에 기인하는 것이다. 각 부는 전체의 조합요소이지만, 모두가 독립적이며 강한 조형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필로티 형식의 허면(虛面)에 대한 2층의 괴체(塊體)의 대비, 열주의 강한 억양에 대해 잔잔한 2층의 수평면, 안정감 위에 구축되는 지붕의 긴장감과 같은 것은 상대적이며 이들은 적절한 관계성에서 상호되는 것이다. 전체적인 조형에서 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시각에서 열주의 디테일, 홍예, 처마를 받는 돌출보의 머리 등은 전통의 원형을 의역하고 있다. 네 귀가 사절된 각주(角柱)

3) 민족박물관 건립과 표현상의 전통문제 / 문예진흥과 건축에 관한 세미나 / 주제발표



영남대학교 박물관 (프로젝트)



영남대학교 박물관 단면도

의 디테일은 아래로 단면적이 점차 커지는 화강석 붙임 기둥이다. 여기에 홍예를 받는 부위에는 간략화된 주두(柱頭)의 상세가 있다. 평면은 48m×42m의 방형이며 그 중심에 24m×16m 의 작은 중정이 공간의 핵을 이룬다. 이 중정의 주변으로 형성되는 전시실의 구성은 자연채광을 위한 고려이다. 이 중정의 존재는 외부로부터 실내에 이르는 주접근상 정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의외성을 만나게 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적절한 공간적 한정감 속에 외부 전시기능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에서 이 건축은 한국성의 표징을 구체화하나, 그 건축적 구도는 여전히 합리주의에 귀속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어떻게 보면 합리주의 사고를 완전히 일탈하지 않은 한계에서의 사고이다. 다시말해 이 건축의 한국적 태도란 큰 시점에서 형태와 미시적 수사(修辭)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전체가 하나의 형식미에 통어시키는 수법은 단일 건물체로서는 유효하다. 다만 더 많은 전통적 국면들, 예를 들어 우연성을 포함한 현상적 미학, 더 다양한 관계의 공간미학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한국건축양식론

1970년대의 전통성을 위한 논술과 작품의 경향에서 정인국 교수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을 바친 박사학위 논문이 건축문화계에 공여된다. 1971년 문공부 문화재 위원에 피명되고, 1974년에는 공학박사를 취득하였다. 그의 나이 58세의 일이다. 건축학의 博士學位는 舊制度로서 1973년부터 1977년까지는 교수직 이상의 사람으로서 연구업적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이수과정 없이 논문제출만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구제도가 있었다. 이 구제도는 1977년에 폐지되고, 그 후부터는 정격의 입학시험과 과정수료 그리고 학위논문 과정을 완결하여야 한다. 사실상 이 구제도로서 학위는 형식적인 논문과 심사로 남발되기도 하였다.

정인국 교수 역시 뒤늦게 구제도로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나, 이 논문은 한국건축역사학계로서는 비로서 얻는 본격적인 양식사의 정리이다. 그는 문화재관리국의 자료실을 다시 뒤지며, 대상 건축들을 다시 직접 답사, 실측하며 확인하여 논거의 자료부터 쌓아가야 하였다. 鄭寅國의 학위논문은 좀더 충실한 사례를 보완하며 「韓國建築樣式論, 一志社, 1974년」으로 출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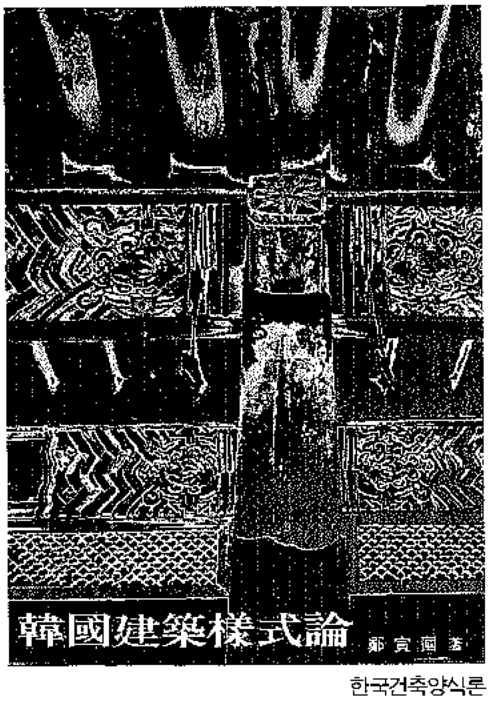
이 책은 그때까지(해방후 25년, 일제 때의 일본학자들에 의한 한국 역사건축에 대한 저술이후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던 학계의 사정에서) 한국의 역사건축에 대한 사관(史觀)의 재정립이라는데에 의미가 있다. 이 저서의 내용은 "한국건축의 발전의 연속성을 추구하며 한국건축의 과학적 가치를 입증하고자 한다."라는 서문에서 시작된다. 1장은 시대와 양식에 대표될 현존의 사찰, 궁전, 서원 등의 건물을 중심으로 물적 증거로서 해설과 분석을 모았다. 2장은 사찰건축을 통해 배치와 불교사상의 상관성을 고찰하고, 평지, 구릉, 산지의 입지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다. 탑을 중심으로 한 축의 구도, 민간신앙의 영향으로 중심 건축의 운집과정을 밝힌다.

3장에서는 주심포 양식과 다포양식을 전기, 중기와 후기로 나누어 목구조의 연속적 발전과정이 정치 · 사회 · 경제의 조건과 어떻게 동조되는가를 말한다. 결국 그들의 결과가 민족문화의 형성체로서 고유성으로 이끈다. 여기에는 평면, 단면, 부재의 분석과 구법을 위한 자료를 동적으로 정리하여 뒷바침된다. 4장은 평면과 입면의 수열적 비례와 법칙성으로서 구성론이다.

평면의 정면과 측면 비를 2:1의 전형성으로 한국 목조 건축양식의 기본적인 조형의 특질을 말한다. 대량의 단면에서 주간이 제한받는 것을 가정하고 고주와 대량 단면비를 1 : 122의 가구역학적 비례를 찾는다. 이러한 수리적 조형론은 건축의 전모와 상세부분간의 일관된 관계성에서 한국의 건축이 조영되는 여러 사실들을 확인하여 준다. 5장에서는 조선 상류주택의 대표작들에서 주생활의 내용과 공간의 관계를 발전적 구도에서 모색함이다. 박용숙씨는 이 저서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 책은 적어도 대상에 접근한 하나의 시작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중요한 점은 건축학적 대상을 과거의 선입관에서 해방하력 시도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이미 선학에 의해서 정의가 내려진 소재(연구 대상)를 백지화하므로서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했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섣불리 내려지는 방법론 보다도 폭넓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더없이 소중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책은 빈학과 미학에 너무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점을 따로 지적하게 하는 것은 빈학과 미학 이른바 현상학적 미학이 유럽미학 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모험적 미학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전통건축의 예술의사를 규명하는데에 있어서 너무 그쪽에다 의지한다면, 자칫하면 주체상실의 오류를 다시한번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완성된 하나의 체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체계 이전의 문제를 우리에게 생생하리만치 보여주는 것이며, 그로 하여금 한국전통건축의 올바른 체계를 유도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4]



한국건축양식론

4) 서평 / 박용숙 / 공간 1974 년10월호

노인주거의 설계기준(2)

Design Guidelines for Elderly People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1

강병근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Kang Byoung-Keun

Ⅰ. 노인주거의 필요성과 무장애 공간
1. 노인주거의 필요성
2. 무장애 공간계획

Ⅱ.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1
1. 주택 출입구
2. 거실
3. 침실

Ⅲ.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2
1. 욕실 및 화장실
2. 부엌
3. 발코니

Ⅳ.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기준 3
1. 인테리어
2. 조작기기
3. 정원

Ⅴ.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국외) 1

Ⅵ. 노인을 위한 주택설계사례 (국내) 2

1. 주택 출입구

모두를 위한 '무장애 공간' 계획이란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주택의 출입구는 반드시 단차가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조그마한 단차는 경사로를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이때 최대경사도 6%, 최소 유효폭 120㎝, 최대 길이 600㎝). 빗물의 효과적인 배수를 위하여 트렌치를 설치하는 것도 좋으나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앨코브(Alcove)식 출입구가 더욱 바람직하다. 80㎝폭의 출입문은 모두를 위한 문으로서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왜냐하면 휠체어 이용자가 방문을 하였을 때에는 최소한 90㎝ 유효폭의 출입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폭은 전동휠체어도 통과할 수 있는 출입구의 유효폭도 된다.

〔 일반적인 고려사항 〕

① 주택의 출입구는 번지수나 문패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응급시 의사나 구호요원이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② 주택 출입문의 전 · 후면 손잡이쪽 벽에 손에든 물건이나 우유, 신문, 우편물 등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작은 선반을 설치한다.

③ 주택의 출입문은 최소한 유효 통과폭 90㎝는 확보하여야 한다. 출입문 전후의 활동 공간확보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④ 최소한 거실에 한정하여서라도 90㎝폭의 출입문 폭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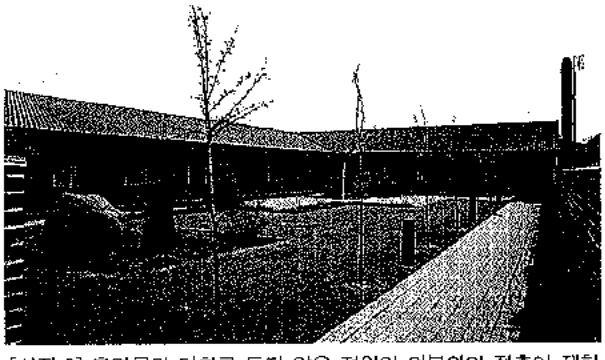
이것은 모든 방문객이 거실에 출입하거나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교류에 건축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는 배려이다.

한국의 공동주택은 복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공간이 거실 등 인접실에서 직접 들어가도록 되어있어 휠체어 장애자의 출입이 매우 용이하게 되어있다. 예를들면 거실에서 직접 부엌, 식당 혹은 침실에서 직접 화장실, 욕실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당초 휠체어

[사진 1] 자동덮힌 진입로는 보행속도가 느린 노인에게 매우 유익하다.

이용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배려에서이기 보다는 소규모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휠체어 장애자의 진출입이 매우 용이한 평면구조로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거의 모든 출입문에 문턱이 있다는 것이 향후 제거하여야할 문제점이다.

[사진 2] 주출입구의 내면지붕은 승하차시와 예비동작 시간이 긴 보행장애자에게 유익하다.



[사진 3] 출입구와 단차를 두지 않은 정원의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노인에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

1) 현관

현관은 주택내에서 방어력이 없는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는 곳이다. 즉 방문객의 음성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폰(Video Phone), 눈부심이 없는 현관조명 등의 확보, 출입자의 진출입시 자동으로 점멸되는 현관 내부등 등의 설치는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① 충분한 밝기의 조명의 확보에 유의한다.

② 주택현관 출입문 개폐를 위한 활동공간에 면하여 앉아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의 외투걸이용 옷걸이(Wardrobe)를 설치한다. 이때 돌출된 옷걸이가 현관의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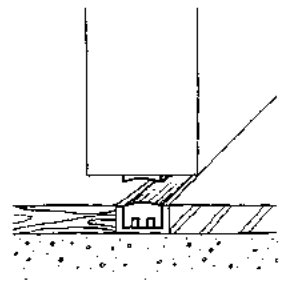
③ 고정이 되어있지 않은 신발털이용 매트는 휠체어, 목발 이용자, 노인 등 보행장애자에게 위험요소가 된다. 이때 안전을 위하여 먼지털이용 매트를 현관바닥에 매립하여 고정시켜 둘 수 있으며 특히 매트가 브러쉬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휠체어의 바퀴를 터는데에 도움이 된다.

④ 특히 바닥재료의 교차가 빈번한 현관에서 이로인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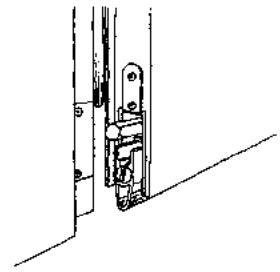
⑤ 문턱이 없음으로 인한 현관의 방풍, 방음, 방진(防塵)은 다음과 같은 방법 등으로 처리한다.

첫째, [그림 1]은 영구자석(磁石)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열리는 문의 하부에 그림과 같이 얇은 자석띠를 고정시키고 다른 자석띠는 상하로 움직이도록 문이 닫히는 위치의 하부 바닥 U형으로 된 경금속홈에 끼워둔다. 문이 닫히면 자석 문풍지는 서로 압착되어 밀폐되고 문을 열면 하부 자석띠가 미끄러져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둘째, [그림 2]는 상기 방법보다 더 기밀성을 요할 때 유용한 것으로서 바닥에는 별도의 장치나 시설설치 없이 문의 하부에만 U형의 유연한 고무문풍지를 달아 문의 손잡이와 연결시켜 문을 닫고, 이 손잡이를 일정 방향으로 90°회전시키면 문풍지 고정대나 문 자체가 일정한 높이만큼 가라앉게하여 이 고무문풍지를 바닥에 밀착시키는 시스템이다. 이 방법은 단열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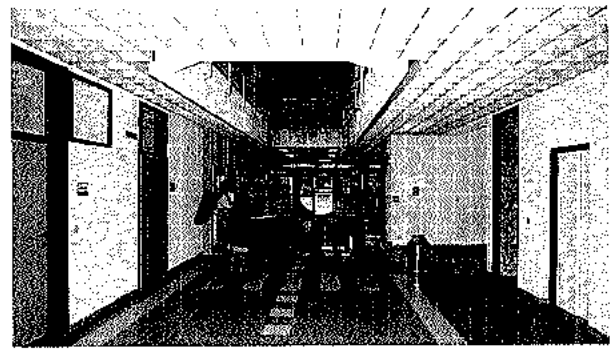


[그림 1] 출입구의 단열 I



[그림 2] 출입구의 단열 II

2) 복도



[사진 4] 넓은 복도와 ALCOVE로 된 진입부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복도는 연결 및 교통로이다. 그 안에서 휠체어를 회전하거나 그곳에서 다른실로 걷거나 휠체어를 탄채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복도는 항상 어디에나 장애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출입구가 모두 복도에서 직각으로 통과하여 문을 드나 들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폭의 복도이건 상관없이 자주 여기저기 부딪치게 마련이다. 때문에 휠체어, 전동차등 보행보조장비 등의 충돌로부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 문틀, 벽체 모서리 등에 보호용 챌판을 설치한다. 이 챌판은 다양한 색상과 재료, 즉 목재,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제품이 모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설치 가능한 것들이다.

① 주거내 모든 활동공간은 반드시 최소 유효폭 120 cm를 유지해야 한다.

② 밖으로 열리는 출입문이 있는 복도의 출입문 앞 유효공간은 문이 열리는 범위를 포함하 여 폭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120cm×150cm는 확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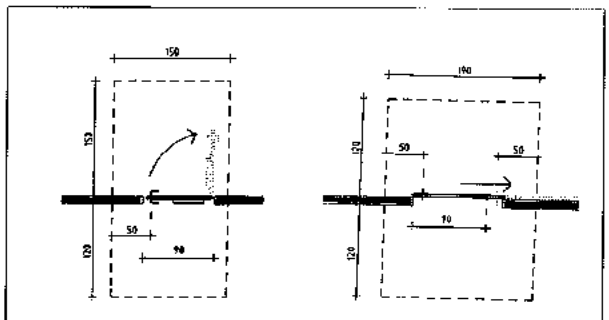
③ 막다른 복도의 최소화된 폭이라 할지라도 120cm이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휠체어 사용자가 있는 주택에서의 복도 최소폭은 반드시 150cm이상 이어야 한다.

⑤ 노인 시설주거등 침대차를 사용하는 주거에서는 그 최소폭이 180cm~200cm는 확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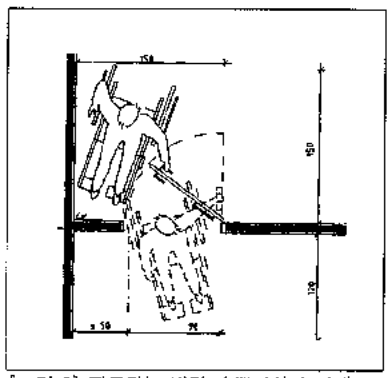
⑥ 휠체어가 180°회전할 필요가 있는 공간은 150cm×150cm, 360°방해없이 회전할 수 있는 유효공간은 160 cm×160cm를 확보하여야 한다.

3) 문



[그림 3] 여닫이 문과 여유공간 [그림 4] 미닫이 문과 여유공간

① 문의 전후면 유효공간은 반드시 최소한 120cm의 폭에 120cm의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의 주택에서는 문을 여는쪽 활동공간은 150cm의 폭에 120cm의 깊이를 유지해야 하고 그 반대편인 문이 열리는 쪽의 유효공간은 150 cm의 폭에 150cm의 깊이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그림 3] 및 [그림 4] 참조).



[그림 5] 직교되는 벽과 손잡이와의 관계

② 코너에서 직교되는 벽체로 부터 문의 손잡이까지는 최소 30cm 적정 50cm의 간격을 확보 해야한다([그림 5] 참조).

③ 모든 문의 폭은 안목치수 기준으로 반드시 80cm는 유지해야 한다(휠체어 이용자의 경우는 모든 문의 폭이 안목치수 기준으로 90cm 유지). 대문이나 현관문은 90 cm의 통과폭을 유지해야 한다.

④ 승강기의 문과 차고의 문은 자동으로 개폐되어야 한다.

⑤ 화장실의 문은 안쪽으로 열리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⑥ 열린 상태의 문이 통행로나 활동공간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어체크를 부착하여 문이 저절로 닫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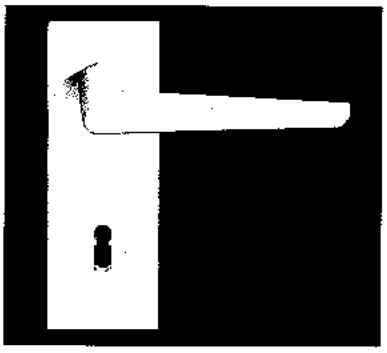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는 화장실이나 복도에 면해있는 실의 출입문에서 자주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문들은 대부분 피난방향인 외부로 열리기 때문이다. 이때 활동공간에 열린 채로 있는 문의 모서리가 시각장애자에게는 인지되지 않아 부딪쳐 상처를 입게되는 위험한 장애물이 된다.

⑦ 강화 유리문 등 대형 판유리로된 문은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강조된 수평창살 등을 설치한다.

⑧ 대형유리문은 시각장애자를 위해 높이 120과 160 cm지점에 눈에띄는 충돌 방지표시를 한다.

[여닫이 문]

① 도어체크가 당기는 힘의 세기는 10N 혹은 6.5k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진 5] 레버(LEVER)식 손잡이는 누구나 이용 용이한 건축대안이다.

② 내민 정첩은 사용치 아니한다. 이는 문의 통과 유효폭을 축소하는 문제점이 있다.

③ 손잡이는 60 cm길이(추천)로서 수평이 되도록 문의 안쪽에 높이 80cm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④ 여닫이 문은 90°이상 열리도록 한다. (만약 그렇치 못할 경우에는 문이 열린 상태에서 문의 두께+정첩이 내민폭+손잡이의 돌출부위 만큼 유효통과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자재문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행장애자나 휠체어 사용자가 문을 통과하는 동안 계속 문을 밀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안되고 미처 통과하기도 전에 닫히는 문이 통과자를 밀칠 수 있기 때문이다.

⑥ 휠체어의 발판으로부터 충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문의 챌판은 바닥으로부터 15~30cm 높이에 설치한다.

⑦ 개폐되는 문이 이동공간내로 움직일 경우 일반인과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 위치에 반대편을 관찰할 수 있는 창을 문에 설치한다.

⑧ 화장실의 문은 반드시 밖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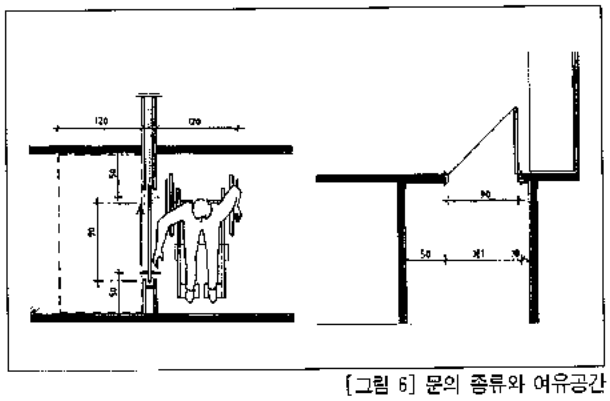
[미닫이 문]

① 미닫이문은 여닫이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더넓은 개구부와 폭이 더 넓은 출입문 전후 유효공간을 필요([그림 6] 참조)로 하고 방음, 단열 등의 문의 여밈에 문제가 발생한다.

② 한쪽으로 열리는 한폭 혹은 양쪽으로 열리는 두폭 미닫이가 있다.

미닫이문은 항상 여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욕실, 화장실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완전한 차음과 단

열이 되는 미닫이문은 매우 많은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며 벽체에 매립되지 않은 미닫이문은 상당히 많은 여유공간을 소요로 한다.



[그림 6] 문의 종류와 여유공간

③ 문이 열릴때 손잡이에 손이 끼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손잡이에서 손이 빠지지 않으면 손이 문틀에 낄 가능성이 있다.

④ 비상출입문으로는 미닫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비상시 대피자는 그 문이 미닫이인 사실을 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급시는 비상구가 밀면 열리는 밖여닫이가 적정하다.

⑤ 규모가 큰 미닫이문은 여닫는데 지나치게 무겁고 힘이 든다. 그리고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4) 창

창이란 주거내에 햇빛을 받아들이고 날씨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외부세계와 시각적 접촉을 가능케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노인은 특히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햇볕이 잘 들고 충분한 경관이 확보된 향에 창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창가 의자에 앉은 채로 모두가 주변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은 접근가능해야 하고 이용가능해야 한다.

① 최소한 하나의 거주실 이상에서 외부를 자유로이 관찰할 수 있는 60cm창대높이 이상 부분이 개방된 창의 설치가 필요하다.

② 1층부분 주거의 창에는 특히 도난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③ 창은 장애없이 접근 가능해야 하고 자유롭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④ 밖여닫이와 회전창은 부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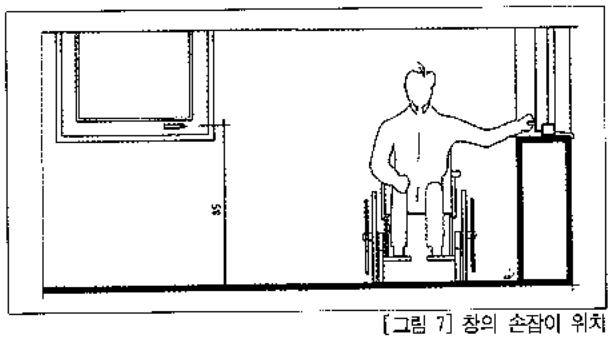
⑤ 앉은 위치에서 손쉽게 움켜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 걸쇠 등은 [그림 7]과 같이 창의 중 앙부에서 아래쪽으로 옮겨 달아야 한다.

⑥ 안여닫이창에 젖힘(Tilt)기능이 있는 것이 좋다

⑦ 열린 위치에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⑧ 차광, 도난방지용 샷터는 핸들이 반드시 고정형이어야 하고 오직 한손만으로도 작동 가능해야 한다. 양손을 이용하거나 줄을 당겨 작동하는 방식은 노약자에게 사용상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⑨ 블라인드, 커튼 등도 앉은 자세에서 작동가능해야



[그림 7] 창의 손잡이 위치

한다. 이중유리 사이에 매입된 베니션 블라인드의 경우에도 작동핸들은 창의 아래부분에 장착한다.

⑩ 만약 창대아래 방열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반드시 접촉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⑪ 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필요시 창대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⑫ 창의 바깥편에 외부 온도를 실내에서 잘 관찰 수 있도록 온도계를 부착한다.

⑬ 열려있는 창이 통행로안에 걸쳐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시각장애자나 맹인에게 충돌의 위험을 주기 때문이다.

2. 거실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거실에서 소비한다. 특히 기동력이 약화 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진다. 때문에 거실은 노인들의 식사, 휴식, 독서, 글쓰기, 흡연, T.V시청, 공작, 수공예, 연주 및 방문객의 응접 등의 장소로 활용된다. 규모가 적은 주택의 경우에는 침실코너도 거실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까지 있다.

거실의 최소규모는 1인 거주시 최소 18m², 2인 거주시 20m², 시설 노인 주거에서는 최소 16m²를 추천하고, 휠체에 사용자의 경우에는 20m²(1인 주거)와 22m²(2인 주거)이상 확보할 것을 DIN 18025 Teil 1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최소규모의 거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된 노인에게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주생활공간이므로 가능한 한 남향 일사량이 충분히 확보되는 위치여야 한다. 주방과 식당, 햇볕이 잘들고 바람막이가 되어있는 발코니나 테라스를 거실에 직접 면하게 하여 노인의 가사노동을 최소화하거나 외부와의 시각적 접촉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발코니의 최소규모는 150cm×150cm 이며 각종 전기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개의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적인 고려사항]

① 거실내에서 가장 근본적인 고려사항은 문이나 가구 등을 이용하기 위해 자유로운 활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120cm의 폭에 120cm 깊이의 유효공간이 필요하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주거에서는 150cm의 폭에 150cm의 깊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유효공간은 다른공간과 겹쳐 사용되도록 배치될 수 도 있다.

② 스위치 등 거실내의 모든 조작기기는 벽모서리로부터 반드시 50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으로부터

85cm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방열기에 부착된 Air Pin 등 조절기 높이는 40cm~80cm내에 둔다).

③ 모든 특수한 거실용 의자는 일반 거실용 의자보다 규모가 크고 많은 수납면적을 필요로 한다.

④ 대부분의 이러한 물건은 전기장치로 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거실벽에는 이를 위한 여러개의 콘센트를 설치(반드시 벽 모서리에서 50cm 떨어진 곳에) 하여야 한다.

⑤ 특별한 경우에 120cm×150cm 바닥면적 규모의 천정 레일형 Lift를 설치한다.

⑥ 거실의 천정틀 구조는 필요시 이러한 기구를 매어 달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⑦ 실내 천정부착용 Lift System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 콘센트를 설치한다.

⑧ 책상은 가변형 높이조절식이고 휠체어 팔걸이와 발판이 탁자 밑으로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하고 절려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스듬히 기울어진 다리를 가진 모양은 피한다. 다가앉는면은 최소한 폭 90cm에 깊이 120cm가 되어야 한다.

⑨ 높은 장과 선반의 측면은 휠체어로 접근하여 앉은 상태에서 집게나 오르내리 시스템을 이용, 높은곳의 책 등 물건을 잡을때 쓰는 여유공간으로 확보한다.

⑩ 책상의 한쪽면은 폭 90cm, 깊이 120cm의 최소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⑪ 각종 장, 선반, 문갑 등은 최소 90cm 깊이(휠체어의 경우 150cm)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⑫ 가구의 아래가 막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정면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는 측면으로 접근이 불가피하므로 이때는 가구와 나란한 방향으로 120cm 깊이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3. 침실

[사진 6] 병실처럼 보이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노인침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노인주거에서 침실은 단순히 '침대공간', '옷과 빨래를 수납하는 공간'의 역할이 아니라 거실과 같은 '거주공간'이다.

만약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 침실을 지나치게 병실처럼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침실은 반드시 개인적 취향을 반영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거주를 위한 아늑함이 확보되어야 한다.

행동의 제한을 받는 노인의 침실은 흔히 엄격한 방범시설과 높은 기밀성 때문에 자연통풍이 결여되어 곰팡이가 널리 번식하게 된다. 최적의 실내공기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습도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마감재의 선별 등도 소홀하기 쉽다.

조그만 설비적 보완으로도 실내온도의 적절한 조절은 물론 공기의 오염도도 개선할 수 있다. 앞으로 생태학적 침실 계획이 보다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며 특히 급증하는 알레르기, 곰팡이, 바이러스 오염 등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노화 또는 장애로 인한 행동의 제약은 침실공간에서 대단히 어려운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 비좁고 낮은 침대는 관절이 경화된 장애자나 노인 혹은 몸의 움직임에 제한을 느끼는 모두에게 대단히 큰 이용상의 어려움을 갖게한다.

주간에 각종 보장구를 이용해야만이 자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장애자의 경우 침대위에서는 자립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높이나 방향, 기울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침대 혹은 매트리스가 침대 위에서의 자세를 변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이러한 일련의 심세한 배려는 전문분야 종사자의 조언을 토대로 공간이 계획되어야 하고 특히 침실은 장비와 가구 등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인 밀착 간호가 불가피한 장애자를 위한 특수장비가 침실에서 필요한 경우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침실을 융통성있게 분할과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 건축적인 고려사항 〕

① 휠체어 활동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는 침실에서도 모두 유효하다.

② 깊이 120cm의 활동공간을 침대한면에 나란하도록 확보한다.

③ 밀착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간호인이 효과적으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최소 침대의 3면에 접근가능한 여유공간을 둔다.

④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침대와 나란한 활동공간은 반드시 깊이가 150cm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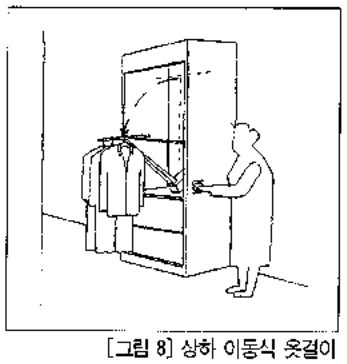
⑤ 침대앞, 수납장, 문갑앞 등 기타 활동공간은 최소 90cm이상을 확보한다.

⑥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이 기타공간의 측면접근하는 활동공간은 깊이가 120cm는 되어야 한다.

⑦ 정면 접근하는 수납장 앞의 이 활동공간은 깊이가 150cm는 되어야 한다.

⑧ 옷장은 밖으로 옷걸이를 모두 끄집어 내거나 회전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그림 8〕 참조, 이때 옷걸이의 진출입은 전동식으로 할 수 있다).

⑨ 침대의 높이는 60cm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림 8] 상하 이동식 옷걸이

어느 햇병아리의 항변

Take Firm Measures

문성운 / 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by Moon Sung-Un

드높은 꿈과 이상을 품고 사무소를 개업한지 겨우 일년을 넘긴 나에게 최근에 접하여지는 건축계의 일들이 그 당위성은 차제에 두더라도 도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정도로 어렵고, 혼란스럽게 다가온다. 원칙이 무시되는 모순된 사회 속에서 그나마 버티어 내려면 관행이라는 터울 속에 같이 나뒹굴어져야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감에 가슴이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다.

먼저 건축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지각 변동에 그동안 수수방관만 해 온 결과 이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나니 여기저기서 '나 죽겠다' 고 난리만 칠뿐 누구하나 당당하게 정부나 국민에게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내외적으로 활동의 기회가 없는 소장파의 한 사람으로써 선배 및 동료 건축사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3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일년남짓 연혁의 건설기술인협회란 곳에 완전히 무릎꿇고 항복하게끔 된 처사에 우리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분야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작금에 우리 회원들은 협회의 무능함과 책임성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질책을 하면서도 지금은 모든 상황전개가 내가 아닌 협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협회의 존속 여부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일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면 이해당사자인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본다.

건설기술인협회 같은 집단의 경우를 보면 특별히 조사해 보지 않아도 고위 공직자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대개의 인원이 건설계통의 전공과는 무관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정부를 실현하고자 인원을 축소하였다면 그 인원은 모두 어디에 갔을까? 그래서 그런지 요즈음 유난히도 각 부처별로 생소한 협회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탄생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예로 건설기술인협회와 순수 회원으로 유지되는 우리네 협회를 비교했을 때 설립된 지 1년 밖에 되지않은 건설기술인협회에 꼼짝못하고 당하는 이유 한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같이 회원으로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체의 직원으로서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그들의 직장이고, 생계 수단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협회 구성은 어떤가?

협회의 회장단을 비롯하여 각분과 소속 회원들은 나름대로 크건 작건 간에 모두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에 사회적 기반과 재정적 자립도가 높더라도 마음놓고 대외적으로 우리들을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작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회원들은 싫건 좋건 간에 협회에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대표하여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지원도 서슴치 말아야 한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쌓아놓은 재산이 많다하나 누가 내 사무소일 팽개치고 협회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협회차원에서 분명히 재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협회 내에서도 작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협회장 등의 선출 시기가 되면 개개인의 역량과 인품 등에는 아랑곳없이 어느 어느 학교 출신 등의 포진에 따라 당락의 윤곽이 미리 드러나게 되고, 활동능력 등 모든 면에서 회원을 대표할 만한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학연이 없고,영세한 사무소 운영 문제가 더 심각하여 제대로 빛도 못본 채 협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 버린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회원 모두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

또한 크게는 건축3단체가 하루빨리 결속을 해야 한다.

물론 단체별로 제각기 성격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개념은 하나라고 볼 때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한국건축가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여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학위를 이수해야만 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결과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이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는 우리들의 당면문제만을 고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밀접하면서도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의 권익도 함께 옹호해 주어야 한다.

건축사 이전에 우리들 대부분은 보조원으로, 또 건축사보로 일선에서 열심히 배우고 일해 왔음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될 일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반문을 해보고 싶다.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고 보호하고 감싸주어야 한다. 인력자원의 이중관리...?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이었고, 그들이 곧 우리인 것이다.

벌건 대낮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내 자식을 건설기술인 협회라는 곳에 양자로 보내게 될 판이고, 나 또한 그곳에 하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정말 꼴이 말이 아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면 무엇 때문에 몇 년씩 고생하며 건축사 면허를 받아야 했는지 회의가 앞설 뿐이다.

그나마 지난번 서울건축사회 제1회 임시총회 때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결의문 발표 방법에 있어서 건축사신문에 개재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성금모금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일간지 등에 며칠 동안 계속하여 큰 지면을 할애하여 게재했어야 옳다고 본다.

그리하여 건기법의 부당성과 왜곡된 우리들의 의지를 국민에게 고발하고 여론의 주목을 불러일으켜 우리 건축사뿐만이 아니라 전 건설인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했다.

보라! 4천만 국민을 대상으로할 때 가족구성원 중에 건설관련 자격소지자가 한명이상 있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 아무리 집안에서 탁상공론 해본들 지나는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떠들어야 한다. 그것도 아주 크게 놀랄만큼 떠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행정편위 주의가 이끌어 낸 책임전가의 악법이 수시로 생겨나고 바뀌는 건축법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안이 무엇인가 물어 보고 싶다.

아마 유사이래로 우리나라처럼 건축법이 수시로 바뀌는 나라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뭐하나 '펑' 터지면 새로운 법이 하나 생기고, 더러는 바뀌고 그 장단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법을 이해하기도 전에 또 법이 변경된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법이 모자라서 그 많은 일들이 발

생하였는가? 아니다! 이 나라엔 원칙이 없어서 그렇다.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순된 원칙이 원칙인 척하고 있을 뿐이다.

T.V 광고에 원칙을 운운하는 공익광고 방송을 몇 차례 본적이 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쓴 웃음만을 자아내게 하고 개운치 못한 여운을 남긴다. 오죽하면 그런 공익광고가 나와야만 했을까? 세상엔 법도 많은데 우리의 사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원칙없는 모순이 모순을 계속하여 잉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 편의를 위하여 건축행정을 간소화했다고는 하나 실무에서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간소화되고, 편해진 것이 있는가?

한가지가 폐지되거나 간소화 된 것이 있으면, 오히려 서너가지의 보완서류를 첨부해야만 하니 이는 절차만 복잡해지고 수만 더 늘어난 셈이 되어 그러한 발표가 나올 적마다 우리네들은 한숨을 쉬게 마련이었다.

복지부동과 몸사리기에 급급한 일선 공무원들을 볼 때 같은 인간으로서 책임규명을 위해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회의가 앞선다.

실질을 무시하고, 겉치레만 요란한 전시행정을 그만 탈피하여야 한다.

최초 입안과정에서부터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나라는 법도 빨리 잘 만든다. 하기야 머리 좋으면 법대, 의대하던 시대가 있었으니 무리는 아니다.

법이란 책상에 앉아서 볼펜 굴려가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 조만간 우리 건축사들은 전대미문에도 없는 합법적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전두환, 노태우도 쉽게 못해 보는 무기징역을 우리는 쉽게 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건축주, 시공자, 공무원은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갈 수 있도록 기막히게 잘도 만들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발상을 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무항변, 무저항의 처세술이 우리들의 성스러운 품위를 유지시켜 주는 방법은 되지 못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의 기본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단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고, 주어진 권익을 공유할 수 있다.

웬만큼 기반도 닦고 경제적 여유도 있음직한 선배 건축사 회원들의 경우, 전부는 아니겠지만 현상태에 안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깨어나야 한다.

고양이를 키워 호랑이로 만들지언정 이제 출발하려 하는 후배들을 위하여 방패 역할을 해 주어야 하며,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한다.

특히 소장파 대개의 경우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영세성을 면할 길이 없는 파국에 회원간의 결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살 깎아먹기식의 덤핑 수주로 온몸이 멍들어 가고, 감리비를 제대로 받기는커녕 건축주들은 감리를 으레 서비스로 요구하고 나선다.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다른 곳에 가면 해준다고 한다니 어쩔 도리가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처사인가?

이는 모순이 관행처럼 되게 한 선배들의 과오도 적지 않았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책임감리제도에 따른 감리전문업체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전 회원의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져야 한다.

감리전문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는 요율에 가깝게 감리비를 청구할 수 있어 설계에서 손실되는 부분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장파 사무소의 경우에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인 것이다.

'꿩 먹고 알도 먹는다' 는 식의 논리가 지배적인 입장에서 볼 때 '빈익빈 부익부' 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제 막 돋아나기 시작한 새싹들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시들어질 운명에 처해 있다.

급기야 몇몇 회원사들이 모여 직원의 숫자를 충족시키고, 경영을 분담하여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하는 등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실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감리업무를 수주하게 될 경우 그때그때 필요인원을 별도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게 되니 운영과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을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다.

제대로 설립된 감리업체라 할지라도 현장의 실질적 인원과 관에 보고된 현장 배치인원과 일치되는 곳이 있을까?

한마디로 '글쎄올시다' 이다.

모순은 또다른 모순을 파생시키게 되므로, 이 제도의 시행에도 원칙이 무시되는 모순이 관행처럼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결국 그 화살은 우리에게 또 올 것이다.
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덫에 우리는 우리발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더구나 신규 사무소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세사무소를 의식하여 내놓은 자구책으로 일반 사무소도 적정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감리전문업체로 인정해 준다고 하였는데 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인가?
정말 머리도 좋다. 도대체 이런 발상을 어떤 작자들이 하고 시행하는지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뺨이라도 후련하게 치고 싶다.
'눈가리고아옹' 하는 식의 정책은 더 늦기 전에 수정되어져야 한다.

이참에 나는 주장한다.
우리 모두의 공영을 위해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에만 전념해야 한다.
서로의 전문성 제고로 점차 심화되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기존의 선배 회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조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착공 검사, 중간 검사,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제발 다시 가져가십시오.
책임전가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세금을 내야할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니오!

일년 동안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희망보다는 날이 갈수록 절망의 순간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 자리에 다 표현하려면 몇날 밤을 지새워도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
우리의 입장이 선명하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옳다고 인정되어 진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은 잘도 단결하고 단체 행동도 일사불란하게 하는데 우리 건축사들은 왜 모래알처럼 흩어지기만 하는가?
앞으로는 전기나, 기계 등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협력업체의 일들까지 건축주가 별도의 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 온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만 하는가?

어차피 우리가 모래라면, 이제부터라도 시멘트와 물과 골재를 섞어 부어서 똘똘 뭉쳐보자.

책상에 앉아 말로만 떠들어 댈 것이 아니라 협회 모임에 한번이라도 참석해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자.

우리나라의 문화는 폴랭카드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우리 협회에는 우리의 주장을 표현할 만한 문구 하나 걸려있지 않다.

특히 나와 같은 젊은 소장파 여러분!
둥지 안에서 어미가 먹이를 물어 줄 때만 기다리지 말고 이젠 그만 움추린 날개를 활짝 펴고 밖으로 뛰쳐 나오라.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에게 닥친 현안들을 풀어 나가자.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어린이에게 있듯이 우리의 협회와 이와 관련된 건축인들의 미래는 우리 젊은 소장파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선배 회원들의 배려와 성원을 기대하며 젊은 회원들이 맘껏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마당을 마련해 주기 바랄 뿐이다.

21C 자연보존과 주거환경개발

The Preservation of Nature & Housing Environment, for the 21th Century

에코폴리스와 테크노폴리스

윤여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1. 건축의 고민

예로부터 동서의 많은 건축가들은 건축이 예술이냐 혹은 기능을 위주로한 과학이냐의 갈림길에서 갈등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건축의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덮어둘 수 만도 없는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건축에서보면 지붕의 선을 뒷산의 배경에 맞추어 묘한 곡선으로 기울여 시각적이라도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애쓴 흔적이 보이는 곳이 있다.

서양의 경우도 자연 그대로의 절벽 곡선에 맞추어 어쩌면 무질서하게 자리잡은 것처럼 보이는 건축물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도 대개 외양에 국한된 것일 뿐 실제로 인간이 거하는 내부공간의 경우에 이르르면 과연 무엇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인지 쉽게 접근조차 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이즈음 생태건축(生態建築)이란 말이 건축계에 부쩍 많이 쓰여지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내추럴리즘 경향의 바람이 건축에도 불어오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문제가 그 촉발제의 작용을 하게 된 것이다.

다시말해서 공해문제가 크게 대두됨으로 인하여 인식되기 시작한 자연보호에 대한 위기의식이 인류 공동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위한 자연의 개발이 그 결과로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모태인 자연을 도리어 파괴하게 된다는 아이러니를 결국 깨닫게 된 것이다.

미리 예측할 수 없을만큼의 난제도 아니겠지만 자연보호의 가치는 선개발 경쟁의 대세에 밀려 그 목소리가 묻힐 수 밖에 없었고 급기야 마실 수 있는 물이 사라져가고 숨쉬는 공기가 느낄 수 있을만큼 탁하여지자 그제서야 개발에 앞서 자연보호와 생태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서히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건축은 기본적으로 그 본질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개발의 선두에 서있게 마련이다.

새로운 개발이란 항시 자연속에 인간이 유입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계속되는 인간의 유입은 당연히 그 주와 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축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적 관점으로 볼 때 개발은 곧 건축(건설)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의 고민이 있다.

첨단 기능과 생활의 편리를 목표로한 테크노폴리스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생활의 편의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연과 동화하여 안락한 환경을 중시하는 에코폴리스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섣불리 단안을 내릴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를 보면 도시에서는 자연적인 풍경을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사람의 손으로 가꾸어진 나무가 있는 정원은 있으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개발을 제한한 산지나 그린벨트지역 등을 제외하면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는 일부 대도시의 중심부만이 인공적 조경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주택가는 원래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채 그 속에 동화되어 주택이 자리잡고 있다.

거론할 필요도 없이 양쪽의 주거환경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광활한 국토를 소유한 나라의 특권일지도 모른다.

2. 1인당 국토점유면적

재정경제원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5,512,000명에 이른다.

남한의 국토 면적은 99,394㎢, 이를 근거로 1인당 평균국토점유면적을 산출해 본다.

99,394,000,000㎡(구백구십삼억구천사백만평방미터)÷45,512,000명(사천오백오십일만이천명)=2,184㎡(약 660평)

여기서 다시 우리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임을 감안하여 평지면적이 30%라는 가정하에 계산해 본다.

99,394,000,000㎡×0.3=29,818,000,000㎡

29,818,000,000㎡÷45,512,000명=655㎡(약 198평)

단순한 계산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평균국토(平地)점유면적은 약 198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 역시 주거가 가능한 용지의 면적은 아닌 것이다.

우리국민은 이 198평내에서 주거는 물론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식생활 해결을 위한 식품생산용 농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요소들에 토지를 할당해야 하므로 주거가능면적은 훨씬 줄어들겠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의 사정은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서울시민의 1인당 점유면적

대도시인 서울의 경우를 살펴본다.

역시 재정경제원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1994년 기준으로 서울의 인구밀도는 17,836명/㎢이라고 한다.

이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1㎢는 1,000,000㎡이므로 이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점유면적이 나온다.

1,000,000㎡÷17,836=56.07㎡

즉 서울시민 1인당 평균점유면적은 56.07㎡(16.9평)이다. 그러나 이 계산은 단순한 산술일 뿐 실제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업무지역, 공공시설, 도로, 하천, 녹지 등을 제외하면 주거가능지역은 그리 많이 남지 않을 것이다. 1995년 서울시 통계연보의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보자.

1995년 서울시 통계연보 자료 (1994년 기준)

서울의 총면적	605.4㎢
임야면적	160.1㎢
도로면적	67.9㎢
하천(제방, 수로, 수원지, 호수포함)	64.4㎢
농지면적(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42.1㎢
공공시설용지(학교, 공원, 사적지, 묘지, 체육용지)	31.4㎢
철도용지	6.0㎢
공장용지	4.2㎢
종교용지	1.1㎢
기 타	17.9㎢
대지이외의 지목 합산	395.1㎢

위의 계산대로 서울시민 1인당 평균점유면적은 약 16.9평이었다. 그리고 1994년 기준으로 서울의 세대당 인구는 3.125인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세대당 평균점유면적은 52.39평이 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한세대의 전용면적은 아닌 것이다. 그 결과 실제의 주거가능용지면적을 계산해 볼 필요가 생긴다.

4. 서울시민의 세대당 평균 주거가능용지면적

대지가 아닌 여러지목을 합산한 395.1㎢를 뺀 나머지가 주거가능용지면적(대지:210.3㎢)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상업, 업무시설 등에 큰 면적이 배분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상업업무용지면적과 주거용지면적의 비율이 3대7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기로 한다.)

서울의 총주거가능면적(상업, 업무지역면적 포함) 210.3(㎢)×0.7=147.2(㎢)

147.2㎢(70%로 가정한 주거가능용지면적)=147,200,000㎡

147,200,000㎡÷10,798,700명(서울인구)=13.6㎡(약 4.1평/1인) (1인당평균점유면적)

4.1평(1인당점유면적)×3.125명(세대당인구수)=약 12.8평

결론적으로 서울시민의 한가족은 평균적으로 약 12.8평의 주거가능용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하의 계산이므로 면적을 연면적화 시키지는 않았음.)

(주 : 고층아파트의 경우 한정된 평위에 여러세대가 거주할 수 있어 오차가 생기지만 반대로 주거가능면적이라고 해서 모두 실제 거주하는 실내 면적만이 아니고 건축면적 이외의 대지는 옥외공간이므로 두 경우를 상쇄하였음.)

다시 요약해보면 서울시민 한세대당 평균적으로 점유한 주거가능용지면적은 약 12.8평인데 이보다 큰 평수의 주거지(주택이나 아파트)도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실제로는 12.8평 이하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도 다수 있다 하겠다.

5. 가정해 보는 이상적 주거환경시 필요한 면적(서울의 경우)

이와같은 자료를 놓고 볼 때 서울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에코폴리스적 이상주거환경을 향유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세대당(가옥당) 대지를 70평이상 소유하여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주거건물의 건축면적은 20평 이상이어야 하고 건폐율은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근거로 하고있다.

이를 바탕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계산해 보겠다.

• 서울의 전체면적중 주거가능용지의 비율은 약 23.57%이다.
147.2㎢(주거면적)÷605.4㎢(서울전체면적)×100=23.57%(전체면적중 주거가능용지면적)
• 서울의 주거를 이상적으로 최소한도인 세대당 70평으로 모두 환산해보면
10,798,700명(서울전체인구)÷약 3.125명(서울세대당인구수)=3,455,665세대(서울전체세대수)

3,455,665세대×70평=241,896,550평(이억사천일백팔십구만육천오백오십평)(필요한 대지)

241,896,550평=800,193,787㎡(팔억십구만삼천칠백팔십칠평방미터)

800,193,787㎡=800.2㎢(필요한 대지)

서울의 주거면적비율=23.57%

위의 공식은 서울의 주거환경을 이상적(세대당 대지

605.4㎢ (서울 전체면적)	:	147.2㎢ (서울의 주거 가능 용지면적)	=	× (이상적 경우 전체면적)	:	800.2㎢ (이상적 필요 면적)

70평 점유)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토의 면적을 산출한 공식이다.

결과 ×의 값은 3,291㎢로 나왔다.

이는 현 서울시민이 한 세대당 70평의 대지를 소유한 주택에 살게 될 경우 서울의 넓이는 현재보다 약 5.4배가 늘어나야만 한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서울에 적용하는 것은 그 시작부터 대지의 부족으로 인한 벽에 부딪히게 된다.

분명한 것은 충분한 대지를 확보하여 자연적인 요소를 내재하는 주거환경이 이상적인 주거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과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며 또한 바람직한 발전방향인가에 대해선 고려해 볼 여지가 많을 것이다.

여기서 건축은 다시한번 갈등에 빠져버린다.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6. 과학의 비과학성

과학과 그에따른 기술이란 증명된 논리를 바탕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증명된적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난제에 과학이란 이름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우주에는 증명된 사실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상이 많을 것이다.

존 휠러는 자신의 무능을 모르고 목을 세우고 으시대는 과학자들을 꼬집어 이렇게 말했다.

"과학은 우주가 탄생하게 된 메카니즘을 제시해야 한다." 참으로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요, 그러나 결코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첨단을 외치는 과학이라면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를 증명하라는 말이다.

출발점이 어디인지 모르고서야 어찌 골인점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인 것이다.

앞의 존 휠러의 질문은 현대의 어떤 뛰어난 과학자도 명확히 답할 수 없고 후세의 누구도 감히 논할 수 없는 과학 이외의 영역인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이란 실험을 통한 증명에 의해서만이 그 과학적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주의 탄생, 그리고 생명의 탄생에 대하여 어떻게 실험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 생명과학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진화론의 비과학성(證明不可)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실험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 해답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것은 올바른 과학적 자세라고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7. 가능과 불가능

몇년전 모 바둑월간지에서 흥미있는 기획을 마련한적이 있었다.

내용은 9단들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출제하여 서로간의 답을 맞추어 보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해서 같은 문제를 놓고 그들의 답은 제각각이었다.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둑에서는 9단을 가리켜 그 별칭으로 입신(入神)이라고 부른다.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러한 그들의 답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통계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0의 50승분의 1($1/10^{50}$)의 확률을 가능과 불가능을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10의 50승분의 1이하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이상의 확률은 결코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똑같은 내용의 바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바로 이 수치보다 낮은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자그마한 바둑판에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만 본다면 바둑에서 불과 4수까지의 진행이 똑같을 확률은 놀랍게도 167억분의 1에 이른다.

(물론 초반에는 대개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만 바둑판 361포인트 어느곳이나 둔다고 가정할 때의 이론상 수치이다.)

예로부터 오랜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두어온 바둑의 판수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그러나 아제껏 한판도 꼭 같은 바둑은 나오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자신있게 말한다.

확률상 불가능의 영역은 현실세계에서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불가능의 영역이란 뜻을 생각해 보자.

불가능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변화의 가능성이 무한대에 이르는 다른 한편이 있음을 나타낸다.

바둑의 그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무한대에 이름으로써 같은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로 같은 바둑이 나올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무한대의 영역과 통하는 것이다. 여기에 입신의 경지에 이른 9단들의 답이 서로 틀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무한대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장면에서의 바둑은 그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9단들이 제시한 답이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각 기사간의 느낌의 차이일 뿐인 것이다.

이를 가리켜 바둑에서는 취향(趣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취향이란 어찌면 매우 편리한 단어일지 모른다.

자기 주장은 있을지언정 명확한 정답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취향이란 단어는 그 위력을 발휘한다.

사실 위에 제시한 바둑의 예에선 취향이 바로 정답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어느 분야에서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8. 우리의 선택은…

에코폴리스와 테크노폴리스는 각기 장단점을 소유하고 있다. 어느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제반 환경적 요소들과 관찰하는 이의 관점, 각도에 의해서 달리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고 실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모든 생물들이 공존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나타낸다. 자연의 핵심은 생명인 것이다. 시간과 공간, 물질이 서로 조화와 순응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인간의 생활이 있다.

삶의 질을 높인다는 대 전제하의 개발이 자칫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질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와 대치하여 무조건적인 개발제한 역시 늘 옳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첨단기술이 응용되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문화 생태학적 측면에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면서도 인간의 생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주거환경,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주거환경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능성과 편의성은 대개의 경우 자연보다는 기계적 요소를 추구하게 되며, 자연에의 동화는 아무래도 기계적 요소를 배타시 하게 된다.

여기서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

선택의 양면성은 사상적 혼선을 유발해 조속히 추진하여야할 계획에 제동을 걸게 되므로 불가피하게 성급한 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어느 한편의 섣부른 판단은 실로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목가적인 분위기의 전원주택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싶어할 것이다. 이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본능의 차원이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문제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된다면 행동으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체 환경을 고려할 때 좋은 방향이라고 단정키는 어렵다. 여기서 한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이 이야기도 앞서 언급한 취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앞서의 계산에서 알아 보았듯이 서울시민 모두가 전원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현 서울 면적의 약 5.4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현재 서울 주변의 땅 중 현 서울면적의 440%에 이르는 면적이 새로이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을 우리의 앞마당으로 끌어 들이려면 그 이상의 자연을 파괴해야만 한다는 역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조금은 삭막하고 자연과 동떨어진 듯한 고층화된 도심에서 생활할지라도 주말이나 여유있는 시간에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원시 그대로의 울창한 자연을 곧 만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결코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생활은 아닐 것이다.

그와 반대로 내집 앞마당에서 작은 자연을 늘 느끼며 살 수 있지만 한가한 시간에 원시자연을 찾아 집을 나섰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이 내집과 같은 전원 주택만이 이어져 있다면…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이다. 이것은 각 개인이 깊이 음미해야할 문제이다.

한 국가의 상징적 요소들은 그 국민들의 심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성은 예로부터 소박(素朴), 분수(分數), 예의(禮儀)로 대표되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생태, 인간생태, 사회문화생태가 균형을 이룰 때 아름다운 우리민족 본연의 삶의 자세가 나타날 것이다.

에코폴리스나 테크노폴리스도 여기에 그 척도의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정책의 입안 역시 이를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정이 많은 심성이 삼천리 금수강산의 자연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고락을 나눌 때 진정한 이상향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 우리의 주거환경에 대한 발전방향을 에코폴리스적인 측면과 테크노폴리스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으며 수치로 나타나는 우리의 처한 환경 또한 알아보았다.

물론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명확히 내릴 수 없었지만 개략적인 참고는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거환경이 어느쪽을 향하여 발전하더라도 그 중심은 '인간의 행복하고 안락한 생활 추구'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백번을 다짐해도 과하지 않은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끝으로 E.M 포스터의 소설 '전망 좋은방'을 상기해본다. 소설 처음에서 플로렌스의 전경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끝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좋은 전망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사랑과 삶이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1)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Europe

스페인의 성가족(Sagrada Familia)성당

박효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1. 스페인의 성가족(Sagrada Familia)성당
2. 이태리의 피사(Pisa)성당
3. 독일의 오트베른(Ottobeuren)성당
4. 오스트리아의 멜크(Melk)성당
5. 프랑스의 베즐레이(Vezelay)성당
6. 영국의 엘리(Ely)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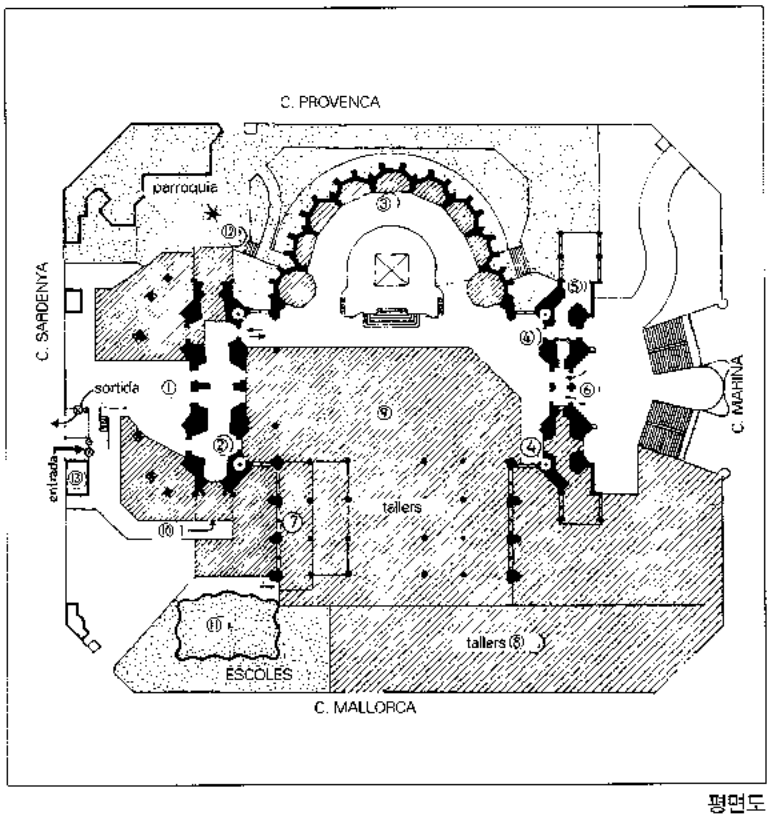
1.개요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르셀로나 도시는 바둑판처럼 짜여져 있고 건물의 높이도 비슷하여 목적지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여기에 소개하고자하는 성가족 성당은 그 높이가 170m가 되고 독특하여 이 도시 어디에서도 볼 수 있어 성당을 찾아가기는 쉬운 편이다. 이 성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바르셀로나(Barcelona)의 한 서적상이었던 Jos M.Bocabella i Verdaguer에 의해 1866년 창립되었던 요셉성인 숭배자들의 영성회(L'association Spirituelle de Devots de Saint Joseph)는 1882 요셉성인의 축일에 성가족 성당(Temple Expiatori de la Sagrada Familia)건축의 초석을 놓았다. 처음에는 로레토(Loreto)대성당과 유사한 성당을 지으려했으나 생각을 바꾸어 그 당시의 건축양식에 따르기로 하고 교구의 건축가였던 Francisco del Villar에게 설계를 맡겼다. 지하성당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할 무렵 건축가는 사임을 하고 건축가 심의회의 위원이었던 건축가 Juan Martorell의 조언에 따라 1883년 11월 3일 공사를 안토니오 고디 꼬르네(Antonie Gaudi Cornet)에게 위임했다. 고디는 이 성당건축을 위하여 그의 전생애를 바쳤다.

2.건축양식의 특징 및 안정성

2-1 성당의 건축양식

고디는 순수 신고딕양식으로 성당을 설계했다. 공사가 진행되어감에



평면도

따라 건축가의 독창적이고도 강한 개성과 천부적 자질이 자연주의 사조안에서 매우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의 예술적 재능은 예수 탄생의 정문에서 극치를 이루고 있다. 이곳의 인물들, 동물들, 식물들은 영원히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 속에서 부상하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다. 후일 고디는 건축구조와 조형미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위해 쌍곡선 모양의 포물선, 쌍곡선과 나선으로 된 이중 만곡의 규칙적 기하형태를 채택하여 여기에 자신의 순수하고도 맑은 상상력을 표현했다. 그 당시 이미 다른 건축작품에서 인지할 수 있었던 고디의 조형감각은 탁월했다. 그는 그의 건축작품에서 매우 풍부한 뉘앙스를 띈 형태의 조형술을 첨가하여 완성시켜 투명하고도 순수한 예술품을 창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생소하여 고디가 죽은 지 5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도입되기 시작한다.

2-2 상징적 의미

건물외피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표현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마리아,복음사가들과 그리스도의 열 두제자들 그리고 성인들을 나타낸다. 다른 꼭대기 채광탑보다 훨씬 높이 솟아 있는 중앙의 꼭대기 채광탑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탑의 맨 위는 어린 양이 있는 십자가로 마무리지었다. 중앙의 꼭대기 채광탑 주위에는 이 탑보다 조금 낮은 높이의 채광탑이 4개가 있으며 4대 복음사가를 상징하는 독수리, 황소,사자 그리고 천사의 모양으로 마무리지었다. 다색의 첨탑으로 장식한 정면들의 열두 종루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대 주교들이었고 기독교들의 목자이자 스승이었던 열두 사도들을 표현한 것으로 주교의 홀장, 십자가, 주교 반지, 주교관으로 장식되어있다. 후진의 첨탑에는 성인들의 입상으로 순결함을 상징했다. 성모마리아의 입상을 가장 크고도 순수하게 표현하여 성인들의 순결함을 강조했다. 성모마리아에게 바쳐진 후진과 맨위를 별로 장식한 후진의 둥근 지붕은 후진둘레에 있는 작은 제단의 꼭대기 채광탑으로 둘러싸여 있다. 후진 둘레에 있는 작은제단의 꼭대기 채광탑은 대림절(크리스마스 전 4주간)의 마지막 한주일동안 성당에서 부르는 간투사로 시작되는 일곱가지 성가를 상징한다. 성당의 동쪽 정문은 환희의 신비(성모영보,성모마리아가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감, 예수탄생, 성전에서 예수를 봉헌함, 잃어버렸던 예수를 사흘만에 성전에서 다시 찾기까지를 일컬음)를 표현하고 있으며 서쪽 정문은 고통의 신비(십자가에서 수난을 당하기전 예수가 피땀을 흘리고 매맞고,가시관 씌움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오른 후 십자가에 못박히기 까지를 일컬음)를 나타내고 있다. 즉 예수의 어릴 때의 사건들과 고통받고 죽기까지의 예수의 생애를 묘사한 것으로 예수가 인간이었던 것을 증명하며 가장 숭고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 영광의 정면이라고도 불리우는 남쪽 정면은 현재와 미래의 삶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종교적인 실재성을 명료하게 묘사하고 있다. 성당의 세 정면에는 신학상의 세가지 덕인 믿음(신덕), 소망(망덕), 사랑(애덕)이 표현되어 있다. 동쪽과 서쪽 정면에 신덕과 망덕을 중앙정면에는 애덕이 묘사되어 있다.

2-3 안정성

고디는 신고딕 양식의 성당 구조를 포물선과 유사한 매우 높은 대형 케이블 아치로 처리했다. 대형 케이블 아치는 수직적 힘의 합력을 만들어 고딕양식 건축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인 벽날개를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돌지붕의 무게와 중앙회중석의 궁륭무게는 원주가 감당을 하도록 원주부분을 분수모양으로 처리했고 원주는

성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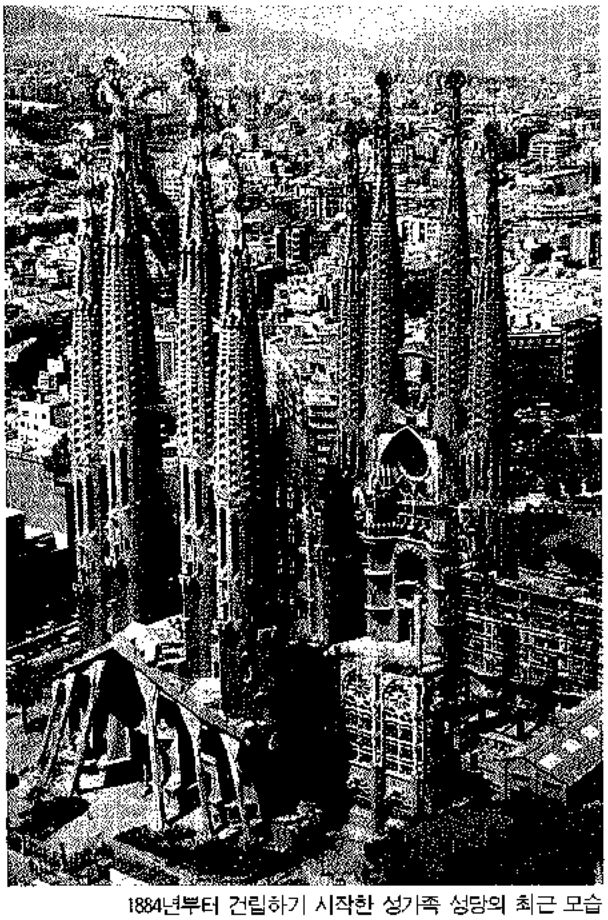
토대와 닿도록 했다. 천정과 궁륭, 양쪽 측랑의 원주 역시 중앙회중석의 원주처럼 처리하였고 여러갈래로 나누어진 원주의 기둥머리가 높은 건물의 압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방사상으로 조절하는 건축구조를 이용했다. 이것은 내다지보(가운데를 마주 뚫은 구멍)로 된 궁륭의 건축을 진척시키고 아치 문제를 매우 간소화하게 만들었다. 중앙회중석의 횡단면은 다른 부분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하중은 완전히 건물내부로 분배가 되어 건물의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외적 요인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내부에서 회중석의 궁륭은 상징적인 장식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데 반해 돌로된 건물 외부의 지붕은 방어적인 역할을 한다. 엄청난 높이 때문에 궁륭은 여러 층으로 나누어 건립했다.

3.외부

성당은 좌우익랑의 한가운데 높이가 170m인 대형 채광탑을 건립하고 그 주위에 이 탑보다는 약간 작은 4개의 채광탑을 세웠으며 후진 위에는 둥근 지붕으로 처리를 했다. 12m에 달하는 각각의 정면에는 100m높이의 종루를 건립하고 세례당과 성체의 작은제단, 제의실과 성모승천의 작은 제단 위는 둥근지붕으로 마무리 지었다.

3-1 입구

성당은 지표면에서 약 4m 높이에 있기 때문에 주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대형 층계를 통해야 한다. Malorca 거리와 면해있는 주 정문의 현관 층계는 분수대와 대형 가로 등과 함께 테라스를 이루고 있다.



1884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성가족 성당의 최근 모습

3-2 구조

이 성당은 라틴십자가가 형태로 다섯부분의 회중석과 좌우익랑이 있다.

3-3 후진

후진에는 내진 주의로 일곱주의 원주가 있으며 후진주위 회랑이 있고 원형계단에 의해 지하 성당에서 내진까지 그리고 측랑 상부에 있는 통로까지 연결되어 있다.

3-4 정면

세 정면이 대형주랑 형태를 하고 있다. 주 정면은 남쪽 정면으로 인간의 최후와 하느님의 영광을 표현한 작품이며 좌우익랑과 연결되어 있는 두 정면중 동쪽에 있는 정면은 예수의 탄생, 성전에서 예수를 봉헌하는 장면과 예수의 유년기를 나타내고 있고 서쪽 정면은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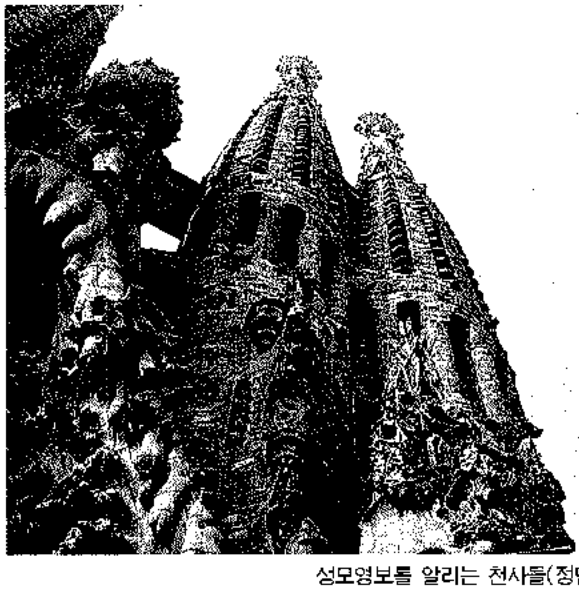
3-4-1 탄생의 정면

3-4-1-1 신덕의 정문

오른쪽 정문으로 신앙의 정문이라고 불린다. 이 정문의 조각은 성모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과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성모마리아에게 알리는 엘리사벳, 그리고 천사가 알리는 기쁜소식을 확인하는 즈가리야,성전에 봉헌되는 아기예수와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보게 되리라고 성령이 알려주었던 그 순간이 왔음을 알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므온, 학자들에게 성서에 대해 설명하는 어린 예수를 묘사하고 있다. 꼭대기 채광탑과 첨탑은 상징적인 것으로 신학상의 세가지 덕과 신앙의 신비, 구세주의 신비를 상징하며 손바닥 속에 있는 눈은 성모의 무염시태(원죄없이 잉태함)를 상징한다.

3-4-1-2 망덕의 정문

왼쪽의 정문을 일컬으며 소망을 나타내는 별이 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식과 마리아의 부모인 요아킴과 안느성녀의 입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느님이 선



성모영보를 알리는 천사들(정면)

택한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중앙에는 목공일을 했던 나사렛에서의 생활이 요셉과 어린 예수와 함께 묘사되어 있다. 이집트로의 도피와 죄없는 아기들이 헤롯왕에게 학살 당한 사건은 예수의 유년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큰 시기였다.

3-4-1-3 애덕의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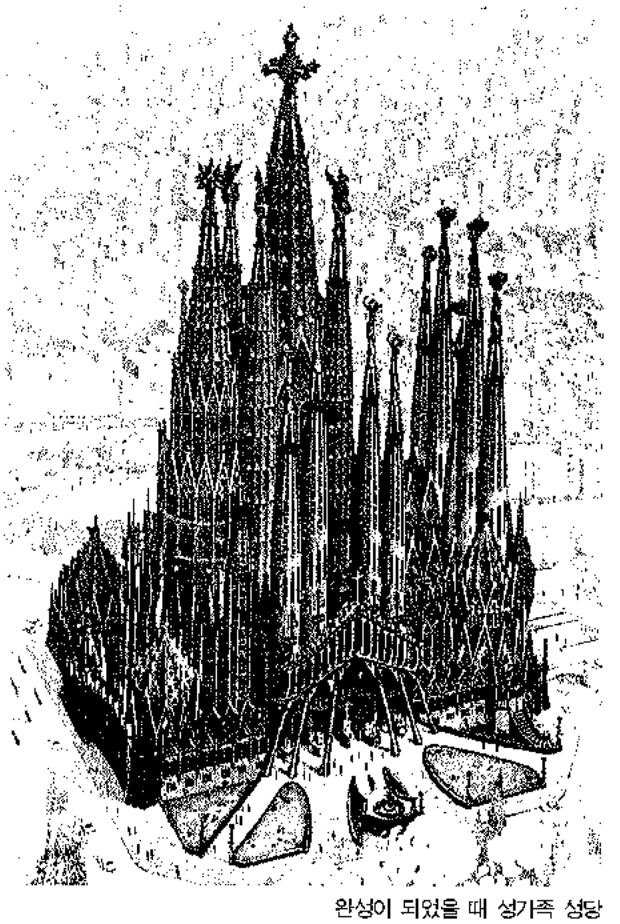
중앙에 있는 정문으로 신덕, 망덕과 함께 신학상의 덕 가운데 가장 큰 덕인 애덕(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므로 문도 가장 크다.

구유가 있고 그 주위에 낮보다 더 밝은 밤에 태어난 예수를 찬양하는 인간들과 하늘이 묘사되어 있다. 구유를 없어 놓은 원주는 원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그 인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의 무염시태의 기적으로 태어난 속죄자를 나타낸다.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아기 예수를 소와 당나귀가 따뜻하게 하고 있으며 천사들은 화해의 기쁜소식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있다. 아키볼트에서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은 신의 사업에 협력하고 복종하는 성모마리아의 애덕을 표현하는 것이다. 성모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움으로써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그의 완전한 봉헌에 보상을 하고 있다. 경사진 부분의 맨 위에는 예수의 이름을 상감한 십자가가 있고 그 주위는 천사들이 있다. 첨탑은 애덕을 요약한 부분이며 반대편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예수의 수난을 알리는 부분이기도하다. 예수의 수난은 성체성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펠리칸이 폭풍우 동안 새들의 피난처인 영원히 썩지 않고 푸른 실편백(애도의 상징으로 고대인들이 흔히 묘지에 심었던 이유로 이 나무는 죽음, 애도, 슬픔을 상징함)나무 밑에 있는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도록 바치고 있는 장면으로 표현했다. 종루와 채광탑, 둥근지붕의 모든 꼭대기는 베네치아 양식의 다색 모자이크로 장식했으며 각각의 꼭대기에는 "Sanctus, Sanctus, Hosanna in excelsis, Amen, Alleluia"라는 기도문이 있다. 이 정면의 네 종루는 바르나베(Barnab)성인과 유다(Judas)성인, 시몬(Simon)성인, 마티아(Mathias)성인을 위해 바쳐진 것으로 각 성인의 입상이 있다. 벽에서는 나선형으로 올라가면서 "Sanctus, Sanctus, Sanctus"라는 기도문을 ,꼭대기에서는 "Hosanna in excelsis"라는 기도문을 읽을 수 있으며 종루의 밑부분에서는 주교의 상징물들을 볼 수 있다.

3-4-2 수난의 정면

정면 전체는 성당의 정면을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박아 죽인 그 끔찍한 죄를 상기시키고 그의 죽음과 슬픔을 느끼게 하기 위해 매우 뾰족하고도 간결한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었다. 간결함을 전체적으로 종교적 비극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한다. 수난의 정면 앞뜰에는 최후의 만찬에서 죽은 후 무덤에 놓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 마지막 날들을 표현한 입상 75점이 놓일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곳의 입상 75점은 15그룹으로 나누어져 설치될 것이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설계도에 따라 정면을 보기로 한다. 전체적으로 조각군은 S자형태를 이룰 것이며 세 층으로 나눌 수 있다. 맨 아랫부분의 왼쪽부터 보면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빌라도의 재판까지를 나타낸 것으로 중앙의 문과 문 사이의 벽에는 채찍질을 당하는 장면을 조각해 놓아 작품의 내용을 강조했다. 가운데 부분에는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표현돼 있다. 이 십자가가의 길 장면에서 베로니카 성녀의 두건에 새겨진 예수의 초상이 있다. 맨 윗부분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가운데 있고 마지막으로 죽은 예수를 무덤에 안치시키는 장면으로 작품은 끝이 난다. 청동으로 된 문에서는 하늘의 임금으로, 대 예언자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게될 것이다. 박공에는 소망과 믿음으로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예언자들과 함께 예수 이전의 구약시대의 모습

수난의 정면 외부



완성이 되었을 때 성가족 성당

이 표현되어 있다. 박공은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로 마무리지었다. 이는 그리스도와 죽음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한다. 정면쪽에 있는 좌우익랑의 대형창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 창의 아랫쪽에는 마리 마들렌느와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수호천사가 무덤에 있는 장면이 있다. 중간부분 종루사이에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승천하는 그리스도의 입상이 설치될 것이다. 아키볼트에는 성 금요일의 성가"Vexilla Reg s"와 부활절에 반복해서 부르는 "Victimae Paschalis"를 써 넣을 것이다.

3-4-3 영광의 정면

이 정면은 인간의 시초, 최후 그리고 최후에 이르기 까지 거쳐야되는 과정들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지옥과 죽음,성신의 천품, 일곱가지의 대죄(탐욕, 화를 냄, 음탕함, 거만함, 게으름, 과식, 질투),일곱가지 선, 성령의 선물, 성사, 하느님,하느님의 궁휼, 아담과 이브, 요셉성인, 전복팔달, 성모마리아와 성인들, 심판관 예수 그리스도, 천지창조, 사도신경, 신덕, 망덕, 애덕, 천상계급 등을 볼 수 있다.

3-4-3-1 지옥과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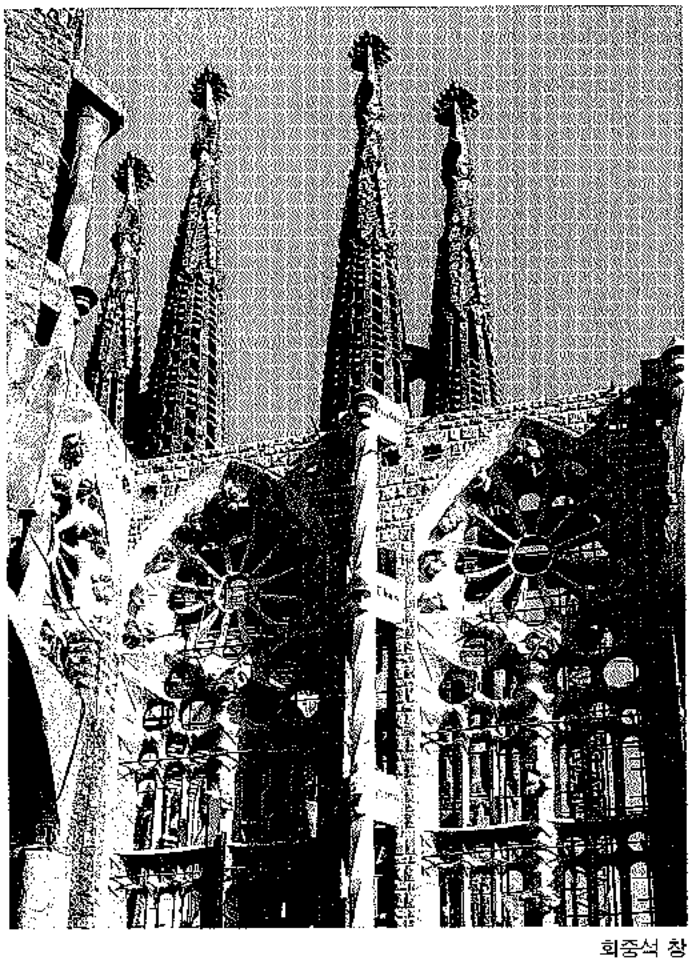
설계도면에 따르면 지옥은 성당 입구의 대형 층계를 바치고 있는 터널의 궁륭과 기둥에 묘사될 것이다. 지옥은 인간의 종교적 착오와 비참한 역사, 전통적인 이교, 모든 신화, 악마의 모습, 배교 등의 내용으로 꾸며질 것이다. 죽음은 무덤으로 표현될 것이다.

3-4-3-2 인간의 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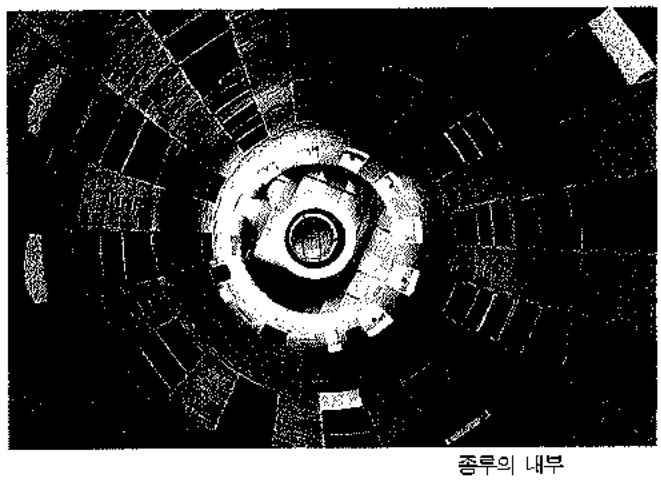
중앙문의 문과 문사이의 벽에는 원죄를 범하여 모든 후손들을 더럽히고 그 결과 힘든 노동을 하게 된 아담과 이브의 입상이 설치될 것이다.

3-4-3-3 인간의 최후

하늘의 왕국 정면의 윗쪽부분에 묘사될 것이며 그 아랫쪽 부분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이 표현될 것이다. 문의 일곱 원주위에서 원주의 중간에는 성신의 천품이, 원주토대에는 일곱가지 대죄가, 기둥머리에는 일곱가지의 선이 묘사될 것이다. 일곱 문을 통해 성당내부로 들어갈 수도 있다. 각문은 성사와 관련있는 기도문이 들어 있다.세례당과 면해있는 첫번째 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란 기도문이 있다. 두번째 문은 종부성사(카톨릭에서 임종시 신자에게 주는 마지막 성사)를 위해 봉헌된 것으로"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기를" 이란 기도문이 있으며, 세번째 문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문이 있다. 중앙에 있는 네번째 문은 성체성사를 위해 봉헌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기도문이 있다. 견진성사를 나타내고 있는 다섯번째 문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문이 있다. 결혼성사를 표현한 여섯번째 문에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이 있다. 고백의 작은 제단과 면해있는 일곱번째 문에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문구가 있다. 문 설주를 이루고 있는 작은 원주 위에는 유



회중석 창



종루의 내부

수난의 정면탑(위를 향해서 볼 때)

형, 무형의 하느님의 궁휼사업이 묘사될 것이다.

3-4 예수의 인성

예수와 요셉이 나자렛의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아담과 이브의 입상 위쪽에 있으며 그들의 양쪽에는 노동을 상징하는 것이 조각되어 있다. 문의 궁륭 아랫부분에는 진복팔단을 표현한 조각이,조금 높은 곳에는 구약성서의 족장들,대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동정녀들과 기독교신앙 표명자들과 성모마리아의 입상이 설치될 것이다. 이 조각군 위에는 요한 묵시록에 계시된 숭고한 모습으로 수난과 상징물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표현될 것이다. 문의 맨 위쪽 궁륭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천지창조의 일주일이 묘사될 것이다. 측면의 둥근부분에는 왕권의 상징인 하느님이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표현될 것이다. 그 아래로 성신의 형상이 중앙회중석과 면해있는 대형창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신덕,망덕,애덕을 상징하는 이 정면위에는 언약의 궤(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새긴 두개의 석판을 보관하였던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놓여지게될 것이다. 노아의 방주에서 부터 인간을 소생했고 구원의 약속을 믿었다. 종루들 사이에는 밤보다 낮에 더 반짝이는 문자로 그리스도교의 개요인 "Crédo(사도신경)"을 써 넣을 것이다. 이 정면의 앞에 있는 큰 테라스에서, 성인의 작은 제단 맞은 편에 있는 횃불등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내자를 상징하며 세례당 앞에 위치한 분수대는 생명의 강물을 상징한다.

3-5 성당의 뜰과 로사리오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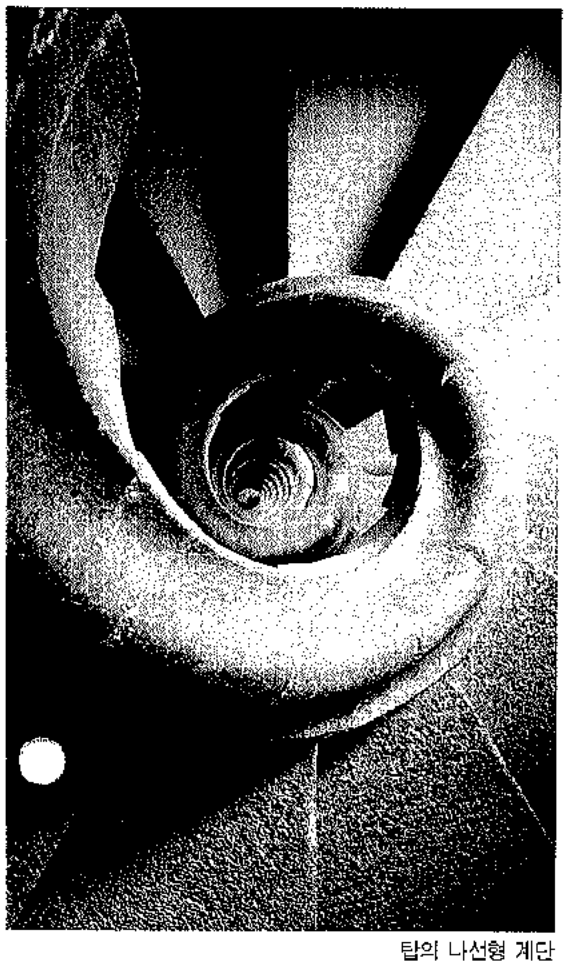
중앙정면에서 시작하여 성당 전체를 한바퀴돌아 중앙정면에서 끝나는 성당뜰은 두 층으로 나누어 완성될 것이다. 현재 이미 건립되어 있는 로사리오의 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면과 뜰이 교차되는 곳의 문은 매우 화려하게 장식될 것이다. 로사리오의 문은 원뿔형 채광탑을 통해 내부에 부드러운 빛이 들어와 아름다운 장미장식을 비추는데 매우 독특하다.

문에는 도미니끄(Dominique)성인의 입상과 까뜨린느(Catherine)성녀의 입상이 로사리오의 성모마리아 입상과 함께 있고 아래쪽에는 이삭, 야곱, 다윗과 솔로몬의 입상이 있다. 까치발의 모든 장식과 전설 그리고 입상들은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성모마리아의 중재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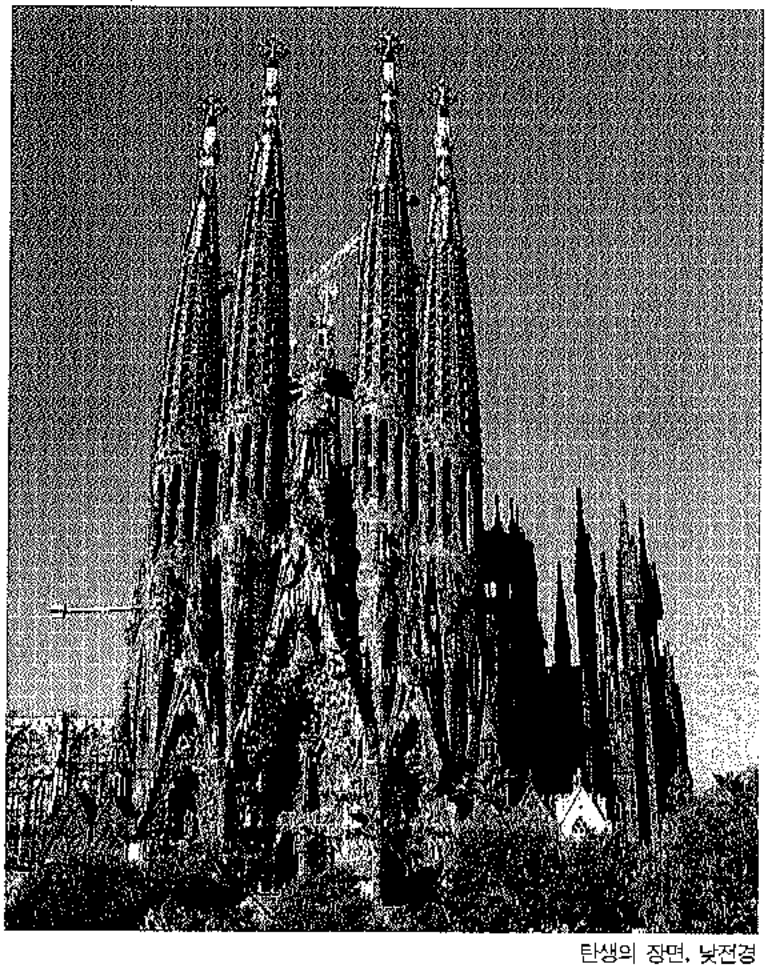
4. 성당의 내부

회중석과 후진은 원주로 처리하고 보강재를 같이 사용하여 궁륭과 돌지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중석의 높이는 45m 이며 측랑의 높이는 30m이다.

성당의 내부에는 교회의 가르침인 복음과 일상의 기도 귀절을 걸어 두게 될 것이며 매 일요일 미사와 관계있는 복음귀절은 성가대 특별석의 난간 위에,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인 사도서 귀절은 원주의 기둥머리에 걸어두게 될 것이다. 후진의 둥근 천정에는 그의 옷으로 천정 전체를 덮은 하느님이 천사들에 둘러싸여 있어 하느님이 전체 장식의 중심이 된다. 그는 가지가 일곱 개인 화려



탑의 나선형 계단



탄생의 장면, 낮전경

한 큰 촛대 속에서 성신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

4-1 성가대의 특별석

성가대의 특별석은 후진 둘레와 좌우익랑, 회중석과 주 정문의 내부 둘레를 따라 있다. 좌우익랑에서는 약 14m높이의 트리포리움에 위치해 있으며 회중석에서는 1500명의 성가대원이 앉을 수 있는 계단식 좌석과 기도대가 성가대석에 마련되어 있고 주 정문에 이르러서는 주랑에 있는 외부의 다른 특별석과 연결되어 성지주일(부활절 전의 일요일)이나 대축일에 내부의 성가대가 외부의 수 많은 성가대와 합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700명 이상이 되는 어린이 성가대는 후진둘레의 회랑에 위치한 계단식 좌석에 위치해 있고 성직자 성가대는 제단 주위의 성직자석에 마련되어 있다.

4-2 제의실

후진의 양쪽 끝에 큰 제의실이 두 군데 있다. 원래는 정방형이었으나 8각형으로 바꾸었고 토대의 박공과 같은 형태로 12선의 포물선 방추형 지붕을 얹게될 것이다. 방추형을 가로지르는 교차선은 쌍곡선으로 방패꼴 무늬로 장식을 했으며 삼각형 창까지 포물면을 직선으로 처리하여 둥근지붕의 내부도 밝게 했다. 외부의 장식은 사제의 직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붕의 첨탑은 사제들의 귀감인 그리스도를 붉게 물든 포도 수확자로 나타내고 있다. 이사야가 서술한 대로 그가 발로 으깬 포도즙으로 인해 붉게 물들었고 희생을 당한 어린양들의 피로 인해 붉게 물든 것을 상징한다. 둥근지붕의 교차선의 방패꼴에는 요한 묵시록의 내용에 따라 종려나무가지, Amen 구원을 바라는 기도, 찬양으로 장식했다. 성당의 바깥쪽 모퉁이에는 예수, 요셉, 마리아에게 바쳐진 세 오벨리스크(방첨탑)가 있다. 이 오벨리스크는 예수, 요셉, 마리아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다. 오벨리스크의 끝은 그들의 상징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마리아의 상징은 왕관으로, 요셉은 백합, 예수의 상징은 각 모퉁이 마다 다르게 표현해놓았다. 북쪽 모퉁에서는 4계 대재일(교회력으로 단식과 금욕을 지키는 4계절 초를 일컬음)중 대림절과 예수의 상징인 엠마누엘(Emmamuel)이라는 이름 그리고 도끼와 뱀으로 표현한 "신중함(기본적인 덕)"을 볼 수 있다. 서쪽 모퉁이는 4계 대재일 중 가을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인 덕중"용기"를 투구와 방패로 상징했다. 남쪽 모퉁이는 4계 대재일중 여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신강림을 나타내며 예수는 태양과 십자가로 상징하고 기본적인 덕중"정의"는 저울과 검으로 표현했다. 동쪽 모퉁이는 4계 대재일 중 봄을 상징하며 사순절의 단식을 나타낸다. 오벨리스크의 중앙에는 "INRI(유대인의 왕)"라는 글과 함께 십자가가 있고 기본적인 덕중 "절제"가 빵을 자르는 칼과 포도주가 담긴 병으로 상징되어 있다. 사제권(성직자의 직능)을 더 보충하기 위해 오벨리스크의 토대 부분에 사제와 두 부제의 입상을 더 놓을 것이다. 가운데 오벨리스크에는 사제 서품식 때 낭독하는 송가 세 귀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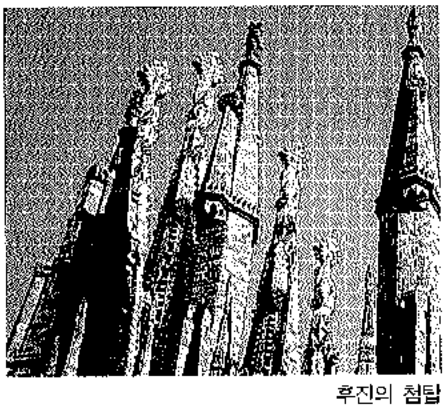
4-3 파이프오르간

중앙에 있는 채광탑의 토대를 둘러싸고 있는 주랑(지상에서 약 40m 높이)에 마련된 4대의 파이프오르간이 미사중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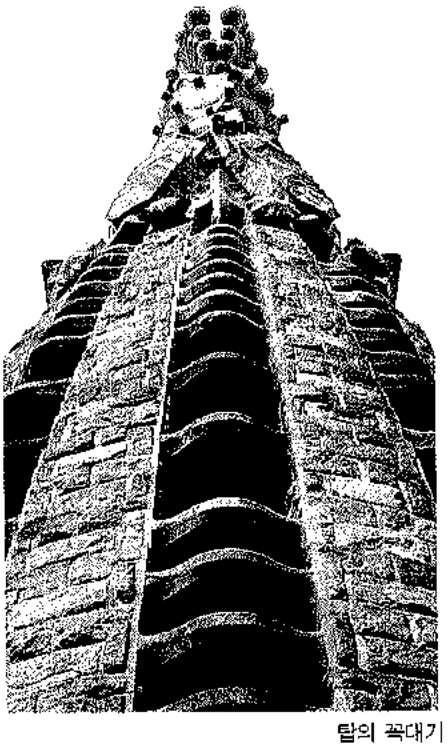
동쪽 정면의 탑속에 있는 관모양의 종들과 전자 피아노가 함께 연주될 때는 시 전체에 그 소리가 울려 퍼져 대단한 음악적 효과를 낸다. 특히 구멍이 숭숭 뚫린 종루는 수평방향으로 소리를 퍼지게 하고 공명 효과를 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대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쪽 종루의 파이프 오르간도 동쪽 종루의 파이프오르간과 번갈아 연주된다. 미,솔,도로 음이 맞추어진 중앙정면의 수 많은 종들은 보통 미사 때 사용된다.

4-4 성당내부의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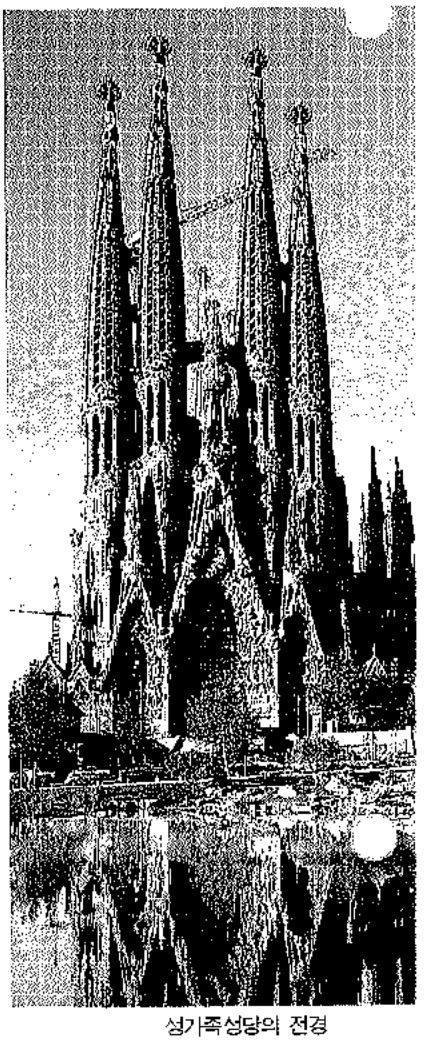
고디가 마지막으로 연구한 것 중에서 내



후진의 첨탑



탑의 꼭대기



성가족성당의 전경

부 전체를 밝게하는 대형창을 통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빛으로 궁륭을 밝히는 방법이 있었다. 내부의 조명은 자연광선과 비슷하게 궁륭을 밝히기 위해 쌍곡선체의 위에 있는 조명등으로 처리를 했다. 창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는 고디가 마조르끄(Majorque)대성당의 두 내진 창에서 이미 사용했었던 삼색판법으로 제작되었다.

4-5 성모승천의 작은제단

성당에는 성모마리아를 위한 장소를 마련해야만 했으므로 후진 뒤를 지나 두 제의실을 연결하고 있는 성당뜰의 북쪽 중앙에 위치한 작은 제단(소성당)을 성모마리아에게 바쳤다. 둥근 지붕은 자비를 상징하는 것으로 거대한 망토 형태가 될 것이며 이 망토는 박공의 첨탑에 있는 천사들이 바치고 있게될 것이다. 이것은 그의 망토속에 인간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에서는 천사들에 둘러싸여 승천하는 마리아와 왕좌, 삼위일체를 둘러싼 케루빔(지품천사:제 2의 천사)과 세라핌(치품천사:최고의 천사)으로 열두 명의 천사들이 주랑 속에 꽃대신 성신의 열매를 상징하는 과일을 들고 둥글게 서있다. 주랑 아래에는 성모승천과 요셉의 죽음, 성전에서 예수를 봉헌하는 마리아,예수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으로 첫번째 기적을 보인 가나안의 혼인잔치 장면이 표현될 것이다. 입구의 문에는 바르셀로나의 두 성인인 록(Roc)성인과 조제프 오리올(Joseph Oriol)성인의 입상이 있게 될 것이다.

4-6 지하성당

지하성당은 후진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지하성당에는 작은 제단(소성당)이 일곱있고 후진주위 회랑이 있다. 길이 40m,폭30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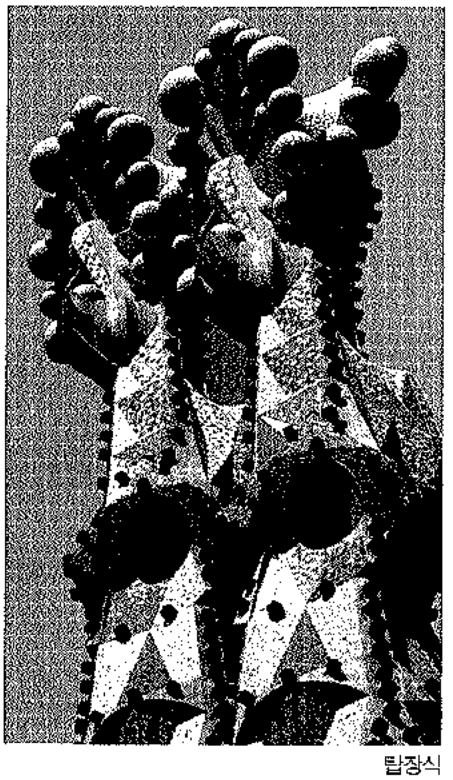
5.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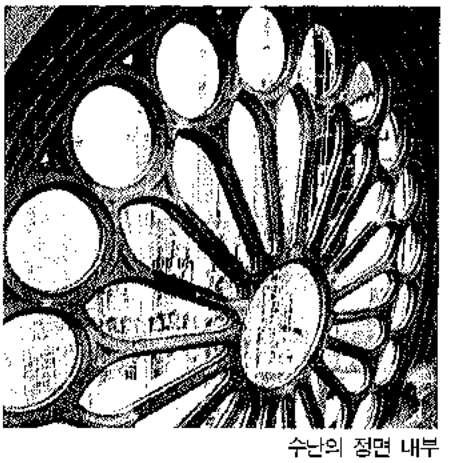
여기에 소개된 성가족성당은 이전까지의 일반적 고딕양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수법을 이용한 신고딕양식의 성당을 탄생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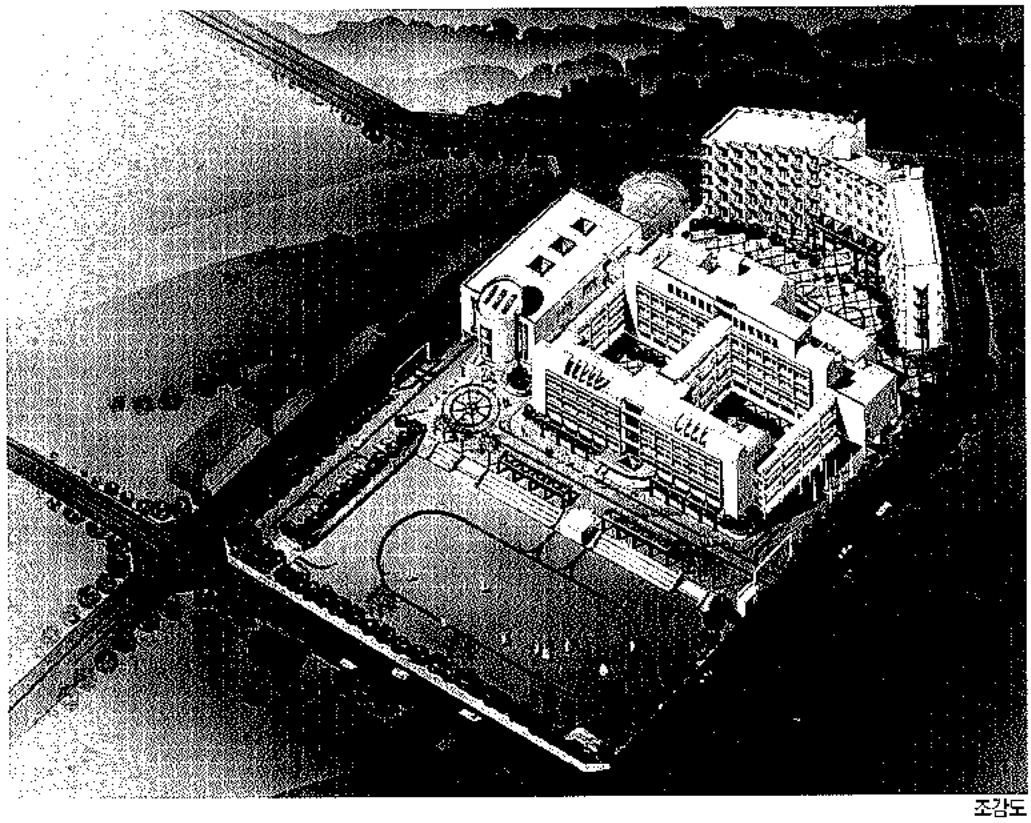
건축가의 독창적이고 강한 개성과 천부적 자질, 풍부한 상상력의 창출 그리고 자연주의 사조로 인하여 그 당시 너무나 생소하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양식이 받아들여지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창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삼색판법으로 시공하였고, 파이프 오르간은 구멍이 뚫린 종루를 통하여 수평방향으로 소리를 퍼지게 하고 공명효과를 내도록 하였으며 구조적으로는 대형 케이블 아치를 이용, 수직적 힘의 합력을 창출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던 부벽이나 벽날개 구조법으로부터 탈피하여 무한한 설계를 구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의 예술적 재능은 예수 탄생의 정문에서 탁월하게 나타나 성당정문에 각각 신학상의 세가지 덕인 믿음(신덕), 소망(망덕), 사랑(애덕)을 표현하였다. 이곳에 조각되어 있는 인물들,동물들,식물들은 영원히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 속에서 부상하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게 하므로서 그의 조형 감각 역시 천부적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 이외에도 고디의 작품은 건축뿐만 아니라 공원설계에도 일가견이 있으므로 인근의 Güell 공원을 방문하여 이곳에 설계, 시공된 건축, 조각 등을 견학하므로서 성가족 성당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소망의 문:죄없는 아기들의 학살


탑장식


수난의 정면 내부



조감도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Taegu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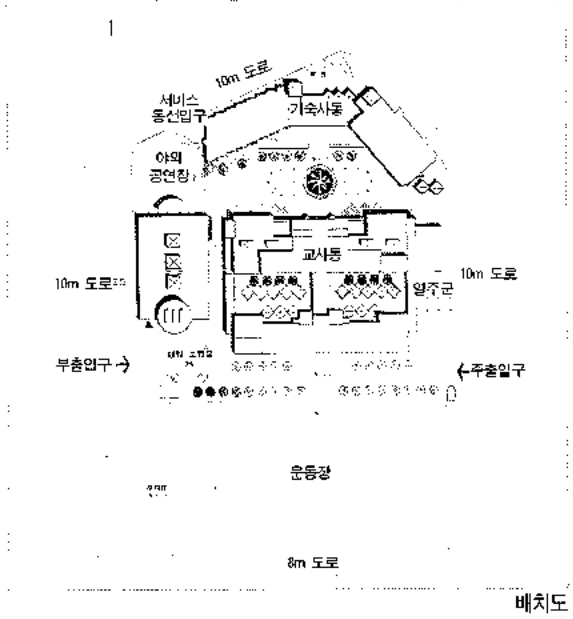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신축을 위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대구에 있는 전건축(백종구+전종배)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2월 27일 발표했다. 이 설계경기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전당으로서 현대적 최신시설을 갖춘 모범학교 건립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중심체로서 손색이 없는 장기적 안목에서 치뤄졌다.

또 이번 현상설계경기의 우수작에는 대전건축(주응식)안이, 가작으로는 동우건축(홍호용)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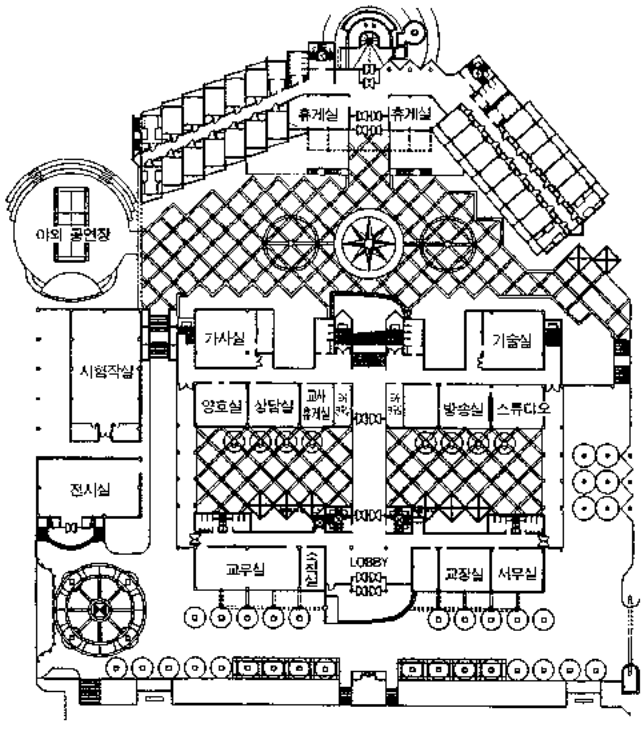
당선작

전건축
(백종구+전종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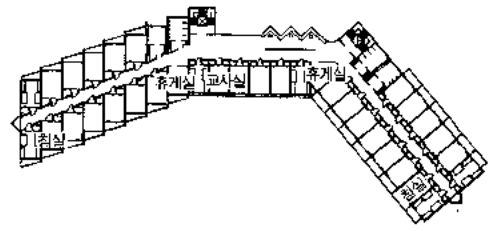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지택지개발지구 59블럭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7,672.5㎡
건축면적 / 4,437.41㎡
건폐율 / 26.11%
연면적 / 17,748.51㎡
용적률 / 88.43%
층수 /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외장재료 / 지정색 아이스코트마감, THK12 컬러복층 유리
계획담당 / 심재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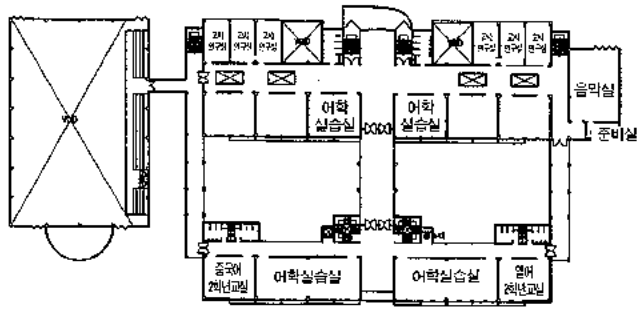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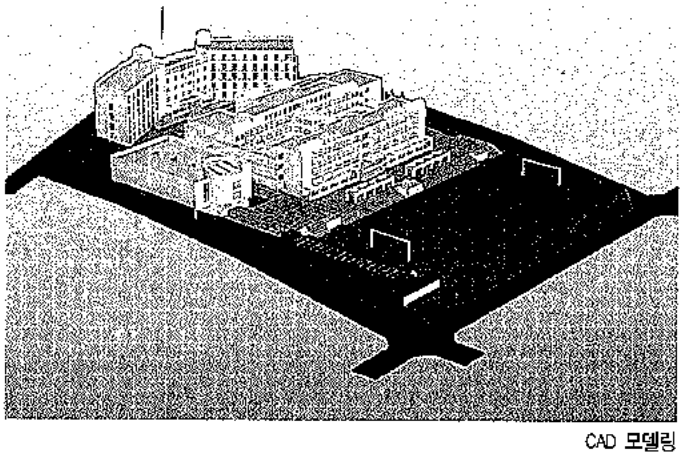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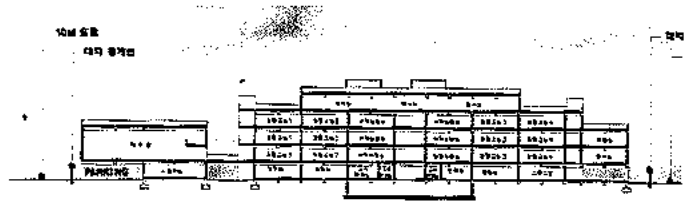
기숙사동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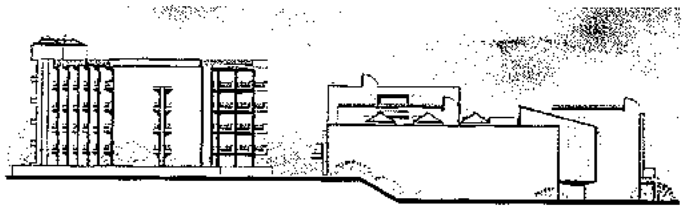
교사동 3층 평면도



CAD 모델링



교사동 종단면도



기숙사동 좌측면도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중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우리는 여러친구들을 만나고 학교는 우리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운다. 이제 배움의 자리에선 학생들에게 학교의 의미를 되새겨 주고 그 무엇인가를 주고싶다"

배치계획

-남쪽의 탁트인 전망을 적극 수용하여 교사동 및 기숙사동을 배치하고 건물군의 점진적인 Set Back동으로 경사대지 조건에 순응하는 배치를 원칙으로 함.

-방향측과 일치한 주공간(교사동)과 부공간(기숙사동)의 조화있는 배치유도(분산병렬형)로 각동간의 기능적인 연결 및 분리체계 확립

-주차공간을 서측 또는 도로전면에 두어 일반차량이 학교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식당의 물품반입을 위한 서비스차량 출입을 별도계획

-교사동과 강당을 연결 Bridge를 두어 연계성을 두고 우천시 편리함 도모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관 및 운동장 공간은 도로변에 배치하여 주변환경과의 연계 추구

평면계획

-학과별 배치는 동별 분리하여 각과의 영역성 확보

-교실의 배치를 U+V형(일반교실+특수교실)으로 하여 각교실의 이용율을 높이고 건물내 동선체계 확립

-일층에 관리기능인 교무실, 교장실등의 배치로 학생들의 동선을 끊지않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복도의 중복도 공간의 단점은 천창으로 보완하여서 엘보형의 복도 공간으로 복도의 개념을 탈피한 다목적 학습영역으로 Team Teaching시 유효한 공간 구성

-열린교육을 위한 다목적 공간의 전환이 가능한 각과별 Zoning화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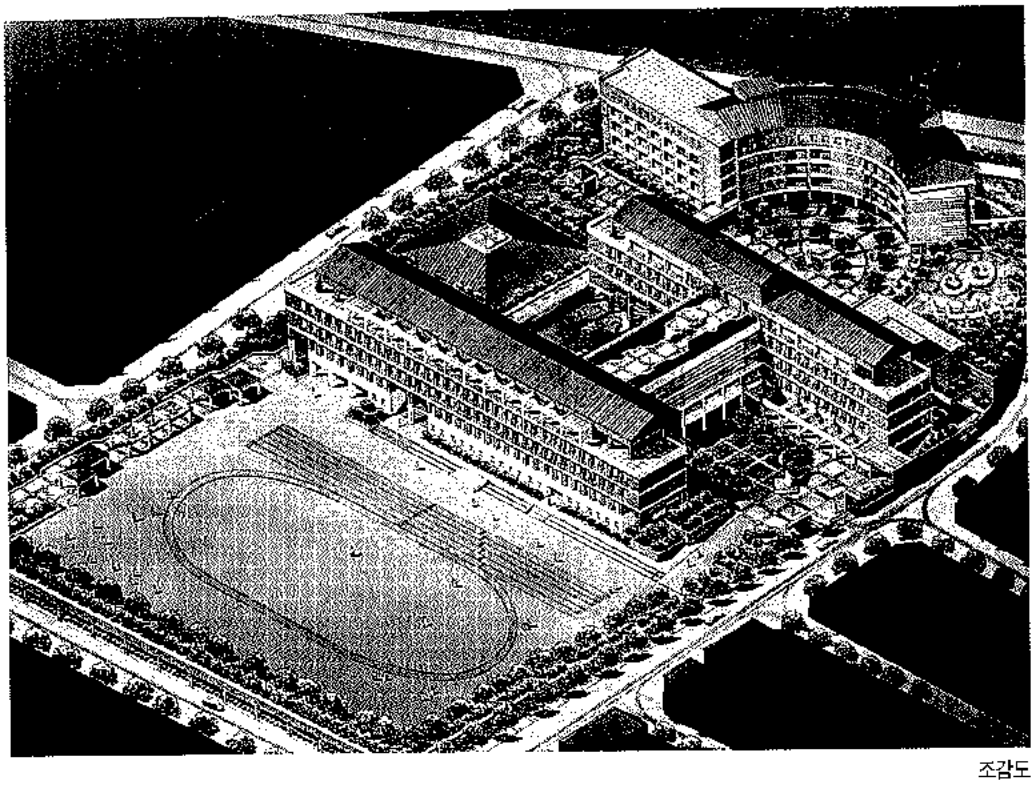
-Mass를 대지의 Level에 따라 Set Back시켜 경사대지가 주는 위압감 해소

단순 반복되는 요소들간에 변화를 주어 심리적 지루함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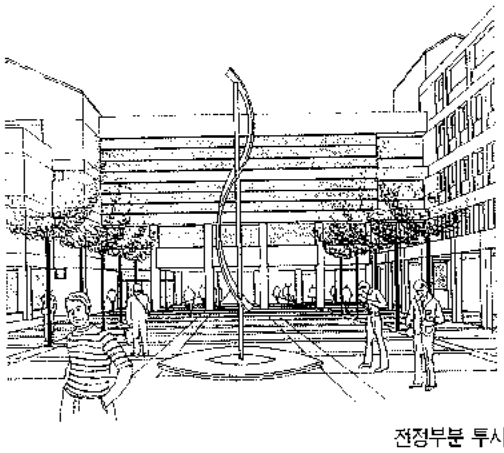
우수작

대전건축
(조병천+정원수+주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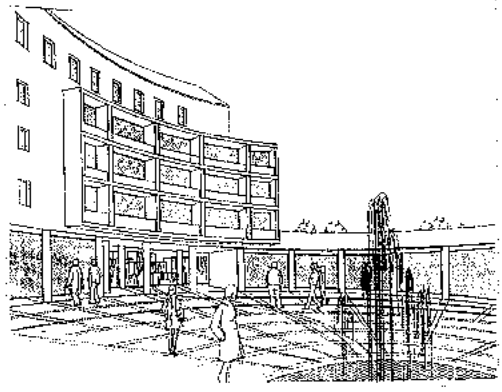
대지면적 / 17,672.5㎡
건축면적 / 4,888.22㎡
연면적 / 18,038.22%
건폐율 / 27.66%
용적률 / 89.03%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 / 적벽돌, 화강석 버너



조감도



전정부분 투시도



후정부분 투시도

계획의 기본방향

세계화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전당으로서 첨단 교육시설과 다양한 건축공간을 창출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대지이용계획을 함에 있어 전교생이 24시간 교내거주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오픈 스페이스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배치계획

대지 레벨을 이용, 강력한 축선상에 위계적 배치형태를 취하였고 교사동은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특별교실과 근접배치 하였으며 사회관은 뒷산에 근접배치시켜 자연과 동화된 정적생활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체육관은 대지 레벨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이용자(학생)의 편의를 고려 운동장과 중정에 입체적 연결을 꾀하였다.

조형개념

획일화된 양식의 기존 학교건축의 재평가로 기능별 분리와 휴먼스케일적 면분할로 친근감을 부여하였다.

외부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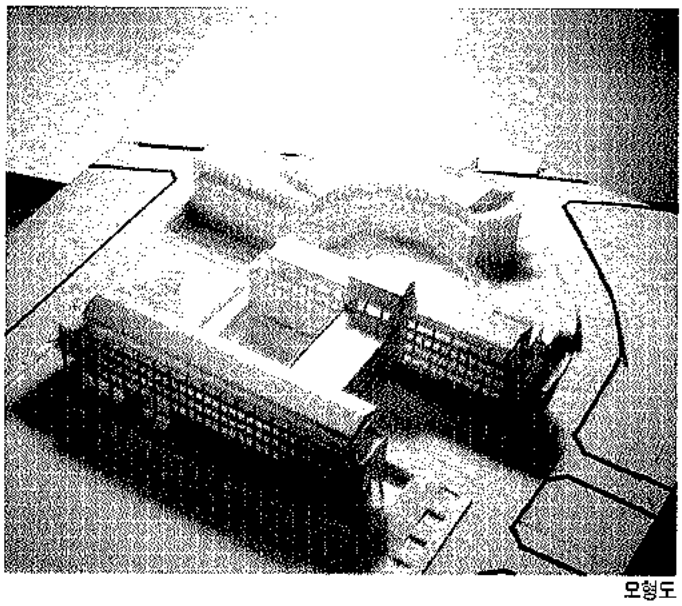
교내 거주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최대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휴게공간과 벽천등을 설치 다양한 외부공간을 연출하려 하였고 피로티의 도입으로 전정과 중정 그리고 후정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외부공간을 형성시키고자 하였다.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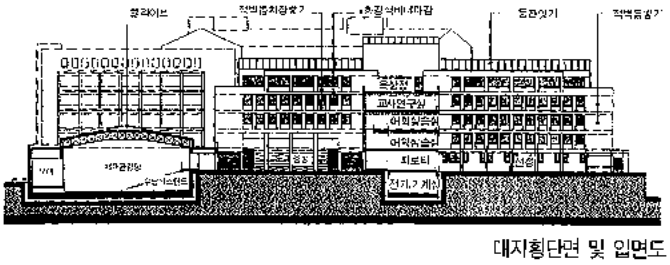
대지레벨을 이용하여 전면 운동장 하부에 주차장을 설치, 교내 차량진입을 원칙적으로 억제하여 보차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교육환경 저해요소를 사전 봉쇄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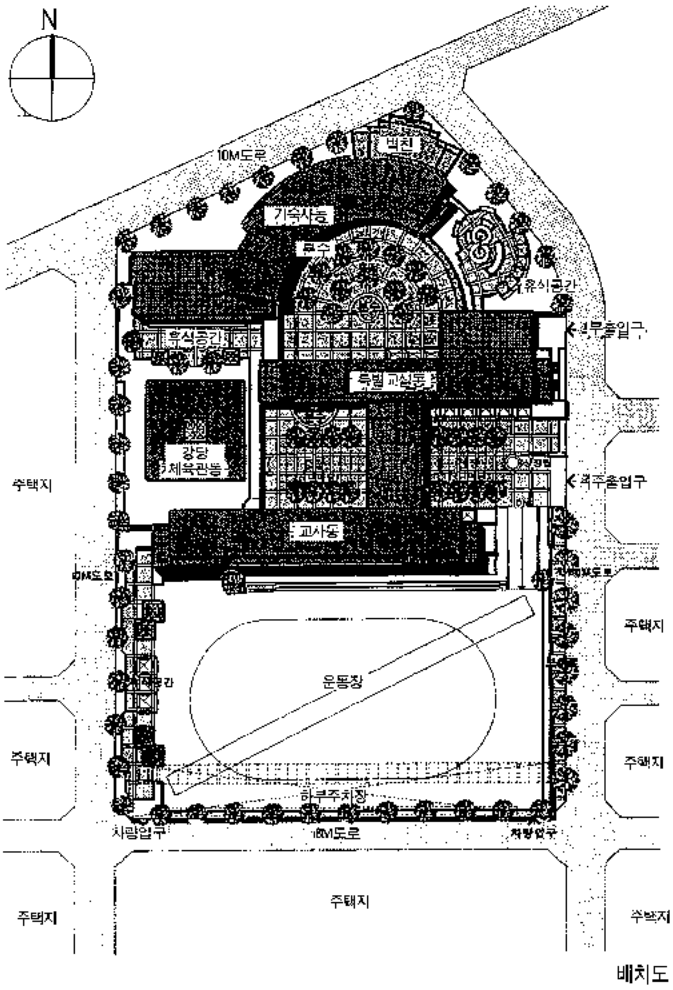
주이용자인 학생 위주의 최단의 동선으로 중정, 후정을 매개로 한 실배치를 기본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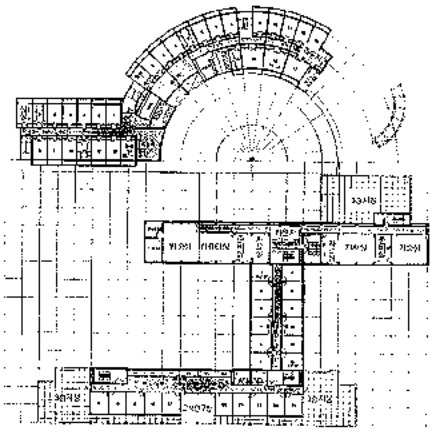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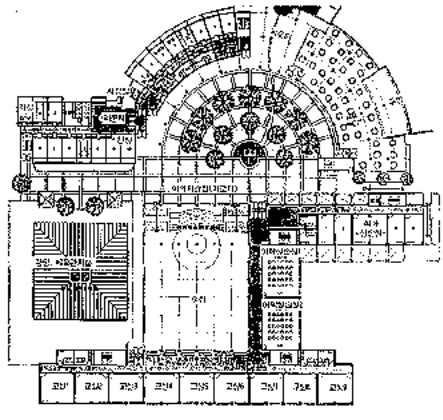
대지횡단면 및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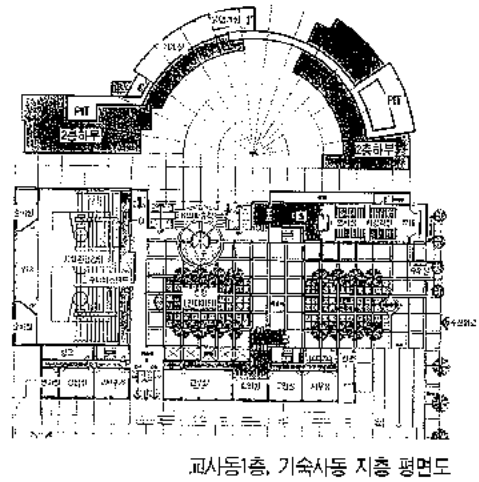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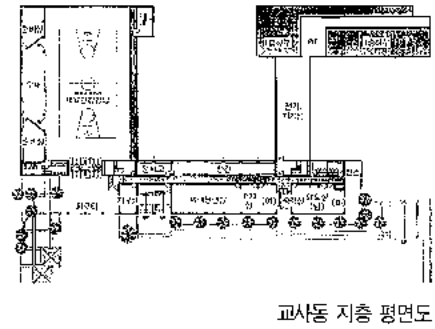
교사동 4층, 기숙사동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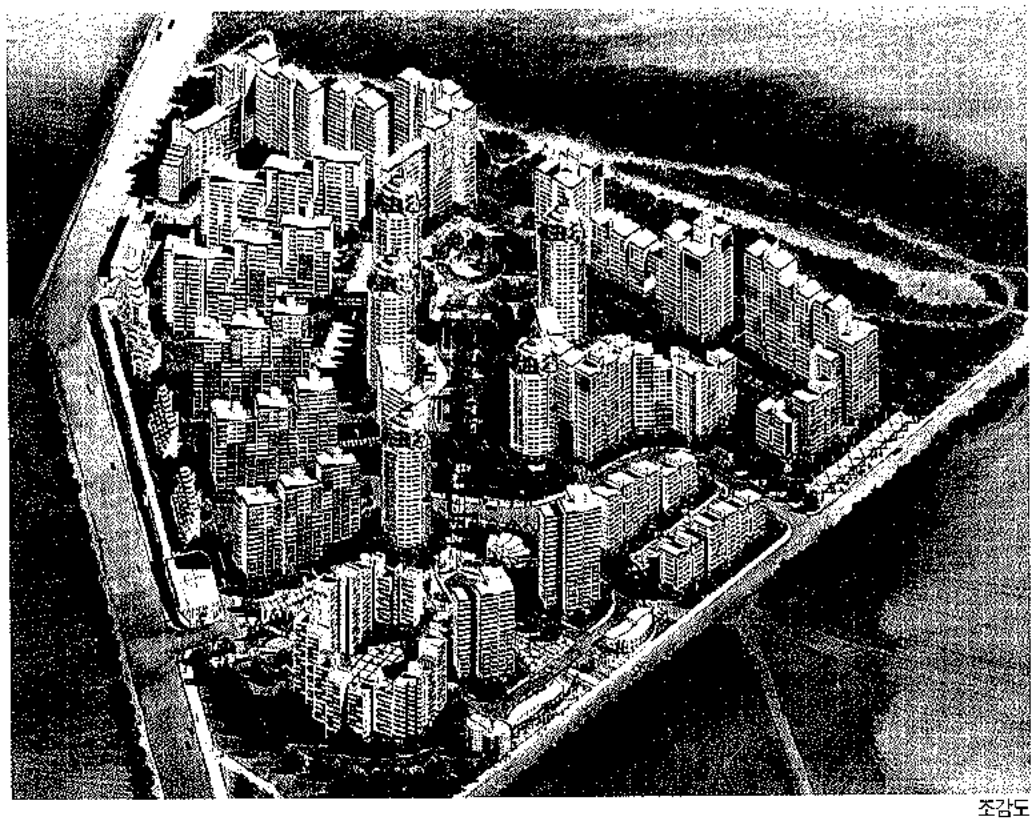
교사동2층, 기숙사동 1층 평면도



교사동1층, 기숙사동 지층 평면도



교사동 지층 평면도



조감도

인천 송현지구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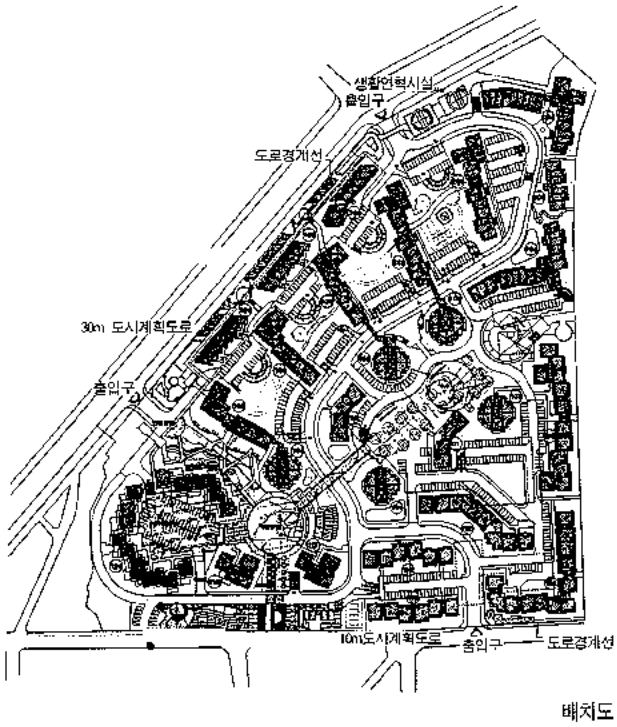
Apartment of Songhyeon District, Incheon-shi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쾌적한 단지조성과 최대한의 실내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송현지구에 대한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2월 15일 무영종합건축(안길원+손광민)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8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에 장건축(오택길)안이, 가작으로는 다원건축(김영택)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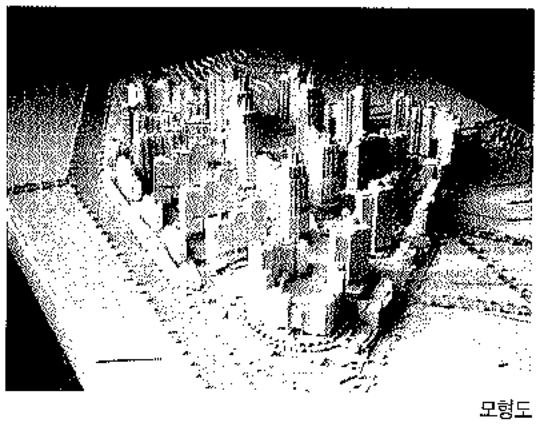
최우수작

무영건축
(안길원+손광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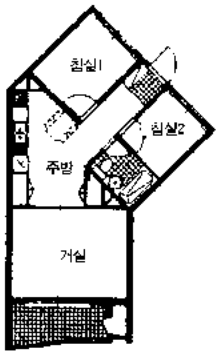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44번지 일원
대지면적 / 93,782.2㎡
건축면적 / 1,687.1㎡
연면적 / 232,817.4㎡
건폐율 / 19.34%
용적률 / 268.22%
계획담당 / 주창혁, 최대성, 진근수, 조영선, 김영훈, 김영우, 주경호, 최정봉, 김경순, 정영경, 차병철, 임창수, 박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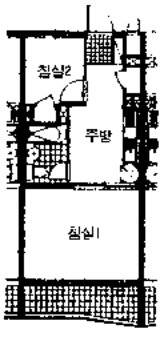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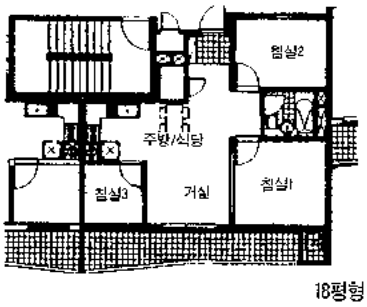
모형도



15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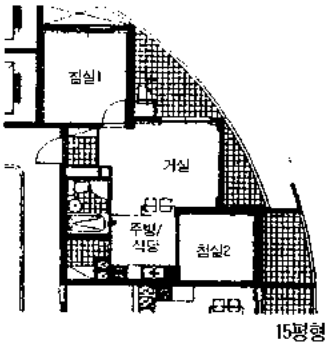


12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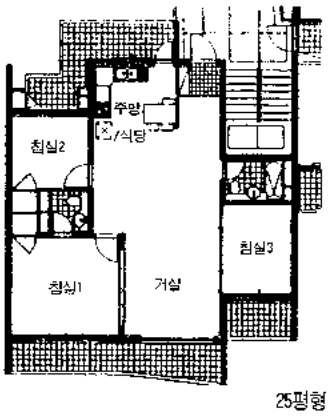


18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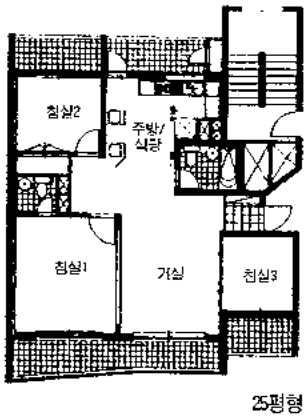
18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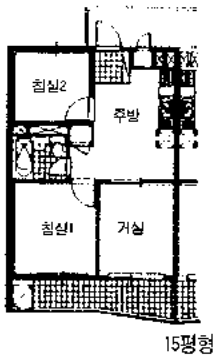
15평형



25평형



25평형



15평형

단위세대 평면도

이 사업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자 도심형 공동주거로서 장래 사회 · 경제구조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패턴과 주생활 가치관의 변화에 대응하고, 거주자층의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적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형 주거를 제안하는것이 계획의 주된 목표였다.

그리고 계획지의 입지적 조건은 동인천역과 중심시가지의 근처에 위치하고 360°의 파노라마가 전개되는 구릉지 끝단에 입지하고 있고 도시계획공원과 인접하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형성하며 경사지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상징성과 구심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구릉지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어 북서쪽의 서해, 동쪽의 도시계획공원과 산의 경치가, 그리고 남쪽으로 중심시가지가 펼쳐져 조망이 매우 좋아 계획상 주요 잠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지계획의 주된 개념은 50m 경사지의 고저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도시계획공원과 연계하여 환경공생의 생태적인 주거환경을 모색하는 것과 커뮤니티(community)를 재구성하는 것이 계획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었다.

우선, 환경공생의 주거단지 창출을 위하여 계획지에 인접한 도시계획공원을 활용하여 거주민에게 쾌적성과 공공성을 제공하여 주는 잠재요소로 이용하고 이를 계획요소로서 설계에 적용하여 계획지의 공원녹지축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중심축을 설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는 환경생태적인 쾌적한 주거단지 창출에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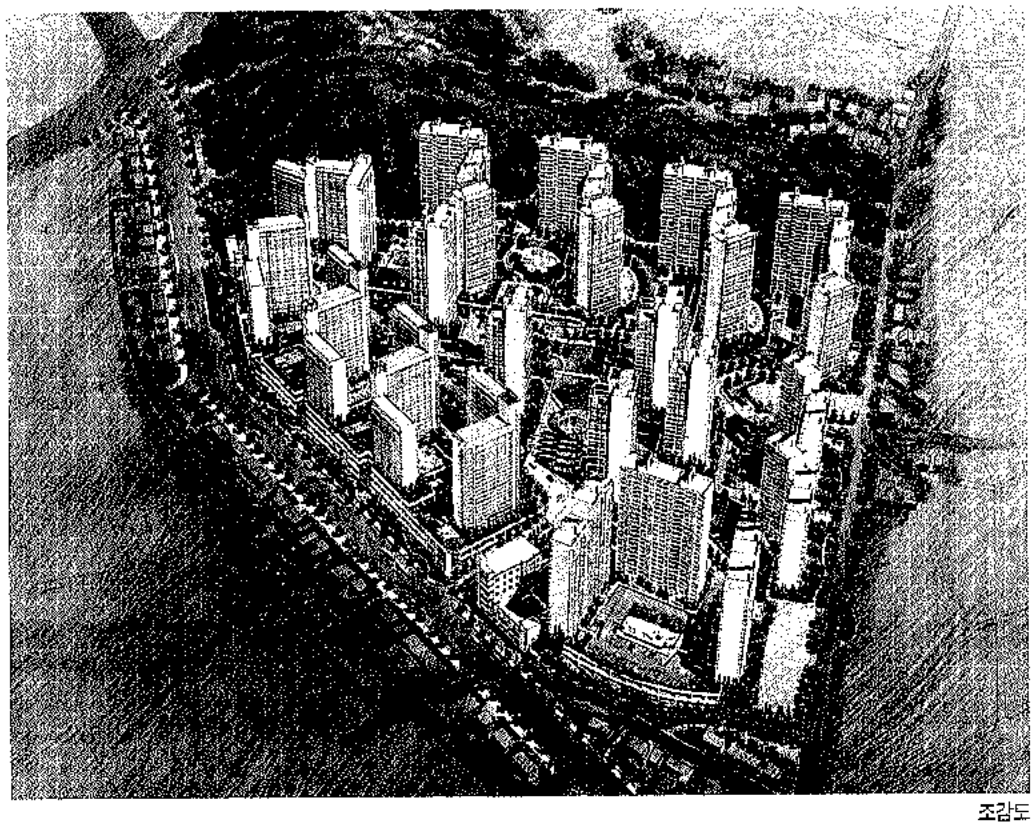
그리고 중심축의 결절부에는 2군데의 중앙광장을 배치하여 지역주민과 지구주민이 상호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는 거점역할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지역과 접점이 되는 외곽부에는 선형의 상가시설을 배치하여 가로변에서의 위압감을 경감하고 도로와 주거지와의 완충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주거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와 커뮤니티(communtiy)를 제고하였다.

동선계획은 거주자를 위한 통로와 쇼핑 등의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일상생활 동선과 보행자 입구로 동선을 유도하여 인접 도시계획공원과 연계되는 레크레이션 동선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골격으로 북서사면의 임대 Zone과 남서 · 남동사면의 분양 Zone으로 구분되어지는 주요공간구조의 골격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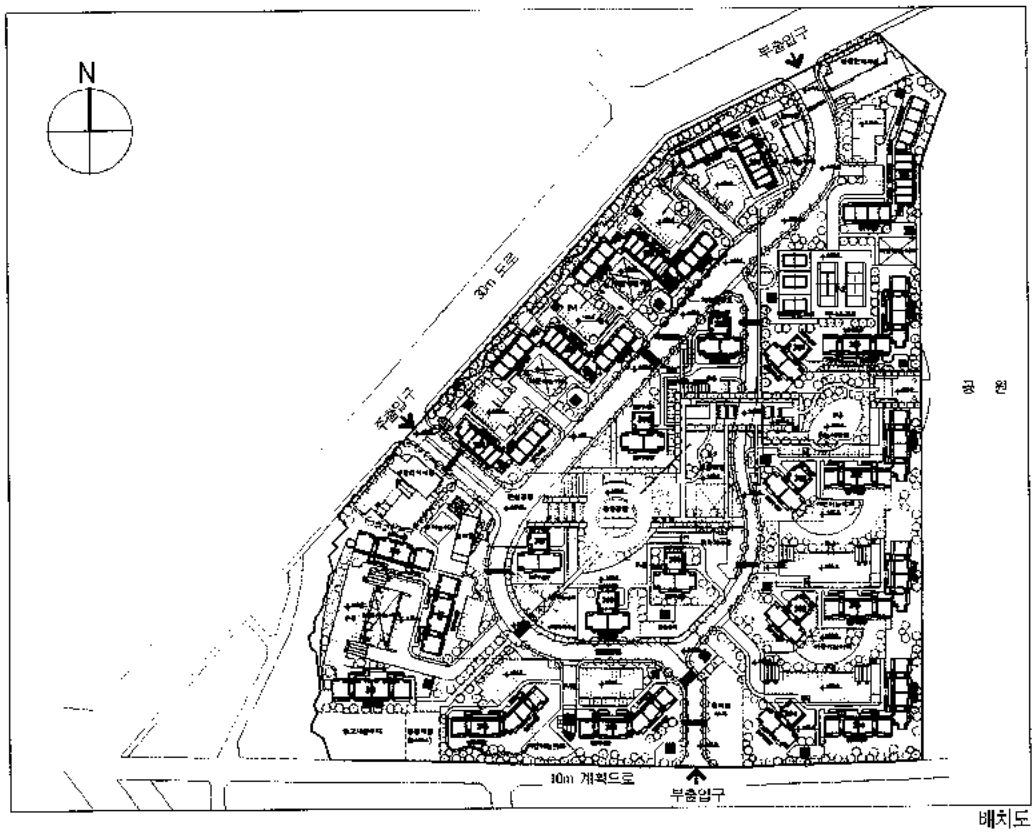
우수작

장건축(오택길)

대지면적 / 93,781.82㎡
(가용대지면적 / 92,094.21㎡)
구조 / 벽식 R.C조
건축면적 / 13,741.61㎡
건폐율 / 14.92%
용적률 / 273.69%
건설호수 / 12평형-609세대
15평형-616세대
18평형-919세대
25평형-891세대
계 : 3,035세대



조감도



배치도

기본방향

-단지는 순환도로에 따라 구획되는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

-임대동과 분양동의 인위적 경계는 지양하고 단지 중심에 근린광장 및 체육시설을 배치

중심지역

-단지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한 주거지역이 단지의 여러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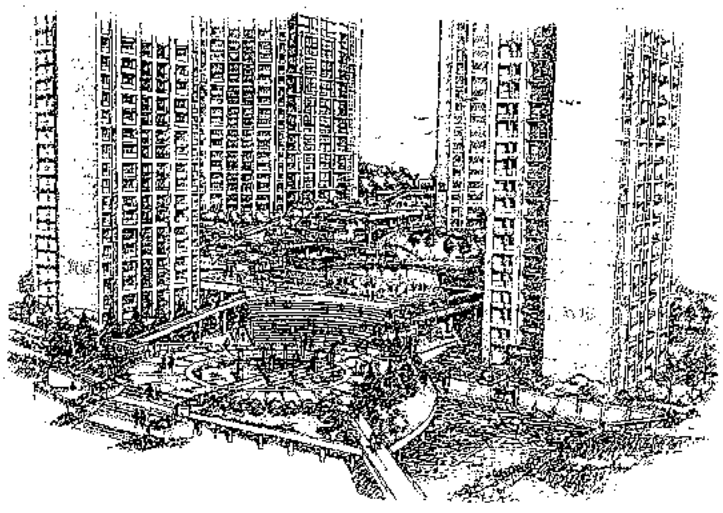
외곽지역

-도시가로지역

• 30m가로에 면하여 도로면과 상당한 표고차를 이루면서 가로경관을 형성, 북향, 소음 등 악조건의 대처가 필요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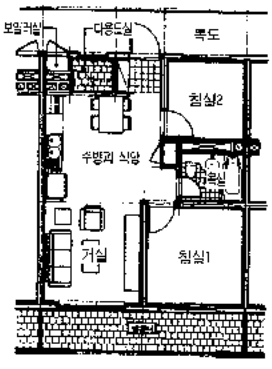
• 가로를 향하여 반복되는 형태로 건물 외관을 이룸

• 가로면에는 15층으로,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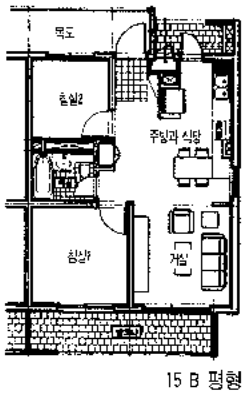


광장부문 부분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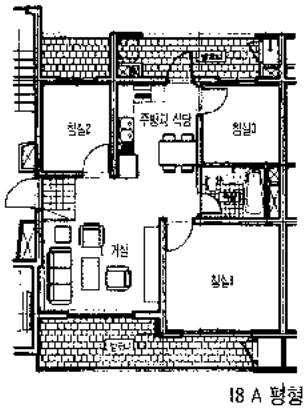
12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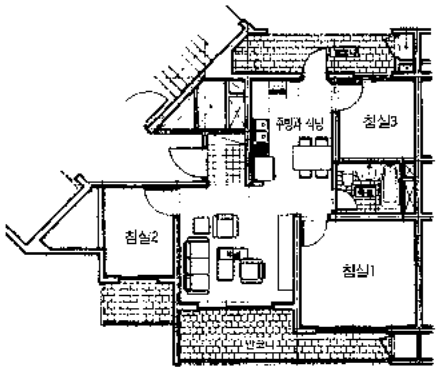
15 A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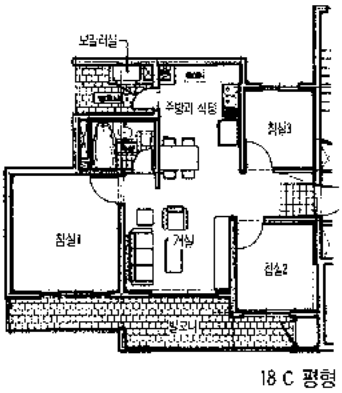
15 B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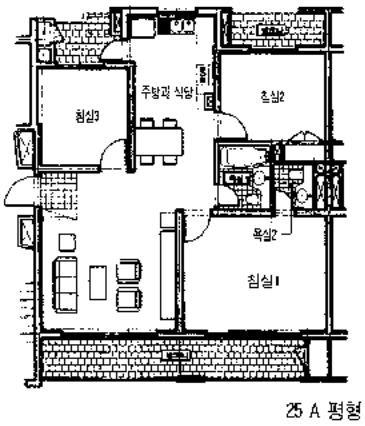
18 A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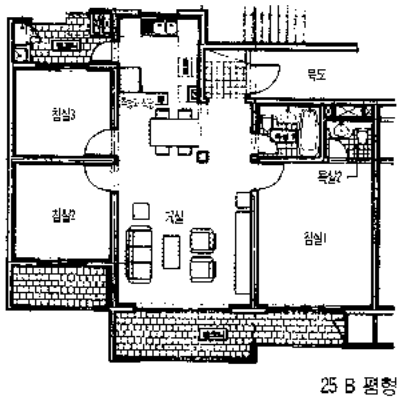
18 B 평형



18 C 평형



25 A 평형



25 B 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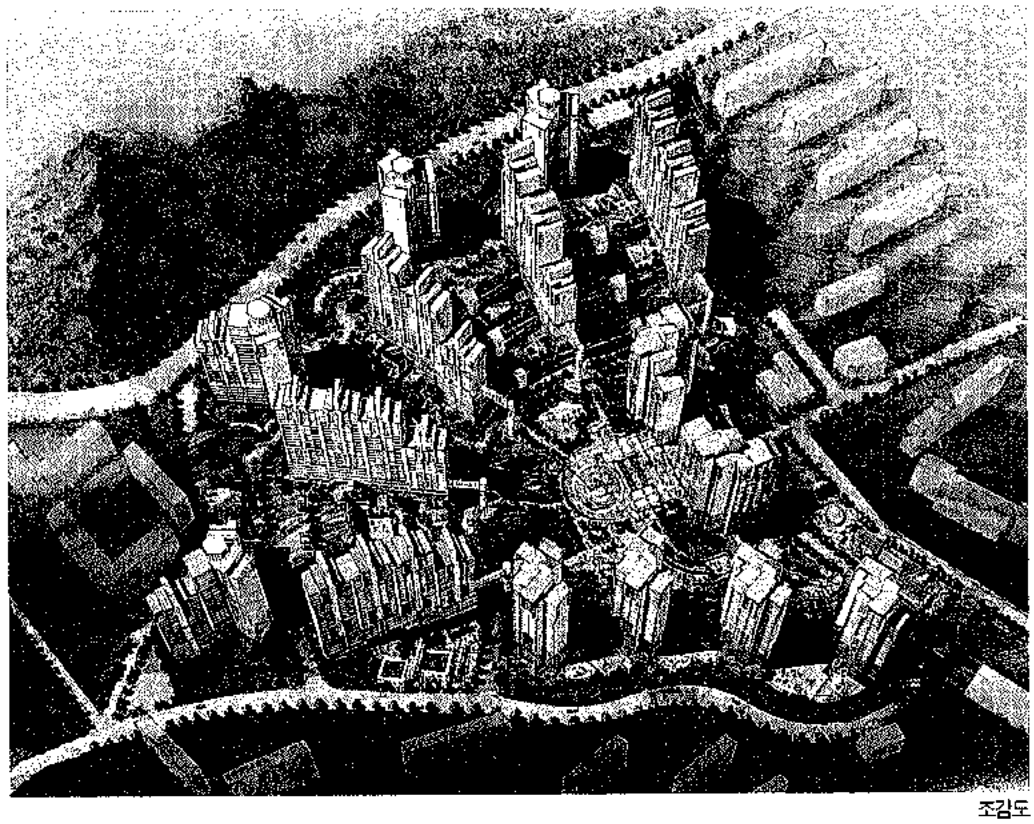
단위세대 평면도

내부는 23층까지의 높이 변화
- 복도를 소음차폐요소로 고려하여 임대동을 배치

–기존주거지역
- 남측 기존주거지역과 접하는 지역
- 원만한 시각적 접속을 감안, 다양한 건물 높이와 형태의 건물 배치

소주구의 형성
–주거건물군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Cluster를 형성하면서 소주구 단위로 구성 150~300세대 수용
–소주구 단위로 기존 지반변에 따라 각기 다른 표고의 마당을 가지면서 전 단지를 계단처럼 조성
–소주구의 안마당에는 각 건물의 입구로 연결되는 차로, 보행로, 지상주차장, 놀이터와 정원 등을 갖춘 활성화된 동네의 마당으로 조성

건물유형
–외곽지역 : 적극적인 소주구형성을 위하여 소단위 마당을 중심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여 장소적 귀속감을 부여
–중심지역 : 중심 근린공원에의 개방된 공간조성을 위하여 타워형 건물군의 배치



조감도

광명 철산지구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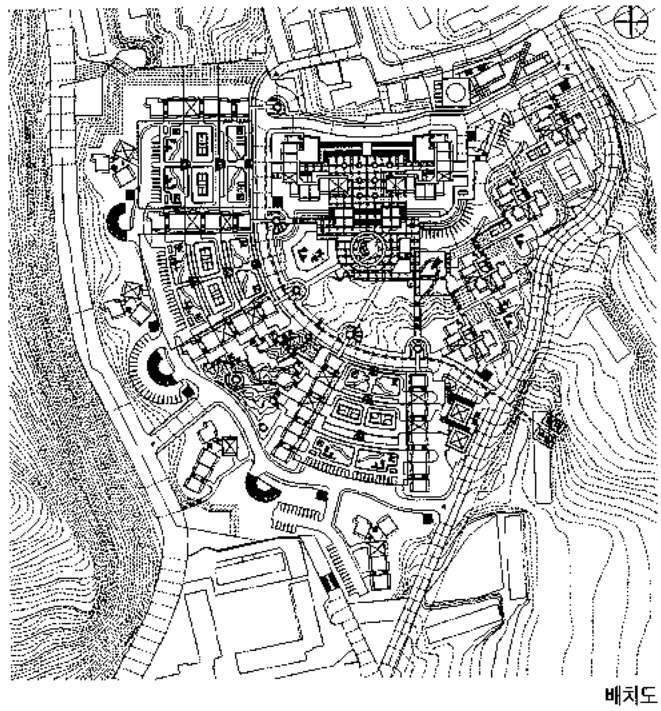
Apartment of Cheolsan-District, Kwangmyeong-shi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쾌적한 단지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천 송현지구와 함께 광명철산지구도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지난 2월 15일 토문컨설턴트(최두호+정경상+한남수+최기철) 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15개 사무소에서 참가한 광명철산지구의 우수작은 건원건축(곽홍길)안이 선정됐으며, 가작으로는 창일건축(이종수) 안, 동인환경건축(윤태웅)안, 그리고 꾸메 · 우림 · 구상건축(이종현)안 3작품이 선정됐다. 당선작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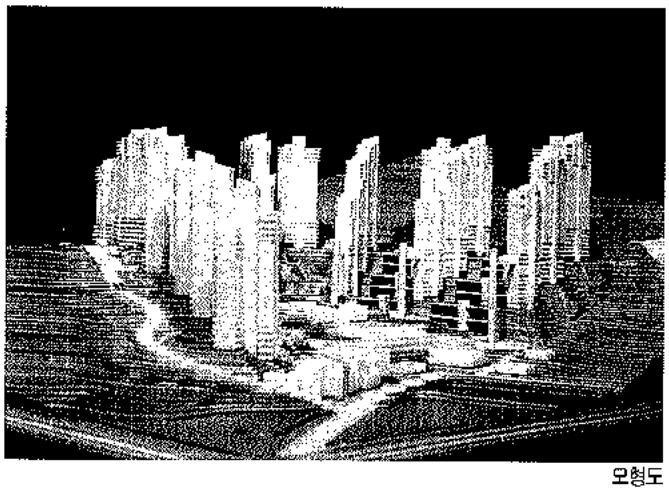
최우수작

토문컨설턴트
(최두호+정경상+한남수+최기철)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510번지 및
하안동 31-20번지 일원
대지면적 / 70,192.00㎡
건축면적 / 10,435.11㎡
연면적 / 261,723.42㎡
건폐율 / 15.33%
용적률 / 268.54%
건설호수 / 공공임대
전용 13평-582세대
전용 15평-627세대
공공분양
전용 18평-516세대
전용 25평-628세대
계 2,353세대
설계담당 / 문익섭, 정창균
조경계획 / 김기성, 안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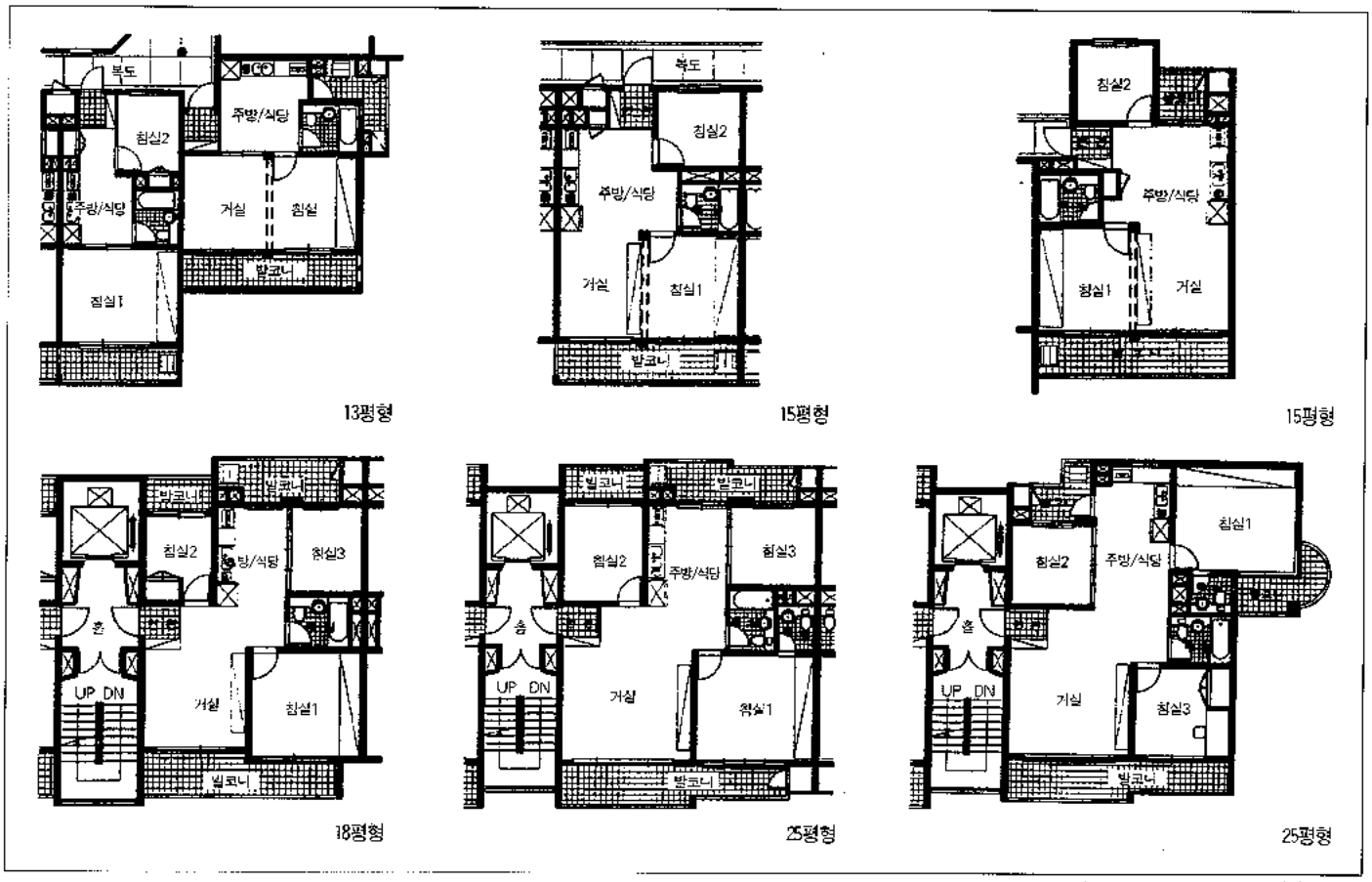


배치도



모형도

스케치



단위세대 평면도

기본방향

- 주변 기존 주거지와의 불편없는 조화
- 단지내에서 도덕산이 바로 조망되고 이용되는 단지구조 구현
- 급경사지에서도 편안한 주민과 차량의 통행 보장
- 대지형질변경의 최소화
- 지하공간을 적극활용하고 지표면을 녹지공간화
- 고지대에서도 편리하고 다양한 일상생활 보장
- 옥외공간의 집단화로 초고층단지의 경관환경 개선

분양지구

- 중앙광장에서 경관축과 활동축이 차폐되지 않도록 주거동을 축과 평행배치
- 계획세대수의 수용 및 주동공간의 영역성 조성을 위하여 경관축이 차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동간에 Tower형 배치
- 주경관축 주동공간에는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고 자연스런 지형 조성

높은 고저차로 인한 통행불편을 고려, 지형차를 이용 각 레벨별로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그 상단에 녹지공간과 옥외활동시설을 설치하여,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하단에 다층구조의 지하주차장 설치

- 엘리베이터 타워와 연결된 분산상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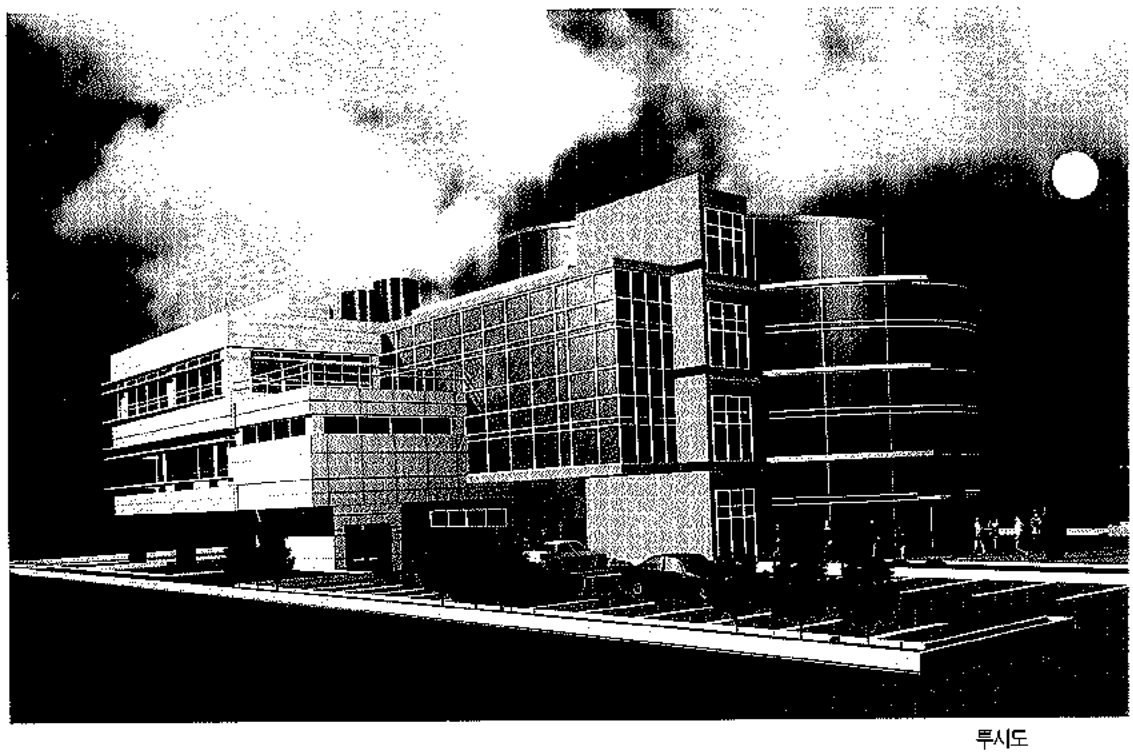
지형차, 층고차 등을 활용, 중앙은 낮고 외곽은 높도록 층고를 배분하여 중심부에 경쾌한 시각 환경 조성

임대지구

- 인접 5층아파트의 시각을 트고 Mass의 볼륨이 경쾌하도록 Tower형 배치
- 가급적 기존지형의 Level에 맞추어 주거동 배치
- 주차장은 지형상 움푹꺼진 중앙에 다층구조로 집단화하고 상부에는 중앙광장 조성

단지입구, 경관축의 Terminal Vista로서 상징성을 창출하고 중앙광장의 위요감 형성을 위하여 단지 중앙 하단에 탑상 주거동을 대칭으로 배치

- Tower형은 남동, 남서향으로 전망이 트이도록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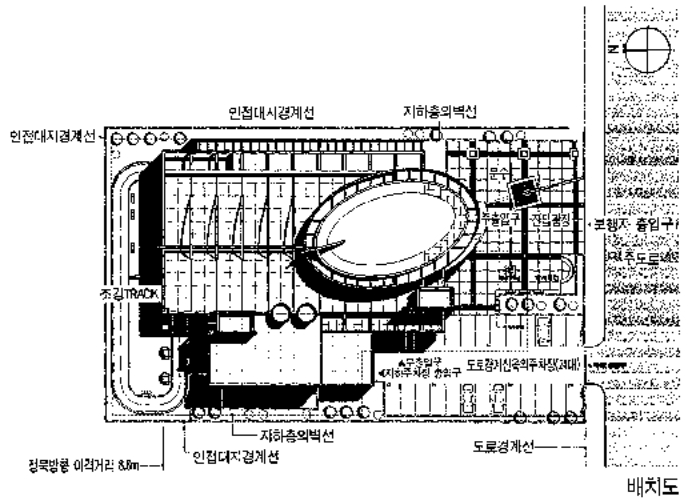


투시도

근로자 체육문화시설

Sports & Culture Facilities for Laborer

근로 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복권 판매수익과 정부 출연금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근로복지 시설을 건립코자 지난 1월 체육문화시설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총10개 사무소에서 참여한 체육문화시설은 도울건축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작은 두우건축안이, 가작은 두호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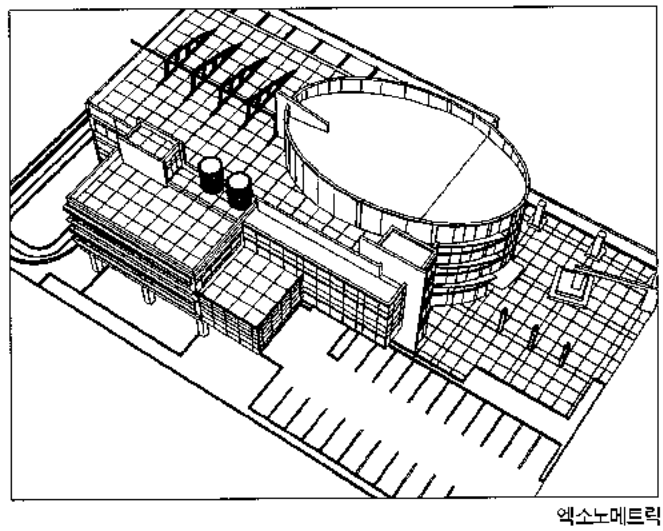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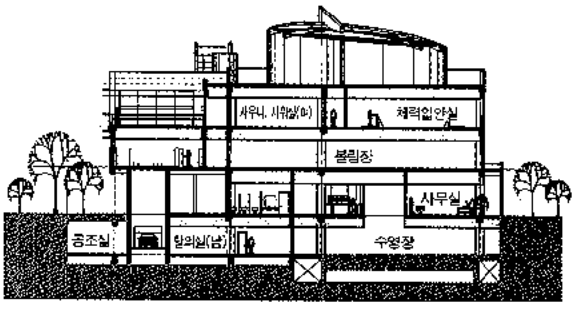
당선작

도울건축(심우근+채일석+김동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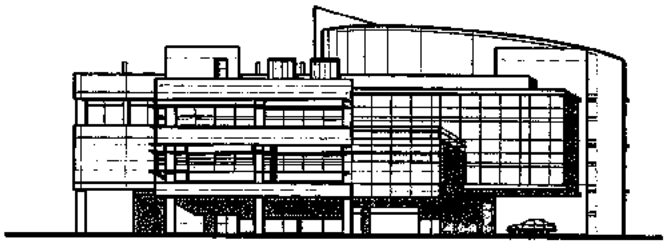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대지면적 / 3,285㎡(308평)
건축면적 / 973.50㎡(184.1평)
연면적 / 4,940.50㎡(2,640.7평)
건폐율 / 28.43%
용적률 / 86.30%
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층수 /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 알루미늄 복합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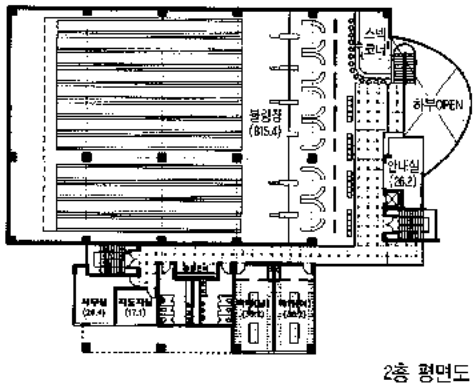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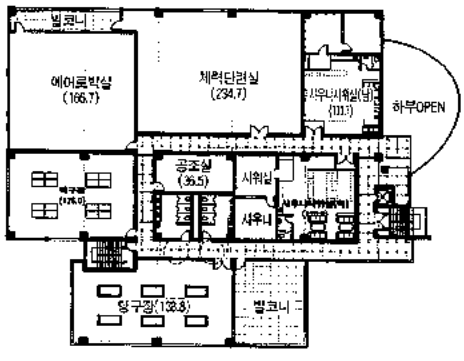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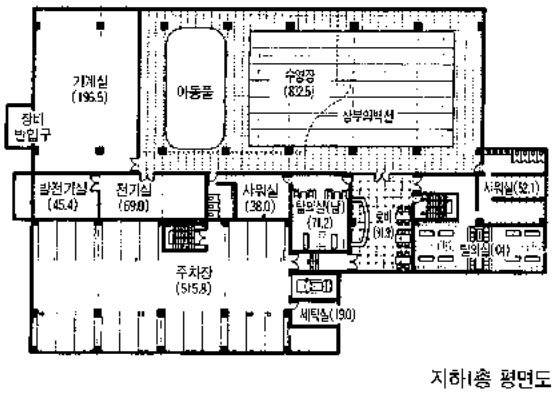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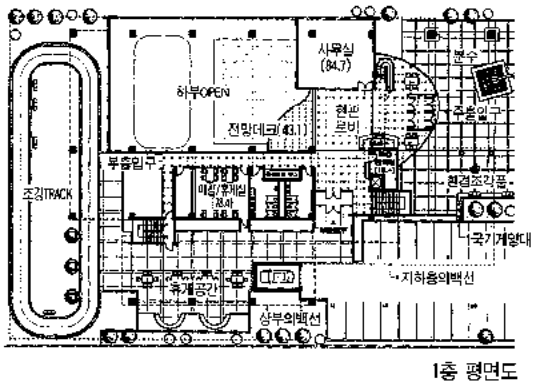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계획의 배경 및 목표

이 계획은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계획에 의거한 체육문화시설 신축을 위한 계획설계로서, 근로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양질의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체육시설은 단순히 장소의 제공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기본개념

-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며, 진입을 위한 활동적 외부공간 및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
- 대지로의 접근 및 진입시 복지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창출
- 이용자에게 친근감을 주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
-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수용하며 적극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

동선계획

- 차량동선은 보행자동선과의 엄격한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 지상부에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의 일부분을 지하에서 해결한다.
- 열주와 분수로 형성된 전면 광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입하면서 공간의 깊이감을 느끼도록 한다.

모든 동선의 진출입이 전면도로에서 이루어지므로 진출입 위치를 구분하여 동선의 혼란을 방지한다.

- 보행자를 위한 주출입구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출입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동선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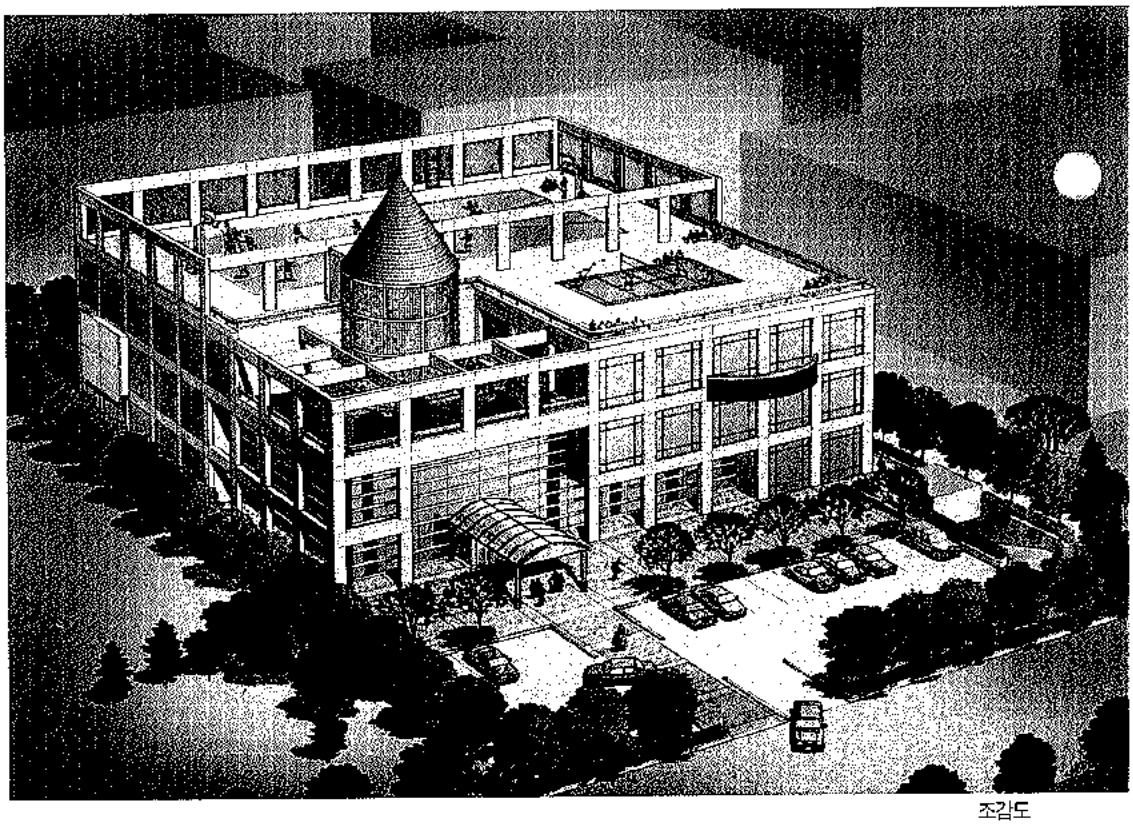
평면계획

- 수영장은 상부 2개층이 OPEN되어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측면 전체에 고창을 설치하여 밝고 개방된 느낌을 주도록 계획
- 로비의 상부 3개층을 OPEN 시킴으로써 개방감을 부여한다.
- 유리면에 의해 벽체가 이루어지므로 로비에서 내외부 공간의 상호관입이 이루어져 진입광장을 조망할 수 있다.
- 중앙로비는 수영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 테크와 바로 연결시켜 공간의 상호관입이 이루어 진다.
- 1층을 부분적으로 필로티(PILOTI)로 처리하여 옥외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실내 휴게실과 연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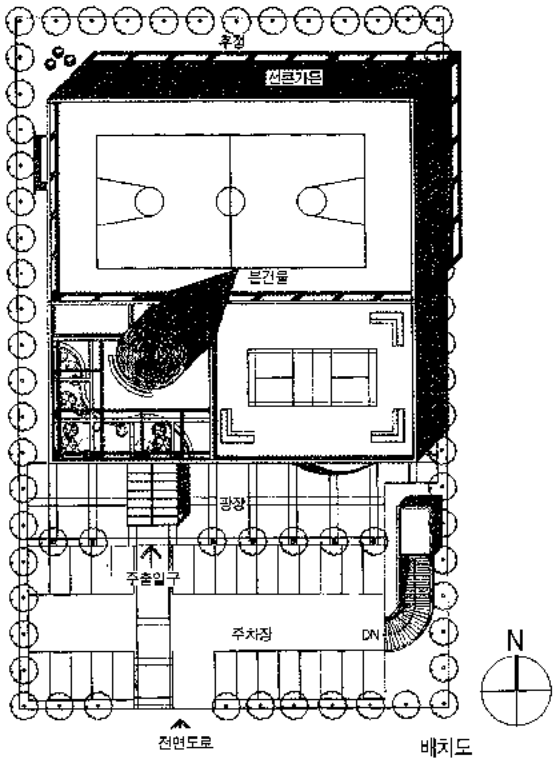
우수작

두우건축 (박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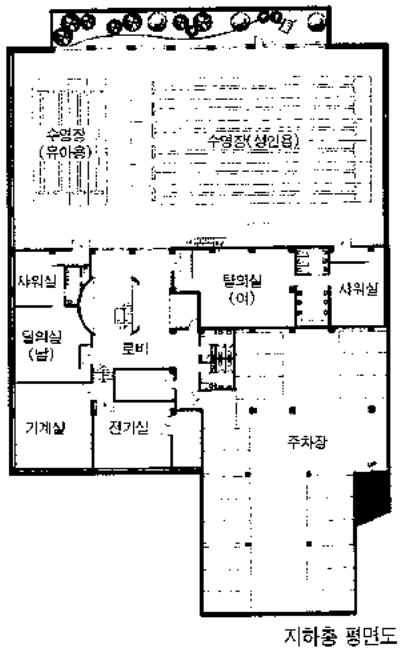
지역 / 일반주거, 준공업 지역
대지면적 / 3,285㎡(세로 73m, 가로 45m)
건축면적 / 1,395㎡
건폐율 / 42.5%
연면적 / 4,912㎡
용적률 / 149.5%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무기질 석재 뿜칠, 복층유리+알미늄 후레임
주차대수 / 48대(옥내 : 20, 옥외 : 28)
설비방식 / 난방-온수보일러, 판넬히팅
냉방-P.A.C



조감도



배치도



지하층 평면도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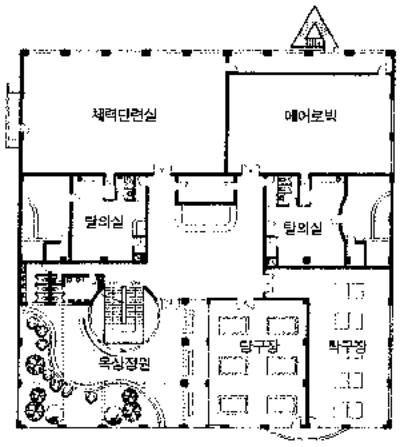
주차장-광장-본건물-후정에 이르는 배치의 체계를 설정한다.

광장과 주차장을 연접시킴으로써 다양한 행사에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선정될 부지에 적응하기 쉽게 한다. 충분한 전면공지의 규모는 잘 다듬어진 조경과 함께 건물의 정면성과 안정감을 부여할 것이다. 후정은 지하수영장에 양질의 빛과 바람을 공급하고 옥상층의 증축에따른 법적 일조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크기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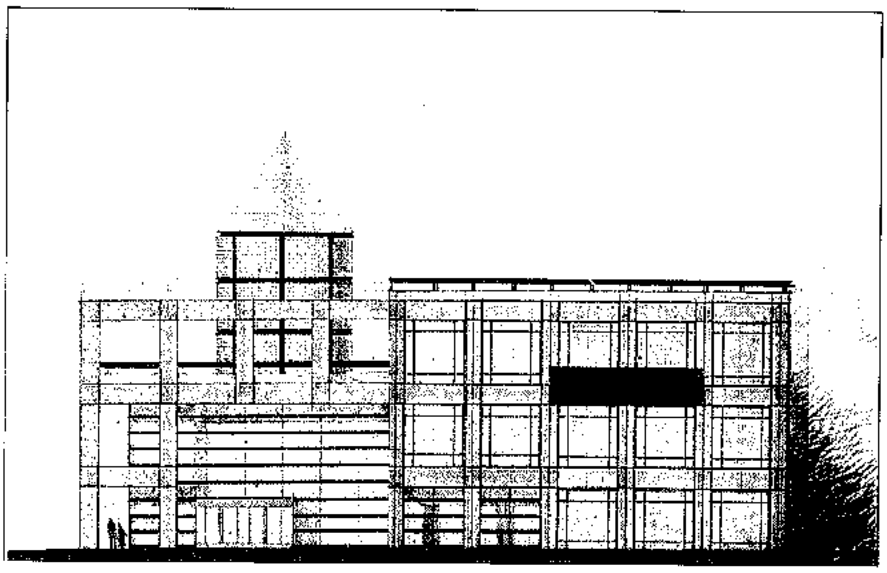
평면계획

이 시설을 구조적,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기본틀은 정방형의 격자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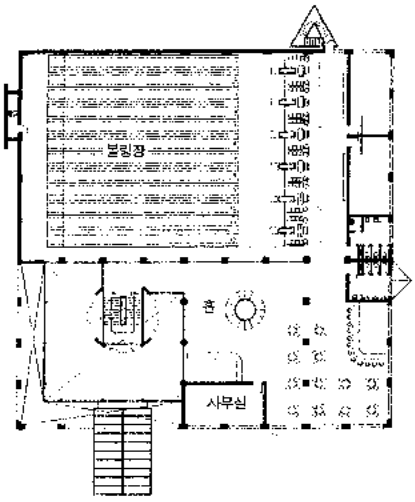
주어진 프로그램의 분석과 구조적 경제성에 바탕을 둔 기본틀의 중첩에 의해 정방형의 볼륨이 결정된다. 각 기능을 중심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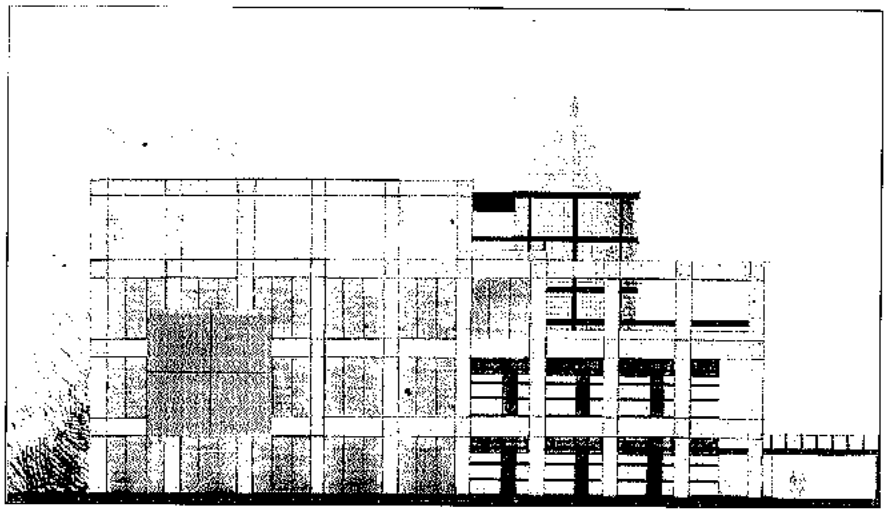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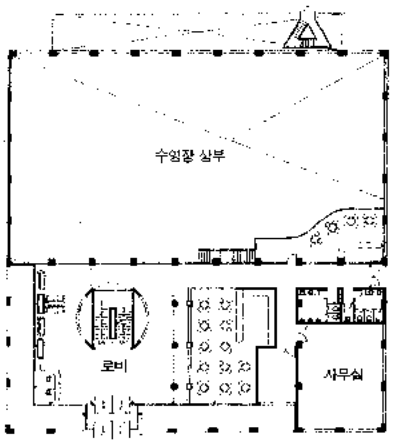
정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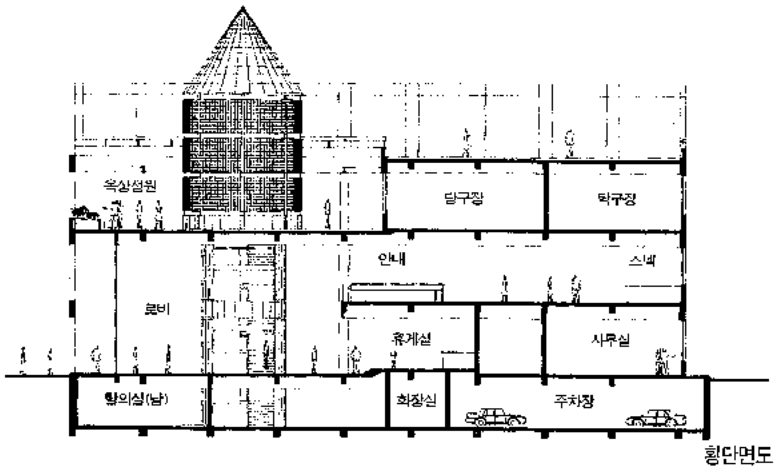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측면 스케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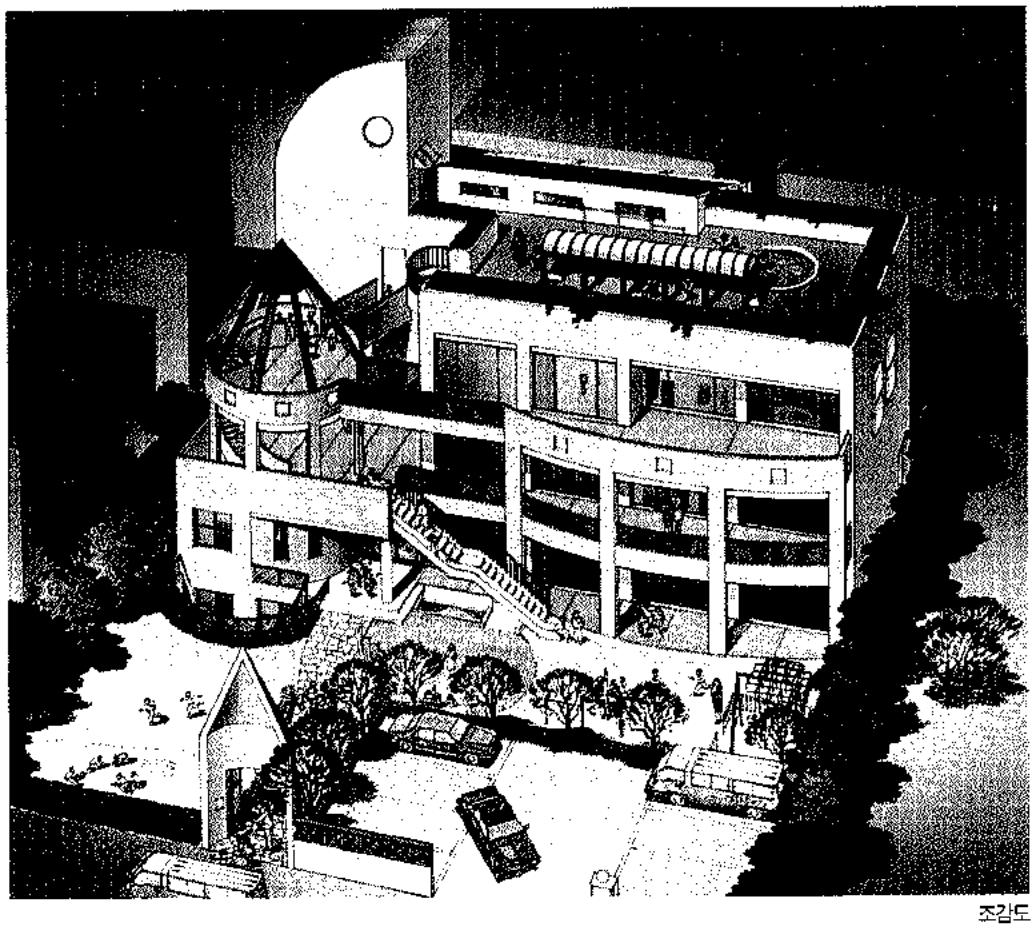
횡단면도

주공간, 부속공간으로 정의하고 배분하여 표준설계로서의 단순, 명료한 체계를 갖도록 한다.

전면에는 중심공간과 부속공간을, 후면의 큰 공간에는 수영장, 볼링장 등의 주공간을 동선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다. 중심공간에는 전층을 관통하는 원통형의 주계단을 놓아 내부동선의 결절점을 만들고 2개층 높이의 로비에 개방 배치하여 극적효과를 높인다. 평면상의 요소들은 보다 자유롭게 변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건축적공간을 이루게 한다.

단면계획

큰 공간이 필요한 수영장, 볼링장, 체련실 등을 적층 배치하여 구조적으로 통일성 및 경제성을 갖게한다. 주계단이 관통된 2층 높이의 로비는 중심공간에 걸맞는 크기를 갖고 시각적으로 각각의 부속공간과 연결되어 다양한 공간감을 연출한다. 옥상의 계단실에서 떨어지는 빛의 흐름은 환상을 더할 것이다. 지하수영장에는 대규모의 선큰가든을 마련하여 빛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3층 일부에도 옥상정원을 마련하여 기다리는 사람이나 운동에 지친 사용자에게 활력을 제공한다. 옥상에 체육관의 증축을 대비하여 기둥과 보를 미리 마련하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증축이 가능하다.



조감도

근로자 영유아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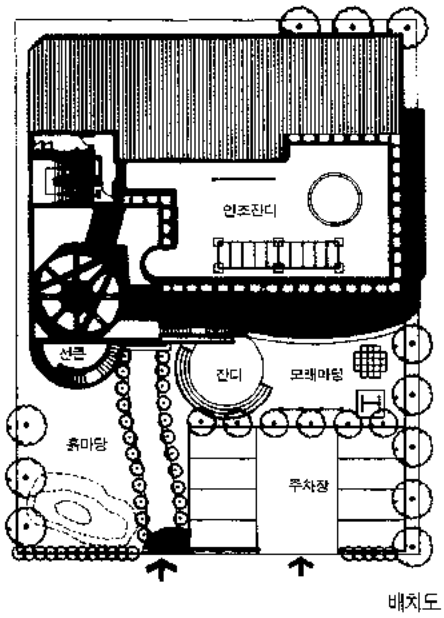
Kindergartens & Nursery Facilities for Laborer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체육문화시설과 함께 영유아보육시설건립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두우건축(박용수+손태옥)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총 8개 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아키텍건축안이, 가작에는 시 · 즘건축안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당선작을 게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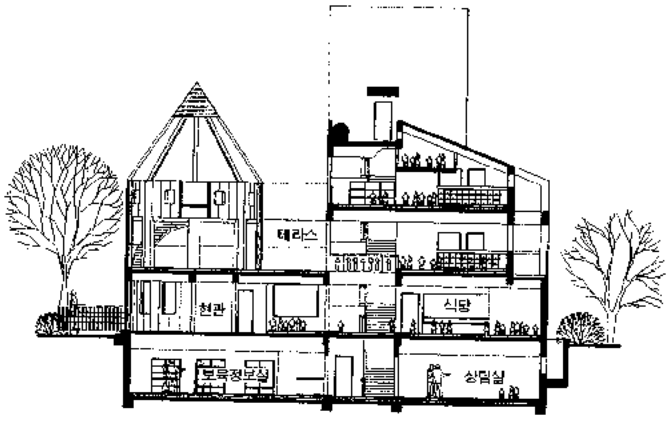
당선작

두우건축
(박용수+손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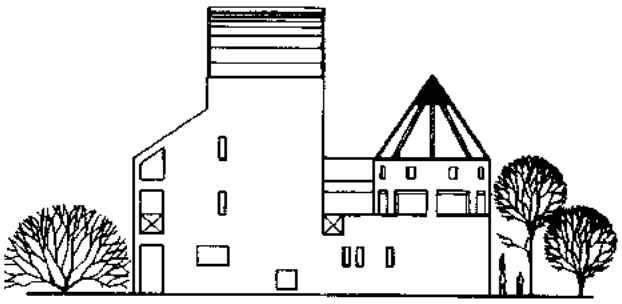
지역/일반 주거, 준공업 지역
대지면적/360평(1,200㎡ : 세로 40m, 가로 30m)
건축면적/512.1㎡
건폐율/42.6%
연면적/1,271.82㎡
용적률/105.9%
건축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 콘크리트 조
외부마감/무기질 석재 뿜칠, 목층유리+알미늄 후레임
주차대수/8대(옥외주차)
설비방식/난방 - 바닥 판넬히팅(온수보일러)
냉방 -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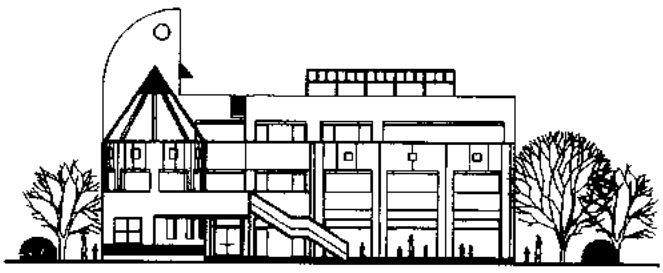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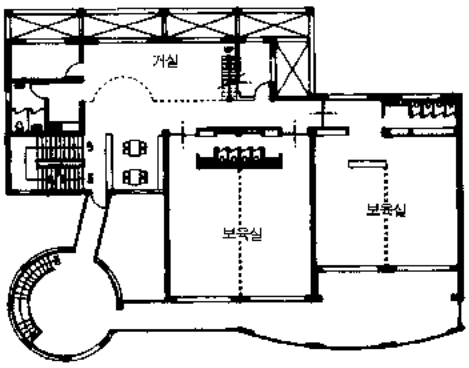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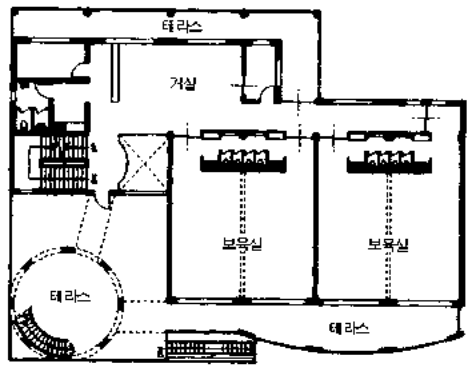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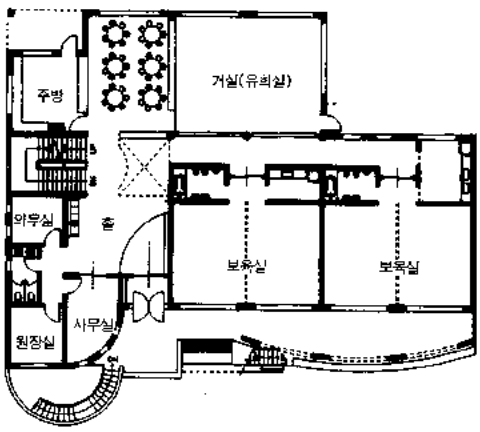
정면도



3층



2층



1층

평면도

배치계획

보육실-테라스-모래마당-흙마당에 이르는 놀이공간의 체계를 설정하고 이에따라 놀이시설을 적절히 배치한다. 건물의 후면에는 서비스마당과 영아전용의 놀이마당을 별도로 마련한다. 건물의 상층부에는 적극적인 옥외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지상과 연결시켜 대지의 효율을 높인다. 놀이시설들은 남향에 배치하여 충분한 태양광을 받게하며 한눈에 사무실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한다.

단면계획

유아들의 스케일에 적합하고 교사들의 사용에도 불편함이 없는 규모의 치수를 고려한다. 적절한 위치에 뜰림공간, 다락 등을 설치하여 상·하층의 연결성을 높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양한 행위를 이끌어낸다. 옥외의 테라스도 아래 윗층을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연결하고 계단을 둠으로써 높이의 변화에 따른 온갖 세상을 경험케 한다.

평면계획

공간의 분화와 다양한 경험의 질은 비례하나 현실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에서 공간의 중복적인 사용이 불가피하다. 식당과 유희실, 거실과 복도, 각 보육실들의 간막이벽 등을 가구와 가변벽으로 구성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인다. 보육실은 모두 남향에 배치하고 유희실도 충분한 빛이 들도록 배려한다. 실내공간을 다양한 옥외공간과 연계하여 풍부한 놀이의 형태를 경험케 한다.